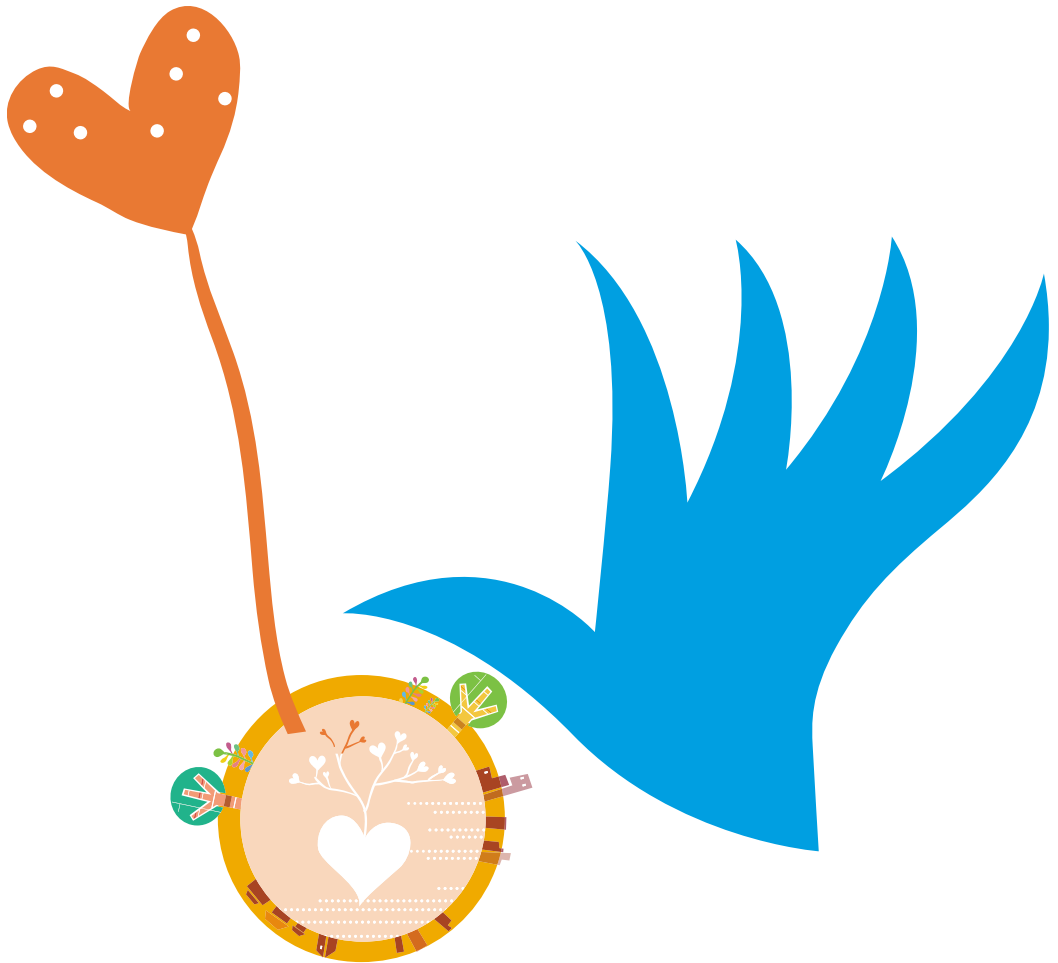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68-01-10

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사례집을 내면서

인권교육은 학교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바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육이며,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즉, 인권교육은 삶의 방편으로서 인권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같은 사람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의 이러한 특징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놓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점검하고, 다양한 입장을 절충하며, 결정된 원리를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인권상황에 적용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이래 학교 교육현장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인권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인간 존엄성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기 위해 의식과 제도를 어떻게 진보시킬 것인지 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교육 확산을 도모해왔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2008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한 학교 및 시민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인권교육 우수 실천사례로서, 인권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및 시민단체 인권분야 현장 교육활동가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인권교육 실천의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교육은 인권실천의 출발입니다.

목 차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 개요	7
다문화교육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13
■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먼 곳에서 온 이웃” -윤재희, 유향선	15
■ 남양주지역 다문화 인권교육 네트워크 현장 보고서 - 천마초 정창우	47
■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인권교육 - 애니고 박진홍	65
장애인인권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93
■ 사랑나눔미들의 아름다운 무한도전 - 안산해양초 이상용	95
■ 나와 다르지 않은 너, 그리고 우리 - 봉덕초 심은보	151
아동인권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183
■ 신문 활용 교육(NIE)을 통한 도서관 인권교육 - 이애리	185
■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 이은선, 임정민	231
■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 현산중	245

인권친화적 학급운영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301
■ 우리들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 음암초 서보화	303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 내초분교 하정훈	349
■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 열다섯 살의 우리 사회 다시 보기	
- 언남중 박희조	405
부록	425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 개요



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 개요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의 목적

학교 교육현장 및 인권관련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인 인권교육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인권교육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이래 매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열악한 인권교육 환경 속에서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교사와 시민사회 인권분야 현장 교육활동가들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인권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통해 인권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공모사업의 기본방향

2008년도 위원회 6대 중점과제(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아동·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빈곤계층 인권, 정보인권, 북한인권)와 연계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하였으며, 학교인권교육협의회의 구성원인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실천사례 발굴 및 실천대회 위상과 세부 운영방침에 대한 지역사무소 및 지역 관계자들과의 기획회의를 통해 지역 인권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

권교육 실천사례 공모 및 실천대회 행사가 인권교육 저변인구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개요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제2008-24호) : 2008. 5.~10.(6개월)
- 실천사례 접수 : 2008.10.01~27.(7일 연장)

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결과 총 34편의 실천사례가 응모되었으며 그 중 학교분야 26편, 시민사회분야 6편, 기타 2편으로 전년도 응모작품 수(26편) 대비 31%가 증가되었다. 학교분야 사례가 전년도 18편에서 26편으로 45% 증가되어, 학교인권교육협의회가 정례화 되고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보면 위원회 6대 중점과제 관련하여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함에 따라 장애인 인권관련 8편, 아동인권 관련 7편, 다문화 관련 5편, 북한인권 2편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관련 7편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사례가 응모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례가 수도권에서 응모한 사례로 인권교육의 지역 활성화 및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과 홍보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개요

주최	호남지역	영남지역	수도권(강원,충청 포함)
일 시	2008.11.24.(월)	2008.11.26.(수)	2008.12. 3.(수)
장 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부산교대	국립중앙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사례 발표(시연) 및 인권교육 기법 강연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인권교육 실천대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지역의 경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수행하므로 좀더 다양한 사례와 인권교육에 대한 첨예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실천대회가 되도록 기본적인 전체 틀 내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3개 권역별로 총 200여명의 해당지역 실천대회 발표자 및 해당지역의 교장·교사, 장학관과 인권교육전문가·활동가, 학생, 기타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개인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호남권 인권교육실천대회는 광주시 교육청의 공동주최 합의와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결함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논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여러 단위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그에 합당한 주제와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영남권 인권교육실천대회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캠프, 장애인식 개선, 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시연을 통해 인권교육을 느끼는 장으로 마련하였고, 인권 친화적 교수기법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내실 있는 인권교육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충청, 강원 포함) 인권교육실천대회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천 사례 발표가 이루어져 실천대회에 참여한 교장, 교사,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다문화, 아동 등 주제별 토론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2008년도 인권교육 우수 실천사례

위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역별 실천대회를 고려한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사례내용의 인권지향성, 헌신성, 독창성, 현장적용 및 파급효과의 심사기준으로 응모된 34편의 사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역별 실천대회의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분 야	초등학교(5편)	중고등학교(4편)	시민사회(3편)
장애인 인권(2편)	이상용 (안산해양초) 심은보 (청주봉덕초)		
다문화 교육(3편)	정창우 (천마초)	박진홍 (한국애니메이션고)	유향선, 윤재희 (배화여대 통합교육지원센터)
아동인권 (3편)		이응덕 (현산중)	이은선, 임정민 (성공회대) 이애리 (인권교육활동가)
인권친화적 학급운영 (3편)	하정훈 (해성초내초분교) 서보화 (음암초)	박희조 (언남중)	
북한인권 (1편)		송상섭 (안성고)	

실천사례 공모사업에 대한 총평

이번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는 2007년도보다 작품 수나 교사들의 참여는 높았으나 노동인권이나 학생자치 활동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으로 공모된 사례의 인권지향성이나 독창성의 수준이 높았던 '07년에 비해 장애인 인권교육이나 다문화교육 등 학교 현장의 개별주제에 집중되고 활동사례 위주로 인권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학교 현장 및 시민사회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모범사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분야, 장애인인권 분야, 아동인권 분야, 인권친화적 학급 운영 분야 별로 사례집을 편집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식 고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교육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사례: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먼 곳에서 온 이웃”



I .	서론	17
II .	본론	18
	1. 첫 단계 : 수업의 기획부터 초기 실행까지	20
	2.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	30
	3. "먼 곳에서 온 이웃"	40
	먼 곳에서 온 이웃의 다양한 모습	43
III .	제언	44
	현재 진행 중인 "먼 곳에서 온 이웃" 의 다양한 모습	46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례: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먼 곳에서 온 이웃”¹⁾**

윤재희 · 유향선 (배화여자대학 통합교육지원센터)

I. 서론

한국사회는 다양한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의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 정체성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단일민족”의 환상은 이주민의 삶에 무거운 그늘을 지우고 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그들 자녀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만 주류집단²⁾은 이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 (invisible people) 혹은 잠재적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 주류집단의 배타적 태도에 대해 2007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는 이미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을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규정하고 새로운 국가 이미지 건설을 위해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권고안은 주류집단 구성원의 태도와 가치체계의 변화가 언어·민족·

1) 소개된 사례는 2007-2008년 배화여자대학 산학협력단이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의 일부이다.

2) 이 글에서 주류집단이라 함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양부모를 가진 사람을 뜻한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이 공동체의 틀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주류 집단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소수자인 이주민과 그들 자녀의 인권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 교육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다문화교육의 방향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류집단 구성원의 소수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배화여자대학 통합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이유는 유아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타인에 대한 다양한 편견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센터는 유아가 자신과 다른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참여를 통해 다문화민감성이 높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II. 본론

유아를 위한 다문화인권교육은 2007년 11월 10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유치원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23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진행되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일 천명이 넘는 유아가 다문화이해교육에 참여하여 결혼이주여성과 짧지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2007년과 2008년 다문화이해교육이 각각 다른 부제로 진행되었는데 2007년은“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라는 부제로 2008년은 “먼 곳에서 온 이웃”이라는 부제로 진행되었다.

통합교육지원센터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강사들이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진행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실시된 다문화이해교육은 유아의 일상에서 도출된 내용을 다루기보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미리 계획된 수업 방향에 따라 진행된다.

강사진은 유아교육을 전공한 센터 측 강사와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수업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 수업은 유아의 질문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자면 유아가 강사의 피부색에 대한 질문



그림 1 강사가 유아들이 질문한 태국글자를 직접 칠판에 써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강사들이 유아의 요청에 따라 태국의 춤을 보여주고 있다.

(예: 왜 까매요?, 아프리카 사람 같다 등)을 한 경우 수업 참여자의 피부를 서로 비교하고 왜 피부색이 다른 지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다음은 유아의 반응에 의해 수업내용이 변화된 또 다른 예이다.

태국출신 다문화이해교육강사와 유아들이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 : (결혼이주여성의 말을 듣고 있다가) 어 말하는 게 이상해 (옆에 친구와 함께 강사의 말투를 따라하며) 이상해

센터강사 :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게 들리니?

유아 : 네. 이상해요

센터강사 : (다른 유아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유아들이 “네”와 “아니오”로 대답한다

강사 : 선생님은 한국으로 이사 와서 어른 때부터 한국말을 배워서 말하는 거 달라요.

...

교사 : 얘들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린다고 우리가 웃으면 선생님의 기분은 어떨까?)

(2008년 9월 17일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중에서)

3) 유아는 강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웃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 웃음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사진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유아가 낯선 문화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웃음으로 표현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의 상황은 수업에 참여한 한 유아가 강사의 발음이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강사가 그 이유에 대해 답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눈 내용이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강사진에 의해 선정된 교육내용을 다루지만 유아의 질문과 흥미 그리고 관심에 따라 진행되어 실시된 내용은 매우 다채로웠다.

1. 첫 단계 : 수업의 기획부터 초기 실행까지

1) 태국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

통합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통합된 유아교실에서 이들의 동반자가 될 주류 집단 유아의 변화를 목표로 다문화이해교육을 기획하였다. 센터는 수업을 함께 진행할 결혼이주여성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 기관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 내부 협의를 거친 다음 이 기관은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 모임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고 의사를 전해왔다.⁴⁾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 모임 대표, 기관 관계자 그리고 센터 연구원 등은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모임을 수차례 가졌다. 이 모임은 센터가 미리 정한 수업들에 답을 세부적인 내용을 결혼이주여성에게 문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동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기획하고자 마련되었다.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면서 센터는 일방적인 형태의 상호작용과 불평등한 관계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수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진행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첫 만남은 다문화교육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인 센터 강사가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는 숙련자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서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 형식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난색을 표현하였다.⁵⁾ 이들은 수업 참여자들이 상품 진열대에 전시된

4)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 모임을 다문화인권교육이 막 기획될 무렵 결성되었다.

상품을 훑어보고 가는 방식의 수업에서는 의미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관광객식 다문화교육”을 극복하고자 했던 통합교육지원센터는 이들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현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수업내용의 협의에 착수하였다.

센터는 수업내용을 선정하는 이주여성강사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센터는 수업을 15~20분 정도 길이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센터가 제공한 기본 정보를 고려하여 이주여성강사들은 60분 수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이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참조하여 태국의 돈과 국기, 지도 등 태국의 국가정보와 태국의 문화 (예: 전통의상, 전통 놀잇감, 축제 등) 체험 그리고 태국 음식 만들기를 수업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주여성강사들이 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센터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센터는 유아들의 참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형식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강사진과 센터는 유아가 실내에서 태국 놀잇감을 체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태국 동요를 배우는 활동을 대신 포함시켰다.⁶⁾ 둘째, 센터는 태국문화에 집중하는 수업이 진행될 경우 유아들이 강사를 “태국사람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는 결혼이주여성 강사진에게 자신과 가족에 대해 유아에게 소개할 수 있을 지 문의하였다. 센터는 강사와 강사 가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유아가 이들에게 보다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강사진은 센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사진을 소개하기로 하였고 사진을 준비하였다.

5) 첫 만남이 있기 전 이 기관의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에서 열린 다문화축제에 참여하여 태국 부스를 설치하였다.

6) 강사들이 선정한 태국 전통 놀잇감은 코코넛 열매로 만드는 “깔라”였는데 이를 체험활동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혼자서 사용하는 놀잇감인 “깔라”를 학습의 모든 유아들이 참여하는 게임으로 진행할 경우 약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실내에서 게임을 진행할 경우 유아들이 넘어지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깔라의 재료인 코코넛을 구하기 어려웠다. 한국에도 코코넛이 수입되지만 대체로 다 여물지 않은 것들이라 깔라는 제작할 정도로 딱딱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깔라”는 강사들이 소개하고 몇몇 유아들이 나와 활동방식을 직접 재현하는 정도로 수업에 포함시켰다.

2) 수업계획안

위에서 기술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수립된 다문화이해교육의 수업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1월과 12월에 실시된 수업은 이 계획안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⁷⁾

활동명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연령	만 4세 혹은 5세	예상시간	60분
활동목표	<p>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에게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언어·민족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생각해본다.</p> <p>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p> <p>다. 언어·민족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나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본다.</p> <p>라. 차이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p>		
활동내용	<p>■ 이야기나누기 (20분)</p> <p>활동자료: 가족사진, 태국과 한국 돈, 태국 국기, 태국 지도, 태국 전통의상 등</p> <p>① 인사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들과 인사를 나누는 다음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자신을 소개를 한다. • 한국과 태국의 인사 방법에서 발견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p>② 가족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사진 3~4장을 소개한다. 		



그림 3 강사가 태국식 인사법을 유아에게 소개하고 있다

7) 이 계획안의 일부 내용 중 특히 교사발문은 실제 유치원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된 계획안은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수업계획안에 소개된 사진은 이 계획안이 수정된 이후에 촬영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4 강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아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

- 유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③ 태국 전통의상

- 태국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5 강사가 태국의 전통의상을 유아에게 소개하고 있다.

- 태국 전통의상을 소개하고 한복과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유아가 태국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거나 몸에 대어보는 경험을 한다.



그림 6 유아가 직접 태국의상을 몸에 대어보고 있다.

④ 태국의 돈

- 태국 돈(백 바트)과 한국 돈(만원)의 복사본으로 만든 자료를 유아에게 보여주고 소개한다.



그림 7 강사가 한국과 태국의 지폐를 함께 유아에게 소개하고 있다.

- 태국 돈(백 바트)과 한국 돈(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두 나라 지폐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⑤ 깔라 : 태국의 전통 놀잇감

- 깔라를 유아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용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그림 8 유아가 강사가 보여준 갈라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 추측하고 있다.

- 강사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시범을 보인다.
- 유아가 직접 나와서 갈라를 해 본다.



그림 9 유아가 강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갈라를 체험하고 있다.

- 갈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본다.

★유의사항

강사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태국문화를 이야기할 때 유아가 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주의하였다. 유아가 이러한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 강사들끼리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다. 또 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면서 유아가 이를 현재의 모습으로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센터측 강사가 이주여성강사에게 질문하였다.

■ 태국 동요 배우기: 차양 (15분)

① 도입

- 유아에게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지 질문한다.



그림 10 강사가 태국어로 코끼리를 써서 유아에게 보여주고 있다.

② “차양” 들어보기

- 유아가 알고 있는 코끼리 노래에 대해 질문한다.
- 강사에게 태국에도 코끼리 노래가 있는 지 여쭙어본다.
- 강사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들어본다.

③ "차양" 불러보기

- 노래를 한 줄씩 부르고 그 뜻을 알아본다.
- 한 줄씩 따라 불러본다.
- 처음부터 "차양"을 불러본다.

④ 몸으로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기

- 강사가 노래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살펴본다.
- 강사가 표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그림 11 강사들이 노래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2 유아와 강사가 함께 차양을 부르면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회상하기

- 태국 동요를 배운 다음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유의사항

유아가 노래를 익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두 문화의 코끼리 표현방법이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 **동화듣기: 코끼리를 숨겨라 (10분)**

① 동화 소개하기

- 선생님들께서 코끼리 노래를 알려 주셨는데 코끼리에 대한 동화도 들려 주신대.
-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동화를 듣게 될 거야. 선생님들께서 한국 말과 태국말로 동화를 읽어주실 거야.



그림 13 강사들이 "코끼리를 숨겨라"를 한국어와 태국어로 들려주고 있다

② 태국어와 한국어로 동화 듣기

- (유아가 웃는 경우) 태국어로 동화를 들으니 재미있니?
- 너희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따라 하고 싶으니? 같이 해 볼까?

③ 동화 듣고 난 다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기

- 너희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따라 하고 싶으니? 같이 해 볼까?

★유의사항

유아에게 들려줄 적절한 태국 어린이 도서를 찾을 수 없어 이전 활동 "차양(코끼리)" 부르기와 연관된 소재의 동화를 선정하였다. 두 사람의 이주여성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한 사람은 한국어로 한 사람은 태국어로 동화를 읽는다. 대체로 동화감상 활동은 유아에게 조용히 할 것을 주문하지만 이 경우 유아가 강사가 태국어로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아가 강사들의 말을 따라할 경우 소리를 내서 따라 해도 좋다고 말해주었다.

■ 요리활동: 록썩 만들기 (15분)

준비물 : 간 녹두(태국산), 태국젤리, 코코넛오일(우유도 가능), 설탕, 소금, 식용유, 꼬치, 식용색소

- 미리 준비된 록썩을 보면서 필요한 재료를 알아본다.
- 록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본다.



그림 14 유아들이 록썩을 만들기 위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만든 간식을 함께 먹어본다.

3) 평가 : "왜 비행기 타고 안가요?" "태국 마사지 하는 사람 같다"

위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수업을 마치고 강사들이 마주친 유아들의 반응은 수업의 원래 의도에 비추어 매우 실망스러웠다. 첫째, 유아가 이주여성 강사를 외국인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여했던 다음 대화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007년 11월 첫 수업이 끝난 다음 유아와의 대화중에서

유아 : 끝났어요?

센터강사 : 응

유아 : 선생님들 가요?

센터강사 : 응

유아 : 어디요?

센터강사 : 저 선생님들은 집으로 가시고 나는 위에 있는 학교에.

유아 : 뭐 타고 가요?

센터강사 : 나는 저기 위로 걸어가고 선생님들은 아마 지하철 타고 가실거야.

유아 : 왜 비행기 타고 안 가요?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에 강사들과 센터는 수업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우선 강사진은 이주여성 강사의 의상이 태국 전통의상일 경우 유아에게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보다 편안한 복장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강사와 유아의 일상이 교차될 수 있는 점을 적극 부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가 가장 많이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던 강사의 자녀에 대한 소개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관련하여 센터는 강사에게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와 연령이 비슷한 그들의 자녀가 좋아하는 상업적인 장난감 (마법천자문, 바쿠칸, 요정라라 등)을 소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강사의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소개하는 것은 태국의 전통 놀잇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도입으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간식 록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았다. 맛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이 아니었지만 일부 유아는 자신이 만든 간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먹지 않았다. 또한 요리를 하는 것이 운영상의 어려움도 유발하였다. 조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실에서 요리활동을 할 경우 방문한 유치원의 교사에서 부담을 줄 수 있고 교실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간식을 강사가 집에서 준비하여 선물로 가져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

1) 변화내용

위에 언급된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결혼이주여성 강사진과 센터는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첫째, 수업내용에 유아가 이주여성강사를 보다 친

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변화된 내용에 걸맞게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라는 부제를 정했다. 이렇게 하면서 강사진과 센터는 유아가 결혼이주여성을 자신과 비슷한 또래 아이의 엄마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수업 목표를 공유하였다. 결혼이주여성 강사를 개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로 소개하는 것이 가부장적 시선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만 5세 유아와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이 다른 성인 여성 사이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둘째, 보다 많은 유아가 즐길 수 있는 간식 "독족"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유아가 직접 간식을 만드는 대신 간식에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간식의 생김새를 보고 유아가 연상한 사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유아가 강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확장되었다.



그림 15 태국간식 룩츨의 모습



그림 16 태국간식 독족 (꽃모양)의 모습

셋째, 결혼이주여성강사와 유아가 함께 점심을 먹거나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형식적인 교육활동 이후에 강사들과 유아들이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포함시켰다. 이 결정은 보다 오랫동안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강사들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었다. 동시에 이 결정은 유아기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기존 수업을 평가하여 내린 결정이기도 하다. 센터는 자체 평가를 통해 형식적 교육활동 (이야기나누기, 노래배우기, 동화듣기 등)이 유아에게 태

국 문화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성공적이지만 유아의 다문화민감성을 증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유아의 태도와 가치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 강사들과 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센터는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수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⁸⁾

2) 수업 보고서

활동명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 :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연령	만 4세 혹은 5세	예상시간	120분
활동목표	<p>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에게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언어·민족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해 생각해본다.</p> <p>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문화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본다.</p> <p>다. 언어·민족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나와 다른 점과 비슷한 점을 찾아본다.</p> <p>라. 차이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p>		
활동내용	<p>■ 이야기나누기 (20분)</p> <p>활동자료 : 가족사진, 태국과 한국 돈, 태국 국기, 태국 지도, 태국 전통의상 등</p> <p>① 인사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아! 내가 오늘 특별한 선생님을 모셔왔어.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 -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입니다, 나는 태국에서 태어났습니다,⁹⁾ 한국 남자 결혼했어요, 한국에 온지 6년 됐습니다, - 스와디카? 내 이름은 ○○○입니다, 한국에 온지 오래 9년 됐어요, - 애들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셨니?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스와디카, 여자는 스와디카, 남자는 스와디캡 이라고 해요, -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지? 그런데 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 손을 이렇게 모으고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이걸 연꽃 이에요, 		

8) 기존 활동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경우 강사진의 발문을 기재하지 않는다.

② 가족소개

- 준비한 사진과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 선생님은 한국 남자 결혼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산 지 7년 됐어요, 여기 선생님 아들 둘 있어요, 여기 선생님 큰 아들 △△△, 6살 됐어요, 너희는 몇 살이니? △△△ 보다 한 살 많구나, 여기는 작은 아들 ◇◇◇
- 선생님은 부천에서 왔어요, 지하철 타고 왔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은 애기 둘 있어요, 7살, 6살, 너희도 7살이니? 그럼 선생님 딸이랑 동갑이 네, 선생님 딸도 유치원 다녀요, 요즘 선생님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가져왔어요, 너희도 이런 거 좋아해요?
- 유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③ 태국 전통의상



그림 17 강사가 유아에게 태국 전통의상을 입은 딸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있다.

- 이 사진에 선생님 아들 다른 옷 입고 있어요, 태국 전통 옷
- 이건 태국 전통 옷이 예요, 이건 태국 보통 사람들이 입던 옷이 예요(옷을 흔들며) 소리 들리니?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엄마가 애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 왕, 왕 친척들이 입는 옷이 예요, 여기 금빛 반짝반짝하는 거 있으면 보통 사람이 입는 옷 아니예요,
- 선생님. 이런 옷을 태국 사람들은 요즘에도 매일 매일 입나요?
- 얘들아!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은 뭐라고 하지?

- 한복도 태국 전통 의상도 지금은 입지 않지만 특별한 날에 입는 게 비슷하네. 혹시 한복과 선생님이 보여주신 태국 전통의상에서 또 다른 비슷한 점을 찾은 사람 있니?

④ 태국의 돈

- 태국 돈(백 바트)과 한국 돈(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두 나라의 지폐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 이걸 태국 돈 100바트, 한국 돈은 비싸요, 태국 돈 100바트면 한국 돈으로 만 원짜리로 바꿀 수 있어요,
- 애들아. 선생님이 지금 돈을 뭐라고 하셨어?

⑤ 깔라 : 태국의 전통 놀잇감

- 깔라를 유아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사용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선생님! 이 상자 속에 처음 보는 물건이 있네요. 이것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실 물건인가요?
- 이걸 깔라 예요, 이걸 코코넛 열매예요, 속에 들어있던 하얀 거는 먹었어요, 잘라서 만들었어요,
- 애들아! 우리 한 번 생각해보자. 이 깔라는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
(유아들이 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사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시범을 보인다.
- 어떻게 가지고 노는 지 궁금해요? (강사들이 직접 사용 방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엄지 발가락에 줄을 끼워서 걷는 거예요
- 유아가 직접 나와서 깔라를 해 본다.
- 깔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본다.
- 그런데 선생님. 태국 아이들은 아직도 깔라를 갖고 놀이하나요?
- 네, 하지만 다른 장난감도 많이 있어요, 깔라는 옛날 장난감이 많이 없을 때 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지금은 블록이랑 인형 게임기 같은 것도 갖고 놀아요,

■ 태국 동요 배우기 : 차양 (15분)

① 도입

- 유아에게 좋아하는 동물이 있는 지 질문한다.
- 애들아! 너희들은 혹시 좋아하는 동물이 있니? 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동물이 있대.
- 어떤 동물이죠?
- (인형을 보여주며) 코끼리예요, 태국 아이들은 코끼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태국에는 코끼리가 많아요,
- 그런데 코끼리가 태국어로 뭐예요?
- 차양

② “차양” 들어보기

- 유아가 알고 있는 코끼리 노래에 대해 질문한다.
- 혹시 너희들은 코끼리 노래를 알고 있니?
- 강사에게 태국에도 코끼리 노래가 있는 지 여쭙어본다.
- 선생님! 태국 노래 중에 코끼리 노래가 있나요?
- 강사가 부르는 노래를 잘 들어본다.

③ "차양" 불러보기

- 노래를 한 줄씩 부르고 그 뜻을 알아본다.
- 우리가 태국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 줄씩 무슨 뜻인지 알려 주세요.
- 한 줄씩 따라 불러본다.
- 처음 부르는 노래라서 한 번에 부르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 다시 한번 한 줄씩 불러 주시겠어요?
- 처음부터 "차양"을 불러본다.

④ 몸으로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기

- 강사가 노래 가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살펴본다.
- 그런데 애들아. 선생님들께서 이 노래를 더 재미있게 부르는 방법을 알고 계신대. 어떻게 부르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하고 부탁할까?

- 강사가 표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도 한 번 따라 해 볼까?
- (강사의 율동을 따라하면서) 이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꼬끼리를 몸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니? 한 손으로 코를 잡고 다른 손을 그 사이로 넣어 손을 꼬아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시네.



그림 18 유아들이 몸으로 표현하면서 차양을 부르고 있다.

- ④ 몸으로 표현하면서 노래 부르기
- ⑤ 회상하기

■ 동화듣기 : 꼬끼리를 숨겨라 (10분)

- ① 동화 소개하기
 - 선생님들께서 꼬끼리 노래를 알려 주셨는데 꼬끼리에 대한 동화도 들려주시는데.
 -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동화를 듣게 될 거야. 선생님들께서 한국말과 태국말로 동화를 읽어주시길 거야.
- ② 태국어와 한국어로 동화 듣기
 - (유아가 웃는 경우) 태국어로 동화를 들으니 재미있니?
 - 너희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따라 하고 싶으니? 같이 해 볼까?
- ③ 동화 듣고 난 다음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기
 - 너희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걸 따라 하고 싶으니? 같이 해 볼까?

■ 간식소개 : 독족 (10분)



그림 19 강사가 미리 준비한 독족을 유아에게 보여주며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있다.

- 독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알아본다.
- 아까 봤던 깔라 만드는 코코넛 속에 있는 하얀 거로 간식을 만든다고 했지? 이거 만들었어요, 코코넛 가루로 만들어요, 밀가루, 계란 다 필요한 거 아니고 노른자만, 설탕, 소금, 그리고 여기 까만 점보어요? 뭐가 들어갔을까?

- 독족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 밀가루, 코코넛 가루, 설탕, 소금, 검은 깨, 노른자 다 섞어요, 물 넣고 반죽해요, 그리고 틀을 반죽에 넣어요, 그러면 반죽이 틀에 붙죠? 그러면 걸 기름에 넣어요,

- 유아가 나와 직접 간식의 맛을 보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 선생님이 많이 만들어 왔어요, 밥 먹고 하나씩 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맛을 보자, 한 명씩 누가 먼저 먹을까?



그림 20 유아들이 독족을 조금씩 맛보고 있다

■ 점심 (60분)

- 유아와 함께 점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유아들과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이야기 나눈다.



그림 21 강사와 유아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다



그림 22 점심을 먹은 유아와 강사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9) 굵은 글씨는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유아들에게 말한 내용을 문어체로 변형하여 기록한 것이다.

3) “선생님 토마스 알아요?” : 평가 및 유아의 반응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 유아를 위한 다문화인권교육”은 유아에게 자신과 다른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과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태국문화 소개에 중점을 둔 수업에서 강사와 유아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태국문화로 확장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유아는 태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강사와 관계 맺을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수업에 도입된 상업적 아동문화 (예: 장난감, 만화, 영화 등)는 예상대로 유아가 강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상업적 아동문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거의 교차하는 점이 없어 보였던 만 5세 유아의 삶과 30대 태국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유희왕”이나 “토마스”를 통해 조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점심 혹은 자유놀이 시간은 예상했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과 유아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침묵하던 유아가 점심을 먹으면서 강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일이 자주 목격되었다. 또 이 시간 유아의 질문은 태국문화에 집중되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과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을 연결하는 질문이 많았다. 그 한 예로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되었던 교육에서 대통령 선거의 참가여부에 관한 질문을 들 수 있다(2007년 12월 20일). 유아가 비형식적 교육활동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선생님! 어디서 살아요?”

“선생님 아들도 이거 (반찬) 싫어해요? 나도 싫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언제 왔어요?”

“선생님 아들도 이거(블럭) 잘 해요?”

“선생님 애들은 어떤 만화 좋아해요?”

“선생님 이거 (토마스) 알아요?”

“어떻게 한국사람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선생님도 매운 거 먹어요? 난 싫어요”

“선생님은 뭐 (음식) 좋아해요?”

“왜 까매요?”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있을 거예요?”

“내일도 와요?”¹⁰⁾

위 질문 중 일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말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는 유아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체로 강사 개인 혹은 그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비형식적 교육활동은 유아에게 강사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강사에게도 만족감을 주었다. 수업 후 평가회의에서 이주여성강사는 센터 연구원에게 자신이 유아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전하며 즐거워했다. 이주여성강사는 비록 한국식 유아교육에 익숙하지 않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유아와 비슷한 연령의 자녀가 있어서인지 큰 어려움 없이 유아의 질문에 답하였다.

3. "먼 곳에서 온 이웃"

2008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된 다문화인권교육은 "먼 곳에서 온 이웃"이라는 주제로 갖고 있다. 이 수업은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만 4, 5세 유아에게 어려운 개념이라 여겨지는 "이주"를 본격적으로 언급하는 점이다.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에서 유아가 강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매개가 강사의 자녀 혹은 상업적 아동문화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수업에서 두 집단을 연결시키는 매개는 유아와 이주여성강사가 공유하고 있는 삶의 경험 즉 이주이다.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를 유아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를 고민하면서 이주가 특정한 집단의 사람에게

10) 유아로부터 언제 다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이주여성강사들은 한번 방문했던 기관을 다시 방문하자는 의견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실적 이유로 재방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차선책으로 강사진은 방문했던 기관의 유아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방문강사들의 근황을 사진과 함께 보내는 방식과 영상편지를 제작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다.

국한되는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강사의 이주 경험과 유아의 이사 경험을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유사한 경험으로 소개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주여성강사는 수업 초반에 자신을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사 온 사람"으로 소개하고 유아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의외로 많은 유아들은 자신이 어디서 이사 왔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유아는 연령과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유아와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에 관한 경험을 나누면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많은 유아들은 이사와 관련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말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느꼈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사는 유아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을 때 느꼈던 다양한 감정 (슬픔, 외로움, 기대감 혹은 설레임 등)을 말할 때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유아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사는 유아에게 낯선 곳에 온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주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지 묻지 않았다.

이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강사진은 "한국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유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러한 대화는 이야기나누기는 물론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2008년 10월 9일 수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수업이 끝난 다음 이주여성강사와 센터 연구원이 함께 유아와 점심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아1 : (결혼이주여성강사에게) 선생님. 한국사람이에요? 태국사람이에요?

연구원 : 너는 한국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유아1 :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요.

연구원 : 그래?

유아2 : 우리 동네에 미국사람 살아요.

연구원 : 그래? (결혼이주여성강사에게)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이주여성강사 : 나도 한국에 구로구 오류동이요.

연구원 : 그러면 선생님도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사람이야?

유아1 : (생각하다가) 어. 한국말 하는 사람이요.

이주여성강사 : 나 한국말 하는데?

유아3 : 어. 한국말 잘 하셔.

유아1 : 피부가 하얀 사람?

연구원 : 하얀색? (책상에 놓여있던 티슈를 뽑아 유아의 팔에 대면서) 하얀색은 이 색인데 니 팔도 하얀색은 아닌데?

유아2 : (팔을 내밀면서) 나도 안 하예.

유아1 : 선생님은 까맣잖아요.

결혼이주여성 : (입고 있던 검정 바지에 자신의 팔을 대면서) 이 색은 검은색인데? 내 팔은 검은 색은 아닌데?

유아1 : 어우

이 예에서 나타나듯이 강사진은 유아의 강사의 인종 (race), 민족 (ethnicity) 혹은 국적 (nationality)과 관련된 질문에 단순히 답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가 구성하고 있는 “한국사람”에 대한 개념에 질문을 던졌다. 강사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아가 스스로 “한국사람”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에 대해 인식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 밖에 세부적인 변화는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강사진에 합류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먼 곳에서 온 이웃"은 한 유아교육기관에 출신국가가 다른 강사를 순차적으로 파견하여 하루는 태국문화 다음날은 몽골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수업을 진행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 문화에 따라 유아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강사가 진행하더라도 수업의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센터는 판단하였다.

먼 곳에서 온 이웃의 다양한 모습



그림 23 몽골출신 결혼이주여성 강사가 유아에게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24 유아가 강사에게 재미있는 수업에 고맙다면 선물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그림 25 강사가 유아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어주고 있다.



그림 26 유니세프가 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넉점반”을 강사가 읽어주고 있다.



그림 27 방문교육 전 유아들이 태국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교실에 전시해 놓았다.



그림 28 강사와 유아들이 바깥놀이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Ⅲ. 제언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한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유아에게 다양한 언어·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이들에 대한 권한 부여 (empowerment)를 이루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이 전체 사업에 공동의 협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내용의 선정은 물론 수업의 평가에도 꾸준히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개별 수업이 종료된 다음 센터 연구원은 이주여성강사에게 수업에 대한 평가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주여성강사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교육진행 강사로 초빙되기도 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의뢰받은 교육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사들은 의뢰받은 수업의 내용이 자신을 외국인으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을 경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먼 곳에서 온 이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교육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기 쉽다. 교육을 신청한 기관이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여성과의 만남이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되어 확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 따라서 방문교육을 신청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전·사후 활동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먼 곳에서 온 이웃”의 경우 “블루시아의 가위·바위·보”에서 착안하여 만든 “나의 이주역사 알아보기”를 가정의 도움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둘째, 아쉽게도 현재 진행되는 교육은 유아의 일상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최대한 유아와 이주여성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유아의 일상에서 출발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기관의 협조를 얻어 보다 장시간 유아와 만나는 형식의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11)

셋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령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 유아기가 바로 편견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선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교육은 물론 강사교육 매뉴얼 또한 필요하다.

이상에서 통합교육지원센터가 진행해오는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내 친구의 엄마를 만나요”와 “먼 곳에서 온 이웃”이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기획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제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두 사례가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고민하는 유아교사와 관련자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1) 연계활동의 제공보다 한 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방문교육으로 인해 일상적인 교육활동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현장 기관에서 호응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먼 곳에서 온 이웃” 의 다양한 모습



남양주 지역 다문화인권교육
네트워크 현장 보고서



I. 필요성 및 목적	49
1. 연구의 필요성	49
2. 목적	50
II. 현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용	50
1. 선정 근거	50
2. 현장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실제	52
가.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53
나. 천마초등학교 탐방	56
III. 결 과	62
IV. 참고문헌	63

남양주 지역 다문화인권교육 네트워크 현장 보고서

정 창 우 (천마초등학교 교사)

I.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등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2000년 이후 7, 8년이 흐른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이르면 따라 교육계에서도 이들을 위한 교육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문제로 소외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늘어남과 더불어 또래집단 형성, 사회 불만 표출 등의 형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커지고 있고 국내 학생들의 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피부색, 국적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해와 편견을 낳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1년 또는 2년 후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더 심화되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바로 지금,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에 다문화 직무연수를 받으면서 현장 탐방을 위한 지역 선정을 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학교, 지자체의 협조체제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진행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론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2. 목적

첫째, 남양주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의 조직,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인권교육 의 일반화

둘째, 다문화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의 천마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실태 및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다문화 인권교육 의 일반화

셋째,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천마초등학교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정과 유관기관 협조에 의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

II. 현장 네트워크 프로그램 내용

본 장은 지역 선정 근거 및 현장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선정 근거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4월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 자녀는 13,445명이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1,209명이었다. 경기도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2870명으로 전체의 21.34%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312명으로 전체의 25.80%로 집계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사회의 각종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본 팀은 다음과 같은 실태에 입각하여 탐방 지역 및 기관의 선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 통계 현황을 탐방 지역 선정의 근거로 삼았다. 지

역별 다문화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리·남양주가 410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지역은 399명, 부천지역은 32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천지역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만 37명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수는 가평지역이 전체 7,687명의 학생 중 256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평, 연천지역은 전체 학생수가 부천, 안산, 구리·남양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본 탐방 지역에서는 제외하였다. <표-1>로부터 안산과 구리·남양주 지역을 탐방 예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1> 지역별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수(주요 지역)

(단위: 명)

지역	학생수	국제				외국				총계	비율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부천	142,789	252	36	13	301	18	6	4	28	329	0.23
안산	133,350	311	37	9	357	35	6	1	42	399	0.30
가평	7,687	197	38	16	251	3	2	0	5	256	3.33
구리·남양주	114,350	299	73	26	398	5	7	0	12	410	0.36
연천	5,735	34	2	1	37	0	0	0	0	37	0.65

출처 : 경기도교육청. 2008학년도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계획

둘째, 외국인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았다. 외국인복지센터는 그동안 인권, 종교단체에 의한 임시방편적이고 산발적인 방법으로 이주 외국인을 지원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법제화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인권향상 및 이들이 정식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외국인복지센터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남양주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최초로 설립(2005년)되었으며, 2007년에는 수원, 시흥 등 두 곳에 추가 건립되었고, 안산, 화성 지역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팀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이 있고, 외국인복지센터 또한 설립·운영되고 있는 남양주 지역을 탐방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표-2〉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설립 현황

시 별	사업비 (억원)			규 모	운영 단체	개원일	거주 외국인 (명)
	계	도비	시비				
남양주	21	15	6	◦부 지 : 2,573㎡ ◦연면적 : 1,907㎡	성공회 살롬의 집	'05.10	5,221
수 원	21	15	6	◦부 지 : 296㎡ ◦연면적 : 993㎡	수원중앙 침례교회	'07. 3	16,667
시 흥	22	15	7	◦부 지 : 1,653㎡ ◦연면적 : 1,379㎡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07.11	13,804
안 산	30	15	15	◦부 지 : 2,534㎡ ◦연면적 : 1,828㎡	직접운영 (검토중)	'08. 2 (예정)	26,715
화 성	30	15	15	◦부 지 : 1,057㎡ ◦연면적 : 1,322㎡	민간위탁 (검토중)	'08. 9 (예정)	19,853

출처: 경기도청. 2008년도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2007. 12. 31 기준)

셋째, 남양주에서도 마석과 진접에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석은 인근에 천마초등학교와 성생가구공단이 인접해 있다. 천마초등학교는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다문화 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유관기관(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과의 긴밀한 협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학부모 연수 및 일반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탐방하여 다문화인권교육의 좋은 모델을 엿볼 수 있고, 교사들이 다문화가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탐방학교로 선정하게 되었다.

2. 현장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실제

앞에서의 선정 근거를 바탕으로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비율이 높은 남양주 지역을 탐방하게 되었다. 특히 공교육 기관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두 기관을 탐방함으로써 교육과 사

회적 환경과의 유기적 양상을 살펴보는 데 본 탐방의 목적이 있다.

가.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www.shalomhouse.or.kr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95-29)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의 센터 장과 방글라데시 외국인근로자 ‘샤니’씨를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은 크게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일반인의 인식전환을 위한 공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프로그램

남양주 '샬롬의 집'에서는 지난 2005년 복지관 개관과 함께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표-3〉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사업

영역	프로그램
교육복지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교실’ 운영을 통하여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 교육, 노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탁아·보육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탁아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울타리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활동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활동의 예로는 임금체불, 강제노동, 산업재해, 여성문제, 인권, 인종차별 등이다.
의료·복지	연세대학교 의료동아리, 아산병원, 한국외국인근로자 건강협회 등에서 매주 혹은 격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장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 현장방문 순회 진료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 10월 설립된 기관이다.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표-3>과 같다. 특히 탁아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에게도 한국에 안정된 정착을 위해 돕고 있다. 또한 센터의 특성화를 위해 컴퓨터, 요리, 사물놀이 등 문화정서 프로그램 위주의 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육활동, 취미생활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정서적 안정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다음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샤니'씨의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이다.

'샤니'씨는 복지센터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이 공장, 기숙사 등 생활터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 상해 및 작업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이 있다. 또한 교육복지 영역에서 컴퓨터 관련 영역을 배우고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내국인과 갈등 및 인권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언어소통,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통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소통, 임금체불, 폭력, 산업재해, 신분 불안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가족 간의 갈등, 자녀의 정체성 혼란, 자녀양육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 공교육 기관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교육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성생가구공단'을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천마초등학교와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마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등하교길에 외국인을 보는 일이 일상과도 같다고 한다. 이에 학교와 센터는 어린이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지우도록 하는 데에서 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다음은 두 기관에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구촌 한 가족의 날’ 운영

외국인 근로복지 센터와 천마초등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지구촌 한 가족의 날’에 강사로 초청하여 이들 나라의 역사와 전통, 풍습, 언어, 자연환경 등을 보다 생생히 체험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5월15일에서 29일까지 5명의 외국인 강사진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혀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 한울타리 방과 후 공부방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과제물 및 학습지도를 도와주며, 요일별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는 20명의 어린이가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 다문화 테마 동영상 자료 제작

외국인 근로자 복지 센터 주최, 남양주 천마초등학교의 협조 및 촬영으로 다른 나라의 고유 명절 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화축제 Migrants' ARIRANG에 남양주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천마초등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참가했다고 한다(2008. 5.11) 이렇듯 대외행사에 참여하고 나면 다문화의 이해 활동을 돕는 다문화인권교육 관련 나라별 테마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조화롭게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고 한다.

라) 다문화 영상문화캠프

남양주지역 초등학교 교사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영상문화캠프를 실

시하였다. 다양한 문화의 체험과 교류를 목적으로 2008년 7월 26일 ~ 27일(1박 2일) 가평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다. 본 팀의 발표 자료에 정창우선생님(천마초등학교)이 제작한 동영상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마) 남양주시 다문화 청소년 캠프 및 지역 다문화 축제

'MULTI-WORLD'를 향한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청소년 문화캠프라는 테마로 8월 15일 ~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캠프를 통해 아시아 공동체의식을 기르고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 남양주 시청의 지원과 복지센터의 시행, 천마초의 협조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나. 천마초등학교 탐방

(<http://www.cheonma.es.kr>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72-5)

1) 필요성

천마초등학교는 인근에 위치한 '성생가구공단'으로 인해 학생들이 낯선 외국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18명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학생들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2008년 화음이(다문화)가정 자녀들뿐만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화음이(다문화) 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다양한 화음이(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결손 해소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타 지역과는 다르게 인접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와 학교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을 지도할 우리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를 탐방하고자 결정하였다.

2) 목적

첫째, 학교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인권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계 바람직한 유관기관 협조체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실태 및 분석

가) 화음이(다문화 가정학생) 실태

- 1학년 8명, 2학년 2명, 3학년 6명, 5학년 2명, 총 18명
- 학부모 출생국은 중국7, 일본3, 필리핀2, 몽골1, 베트남1
- 기초학력은 우수 2명, 보통 9명, 부진 5명, 정신지체 1명
- 피부색이나 언어의 미숙으로 놀림 받을 것을 걱정

나) 일반 학생 실태

-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을 느낌 (43.6%)
- 타문화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가진 아동 (8.8%)

다) 실태분석

- 점차 화음이(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세
- 피부색이나 미숙한 언어전달로 놀림 받을 것을 걱정
- 한국문화의 적응력 부족으로 사회 교과 성취가 떨어짐
- 일반학생들은 외국인에 친밀감을 느끼나 피부색과 못 사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큼
-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갖지 못함

4) 운영의 설계

가) 대 상 : 초등학교 학생 1540명(외국인 부모 자녀 18명 포함)

나) 기 간 : 2008 .03 .01 ~ 2010 .02 .28(24개월간)

운영과제 1. 화음이(다문화)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가. 화음이(다문화)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 1) 특별실 환경 보완 : 기존 어학실, 상담실 등을 특별 체험의 장소로 구성
- 2) 실내 환경 조성 :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위한 테마별 구성



나. 화음이(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1) 학교 홈페이지
- 2) 도서관 정비
- 3) 어학실을 화음이(다문화) 교실로 활용



다. 화음이(다문화) 교육 이해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 1) 교원연수 :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다문화 이해 연수
- 2) 학부모연수 : 화음이(다문화)가정과의 연계방안으로 가정통신문, 학교홈피활용, 학부모 공개수업 참여



운영과제 2. 화음이(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화음이(다문화) 개인별 상담활동(개인별 상담카드)

개인별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아동의 개인생활, 학교생활을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을 누가 기록하여 2달에 1번씩 심층면접과 상담을 통해 내용을 침삭하고 있음

다문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기초 조사

천마초 교육연구부

담당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작성하여 주시면 아동 학습지도 및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가정생활은 전화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물어봐주시고 부모나 아동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	구분	유의내용	내용
3학년 1반 이름 000	학업성취도	저학년은 읽기 쓰기 말하기로 구체적인 기술 고학년은 중간고사성적을 중심으로 기술	기본 책읽기를 끝내고 주제적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나 한글을 소리나는대로 적으며 맞춤법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학교생활	교우관계 성취에 별 동등도덕 준수정도 중	명랑쾌활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있으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양보할 줄 모르고 공동도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나 아직 미흡함.
	가정생활	고치기 어려운 비록, 가정 내 문제 상황, 교권, 부모와의 관계 등 (우도화하여 답변을 도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움은 모르고 어머니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좋아함. 고음이 있다면 어머니와의 언어소통이 좀 어려운 걸이라고 하나 큰 문제는 안됨.
	본인의 고민	걱정 물어 보지외 아이의 태동이 열렬 상태에서 이마기 할 수 있도록 부딪도입니다.	고민되는 것은 없고 어머니가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지못하므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으나 그리 문제될만큼은 아님.
	담임 교사의견	아동의 단점이나 장질 정서적정 거제관 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으나 명랑하고 리리하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압니다. 강력희망은 촉구전수입니다.

저학년은 - 학업성취도에 구슬기목

과목	3월 진단 평가 성적				4월 중간고사			
	국	수	사	과	국	수	사	과
점수	85	100			65	90	9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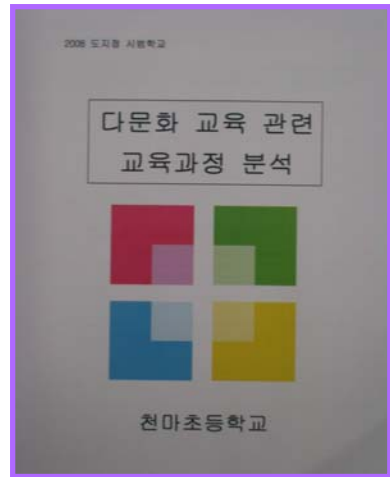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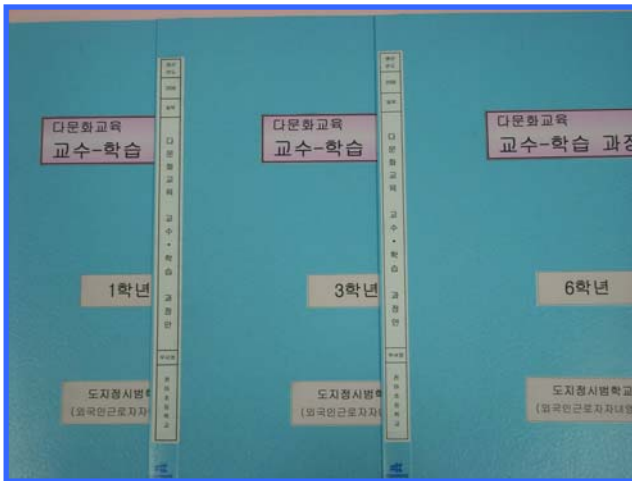
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 1) 개인별 학습 보충 및 심화 프로그램 운영
- 2) 저학년-한국어 학습과 기초 학습능력 신장 중점
- 3) 고학년-수준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주 2회)



다.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화음이(다문화) 이해 교육

- 1) 교과별 화음이 관련 내용분석추출
- 2) 화음이 관련 재량활동 시간확보
- 3) 재량활동 교수학습과정안 작성활용



운영과제 3. 다양한 화음이(다문화) 체험활동 운영

가. 화음이(다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 활동

- 1) 화음이(다문화) 이해 자료집 제작
- 2) 화음이(다문화) 테마 동영상 자료 제작
- 3)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구촌 한 가족의 날’ 운영



나. 화음이(다문화) 가정 자녀 체험 활동

- 1) 우리 고장 문화 체험 활동
토요일휴업일 또는 방과 후에 우리 문화체험활동으로 우리고장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공동체 의식 함양토록 지원
- 2) 화음이 가정 어머니 교육 강사활동
- 3) 화음이 이해 관련 체험사례발표
- 4) 화음이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 (월 1회)



5) 기대되는 성과

- 첫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 둘째, 화음이(다문화 가정학생)학습 결손해손 및 적응력을 향상킨다.
- 셋째, 일반가정학생의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한다.

Ⅲ. 결 과

공교육 기관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 화도읍의 두 기관을 탐방함으로써 교육과 사회적 환경과의 유기적 양상을 살펴보는 데 본 탐방의 목적이 있었다.

남양주에서도 마석과 진접에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석은 가구공단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3,000명까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많이 빠져나가고 약 1,00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생활이 열악하다고 한다. 공단 내의 녹촌분교에는 외국인근로자 아이가 한 명 다니고 있으며, 천마초등학교는 현재 국제결혼자녀만 18명 재학 중이라고 한다. 천마초등학교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또한 가능한 것이다. 중국인보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 많다고 한다. 공단 내에 금곡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있는데 언어 문제도 없고 학교생활도 잘 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까지 와있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90%정도가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얼마 전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오면 피하다가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천마초등학교는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다문화 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유관기관(지자체,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과의 긴밀한 협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학부모 연수 및 일반학생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와 학교가 연계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탐방하여 다문화인권교육의 좋은 모델을 엿볼 수 있었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지원과 학교와 연계된 좋은 프로그램의 운영도 좋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와는 상관없이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다문화주의에 첫 발걸음을 잘 내딛는 길이 아닐까 싶다. 외국인 주민도 우리와 한 곳에서 살아가는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함·'다문화 감수성'을 기르는 첫 걸음이 되며, 상호 이해와 증진을 통해 그들과 융합하고 배려하

려는 자세야 말로 다문화가정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끄럽지 않은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양주 복지센터, 마석가구단지, 그리고 천마초등학교의 연계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도 소수 민족이 자아정체성을 느끼며 다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지자체가 연계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IV.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08학년도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계획
경기도청. 2008년도 거주외국인 종합지원 계획
교육부(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특별활동
교육인적자원부(2003).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사회과
교육인적자원부(2006).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김성곤(2006). 다문화 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김현덕 외(2005). 교실에서의 국제이해교육. 교육과학사
이삼열 외(2003) 세계화 시대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장수초등학교(2006).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
전라북도 순창교육청(2006). 순창골 한마음 운동 추진계획(온누리안 가족 보듬기)
전라북도교육청(2006). 국제결혼 가정 도움 계획
한건수(2006). 다문화사회 교육을 위한 제안, 다문화 사회의 교육. UNESCO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양건열(2002).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정정희(2006). 결혼이주여성 자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원 방안, 경북대학교.
대구구지초등학교(2006). 다문화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초학습능력 증진 및 문화정체성 형성,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시범학교운영보고서.

경남안남중학교(2007). 우리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정체성 강화, 다문화인권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서.

부산주감초등학교(2007). 월별 ‘다문화의 날’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서.

www.shalomhouse.or.kr 남양주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인권교육



1. 사회과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미	67
2. 인권교육의 목표	67
3.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인권 수업	68
4. 다큐 제작 과정 및 유의점	69
5. 다큐제작을 위한 기자재	70
6. 다큐 제작의 이점 및 평가·개선	71
7. 인권교육 학습 지도안의 실제	72
참고문헌	92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인권교육

박진홍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사)

1. 사회과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은 사회과의 궁극적 교육목표라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력과 고급사고력 등을 통한 민주시민성교육이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매우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인권’이 역사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그 외에도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교과간의 경계를 뛰어 넘고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권교육의 목표

대개의 교육적 접근처럼 실제의 수업에서 인권교육은 지식적, 기능적, 가치적 측면에서 다가설 수 있었다.

지식적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뽑아 다학문적 측면에서의 지식적 접근을 한 것이었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책이나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인권에 관한 정보 등을 찾아 분석 및 해석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교육은 지식적,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적 측면, 즉 인권을 소중히 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한적이지만 다큐 제작을 통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다큐제작은 그 과정이 지식과 정보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에 대해 표현하고 창작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다큐제작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 기능적 측면의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과정 속에서 바람직한 가치 내면화를 이룰 수 있다.

3. 고등학교 사회과에서의 인권 수업

인권교육을 위해 실시한 첫 번째 수업은 지식위주의 수업으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2~3학년에 배우는 선택과목의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 『국사』 교과서에서 인권관련 요소를 뽑아 통합적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고1 『사회』와 『국사』 교과서에서는 서양의 시민혁명과 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갑오동학 농민 운동, 항일 독립 운동, 4·19 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중항쟁 등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인권의 지식적 측면을 찾아보았다. 이로써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시민운동을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데올로기적 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노동자 인권 등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문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그 해결책 등을 찾아보고자 했다. 『정치』와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이라는 주제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을 학습하고자 했다.

두번째 수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익광고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를 학생들과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2~3번 정도 본 후 그 영상을 학생들과 토론하며 학습하였다. 공익광고 동영상을 제시하여 함께 보고 그것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으며, 학습지도 만들어 빈칸도 채워보고 말미에 광고문안 등을 작성하는 수행평가도 실시하였지만 첫수업과 같이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꼈다. 그

것은 주로 지식과 기능적 측면의 것이었고 실생활과는 유리된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이상의 두 가지 수업은 인권교육의 지식적, 기능적 측면에서는 의미 있겠지만 과연 학생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이나 가치, 신념 등이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었을 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다큐 제작을 통한 인권 수업을 구상하였다.

4. 다큐 제작 과정 및 유의점

다큐제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문제제기 및 주제선정→주제발표 및 팀구성→계획서 작성과 대본(설문) 및 콘티 구성→발표 및 토론→촬영 및 편집→발표 및 평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학생들이 다큐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관련 지식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각종 정보 등을 찾아 분석한 후 발표와 토론을 거치게 된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평가 및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겪게 되고, 이후에는 그것을 기초로 실제의 제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지식, 기능, 가치의 모든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세한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제제기 및 주제선정 : 1학기 또는 1년을 단위로 교사가 주제를 제시하거나 학생들 스스로 주제(1개 이상 가능)를 정한다.
- 2) 주제발표 및 팀구성 :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하고 팀(주제가 1개 이상일 경우 각자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팀구성)을 짜본다. 팀은 촬영 및 편집에 필요한 최소 인원 2명에서 최대 6명 정도까지 가능하다.
- 3) 계획서 작성과 대본(설문) 및 콘티 구성 : 주제와 팀 구성이 이루어지면, 팀이 주축이 되어 제작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맞춰 대본이나 콘티 등을 구성한다. 이때 학생들 스스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나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 떠오를 수 있도록 교과서나 신문,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티는 다큐제작의 특성상 생략이 가능하다.

- 4) 발표 및 토론 : 대본이나 콘티 등을 수업시간에 발표함으로써 여러 학생들의 공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업시간에 2번 정도의 발표를 추가함으로써 부족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도록 한다.
- 5) 촬영 및 편집 : 주말 또는 방학 등을 이용하여 관련 기관이나 인터뷰 대상자와 사전 약속을 한 후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한다. 이 때 날짜별 일정표를 작성하여 촬영 장소와 현지 연락처 등을 사전에 기록하고 준비물 목록표 등을 작성하여 팀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인터뷰는 누가? 어디에서? 어떤 질문으로 할 것인가? 등 사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촬영 중에도 팀원 간에 의견을 계속 교환하여 촬영 이후 중요한 것을 간과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6) 발표 및 평가 :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팀별로 학급에서 영상을 발표하고 평가함으로써 다큐제작을 마친다.

다큐 제작에 대한 계획서는 상황에 따라서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서는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관련 시설이나 전문가와의 인터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는 통화가 안되면 섭외 자체가 안될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계획과 일정을 잘 구상해야 할 것이다.

5. 다큐제작을 위한 기자재

영상의 편집을 위해서는 컴퓨터, 촬영을 위한 캠코더, 캠코더가 없을때 그 대안이 되는 디지털 카메라나 그 기능이 있는 핸드폰 등이 있으면 될 것이다.

영상의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Adobe사의 Premiere나 Sony사의 Vegas가 있으면 충분할 것이고, 없을 경우에는 Micorsoft사의 Windows 운영체제(XP)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Windows Movie Maker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6. 다큐 제작의 이점 및 평가 · 개선

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다큐를 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단순히 나열만 하여도 그 과정에서 몇 번씩 관련 내용을 학생들이 되새겨 보게 되므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인터뷰한 것만 모아서 함께 보아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수업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다큐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편집기술의 숙련 정도는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관심만 있다면 몇 시간 정도의 투자로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전문적인 편집 기술을 위한 연수도 찾아보면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큐제작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 영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교과서나 신문 등에서 제시되는 단편적인 내용 이상의 더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팀단위로 만드는 것이어서 협동학습이나 노작교육도 가능하게 되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벗어나 표현하고 창작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가치내면화에 바람직하다.

학생들도 오늘날 UCC가 보편화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영상물을 만들 수 있고, 직접 만든 것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널리 보급된 디지털 캠코더(또는 디지털 카메라)와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학교 수업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다큐제작을 통한 인권교육은 여러가지 의의도 있겠지만 개선할 점도 있어 보인다.

첫째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영상 제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교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는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다큐를 만든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고,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실상 다른 결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인터뷰 확보나 전문가 섭외 자체가 쉽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7. 인권교육 학습 지도안의 실제

인 권 교 육 학 습 지 도 안

□ 단 원 개 관

사회과에서의 민주 시민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 타인 배려,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세계시민으로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외국인 노동자, 흑인, 혼혈인들의 실제 생활모습과 역사적 사실, 각종 인권선언문을 통해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알아 지구촌의 인권, 인종 등의 갈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관 련 단 원

고1 『사회』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발전, 고3 『정치』 시민생활과 정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교과서	영역	주 제	내 용 요 소
사회	VI. 시민혁명과 시민사회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 ○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이해 ○ 한국의 미래 시민 사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혁명 · 시민 사회의 발전
정치	I. 시민생활과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의 이념
	III.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이념과 원리 ○ 국민의 권리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존중의 이념 · 기본권의 본질

TOPIC. 1 :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 알아보기¹²⁾

□ 수업 목표

- ① 지식 목표 : 인권에 관한 오늘날의 주요 현장, 역사적 사건과 의미 등을 통해 인간의 권리들을 안다.
- ② 태도 목표 : 인간존엄의 가치를 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③ 기능 목표 : 비판적 분석 자료 및 정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해결 극복하고 참여할 수 있다.

□ 수업 내용 및 전개

수업 전개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방법	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대한 개념과 흥미 유발 : 인권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이 인정받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고 더욱 소중히 한다. 	강의법	5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 및 프랑스 인권선언 내용 소개 : 3대 시민혁명의 의의를 설명하고, 프랑스 인권선언문(자료1)과 미국 독립선언문(자료2)을 통하여 인권의 의미를 찾고 인권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한다. 	탐구학습 ppt자료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의 역사적 사건(자료3. 동학농민운동, 자료4. 일제시대 인권, 자료5. 민주화의 열기-3.15부정선거 및 4.19혁명, 10월 유신,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그 흐름을 이해하고, 프랑스 인권선언문·미국 독립선언문·대한민국 헌법 전문(자료6)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발표한다. 	탐구학습 토론학습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인권 선언 전문(자료6) 소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前文)을 둘씩 짝을 지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추측해서 넣어본다. ② 돌아가며 한 단락씩 발표하고, 각 단어가 전문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한다. 	협동학습 토론학습	10분

12) Topic 1은 인권교육을 위해 실시한 첫번째 수업으로 지식위주의 수업임. 고등학교 1학년 『사회』, 2~3학년에 배우는 선택과목의 『사회문화』, 『정치』, 『법과사회』, 『국사』 교과서에서 인권관련 요소를 뽑아 통합적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함.

수업 전개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방법	시간
수행평가 및 차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선언문에 관한 광고 만들기 or 인권 관련 퀴즈 차시예고 :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조사하기, NGO 조사해 오기 	개별학습	15분

□ 학습 자료

❖ 자료 1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프랑스 인권 선언문)



그림 1. 인권선언문.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선언한 인권선언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함께 인류 사상 불후의 기념비라 할 만하다. 전문 17조로 되어있다.

제 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제 2조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 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명백히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 사상 및 언론의 자유로운 교환은 가장 소중한 인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이 제시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 자료2 : 미국 독립선언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받았고, 여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은 정부를 수립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 자료3 : 동학 농민 운동(폐정개혁안 12개조)

- ①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숙원을 없애고 공동으로 서정(庶政)에 협력할 것
- ② 탐관오리의 죄상을 자세히 조사 처리할 것
- ③ 횡포한 부호를 엄중히 처벌할 것
- ④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할 것
- ⑤ 노비문서를 불태울 것
- ⑥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의 머리에 쓰게 한 평양립(平壤笠)을 폐지할 것
- ⑦ 청상과부의 재혼을 허가할 것
- ⑧ 무명의 잡부금을 일절 폐지할 것
- ⑨ 관리 채용에 있어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 ⑩ 일본과 상통하는 자를 엄벌할 것
- ⑪ 공사채(公私債)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면제할 것
- ⑫ 토지는 균등하게 분작(分作)하게 할 것



그림 2. 동학 농민군의 백산 봉기(민족 기록화)



그림 4.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는 학생들. 일제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게 충성을 다합니다." 등의 황국 신민 서사를 외우게 하였다.

❖ 자료4 : 일제시대 인권



그림 3. 의병 부대의 모습. 유생·군인·농민·상인·포수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대일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림 5.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 토목 노동자들의 참혹한 모습.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리고, 등의 상처는 썩어서 심해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조선말을 쓰면 한 끼의 밥을 줄여 버렸다. 밥이라고 해도 콩을 찌서 안남미와 섞은 것이었다. 국은 소금국으로, 건더기가 없는 것이었다. 목이 말라 강 내의 붉은 물을 마시면 설사를 심하게 하였다. 그래도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다. 술이나 담배, 약품 배급은 조(租)에서 가로채 배를 채웠다. 당시 하루 임금은 2원35전인데, 합숙소 값으로 1원 50전을 떼었다. 거기에다가 매일 떨어지는 작업화 값으로 3원 50전을 내게 하여 항상 적자였다.



그림 6.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학생들. 일제는 각급 학교를 노동력 동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강제 징집하였다.

❖ 자료5 : 민주화의 열기(3.15부정 선거와 4.19 혁명, 10월 유신, 민주화 운동)



그림 7. 3.15부정 선거와 4.19혁명. <1960. 4. 19.> 시민들도 가세해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열기도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위대는 "썩은 정치를 수술하자.", "빼앗긴 인권을 도로찾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경무대, 이기붕 집 앞 등을 가득메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학생시위대에 대해 총을 발사함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여 오히려 속속 시위대열에 가담하여 시위대 규모는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어린 국민학생들도 시위대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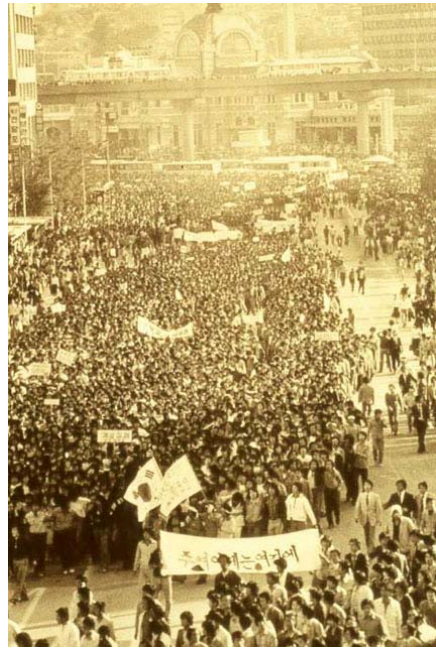


그림 8. 10월 유신과 학생 시위. 1980년 5월 15일 유신 철폐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서울역에서 벌이고 있다.



그림 9.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준 6월 항쟁. 박종철, 이한열 등 대학생의 잇달은 죽음은 시민들의 반독재 투쟁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1987년 6월, 학생뿐 아니라 벼타이를 맨 평범한 시민들도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주었다.

❖ 자료6 :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세계 인권 선언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2조 ①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7.10.29)

세계 인권 선언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공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 중략...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

TOPIC. 2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는 다가올까?¹³⁾

□ 수업 목표

- ① 현실 생활 속의 인권문제를 알 수 있다.
- ②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능력을 키운다.

□ 학습 모형 : 가치 명료화 모형

사회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개의 경우 그것에 대한 인식 및 대안으로서의 행동이 부족하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어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식은 현실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도상의 유의점

- 모둠은 5~6명으로 소수로 구성하여 모둠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수업중 학생들의 의견 등에 대해 허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현실과 가깝도록 실생활에서 소재를 구한다.
- 현실 생활 속에 널리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찾거나 대안 등을 선택할 때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에 그쳐야한다.
- 수업 전에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작동 유무를 준비하여 자칫 수업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앤다.

13) Topic 2은 인권교육을 위해 실시한 두번째 수업으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의 공익광고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를 학생들과 한 장면 한 장면을 자세하게 2~3번 정도 본 후 그 영상을 학생들과 토론하며 학습함.

□ 수업 내용 및 전개

교과	사회문화	학년/학과	3학년/영상연출과
단원	V.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	차시	2/3
		교과서	pp. 224
학습목표	① 현실 생활 속의 인권문제를 알 수 있다. ②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능력을 키운다. ③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자료	❖ 자료 1 : [동영상-1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익광고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 자료 2 : [신문-서울/연합뉴스] 혼혈인 42.2% ‘자살시도’ 경험		
활동	교수 - 학습 활동		지도상 유의점
학습단계			
본시 학습 (35분)	❖ 인권에 대한 개념과 흥미 유발 : [동영상(1분)] 보여주기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익광고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자료1)를 자세히 보도록 하고 관심이 가는 장면과 특징을 찾아 기록 한다. · 혼혈인들은 왜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영상물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 [동영상(1분)] 탐구 : 필요할 경우 2~3번 보여줄 수 있다. · [동영상(1분)]에 등장하는 것들엔 무엇이 있을까요?(학생 : 동남아시아인, 주민등록증, 형편없는 주거공간...=> 자세히 보기) · [동영상(1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피부색은 어떨까요?(학생 : 이상해요~, 동남아시아 사람 같아요. => 차이점 비교) · [동영상(1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출생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학생 : 한국 => 공통점 파악) · [동영상(1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분증은 무엇일까요?(학생 : 주민등록증 => 공통점 파악) · [동영상(1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혹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학생 : 한국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증도 있는 한국인인데 피부색이 달라 차별받는다고 해요 => 주제 파악)		영상물이 빨리 지나가므로 정지버튼을 이용해 천천히 보여줄 것. 사회문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도록 유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흑, 등장 인물의 고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신문기사]에서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면?(학생 : 기지촌) · [신문기사]에서 혼혈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은?(학생 : 교육, 고용, 결혼 등) · [신문기사]에서 혼혈인에게 주는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 일까요?(학생 : 피부색, 결혼, 성희롱, 빈곤 등) ❖ [동영상(1분)]과 [신문기사]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기사]와 [동영상(1분)]을 종합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학생 : 한국계 혼혈인들은 피부색으로 교육, 고용, 결혼 등에서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네요.) · [신문기사]와 [동영상(1분)]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계 혼혈인들이 신문도 아닌 TV에 직접 등장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학생 :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하는 혼혈인) ·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동영상(1분)]의 그들이 좋아할까요?(모둠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개인적 측면) -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적 측면) 	<p>영상매체의 특징을 살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영상물 제작으로 이어지도록 지도할 것.</p>
<p>정리 및 평가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평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동영상(1분)]처럼 차별을 받는 곳이 있을까요?(사는 곳 주변, 방송 속에서, 사회 속에서 찾아보기-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입양아, 여성, 조선족, 빈민, 동성애자 등...) · 모둠별로 수행평가지를 작성하여 봅시다. 	
<p>차시예고 (5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신문기사 조사하기 · 1분 영상 제작을 위해 모둠 구성 및 계획짜기 	

□ 학 습 자 료

❖ 자료 1 : [동영상-1분]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익광고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없는 세상이 보입니다'

❖ 자료 2 : [신문-서울/연합뉴스] 혼혈인 42.2% '자살시도' 경험

국내 거주 혼혈인의 42.2%가 피부색 등으로 인한 교육, 고용, 혼인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차별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의 용역의뢰를 받은 기지춘여성인권단체 '두레방'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국내거주 혼혈인 50명을 상대로 심층면접과 설문 조사를 병행 실시해 16일 발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면접대상 혼혈인의 73.3%는 학창시절 피부색으로 인해 놀림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들중 64.4%는 이로 인해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졸업이후에도 75.6%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경우를 경험했으며 29%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44.4%는 고용에서의 차별을, 37.8%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며, 24.4%는 부모에 대한 사회적 질타를 혼혈인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혼혈인들은 출생부터 학교와 직장·결혼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 생활비는 75만원, 혼혈인 본인의 수입은 월평균 89만원에 불과했으며, 저축은 거의 없는 반면 혼혈 가구의 평균 빚은 3천882만원으로 수입과 비교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반복적인 사회적 차별과 빈곤으로 인해 혼혈인들은 심각한 무기력과 심리적 장애를 갖게 돼 응답자 중 42.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들의 62.2%는 차별을 받은 경우 참거나 무시한다고 답했으며, 법적인 대응방법을 찾겠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혼혈인들이 학교, 고용, 결혼 등 전 생애에 있어 지속적인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을 당할 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혼혈인에 대한 법적인보호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학령기 혼혈아동의 학교 생활과 실질적인 생계,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혼혈인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거주 혼혈인은 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수 행 평 가 2.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2008학년도)¹⁴⁾

영상 제작 연간 계획서(교사용)

단 계	주 요 일 정	비 고
준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제기 및 주제선정 : 3월 21일 ■ 개인별 주제 발표 및 팀구성 : 3월 22일~4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편성 : 2명~6명이 1조로 편성
제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계획서 제출·발표 : 4월 12일 ~ 4월 18일 ■ 대본(설문) 및 콘티 구성 : 4월 19일 ~ 5월 23일 ■ 1차 팀별 발표 및 토론 : 5월 24일 ~ 5월 30일 ■ 팀별 역할분담 : 6월 1일 ~ 6월 13일 ■ 2차 팀별 발표 및 토론 : 6월 14일 ~ 7월 11일 ■ 영상제작 : 7월 12일 ~ 9월 2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팀별발표 : 도서관, 신문, 인터넷 등 관련주제 탐구를 통한 대본(설문) 및 콘티 구성안 발표 ■ 2차 팀별발표 : 1차 팀발표 보완 및 재구성 ■ 영상제작 :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촬영
감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발표 및 토론 : 9월 27일~10월 24일 ■ 총정리 및 평가 : 10월 25일~11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당 1편 발표

14) 수행평가 2는 Topic1(지식적 측면 강조)과 Topic2(기능적 측면 강조)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 즉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의 소중함이나 가치, 신념 등의 내면화를 위한 다큐 제작임.

영상 제작 계획서(학생용)

팀 명 :

모듬원(개인)	연출자 : (연락처 :) 모듬원 :		
주 제			
주제 선정시 고려사항			
촬영 개시 예정일		촬영 예정 횟수	
편집 작업 예정일		제작완료 예정일	
기획 의도			
촬영계획	촬영시간		
	대상 및 장소		
	촬영시 고려사항		
정리 및 평가			

(예시)

영상 제작 계획서

팀 명 : 0510

모 둠 원(개인)	연출자 : 김보배 (연락처 : 000-0000-0000) 모듬원 : 김보배, 마준원		
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이주민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및 기관 		
주제 선정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많은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 시간대 선정 등 		
촬영 개시 예정일	7월 15일	촬영 예정 횟수	약 2주에 걸쳐 4~5회
편집 작업 예정일	8월 1일	제작완료 예정일	8월 10일
기획 의도	한국 이주민노동자의 수가 50만 명에 달하는 지금,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들에게 따가운 시선뿐이다. 이러한 시선을 바꿔보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다.		
촬영계획	촬영시간	한 회 차당 각각 5시간~6시간(이동시간 포함)	
	대상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가진 한국 사람들,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주민노동자들 등 장소 : 학교, 번화가 길거리(천호역부근), 이주민노동자 근로자병원, 한국 외국인 지원센터, 한국 이주노동자 복지회,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등 	
	촬영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과 기관에 미리 사전연락 최대한 다양한 연령층의 인터뷰 필요 	
정리 및 평가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과 기관에 대부분 사전연락을 드렸지만 미처 연락을 드리지 못한 기관도, 때마침 열렸던 다문화축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가 가능한 이주민들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고 행인들에게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조금 죄송스러웠지만 이주민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의도전달은 잘 된 것 같다.		

(예시) 영상 제작

<낮선 나라의 낯선 사람들>

연출 : 한국애니메이션고 3학년 영상연출과 김보배

♣ 기획의도 :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노동자들은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렇게나 많은 이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뿐이다. 이러한 시선을 바꿔보고자 제작하게 되었다.

♣ 작품구성 : 1. 프롤로그

2. 인터뷰 : 낯선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행인 인터뷰)

3.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 탐방 및 인터뷰

- 병원 시설 현황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시설 탐방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방문
-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

4. 인터뷰 : 낯선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5. 에필로그

♣ 작품 상세 구성 내용 및 후기

구 성	계 획	내 용
프로로그	촬영전	외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진을 빠르게 편집해 보여주면서 내레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주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언급
	촬영후	외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느리게 편집, 내레이션은 차분한 말투
	비고	정보성이 있는 다큐이기에 사진이 너무 빨리 제시될 때 사람들이 편집의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점 감안
인터뷰 :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당신의 생각은? (부정적 측면 강조)	촬영전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해 학교는 물론 변화가 길거리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중 부정적인 인터뷰만 고름
	촬영후	10대~40대정도의 연령층 확보에만 성공, 부정적인 인터뷰를 골라내는 데에는 다양한 연령층 확보가 되지 않음
	비고	교내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 인터뷰 인원확보가 쉬웠으나, 교외에서는 카메라 때문인지 40대 이상의 분들은 꺼려하심
외국인들을 위한 기관 및 시설 탐방 인터뷰 - 이주민노동자 근로자병원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 이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	촬영전	찾아가 볼 기관과 시설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병원과 복지회 두 곳을 중심으로 조사함 복지회에서선 남녀 골고루 이주민 네 분 정도 만나보도록 함 다문화 축제의 모습을 담고 이를 통해 긍정적 시각의 변화로 이끌어냄
	촬영후	사전에 전혀 계획에 없었던 근로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고, 인터뷰는 원하던 내용이 거의 없었음 이주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축제는 촬영전과 같음
	비고	이주민노동자 근로자병원촬영도중 바로 근처 건물에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아보려했던 정보를 얻게 되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작하게 됨(사전 연락이 없었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음) 복지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전혀 원활하지 않았고 인터뷰 가능한 이주민이 남성이라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알 수 없었음 인터뷰 가능한 남성이라도 질문에 맞는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음 (예: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음식이 너무 매워요 등)

구 성	계 획	내 용
인터뷰 : 낮선 사람들에게 대한 당신의 생각은? (긍정적 측면 강조)	촬영전	다양한 연령층 확보를 위해 학교는 물론 변화가 길거리로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 중 긍정적인 인터뷰만 고름
	촬영후	긍정적인 인터뷰에 해당하는 답변 10대~40대 연령층 확보에 성공
	비고	의외로 40대분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부정적 답변 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 할 수 있었음
에필로그	촬영전	영상들을 조금씩 편집함 외국이주민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내레이션
	촬영후	검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낮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좋아요! 라고 대답함
	비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자는 의도에서 만든 다큐이었기 때문에 앞의 영상을 조금씩 편집하여 보여주는 것보다 검은 바탕화면에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다큐멘터리 제작과정과 후기

한국애니메이션고 3학년 영상연출과 김보배

세계화, 지구촌, 정보화시대 등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세계화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현상들을 매우 낯설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과, 언어들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유색인종을 무시하고 천대하며 자신들을 우월시하는 이상한 사상마저 낳고 말았다. 피부색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면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말이다.

나는 이런 현상을 어렸을 때부터 몸소 느끼고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에겐 태국인 큰어머니와 일본인 외숙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들이 인종차별이 특히나 심한 이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보고 듣고 알 수 있었다. 역시 일본인 외숙모는 국적 때문에 역사적인 일로 비방을 받지 않는 한 오랜 한국생활 덕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한국인과 같은 피부색,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해있는 일본나라사람이라는 이유로 한국인과 거의 다른 생활을 해오고 계셨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태국인 큰어머니는 달랐다. 피부색, 언어, 국적 모두 다 무시, 천대받는 삶을 살아오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보고 자란 나는 ‘인권’이라는 수업 주제에 외국인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영상물로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계획은 무척이나 순조로웠었다.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자는 것이 나의 의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지를 촬영해서 한국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보자는 것이 처음 계획이었다. 나는 이 계획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이주민노동자들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순조로운 발표와 팀 구성까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나는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첫 계획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인터넷 검색결과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노동자들을 위한 시설과 기관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인

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던 시설과 기관들에 사전연락을 드려본 결과 거의 모든 시설에서는 이주민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전화나 상담메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이주민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곳이 있었지만 인터뷰를 할 만큼 인원수가 되지 못할뿐더러 이주민노동자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이주민노동자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병원마저도 팀 내 토의결과, 병원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에 결국 첫 계획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토론 끝에 인권이라는 주제와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는 의도를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촬영내용을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동정심을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을 짚어보자는 것이었다. 마침 1월 말쯤 경기도 안산에 이주해 온 중국인이 토막 살인을 일으켰던 큰 사건 때문에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하도 많은 이주민노동자들의 수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결합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긍정적, 부정적 시선을 짚어내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1차 대본과 콘티구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차로 짠 대본과 콘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에 내용상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평이 내려지게 되었다. 인터뷰로만 이루어지는 다큐멘터리는 지루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만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보성이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고 말았던 첫 계획이 왜 주저앉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게 되었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기관들, 겨우 갖추고 있는 시설과 기관마저도 이용하지 않는 데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노동자들, 바로 이것들이었다. 첫 촬영계획이 무너진 것도 역시 우리나라가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했기에 우리는 시설과 기관이 부족한 이유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현황도 조사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이 부분을 인터넷 자료수집과 촬영을 통해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와 정보성 내용을 넣게 된 두 번째 계획은 역시 처음보다는 잘 갖춰진 계획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난관을 겪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리느냐 이었다. 이것이 곧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민’이라는 검색어 하나로 모든 사이트를 돌아보게 되었다. 마침 정말 운이 좋게도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가 열린다는 엄청난 정보를 알아내게 되었다. 다문화 축제의 의도는 우리의 의도와 딱 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2차 계획에 맞추어 촬영을 해나가게 되었다.

이주민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촬영은 학교 사람들과 변화가 행인 분들의 협조로 영상물 제작에 쓸 수 있을 만큼 촬영에 성공했다. 게다가 촬영 중에는 큰 운수가 따르기도 했었다. 병원촬영을 가던 중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설과 기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종합적으로 알아보려했던 시설과 기관이 부족한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도 역시 우리가 바라던 여러 인서트 컷들과 인터뷰를 촬영해 낼 수 있었다. 약 2주에 걸쳐 한 회 차당 5~6시간을 소비해가며 직접 열심히 준비한 다큐멘터리이었기에 뜨거운 여름날에도 정말 즐거운 촬영을 했다.

모든 촬영을 마치고 우리는 편집단계에 들어갔다. 1차 편집으로 약 2시간에 달하는 촬영분량을 30분정도로 줄이게 되었는데, 가져다 붙이기만 했더니 조금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지루함도 없애고 간결하게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의 인터뷰, 시설 및 이용현황의 문제점, 다문화축제를 통한 긍정적인 시각으로의 변화, 사람들의 긍정적 시각의 인터뷰라는 구성으로 편집을 하게 되었다. 내레이션은 다큐멘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해 내레이션의 톤은 차분하고 낮은 톤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약 9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보편화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게 되다니 매우 흥미로웠다. 아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맞춰 이를 종합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보통 정보전달이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선 제작자가 주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인권에 대한 내용을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를 직접 접하고 이해해야 한다. 제작단계에 들어가면서 부터는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고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

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수정함으로써 주제에 맞고 의도에 맞도록 이끌어 나가야한다. 특히나 이 제작과정에서는 수업에서의 토론뿐만 아니라 팀원과 함께 제작단계에 있어서 생긴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해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 이유는 토의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전보다 더욱더 많은 내용을 또 직접 접하고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주제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활동은 정말 그 주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혀 직접 체험해 보는 것과도 같기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과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게다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제작한 영상물을 보고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생기게 되어 더욱이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처음 의도에 맞게 적절한 방향으로 끌어내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보람찼다. 아마 어느 주제이던지 그 주제를 영상물로 제작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면 직접 알아내고 겪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참고문헌

- Michael Rabiger(1997). Directing The Documentary(다큐멘터리) : 조재홍·홍형숙 옮김.
1998. 지호.
- 교육부(1997). 7차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최병모 외 7인(2003). 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
- 국사편찬위원회(2003).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 김범주 외 3인(2003).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학사.
- 김은숙 외 4인(2003).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 최현섭 외 4인(2003). 고등학교 『사회문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김한중 외 4인(2003).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장애인 인권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사랑나무미들의
아름다운 무한 도전



I. “기쁨 두 배, 사랑 두 배” 행복한 사랑나눔터를 꿈꾸며	97
1. 실천의 동기	97
2. 실천의 목적	98
3. 실천 대상 및 기간	99
4. 실천의 제한점	99
5. 용어의 정의	99
II. 사랑나눔터 바로 알기	100
1. 사랑나눔터 현황	100
2. 사랑나눔터 실태	100
3. 사랑나눔터 실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실천 방향	103
III. 사랑나눔터 맞춤 설계하기	103
IV. 행복한 사랑나눔터 만들어가기	104
1. 사랑나눔터 바로 알고 생활해요 : 3월 통합학급 적응기간의 상호 이해 교육	104
2. 실천 과제 [1]의 실행 : 사랑나눔 만들기 맞춤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106
3. 실천 과제 [2]의 실행 :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맞춤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124
4. 실천 과제 [3]의 실행 :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 맞춤 또래활동 프로그램	129
5. 실천 과제 [4]의 실행 : 함께 쌓아가는 사랑나눔 맞춤 체험활동 프로그램	138
V. 사랑나눔터에서 가꾼 양식	147
VI. 더 행복한 사랑나눔터를 꿈꾸며	149

사랑나누미들의 아름다운 무한 도전

이 상 용 (안산해양초등학교 교사)

I. “기쁨 두 배, 사랑 두 배” 행복한 사랑나눔터를 꿈꾸며

1. 실천의 동기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에게는 장애극복 배양과 사회 적응력 신장을, 일반아동에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식 제고와 인격도야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아동들이 학급 내에서 일반아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관심 또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00는 보기가 꺼림직 해”, “작년에 짝이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어”, “도와주다 보니 짜증도 나고 내가 놀 시간이 없어 싫어”, “00는 공부에 방해만 돼”, “휠체어를 매일 밀어주어야 해서 귀찮아”, “00하고 짝하기 싫어.” 등. 3월 통합학급을 맡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아동들의 생각을 조사해본 결과였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모습,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못해 놀림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일반아동과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장애아동 스스로에게 심한 열등의식과 소외감으로 빠질까 염려되었다. 통합학급 담임으로서 ‘어떻게 교육적인 통합교육을 완성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한 끝에 우선은 통합교육의 분위기와 여건을 파악, 조성하고 통합교육의 장점을 살리며, 통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학습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생활의 한 구성원

으로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천하고자 했다. 이에 장애아동에게 사회적 기술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반아동과 함께 몸으로 부딪치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돕고 협동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했고, 일반아동에게는 누구나 잘하는 것이 다르고 얼굴 생김이 다르듯 장애를 개인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었다.

확신하는 것은 교사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와 배려가 일반아동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서로 다르지만 희망을 갖고 균형적인 기회 아래 건강하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라는 경기도 교육청의 ‘희망 경기 특수교육 시책’의 핵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랑나눔미들의 아름다운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적용하여 통합학급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미래사회 바른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실천의 목적

사랑나눔 만들기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실천으로 일반아동과 학부모의 통합학급의 통합교육 및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여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동등한 학급 구성원으로서 직접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밀한 교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으며,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적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장애아동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교육과정 중심의 개인별 통합교육과정 계획·운영으로 장애아동의 기초·기본학습을 충실히 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 참여도와 흥미도를 높이고 싶었으며,

사랑나눔미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 또래활동 프로그램 실천으로 통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랑나눔 맞춤형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싶었으며,

사랑나눔미들이 함께 쌓아가는 사랑나눔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으로 장애학생들이 직접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여 배움의 기쁨과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

3. 실천 대상 및 기간

가. 대상 : ○○초등학교 5학년 ○반(통합학급)

나. 기간 : 2008년 3월 1일 ~ 2009년 2월 28일

4. 실천의 제한점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운영 영역을 국어, 수학, 예·체능, 실과,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제한하였다.

5. 용어의 정의

사랑나눔터 : 학기 초 통합학급에 대한 안내 후 통합학급 반 이름을 대신할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반 이름 만들기 학급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름이다.

II. 사랑나눔터 바로 알기

1. 사랑나눔터 현황

일반아동 수	남 18명, 여 15명			
장애아동 수	남 1명	○○○	장애정도	영역 : 근이영양증(등급 1급)
	여 1명	○○○	장애정도	영역 : 뇌병변(등급 1급)

2. 사랑나눔터 실태

가. 조사 내용 및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방 법	시 기
아동	일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태도	설문지	2008.03
학부모	장애	·통합교육 운영 및 아동의 개인별 특성	면담	2008.03
	일반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 운영	설문지	2008.03

※ <부록 1> 아동 및 학부모 설문지

나. 장애아동 분석

구분	5학년 1반 ○○○(남)	
신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며, 근육의 성장이 점차 퇴화되어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함. · 신체활동 불가하며 신변처리 도움 항상 필요. · 근이영양증으로 손의 힘도 점점 약해지나 지금은 손은 자유롭게 움직임. 	
학습 능력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 · 듣기·의사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알아들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미숙함. · 읽기-읽고 쓸 수는 있으나 독해 능력이 부족함. · 쓰기-글자를 쓸 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리듯 글자를 쓰며, 받침 있는 글자는 70% 수준에서 받아쓸 수 있으며, 띄어쓰기를 잘 하지 못함.
	수학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기본 학습력이 양호함 · 문제 해결력 및 응용력이 부족하여 많은 연습이 필요함 · 형체를 정확히 그리지 못하고, 색채 표현이 단순하게 그림을 그림. · 공작활동을 즐겨함.

구분	5학년 1반 ○○○(남)
행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를 잘 따르나 오래가지 못함. ·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함. · 약속과 규칙의 소중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며 고집이 세 다툼이 있음.
가정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에 거주,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며, 어머니의 경우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음. · 어머니에게 많이 의존하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므로 어른들 사이에서 응석을 부리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음.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과 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많음. · 수업보다는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주로 하는 편임. · 학교생활 많은 부분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 · 학습에 흥미가 없고 다른 행동을 하여 관심을 끌려고 함. ·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함.
실천과제를 통한 지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함. · 기초학습 능력을 다지고 학습에 전이가 생길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함. ·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상황 및 규칙에 익숙해지게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표현력과 기초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력 기르하고자 함.

(1) 장애아동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분 석 결 과	시 사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능력 부족으로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가 힘들 • 생활에 적응도가 낮고 자신감이 부족함 • 학습 참여도가 낮으며, 학습에 집중하지 못함 • 일반학급 교육과정과 학습 수준이 맞지 않아 수업의 흥미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 향상을 위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함 • 학습활동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필요함 • 통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생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이 계획·운영되어야 함

다. 일반아동 및 학부모 실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구분	분 석 결 과	시 사 점
일반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동들도 있음 • 장애아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함 • 장애아동을 돕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함 • 장애아동의 외모적인 면에 대해 놀림 • 어울려 놀 수는 있으나 제한된 놀이여서 싫어함 • 나와는 다르고 동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요구 • 인성적인 면에서 친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교육 필요 • 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
장애아동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신장과 사회적응력 신장에 대한 요구가 많음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함 •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음 • 학교교육에서 욕심이 많으며 특히 아동의 친구들과의 관계 및 학업 성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사회성 신장과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통합교육과정과 아동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함 • 일반아동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일반아동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 장애아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한 호감이 적음 • 교사의 관심이 편중되는 것을 염려함 • 통합교육이 자녀의 인성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학습에 방해되는 것을 싫어함 • 장애아동과 짝이 되는 것을 싫어함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아동들보다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홍보 필요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가 필요

3. 사랑나눔터 실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실천 방향

- 가. 일반학교의 완전통합학급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통합학급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 나. 장애아동의 기초·기본 학습력 향상을 위해 아동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 통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일반아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어야 한다.
- 라. 배움의 기쁨과 활동에 대한 성취감을 느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들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획·운영되어야 한다.

Ⅲ. 사랑나눔터 맞춤 설계하기

적용 활동	사랑나눔터 바로 알고 생활해요 〈3월 통합학급 적용기간의 상호 이해 교육〉
실천 내용	가. 사랑나눔터 바로 알기 나. 우리 서로가 바로 알고 지켜야 할 에티켓 다. 우리는 사랑나눔터 친구들 라. 심성계발 체험활동
실천 과제 1	사랑나눔 만들기 맞춤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실천 내용	가. 장애 이해 교육 나. 제28회 장애인의 날 다. 제2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 국회 라. 제3회 Beauty Think 공모전 마. 장애 체험 활동

실천 과제 2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사랑나눔 맞춤 개별화 교육과정
실천 내용	가. 통합수업 운영 모형 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다. 통합수업 모형 적용
실천 과제 3	사랑나눔이들이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 맞춤 또래활동 프로그램
실천 내용	가. 사랑나눔 띠앗 프로그램 나. 사랑나눔 맞춤 짝놀이 프로그램 다. 예.체능.실과 교과 프로그램
실천 과제 4	사랑나눔이들이 함께 쌓아가는 사랑나눔 맞춤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 내용	가. 나눔으로 커가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나. GLOBAL 사랑나눔 체험활동 다. 나눔으로 자라는 인성 가꾸기

IV. 행복한 사랑나눔터 만들어가기

1. 사랑나눔터 바로 알고 생활해요 : 3월 통합학급 적응기간의 상호 이해 교육

새로운 학년·학급이 시작되는 3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함께 생활하게 되는 사랑나눔터(통합학급)를 이해하고 적응 기간으로 계획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활동 영역 중 적응활동 시간을 배정하여 <표 2>와 같이 심성계발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1〉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상호 이해 교육

주 제	시기	지 도 내 용	방 법
■ 사랑나눔터(통합학급)	3월 2주	■ 통합학급 소개, 생활 안내, 필요성	■ PPT
■ 장애우에 대한 예절	3월 3주	■ 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기본예절	■ Video clip
■ 우리는 친구	3월 4주	■ 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생각 발표하기	■ 표현하기



사랑나눔터 안내



서로 지킬 예절 시청각 교육



우리는 좋은 친구

〈표 2〉 심성 계발 활동 프로그램

주제	시기	활 동 내 용
■ 마음열기	3월 2주	■ 자기소개, 첫 만남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나누기
■ 신뢰감 형성	3월 3주	■ 장애아동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예절에 관한 미니북 만들기
■ 일체감 조성	3월 4주	■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친밀감 및 공동체 의식 형성



마음열기



에티켓 미니북



친구들과 하나 되기

학년 초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나눔터를 이해하고 적응을 돕는 심성계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 가. 통합학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나. 마음의 문을 열고, 놀이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다.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직접 에티켓 미니북을 만들어 봄으로써 1년 동안 잘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2. 실천 과제 [1]의 실행 : 사랑나눔 만들기 맞춤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가. 사랑나눔터 나누미를 위한 장애 이해 교육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동등한 친구로 대할 수 있는 자세 및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을 하였다.

(1) 교과 지도를 통한 장애 이해 교육

교과 활동을 통한 이해 교육으로 장애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도 장애를 극복하여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 1) 장애 이해 관련 단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 2) 장애 이해 단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 적용하였다.
- 3) 학습지도 계획을 재구성하여 장애 이해 교육을 병행 지도하였다.

(가) 장애 관련 단원 분석 및 연간 장애 이해 지도 계획 수립

추출된 장애 이해 교육 관련 차시에서는 역할놀이, 탐구학습, 토론헌습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돕도록 학습하였다.

<장애 관련 단원 분석 및 연간 장애 이해 지도 계획>

월	주	교과	단원	차시	지도내용	영역	준비물
3	3	국어	첫째마당 2. 경험속으로	10/18	○ 장애를 극복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 관계 알기 ■ 장애를 극복한 인물들의 성격 알기	공통	장애인 극복한 인물 관련 도서,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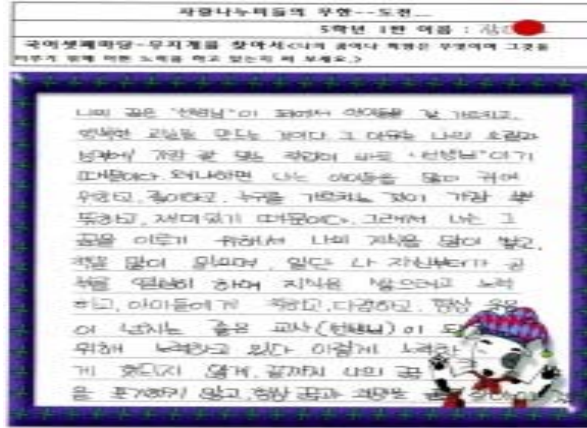
※ <부록 2> 1:2학기 장애 관련 단원 분석 및 연간 장애 이해 지도 계획

(나)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활용

장애 관련 단원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계획하여 지도하였다.

<학부모 공개수업 -장애 이해 관련 국어과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국어	단원	셋째 마당 : 삶의 향기 2. 무지개를 찾아서	쪽수	110-113
학습 주제	이야기를 읽고, 인물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차시	7/10
학습 목표	▶ 이야기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학습 자료	▶ Ad video clip, Kiwi video clip, PPT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일반아동	장애아동		
도입 전개	동기유발	▶ Ad video clip ▶ 소감 말해 보기	▶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본다.	3'	● Ad video clip ● PPT
	학습목표	◆ 이야기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2'	
	학습안내	▶ 파워포인트 활동1 무지개 줄거리 확인하기 활동2 인물들의 삶 비교하기	활동3 인물의 삶 선택하기		



통합학급 장애인해교육 공개수업

(다) 교과 지도를 통한 장애인해교육 결과

- ① 장애우와의 통합교육 활동 시 대하는 태도와 예절이 향상되었다.
- ② 장애우의 행동에서 오는 거부반응이 줄어들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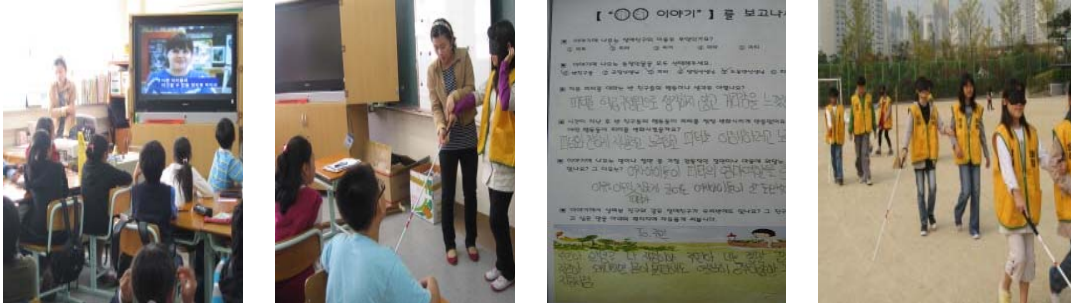
(2)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식개선 연계교육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에 신청, 선정되어 전문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 일시 : 2008년 9월 - 12월(월 2회), 정○○ 사회복지사

(나) 교육일정

월	주	주제	학습 활동	비고
9	3	프로그램 소개	장애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 질문 받고 알아보기	
	4	장애 바르게 이해하기	“피터 이야기” 시청하고 생각 나누기	
10	1	장애체험	지체장애, 시각장애 체험하기	
	3	장애유형에 따른 개념 및 특성	나눔터 장애아동의 장애 알기	
11	1	문제행동 바르게 알고 돕기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역할극
	3	친구와 함께 지내는 방법 알기	장애특성에 따라 친구와 함께 지내는 방법 알아보기	토론
12	1	과정평가	도전 골든벨 - 학습 내용 정리	
	2	함께 할 수 있어요	교육에 관하여 생각이나 느낌 표현하기	



사회복지사의 교육 활동 모습

(다) 결과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 장애아동에 대한 바른 인식 정립을 위한 시청각 교육

장애 극복 내용이나 생활 모습의 영상자료를 통하여 장애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불어 생활 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이런 내용으로

- ① 방영된 영상물, 영화, 장애 관련 홈페이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다.
- ②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내용,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 ③ 독서록을 쓰고, 월 1회 장애이해 독후감 발표 대회를 열었다.
- ④ 동영상 자료는 재량활동시간 활용하였고, 독서 활동 시간은 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아침 독서 활동 시간, 방과 후 도서관 이용,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시청각 자료 목록

월	추천 도서	월	추천 도서
3	네 잘못이 아니야 달려라! 형진아	9	아주 특별한 우리 형 내 귀는 짹짹
월	추천 영화	월	추천 영화
3	포레스트 검프	9	홀랜드 오퍼스

※ <부록 3> 시청각 자료 목록



장애이해 도서 읽기
칭찬스티커

독후감 발표대회

영화감상시간

영화 감상문 발표대회

강아지 똥을 일고 편지글 독후감	영화 말아톤 감상문
<p>강아지똥아, 안녕? 난 정말 똥이 냄새만 나고 아무 쓰임새도 없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나오는 책을 읽고 나서 똥도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p> <p>넌 참 좋겠다. 흙덩이 같은 친구를 만나서... 네가 희생되어 피어난 민들레가 흙덩이가 있는 밭에서 났고 너도 거기에 있었다면 친구가 2명이 되어서 좋았을 거야. 민들레랑 흙덩이랑.</p> <p>------(중략)-----</p> <p>그리고 너도 흙덩이만큼이나. 아니, 흙덩이보다 더 착한 것 같아. 흙덩이는 좋은 말을 해 줬지만 넌 민들레를 위해 희생했잖아. 나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야. 넌 정말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구나. 난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 정말 감동했거든.</p> <p>너를 통해서 나는 여러 가지를 배웠어. 우리 반 모든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다짐할게!</p>	<p>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영화를 보여주셨다. 이 영화는 실제 배형진이라는 자폐증 환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p> <p>------(중략)-----</p> <p>감명 깊었던 장면은 초원이가 얼룩말을 너무 좋아해 지하철역에서 얼룩말 치마를 입은 아가씨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어 오해를 받고 맞게 되는데 어머니가 와서 초원이를 안아준다. 그때 초원이가 "우리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아이는 장애가 있어요."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다. 나는 이 영화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해도 한번 하지 말라고 고쳐주면 절대 하지 않는 초원이가 나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말아톤이라는 영화는 장애에 대한 옳지 못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는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고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하다.</p>

(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장애 이해 교육 결과

- ① 장애 극복 사례를 알아보고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지를 배울 수 있었고, 장애아동을 보는 인식이 변화함을 본받을 점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장애인이지만 그 능력을 키워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통해 장애가 그 인물의 교육, 가정생활, 친구관계, 직업 등에 미친 영향, 장애로 인해 겪게 된 문제, 그 사람의 업적, 공헌, 목표, 장래희망 등을 알게 되었다.
- ③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누구나 한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사랑 받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④ 장애아동을 친근감 있게 대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를 통한 장애이해 교육은 아동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매개이자 이야기를 통한 장애인의 삶, 장애를 통한 흥미와 교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또한, 우리 시대를 살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일반인보다 더 훌륭하게 분들이 많다. 그들에 대한 희망과 용기와 신념을 배우고 익히는데 생동감 넘치는 영상매체 활동 수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나. 통합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

(1) 일반아동 학부모 교육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연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학기 초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부족으로 학부모에 대한 장애이해교육이 필요하였다. 이에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연수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학부모 연수〉

일시	연 수 내 용	자 료
3월 21일	학부모 총회와 연계한 통합학급 통합교육 -통합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동영상, 유인물
5월 02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학급에서의 통합수업 공개 및 협의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인물
9월 20일	장애·비장애 아동 한마당 축제 활동 통한 통합교육의 이해 -더불어 살아가는 심성을 기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유인물
12월 10일	통합교육 활동 발표회를 통한 통합학급의 발전 방향 탐색 -외국의 통합교육의 사례와 특수교육의 동향	유인물


학교행사와 연계하여 연수를 함으로써 학부모 연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연수 후 일반아동 학부모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처음에 장애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한다는 것에 학습면에서 방해될 것이라든지, 바르지 못한 행동을 따라하면서 산만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교육적 부담을 갖고 있던(학부모 설문 결과 인용) 학부모 입장에서 점차 장애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고 오히

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긍정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이해 교육>

일시	주 제	일시	주 제
3월 2주	통합학급 통합교육 안내	4월 1주	장애아동 이해를 위한 안내
6월 1주	전환교육의 개념과 교육방안	9월 1주	장애이해 프로그램
10월 1주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조건	12월 1주	통합교육 실천 사례

이러한 노력은 통합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을 줄일 수 있었다.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지속적인 장애 이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p>사랑스러운 통합교육의 이해와 필요성 2008. 3. 21.</p> <p>☞ 여기가 다른 아이들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영재들은 이제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재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급 아이들도 희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영재들 또한, 희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통합교육'이란 단어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와 달리, '통합'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서부터, '통합'이란 단어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 통합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그것은 통합교육을 통해 내 아이의 자라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영재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영재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영재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 통합교육은 왜 필요한가요? 그것은 통합교육을 통해 내 아이의 자라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영재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영재들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가정통신문</p> <p>1. 통합교육 2. 장애이해 3. 장애학생 4. 장애학생 5. 장애학생</p> <p>2008년 4월 사랑스러운 통합교육 운영</p>
<p>학부모 연수</p>	<p>연수 자료</p>	<p>가정통신문</p>
<p>연수 이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당연히 장애아동은 학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나, 교육활동 등 모든 면에서 장애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 생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장애아동이 일반아동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보면 심리적으로 더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아동과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게 되면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 많은 부분에서 담임교사의 관심이 장애아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더욱이 아이들의 학습활동 시 안전이나, 장애아동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더 많이 신경써야 하는 등 일반아동의 활동이 다른 반에 비해 많이 위축될 듯 하고 장애아동의 행동을 일반아동이 모방함으로써 학습 분위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다. 또한 학습 활동 중 장애아동의 행동으로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연수를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통합교육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필요성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 내용처럼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 입장에서 장애아동에게 좋은 친구로서 학습 조</p>		

력자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준다면 더불어 함께 나누는 모범적인 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장애아동을 도와줌으로써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고 일찍부터 자신이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통합학급이 아닌 아동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모쪼록 통합반 사랑나눔터 모든 아이들이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 나눔의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장애 이해 교육 학부모 연수 소감문

(2) 장애아동 학부모 교육

장애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월 1회씩 상담시간을 가져 장애아동의 행동 수정 및 학습 지도 방법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연계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 학부모로부터 고민 및 일반아동 및 담임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들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활용하여 통합학급을 지도해 가는데 활용하였다.

개인별 상담 일지

상담일지	2008년 중점교과 학습 요점	상담시간	11:00-11:30
대상	이 (●)		
상담내용	- 학교 생활에 - 비장애 학생 - 원리 배우는 - 영어 병행 재능기부 (독후감 - 인성교육) - 독서량 - 과제 수행의 중요한 부분 - 생활 - 장애 관련 정보 제공 - 동아리 참여 가능 - 학교 생활에 도움		
비고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상담일지	2008년 중점교과 학습 요점	상담시간	11:00-11:30
대상	이 (●)		
상담내용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비고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 상담 후 학부모 만족		

상담록

다. 장애 이해 교육 결과

<실천 결과 검증 내용 및 방법>

평가 내용	도구	방법	대상	시기	
				전	후
■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설문지/면담	전/후 비교	일반아동/학부모	2008. 3.	2008. 12

※ <부록 4> 아동 및 학부모 설문지

(1) 일반아동 인식의 변화

(가)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N=30

설 문 문 항	긍정적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				증감 (%)
	2008. 3		2008. 12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나는 장애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0	100	30	100	0
2.나는 장애학생과 함께 놀 수 있다	10	33	23	77	+44
3.나는 장애학생과 함께 공부해도 좋다	14	47	27	80	+33
4.나는 장애학생과 짝이 되어도 좋다	12	40	25	83	+43
5.나는 장애학생과 친구가 될 수 있다	15	50	29	97	+47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설문 결과 장애아동에 대해 모든 아동이 알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함께 놀 수 있다. 44%, 장애학생과 공부해도 좋다. 33%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 변화의 의견으로는 서로 도와주면서 정을 쌓아갈 수 있다. 착한 일을 해서 기분이 좋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장애아동을 이해할 수 있다. 등 반면 장애아동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손이 많이 간다. 해달라고 떼를 쓴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장애아동과 짝이 되어도 좋다. 43%, 친구가 될 수 있다. 47%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긍정적 변화의 의견으로는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 배울 수 있다. 도와주면서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다. 내가 베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등 반면 도와 줄 때 힘이 든다. 많이 챙겨주어야 한다. 쉬는 시간이 짧아진다. 기타 장애아동은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특수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다른 학년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과의 학습에 대한 의식의 변화

N=30

설 문 문 항	긍정적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				증감 (%)
	2008. 3		2008. 12		
	응답자수	%	응답자수	%	
6.나는 장애학생과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4	47	23	77	+30
7.나는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	.	25	83	.
8.나는 장애학생과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	.	26	87	.

일반학생의 장애아동과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 30% 증가, 장애체험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83%, 장애아동과 공부를 하면서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 87%의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장애아동과 함께 공부하고 장애체험을 통해 장애를 가진 친구에게 어떻게 대할지 알게 되었다. 장애아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었다. 나의 도움이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하였다.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다. 운영 전에는 장애아동은 방해가 되고, 불편하고, 고집부리고, 귀찮고, 공부도 못하고, 지저분한 아이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그러나 운영 후에는 같은 또래 친구로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2) 학부모 인식의 변화

장애아동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 학부모들의 의식은 설문에 의한 전후 비교로 분석하였고, 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의식은 상담에 의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가) 학부모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

N=30

설 문 문 항	긍정적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				
	2008. 3		2008. 12		증감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나는 통합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	19	63	30	100	+37
2.나의 자녀가 장애학생을 친구로 사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0	33	21	70	+37
3.나는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것에 찬성한다	8	27	19	63	+36
4.나는 통합학급·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	47	25	83	+36

학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서는 37%, 자녀가 장애아동을 친구로 사귀는 것에 대해 37%,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것에 대해 36%,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36% 증가하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 의견으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의 환경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아동은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교육활동 중 집중력을 분산 시킬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 대부분은 이성적으로는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나 내 아이의 반인 것은 싫어하였다. 위의 수치는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음을 보여 주었으나, 지속적인 장애 이해 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아동의 교육적인 장점들을 찾아 알리고, 일반아동이 장애아동을 통해 교육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학부모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N=30

설 문 문 항	긍정적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				
	2008. 3		2008. 12		증감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5.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10	33	21	70	+37
6.통합교육은 일반학생에게 도움이 된다	8	27	19	63	+36
7.통합교육은 필요하다	8	27	19	63	+36

통합교육은 일반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36-37%, 통합교육은 필요하다 36% 증가하는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운영 초 통합학급 일반아동 학부모들은 분리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 자녀가 장애아동으로 인해 피해나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위 표와 같이 긍정적 인식의 변화는 통합교육에 대한 공개수업 활동,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 활동 등 지속적인 홍보교육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사랑나눔터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착한 심성을 기를 수 있었음을 알고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이나 일반아동 모두 사회성과 인성발달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일부 학부모의 경우 여전히 통합교육에 대해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나 현실적으로는 내 아이가 막연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아동 학부모 상담 결과

<p>사전 상담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다 완전통합교육을 희망하여 본교로 전학 옴. ■ 친구들과로부터의 무관심(따돌림, 무시)을 걱정 ■ 학급의 분위기를 망칠까? 걱정함. ■ 친구들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개별화교육을 원함. ■ 함께 참여하여 성취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칭찬 해 주길 요구. ■ 간단한 역할 분담을 주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
<p>사후 상담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주적인 생활태도 향상됨. ■ 친구들이 생일파티에 초대하여 함께 즐겁게 노는 모습이 너무 좋았음. ■ 방과후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집까지 함께 와 주어서 고마웠음. ■ 운동장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웃으며 함께 활동하는 모습에 좋았음.

장애아동의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기본학습능력, 교우관계, 사회성, 소속감, 자신감 향상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걱정하셨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지도를 희망했다. 그러나 운영 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이 활동한 이야기, 생일파티에 초대받은 파티 이야기, 친구들이 도와준 이야기, 칭찬받은 이야기 등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며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 갔다고 하셨다. 바라는 점으로 앞으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

서도 친구관계나, 학교 생활하는 모습 등 이렇게 함께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변함 없이 유지되기를 희망했다.

라. 사랑나눔터 제28회 장애인의 날(2008년 4월 19일 토요일)

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임을 알며,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적극 도울 수 있는 긍정적 인성을 기르는데 두었다.

실천 내용 :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청취 및 소감문 쓰기(1-2교시)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청취(1교시)



방송청취 소감문(2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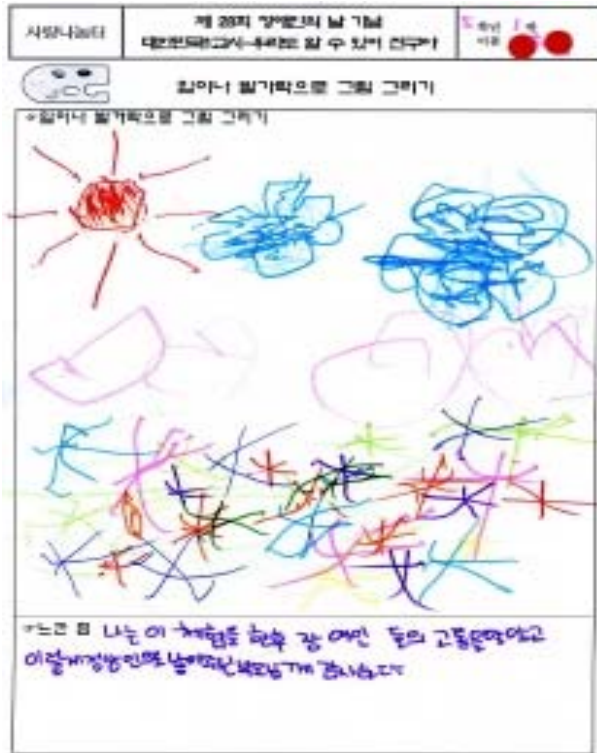
방송청취소감문	제 28회 장애인의 날 기념 "대한민국교시-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야"	초등학교 5학년 1반 20번 이름:김
<p>주제: 장애인을 처음만났을때 가진 생각과 현재까지의 생각 난 처음 장애를 가진 친구 구연이: 정원으로 보냈던 서로의 마음이 안맞아서 좋은 친구가 도란 업스 올것 같았다 하지만 내 예상은 틀렸다 장애인도 다른 평범한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몸만 불편한 사람 다른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싫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어떤 것 같게 았다 장애인 친구도 좋은 친구가 도란수있다 이제부터 더욱더 열심히 !! 장애인 친구를 이해 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겠다 그리고 정환이는 더 잘 배려해 주어야 되겠다 정환이는 구연이보다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이다 정환이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때문에 늘 불편이 많다 하지만 같은 모습 아이들은 전혀 배려해주지 않고 정환 이에게 불쾌하기도 하고, 시비걸기도 하고, 싸 우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징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환이가 먼저 시비걸 거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난 아이들이 정환이, 구연이에게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정환, 구연, 양 친구들이 날 어쩌 좋은 학교 생활을 보낼수 있다</p>		

실천 내용 : 구축화 체험활동(3-4교시)

교 과	도덕·미술	단원	5.서로 존중하는 태도, 3.경험 의 표현	쪽수	66-67, 10-11
학습 주제	구축화가 되어보기				
학습 목표	▶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구축 화 그리기 체험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자료		▶ 색칠도구 자유롭게 선택(색연필, 사인펜, 파스텔 등)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일반아동	장애아동		
도입	동기유발	▶ 대한민국 1교시 시청 내용 이야기 나누기 ▶ 장애인의 날 이해하기 • 장애인의 날은? • 왜 장애인의 날이 만들어졌을까요?		3'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동등한 인격체이며 생활에 다소 불편할 뿐임을 이야기
	학습문제	◆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구체화 그리기 체험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개	학습활동	▶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보기	▶ 함께 프로그램을 보며 내용을 알아본다.	5'	

구축화 체험



마. 2008년 제2회 대한민국 장애어린이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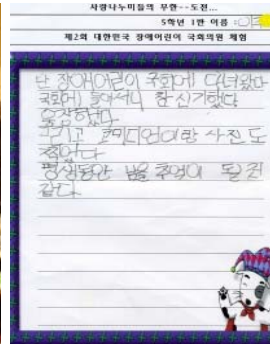
- (1) 목 적 : 장애어린이의 장애문제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정책제안에 참여
- (2) 일시 및 장소 : 2008. 4. 25 (금) 13:00~18:00 국회 헌정기념관
- (3) 주최 : 국회의원 권철현, 정화원, 장향숙, 나경원
- (4) 후원 : 대한민국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국립특수교육원
- (5) 대상 : 전국의 143개 특수학교 초등부 학생 및 통합학급 장애를 가진 학생 중 법률안을 제출하여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선정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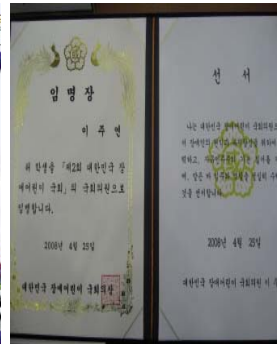
개회식



장애어린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표



장애어린이국회 참여 후
소감문



장애어린이국회의원
임명장 및 선서

장애 어린이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 의 자: △△초등학교 △△△ 어린이국회의원
지도교사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재활운동을 통한 보다 나은 일

조 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가정파탄, 보호자의 포기, 저소득층, 이동 불가 등) 인하여 치료기관 등으로부터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애 어린이

※ <부록 5> “장애어린이 방문 재활치료에 관한 법률안”

바. 00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주최 제3회 Beauty Think 공모전

00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며 장애·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김00 포스터 분야 우수상, 배00 표어 분야 장려상, 장00 UCC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출품작을 제외한 일부 작품들은 본교 1층 중앙현관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열었고, 학생들은 활동에 참여하며 성취감과 학급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장애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장애우들은 포스터·표어를 통해서 일반아동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내대회 전시회 및 출품 작품 입상 시상식 및 전시회



장애인식개선 교내 포스터 공모전

장애인식개선 교내 표어 공모전

00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시상식

00장애인종합복지관 주최 작품 전시회

사. 장애 체험 활동

일반아동이 장애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장애 학생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장애아동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 (1) 월 1회 재량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 (2) 장애아동이 놀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반아동에게 장애체험활동의 목적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시한 후 소감문을 써 보았다.

〈장애체험 프로그램〉

시 기	장애 유형	체험 활동 내용
3월 26일 재량활동	■ 몸이 불편해요	■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4월 16일 재량활동	■ 말을 할 수 없어요	■ 소리 없이 말을 전달하기
5월 14일 재량활동	■ 말을 할 수 없어요	■ 한쪽 팔 붕대감고 생활하기
6월 11일 재량활동	■ 몸이 불편해요	■ 크리치로 이동하기
9월 10일 재량활동	■ 손이 불편해요	■ 입으로 글씨 쓰기
10월 08일 재량활동	■ 보이지 않아요	■ 눈 가리고 이어달리기
11월 19일 재량활동	■ 들리지 않아요	■ 수화로 노래하기
12월 10일 재량활동	■ 보이지 않아요	■ 점자 연습하기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 처음에는 재미있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까 팔도 아프고 언덕은 혼자서 가기가 힘들어요.



소리 없이 말을 전달하기 : 입과 손 모양으로만 표현하려니까 몇 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너무 답답해요.



붕대감고 생활하기 : 글씨를 잘 못 써 애를 먹었다. 화장실에서 잘 씻을 수가 없어 불편했다. 젓가락질이 서툴러 밥을 잘 못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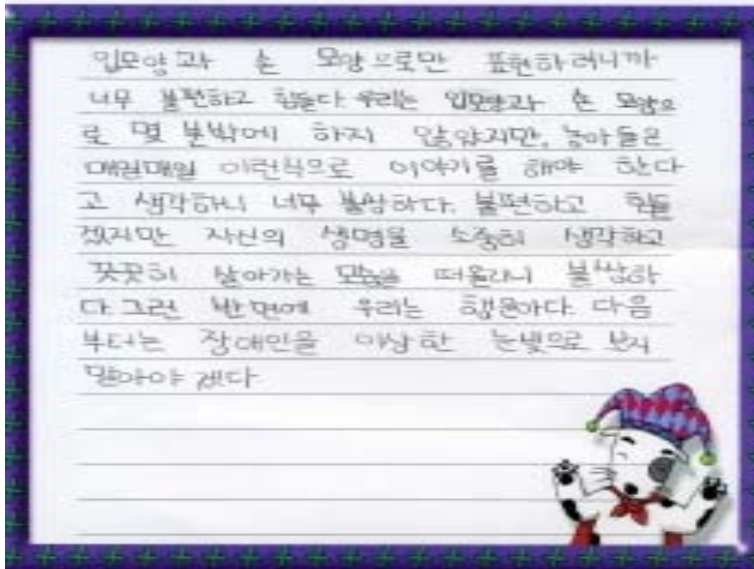
크리치로 이동하기 : 너무 힘들다. 땀이 다 난다. 넘어지기도 하였다. 장애인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입으로 글씨 쓰기 : 평소 고마움을 몰랐는데 이제 정말 알겠다. 내가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눈 가리고 이어달리기 : 첫발 내딛기가 무서웠다. 소고소리만 듣고 가려니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장애체험을 하고 나서

(3) 장애 체험활동 결과

- 00 : “소리 없이 말 전달하기에서 입 모양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으며 너무 답답했다”
- 00 : “시각장애체험을 하면서 소고를 치는 친구를 믿어야하는데 자꾸 눈이 뜨고 싶고 안대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다.”
- 00 : 안대를 하는 순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 00 : “시각장애인들은 참 불편하고 무서울 것 같다.”
- 00 : “장애를 가진 친구를 잘 도와주어야 겠다.”
- 00 : “불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답답하였다.”

사랑나눔터 아이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팔다리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말 할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 등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자신의 신체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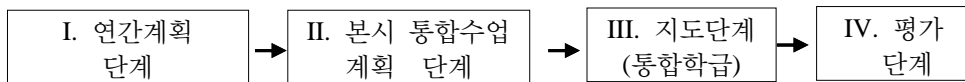
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랑나눔터에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 잠깐 동안의 불편도 힘들었는데 오랫동안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할 장애 친구들에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화이팅! 힘내라는 소감문을 쓰기도 하였다.

3. 실천 과제 [2]의 실행 :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맞춤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을 장애아동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은 수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목표나 교육내용을 재구성하는 것 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필요한 모든 교육환경을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흥미와 활동을 고려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결과 보다는 즐거운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가. 통합수업 운영 모형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특수학급 개별화교육 모형’을 참고로 하여 운영하였다.



- (1) 연간 계획단계 : 장애아동 개인의 학기별 성취 목표를 수립.
- (2) 분시 통합수업 계획단계 : 장애아동의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
- (3) 지도단계 : 장애아동이 원만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4) 평가단계 : 개별교육과정에 의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기록.

나.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계획

- (1) 학업수행 능력수준 진단 : 장애아동의 국어·수학과 중심으로 4학년 평가 결과 및 5학년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업수행 능력을 파악하였다.

〈학습 능력 분석〉

교과	영역	○○○의 현재 학습능력
국어	말하기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표현력이 부족함. •주의집중력이 약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지는 않음.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함 •책임감 있게 말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함. •도서관에서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습관이 있음.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에 맞는 글쓰기 능력이 부족함. •글자를 보고 쓰기는 가능함. •반침이 있는 글자는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음.

※ <부록 6> 장애아동의 국어·수학과 학습능력 분석표

(2) 학기별 개별화 지도계획 수립

통합학급의 일반교육과정과 장애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을 고려하여 국어·수학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연간 개별화 지도 목표에 도달하도록 계획하여 지도하였다.

〈개별화 지도계획〉

5학년 1학기 국어				
단원	영역	통합학급	○○○의 개별화교육 과정	
		학습목표	학습목표	학습내용
첫째마당. 마음의 빛깔 1. 이처럼 생생하게	말·듣 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고, 무엇에 비유하였는지 알기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고, 내용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 낭송하기 •시의 내용 알아보기 •비유적 표현에 밑줄 긋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 찾기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를 읽고 비유적 표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유적 표현 1개 쓰기 •비유적 표현 쓰고 바르게 읽기

※ <부록 7> 국어과 1·2학기 개별화 지도 계획

5학년 1학기 수학			
단 원	통합학급	○○○의 개별화교육 과정	
	학습목표	학습목표	학습내용
1. 배수와 약수	• 배수와 약수의 이해하고 구하기	• 자연수의 배수 구하기	• 구구단 외우기 • 바둑돌 놀이
		• 자연수의 약수 구하기	• 과일 모형 나누어 담기 • 색종이 사용하여 여러 가지 도형 만들기
	• 공약수, 최대공약수, 공배수, 최소공배수를 이해하고 구하기	• 공약수, 공배수 찾기	• 접시에 모형 과일 나누어 담기 • 막대자 눈금 표시하여 알아보기
		•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찾기	• 막대자에서 같은곳에 표시되는 위치 알기

※ <부록 8> 수학과 1·2학기 개별화 지도 계획

(3) 교과 차시별 개별학습 계획과 수행평가

교과의 단원별 개별화교육과정을 수업 중에 활용하고, 수행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별학습계획 및 결과 평가 >

과 목	수학	단원	1. 배수와 약수	차시	1-2
학습목표	• 배수와 약수를 이해하고 구할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를 이해하고 자연수의 배수를 구하기 • 약수를 이해하고 자연수의 약수를 구하기 				
평가내용	• 배수를 3개씩 구하시오. -2의 배수() -4의 배수()		• 약수를 구하시오. -6의 약수() -8의 약수()		

(4) 학습 발달 특성 누가 기록표의 작성

학습활동 후 단원 평가를 통해 학업성취수준을 파악하고 단원별 학습발달상황을 누가 기록하였다.

〈수학과 학습 발달 상황 누가 기록표〉

단 원 명	5학년 1학기 ○○○ 수학과 학습 발달 상황
1. 배수와 약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의 뜻을 이해함 •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 자연수의 범위에서 배수를 구함 • 과일모형을 똑같이 나누어 답는 과정을 통해 약수를 이해함 • 짝수와 홀수를 앎

※ <부록 9> 수학과 1·2학기 학습발달상황 누가 기록표

다. 통합수업 모형 적용의 실제

(1) 통합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국어·미술	단원	1. 감동의 울림, 4. 이야기 세상		쪽수	66-67, 12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을 살려 시의 일부분 바꾸어 쓰기 ▶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휴지심 북 꾸미기 				차시	1/6, 2/2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을 살려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쓸 수 있다. ▶ 휴지심 북을 꾸밀 수 있다. 					
학습준비물	▶ 휴지심, 도화지, 색칠도구, 풀, 가위, 색종이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일반아동	장애아동			
도입	동기유발	▶ PPT를 통해 바뀐 부분 찾기 • 돈, 영화 포스터, 사진 등 일부 바뀐 부분 제시	▶ 화면을 보고 바뀐 부분을 찾는다.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T •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 Video clip 감상 	
전개	학습문제 감상하기	◆ 휴지심 북에 자신의 경험을 살려 시의 일부분을 바꾸어 써 보자. ▶ 원시 감상 후 내용 확인하기	▶ 원시를 감상하기			



원시를 통한 경험 떠올리기



휴지심 북 만들었어요

원시의 내용이 아이들의 생활과 관계가 깊어 쉽게 동기 유발이 되었고, 개인 경험을 쉽게 끌어내었다. 장애아동들도 쉽게 마인드맵을 완성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원시를 기본으로 바꾸어 쓸 수 있었다. 또한 휴지심 북 만들기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을 모듬원들이 함께 도와 휴지심북을 잘 만들 수 있었다. 휴지심북을 발표할 때는 모두가 많이 웃을 수 있었다. 아이들 생활 속에서 함께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를 썼기 때문이다.

라. 통합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사랑나눔터에서 교과 수업은 짝 또는 모듬 단위로 하여 교사의 관심,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아동의 도움, 모듬 단위의 협동학습, 도우미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통합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수학은 개별지도가 아니면 계산 원리를 이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연산 영역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면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쉬운 문제는 풀 수 있었다. 특히 조작활동을 통해서 문제 이해를 쉽게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분수의 계산과 같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답을 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해결에 어려웠다. 도형의 넓이에서 기본적인 공식을 통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에서는 어려웠다. 학습 속도가 늦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본원리 정도는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장애아동은 몸이 빨리 피로하고, 힘들어서 수업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 가면서 자신감을 키워주고 칭찬도 받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 통합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며 느낀 점

(1) 좋은 점

- (가) 장애아동의 수준 및 특성 분석에 따른 개인별 통합교육과정을 계획한 후, 통합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초·기본교육 및 아동의 성취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 (나) 일반교육과정 중심의 통합교육과정 계획·운영으로 장애아동에게 계획된 다양한 학습경험이 제공되어 학습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였다.
- (다) 수업계획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모색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 (라) 수업시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와 개별적 지도가 많아짐으로써 장애아동의 수업태도가 좋아졌으며, 자기표현의 기회가 많아져 차츰 자신감이 증대되었다.

(2) 문제점

- (가) 함께 하는 교육은 학습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수업의 집중도나 기타 제약적 요소로 말미암아 학습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나) 학습능력차를 반영한 세밀한 수업계획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었다.
- (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였다.
- (라) 교사만으로 진행되는 통합수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4. 실천 과제 [3]의 실행 :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 맞춤 또래활동 프로그램

장애아동이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일 것이다. 장애아동이 학급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개별화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래에게 우선 인정받아야 함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아래의 활동으로 장애아동이 통합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차별감이나 거부감의 간격을 친밀하게 해 줄 수 프로그램을 계획 실천하였다.

가. 사랑나눔 띠앗 프로그램(띠앗: 우애나 정을 뜻하는 순 우리말)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도우미와 같은 친구를 정해 의도적인 도움보다는 사랑나눔터

모든 아동들이 띠앗 활동 속에서 자연스런 나눔의 도움 활동을 실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사랑나눔 띠앗 활동 방법

(가) 띠앗 선정

- ① 반 전체를 두 팀으로 나누어 한 명씩 띠앗을 선정한다.
- ② 두 팀이 마주보도록 책상 배치를 바꾼다.
- ③ “띠앗배치!”를 외치면 아이들은 책상 배치를 바꾼 뒤 자리를 정한다.
- ④ 팀별 카드를 주고 상대팀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개인카드를 확인한다.
- ⑤ 띠앗카드를 받은 친구는 당황할 것이므로 팀에게 표정 관리 시간을 준다.
- ⑥ 스케치북에 각 팀의 띠앗 이름을 크게 써서 그 팀에게만 보여주므로 해서 소속팀의 띠앗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나) 띠앗이 할 일

5-10가지 미션을 선정하여 메일로 선생님께 보내면 선생님은 수정하면 좋을 부분과 구체화해야 할 부분을 보충하여 답변 메일을 보낸다. 이로써 띠앗과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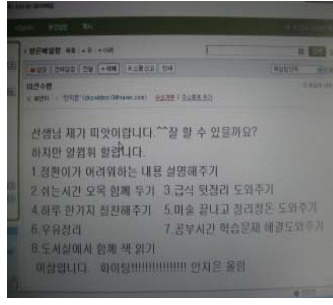


(다) 띠앗을 찾는 과정

- ① 띠앗 선정이 시작된 날부터 띠앗 쪽지를 제출 받는다.
- ② 일정한 날짜(월-토)가 지나면 띠앗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띠앗 쪽지를 모두 꺼내 하나씩 읽어주고 후보자 명단에 올린다. 띠앗 쪽지는 없지만 더 추천할 친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추천한다. 이유를 말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친구들의 나눔 도움 활동에 대해 칭찬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칭찬 받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③ 모든 후보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친구를 선발한다.
- ④ 후보들에게 띠앗카드와 띠앗친구카드를 역할에 맞게 다시 나누어 준 뒤, 진위를 밝힌다. 그리고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2) 사랑나눔 띠앗 프로그램을 통한 수확

(가) 서로 칭찬하는 일에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띠앗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칭찬하는 일에 익숙해졌다.

- (나) 스스로 미션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며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 (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고운 심성이 길러졌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려워하는 것 설명해주기 2.쉬는 시간 오목 함께 두기 3.급식 뒷정리 도와주기 4.하루 한 가지 칭찬해주기 5.미술 끝나고 정리정돈 돕기 6.우유정리 7.학습문제 해결도와주기 8.도서실에서 함께 책 읽기
<p>띠앗 배치</p>	<p>미션 메일</p>	<p>미션 내용</p>
	<p>이 친구, 띠앗 같아! 이00 미술 시간에 책상 위가 엉망이었는데 00가 쓸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조용히 나가서 급식을 도와주고 요즘 들어 친구에게 더 친절하고....아무래도 수상합니다.</p>	
<p>띠앗 카드</p>	<p>띠앗 쪽지</p>	<p>내가 바로 그 띠앗입니다.</p>

나. 사랑나눔 짝놀이 맞춤 프로그램 계획운영

장애우와 함께하는 또래 놀이 활동을 통하여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밀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 학교 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1) 방침

- (가) 장애아동·일반아동의 다양한 욕구, 흥미 및 수준을 고려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한다.(놀이의 재구성-가능한 장애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제)
- (나) 월 2회 체육시간 및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매월 1, 3주 운영)하고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2) 사랑나눔 짝놀이 프로그램

월	활동명	놀이의 재구성	활동 내용
3월	달팽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밖에서 한 팀은 안에서 한 명씩 차례로 출발한다. ■ 선을 따라 돌다가 서로 만나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계속 돌고 진 사람은 아웃된다. ■ 상대편 진에 골인하면 승부가 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의 휠체어가 들 수 있도록 경기 라인을 더 크게 그린다.
4월	그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공격, 한 팀은 수비함 ■ 공격팀은 출발선에서 결승선을 수비팀에 걸리지 않고 도착하면 1점을 얻게 되며 실패한 경우는 공수가 바뀐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에게는 짝을 정해준다.

※ <부록 10> 1·2학기 사랑나눔 짝놀이 프로그램

(3) 짝놀이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재량활동	단원	달리기		
학습 주제	▶ 동전이어달리기				
학습 목표	▶ 팀을 나누어서 친구와 함께 즐겁게 동전이어달리기를 할 수 있다.				
학습준비물	▶ 동전, 배턴, 라인기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일반아동	장애아동		
전개	준비운동	▶ 준비운동 • 운동장 가볍게 달리기 및 걷기 • 스트레칭 체조하기		7'	
	학습문제	▶ 변형된 동전이어달리기를 즐겁게 하자			
	학습활동 활동1	▶ 학습 활동 1. 게임방법 알기 2. 팀나누기 3. 동전이어달리기	▶ 활동내용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의 역할을 이해한다.	3'	
		▶ 활동 1. 동전이어달리기 방법 알기 ■ 달리기의 이어달리기와 방법은 같다.		5'	

작놀이 프로그램 활동 모습



달팽이



그냘수



동전이어달리기



나는야 요리왕!



물동이 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Welcome to my house



묵지빠



고리던지기



볼링



NIE

- 놀이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 활동 후 새로운 규칙을 이야기하며 다음엔 새로운 규칙으로 하자고 이야기한다.
- 게임 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고 적극적인 참여도가 향상되었다.
- 게임에서 졌을 때는 핑계를 대기도 했는데 점차 승부를 인정하고 즐겁게 친구들과 벌칙도 받았다.
- 처음에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였으나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 처음엔 무조건 먼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였는데 점차 차례를 기다릴 줄 알게 되었다.
- 친구들과 역할을 잘 정하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결과

짜놀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일반아동의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의 폭이 줄어들었고 장애아동을 친구이자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엿보였다. 장애아동이 자신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제한적이나 놀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장애아동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놀이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놀이 활동에 장애아동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놀이의 적극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다. 예·체능·실과 교과 프로그램 계획·운영

예·체능, 실과 교과는 모든 아동이 좋아하는 교과이고 그 중 체육교과는 제일 좋아한다. 이에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활동 중심의 교과활동을 함께 어울려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잠재된 표현 욕구를 표출하게 하고, 학습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갖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방침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가능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였다.

(2) 실천내용

(가) 예·체능, 실과 교과 중심으로 월·주 단위의 학습 활동을 계획 및 지도.

(나) 예·체능, 실과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협동학습 주제를 선정.

(다) 장애아동과 함께하여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방해가 된다는 등의 부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시 정의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여 칭찬.

(라) 교과활동 ‘한걸음씩’기록부를 작성하여 학습활동 내용에 따른 행동관찰을 통해 학습활동 중 수행 수준을 평가.

(마) 학습활동 중 ‘무지개’ 관찰록을 작성하여 부적응 행동 해소 방안을 찾고 학부모와의 상담 자료로 활용.

(3) 예·체능, 실과 교과 맞춤 프로그램

예·체능, 실과 교과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과 활동이다. 미술 활동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또는 감정을 다양한 색과 형태, 재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아동들에게 재미있고 흥미 있는 시간이다. 비록 사랑나눔터 장애아동도 표현활동을 하는데 불편하지만 때론 혼자서도, 때론 나누미들과 함께 표현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 음악 활동에서는 협동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 음악 수업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생들이 협동으로 음악을 연주하거나 만드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수업이 학생간의 지원 노력 없이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 유형에 맞는 모둠을 만들어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협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체육 활동에서는 장애아동이 부담을 적게 느끼고, 일반아동과 쉽게 동화될 수 있는 신체 활동수업을 정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일반아동이 도움을 주는 형태로 아동의 신체적, 기능적, 심동적 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수 계획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이 포함된 모둠은 그를 적극 포용할 수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신체적, 기능적 능력에 알맞게 학습목표를 조절하여 실패의 기회를 적게 하는 반면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실과 활동에서는 노작의 체험을 통하여 도구를 다루고 활용하여 일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성취의 기쁨과 보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의 선정에서도 노작의 체험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활 주변의 여러 분야에서 가급적 다양한 재재를 선정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자기 계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예체능, 실과 교과 프로그램〉

5학년 1학기 예체능, 실과 교과 프로그램			
월/주	교과/단원	활동 주제	활동 내용
3/3	음악/고사리 꺾자	■ 단소(리코더) 소리 내어 보기	■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단소(리코더) 연습하기
3/4	미술/수목화와 채색화	■ 수목과 채색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 여러 가지 주제를 수목화와 채색화로 표현하기
4/1	체육/달리기	■ 이어달리기	■ 바톤 전달 방법을 알고 모둠별 이어달리기 하기

※ <부록 11> 1·2학기 예·체능, 실과 교과 프로그램

<예·체능, 실과 교과 프로그램 교수학습 과정안>

교 과	체육	단원	달리기	쪽수	32
학습 주제	▶ 배턴을 주고받으며 이어달리기 하기			차시	3/3
학습 목표	▶ 바른 방법으로 배턴을 주고받을 수 있다. ▶ 규칙을 지켜 운동하는 태도를 가진다.				
학습준비물	▶ 바톤, 라인기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일반아동	장애아동		
도입	준비운동	▶ 다같이 운동장 뛰기 및 걷기 ▶ 친구와 함께 몸 풀기 체조 -발목, 무릎, 허리, 팔 돌리기 -제자리서 가볍게 뛰기		5'	
전개	학습문제 활동 1	▶ 규칙을 지키며 바른 방법으로 배턴을 주고받으며 이 어달리기를 할 수 있다. ▶ 배턴 주고받기 연습하기 ▶ 짝이 된 아동은 돕고 장애아		15'	

예·체능, 실과 교과 프로그램 활동 모습

			
단소·리코더	수목채색화	이어달리기	우리학교 식물은?
			
리듬치기	사랑으로 가꿔요	도서실에서-미키마우스	건빵으로 만들어요



맨손체조-스트레칭



컴퓨터로 가족신문만들기



백발백중



자연 속 찰흙 만들기



부채 만들기



농구형 게임



리듬치기



맛대맛



색의 변화-협동화



얼쑤-강강술래



신나는 우리가락



동네제기

한걸음씩				무지개			
교과	과목	단원	검토단 내차	교과	과목	단원	민속놀이
학습주제	가족신문 만들기	작업동	1 (0)	학습주제	두뇌	아동	(0)
혼자서도 잘해요!			잘함	이런 일이			
학습 준비를 잘해요			0	손이 힘이 없어 단단한 계룡 이등하거 벼 가깝다고 자중을 낸다. 지렁이가 생겼어?			
열심히 공부해요			0	선생님 이야기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요			0	갈매 아들에게 먼저 던지개로 씹어는 곳도 문고 도와주수 잊도록 함			
발표도 잘해요			0				
하고 싶은 말	워드 프로세서로 가족신문 만들기 시범 차라 게임만 하려고 하였다 선생님이 다지 연습은 하게 하였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가서 또 게임을 한다						

(4) 결과

- (가) 학습활동 중 많은 부분에서 친구들의 도움과 단체 모둠 활동으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하고 예체능 및 실과 학습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 (나) 표현활동에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고 목소리도 작았으며, 행동에 어색함을 보였으나 친구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어울려 함으로써 점차 장애아동은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보였다.
- (다) 학습활동 중 일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장면도 많이 볼 수 있었다.
- (라) 짝·모둠 단위 학습활동으로 서로 즐겁게 의견을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친구들과의 친밀감이 높아졌다.
- (마) 일반아동들도 장애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 과제 수행을 잘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
- (바) 장애아동의 예체능·실과교과 학습적응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체능·실과교과 학습에서 교과 ‘한걸음씩’ 기록부를 작성하여 운영 초기와 비교하면, 장애아동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목표 도달 정도가 양호하였으며 수업참여 정도와 참여 태도, 친구들과의 친밀감, 협동성 등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 (사) 학습활동에서의 ‘무지개’ 관찰록을 통해 장애아동 학부모와 상담을 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부적응 행동 해소를 위해 지도할 수 있었고, 일반아동에게는 장애아동의 행동 특성을 알려 줌으로써 장애아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5. 실천 과제 [4]의 실행 : 함께 쌓아가는 사랑나눔 맞춤 체험활동 프로그램

장애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 자아정체감 및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직접 행동으로 참여해서,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경험의 장이 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장애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진로를 보다 적극적

으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했다.

가. 나눔으로 커가는 협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1) 목적

- (가) 장애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 세상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 (나) 서로 신뢰와 우정을 키워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고, 학습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다양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2) 방침

- (가) 여럿이 협동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나) 주1회 교과와 관련하여 협동적 체험활동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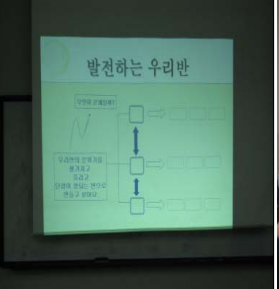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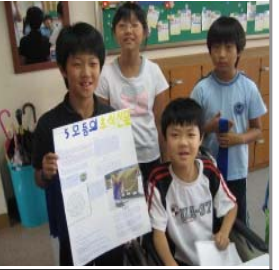
(3) 실천 내용

〈사랑나눔 협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월	주	활동 주제	활동 내용
3	3	너 나 그리고 우리	모듬 소개서 꾸미기 - 하나 된 우리 모듬을 알립니다.
	4	우리는 하나다	카프라 -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물 만들기
4	1	커가는 우리 반	생각 모으기 - 발전하는 우리 반을 만들자

※ <부록 12> 1·2학기 사랑나눔 협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협동적 체험활동 지도 계획>

협동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너, 나, 그리고 우리	우리는 하나다-카프라	생각 모으기	모듬 기사 만들기
			
TV속 나!	Global Korea	나도 스타 - 도전!	꽃그림 그리기
			
오목은 우리 모듬이 왕	척척 박사	가위바위보 이어달리기	STARKING!
			
집중력 - 도미노 게임	협동화 - 명화따라하기	꽃도감 만들기	추석 Best 5!



칭찬신문 만들기 천상의 목소리 우리말글 바로 알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집중력을 높여라 -총선 집중력		
일 시	2008년 6월 27일 금요일	
준 비 물	도미노	
활동 목표	◆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활동 단계	활 동 내 용	자료 및 유의점
준비	▶ 모둠별 생각나누기 ▪ 도미노 모양 ▪ 도미노 놓기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원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동하여 도미노 만들기를 한다. • 장애우 활동에 격려
도미노 만들기	▶모둠원이 나눈 생각을 중심으로 도미노 놓기	
경기	▶모듬별 시간을 측정하기	
경기 후	▶도미노 만들기 하면서 느낀 점/개선점 나누기	
평가	모듬원이 서로 협동하여 도미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4) 실천 결과

팀별 활동을 하면서 장애아동은

- “방송에 내모습이 나오니까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아요.”
-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신문에 써 줘서 고마웠어요.”
- “친구들과 장기 자랑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웃겨서 재미있었어요.”
- “친구들이 항상 옆에서 함께 해줘서 심심하지 않아서 좋아요.”

팀별 활동을 하면서 장애아동이 함께인 모듬의 모듬원 중 일부는

- 00 : “장애아동도 잘하는게 있어요.” 00 : “도울 수 있어서 좋아요.”
- 00 : “장애를 가진 친구가 저를 웃게 해줘요.”

00 : “내가 배려도 하고 도와주고 잘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아요.”
 00 : “친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는 마음이 커졌어요.”
 00 : “내가 도와주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들어 보람을 느꼈어요.”

팀별 활동을 하면서 장애아동이 함께인 모둠의 모둠원 중 일부는

00 : “장애아동 때문에 게임 활동에서 졌어요.”
 00 : “장애아동이 너무 많이 부탁을 해서 귀찮아요.”
 00 : “00는 잘못된게 없대요.” 00 : “선생님 모둠 바꿔주세요.”
 00 : “다음부터는 00와 같은 모둠 안할래요.”

이처럼 일부 일반아동의 경우 불평이 있었고 이를 들을 때는 난감했다. 일반아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불평을 하는 일반아동에게 협동적 체험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런 이해를 도왔다. 이런 의견을 말하는 아동에게 “모둠원들의 도움으로 00는 하나 더 알게 되잖아.”, “몸은 불편하지만 모둠원의 도움으로 함께 게임을 함으로서 00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너희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더욱 더 많은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다정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에 참여하며 우정을 쌓아 나갔다.

나. GLOBAL 사랑나눔 체험활동 프로그램

교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랑나눔터보다 넓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통해 함께 어울려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며 사회적 친숙 효과를 높여 즐겁고 신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였다.

월일	행 사 명	장 소	활 동 내 용
3.11	전교어린이회 임원선거	미술실	전교어린이회 회장·부회장 선거 참여
3.20	학교폭력예방	교실	학교폭력예방 표어·포스터 그리기

※ <부록 13> GLOBAL 사랑나눔 체험활동 프로그램

GLOBAL 사랑나눔 체험활동			
			
나도 한 표!	학교폭력 싫어요!	사랑을 전해요	뮤지컬 보러왔어요
<p>진지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후 선출된 임원 소감 발표 할 때 자기가 찍은 형이 되었다고 자랑을 한다. 폭력 없는 사회, 폭력 없는 학교" 손이 불편해서 힘들어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표어 그리기를 완성했다. 누구에게 쓸까 고민한 끝에 짝에게 "OO야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쓴 편지를 건넸다. 오늘은 뮤지컬 '정글북' 을 보고 왔다. 오랜만에 교실 밖을 나오니 즐겁기만 하다.</p>			
			
우주여행을 꿈꾸며	책은 마음의 양식	다이나바다	서울랜드/현대미술관
<p>오늘은 과학의 날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그림을 선택한 친구들이 모듬이 되어 함께 그리니 좋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 어머니회에서 다이나바다 행사를 했다. 친구들과 필요한 것도 사고 떡꼬치, 어묵 등을 사서 나눠먹었다. 오늘은 친구가 사줬는데 내일은 내가 사줘야겠다. 서울랜드에 가서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다 탈 순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탈 수 있는 것을 타니 기분이 좋았다.</p>			
			
독서골든벨	다문화 체험(이란)!	After school festival	심성수련활동

독서 골든벨 대회에 참여했다. 예선탈락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 아시아 문화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란이라는 나라 문화체험 공부를 했다. 직접 그 나라의 악기를 체험해보고, 음식을 먹어보았던게 제일 재미있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싶다. 방과후 축제를 하였다. 나는 평소 수업을 마치면 병원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에는 참여를 못하여 오늘 축제에서 발표는 안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이 할 때 박수를 많이 쳐주었다. 나도 무대에 서 보고 싶은 날이었다. 1박2일 극기훈련 난 못갈줄 알았는데 함께 갔다.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잤다.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장기자랑도 하고 정말 재미있었다.

실천 결과

- (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가져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다.
- (나) 학급의 구성원으로 함께 자리매김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는 활동이 되었다.
- (다) 행사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질서 의식도 향상되었다.
- (라) 서로 돕고 함께 어울리며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 (마) 심성 수련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다.

다. 사랑나눔으로 자라는 인성 가꾸기

바른 인성에서 바른 행동이 나온다.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키워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1) 실천 내용

- (가) 착한 마음을 갖고 바른 행동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하였다.
 - ① 미래의 주인이 될 나 :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소중함을 알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즐겁게 공부하는 사랑나눔터 : 사랑나눔터를 바로 알고 소속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나의 사랑 나의 학교 : 학교에 대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학교를 바로 알고 애교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린이 : 나라를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

질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어요 : 기본예절생활, 안전생활, 식사예절 등을 지도하고 매일 말일 바른생활실천 점검표를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⑥ 화목한 우리가족 : 매일 넷째주 토요일을 가족대화의 날로 정하여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 ⑦ 선행을 실천하는 사랑나눔터 어린이 : 착한 일을 실천하고 기록하게 하여 칭찬하고 학급회의를 통해 매일 최고의 선행아동을 뽑아 표창하였다.
- ⑧ 선생님 도와주세요 : 학교·가정·친구에 대한 고민, 궁금한 내용, 바라는 점 등이 있을 때 담임교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p>미래의 주인공 나</p> <p>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인생 목표</th> <th>직업</th> <th>학업</th> <th>취미</th> </tr> </thead> <tbody> <tr> <td>초등</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r> <td>중등</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r> <td>고등</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r> <td>대학</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r> <td>취미</td> <td>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인생 목표	직업	학업	취미	초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중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고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대학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직업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취미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p>즐거운 사랑나눔터</p> <p>우리 사랑나눔터 어린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p> <p>우리 사랑나눔터 어린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p> <p>우리 사랑나눔터 어린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p>	<p>학교야? 사랑해</p> <p>선 행 상</p> <p>세 5학년 1반 안</p> <p>위 어린이는 사랑나눔터 생활에서 실천수행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봉사 정신이 뛰어나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이 상장을 드립니다.</p> <p>2008년 6월 30일</p> <p>초등학교오학년일반반 담임</p>	<p>대~한~민~국</p> <p>표, 나는 자랑스런 자랑만큼 자랑</p> <p>표, 나는 자랑스런 자랑만큼 자랑</p> <p>표, 나는 자랑스런 자랑만큼 자랑</p>
구분	인생 목표	직업	학업	취미																																		
초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중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고등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대학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직업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취미	자주 책을 읽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p>바른생활 실천점검표</p>	<p>화목한 우리 가족</p>	<p>선행도 최고</p>	<p>선생님! 도와주세요</p>																																			

(나)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생활 속에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였다.

- ① 효도하겠습니다 : 매일 2주 토요일휴업일에 ‘효도하겠습니다.’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실천 내용을 기록하게 하였다.

- ② 효 실천 카드 : 부모님을 존경하며, 언행이 바른 어린이가 되도록 효 실천 항목을 정하고 매주 실천 내용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월	주	주제	월	주	주제
4	2	칭찬일기-자녀가 부모를 : 우리 엄마, 아빠 짱! 부모가 자녀를 : 우리 아이 최고	9	2	조상의 산소 둘러보기
5	2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 쓰기	10	2	부모님 일손 돕기
6	2	부모님 앞에서 장기자랑 하기	11	2	안마하면서 들은 부모님의 어린시절 이야기
7	2	역사적 인물의 효심 알기	12	2	부모님의 사랑을 만화로 나타내기

(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간의 서로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랑스러운 내 친구’와 관련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단순히 같이 노는 친구로서가 아닌 내면적인 유대 관계를 시작되는 시기이다. 아동들이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자기와 다른 시각이 있음을 이해하는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투입시키고, 친구의 소중함과 개인에 대한 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장애아동에게는 도우미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실행을 돕게 하였다.

- ① 자랑스런 내 친구 : 매월 학급 내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 일반아동과 일반아동간 짝을 새로 정하고, 짝에 대하여 ‘자랑스런 내 친구’의 월별 다양한 주제로 친구사랑운동을 전개하였다.

〈자랑스러운 내 친구 활동 프로그램〉

주 제	활 동 내 용			
자랑스러운 내 친구	4월	사랑의 편지쓰기	9월	내 친구를 주제로 시 쓰기
	5월	내 친구 캐릭터 그리기	10월	내 친구 이런 점이 좋아요
	6월	내 친구 자랑 광고 만들기	11월	내 친구 멋있죠? 예쁘죠?
	7월	내 친구 자랑 만화 그리기	12월	우정을 나눕니다

(2) 실천 결과

- (가) ‘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기록하였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며 등 꿈을 키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어요’에서는 기본예절, 안전생활, 바른 식습관 등을 지도하고 매월 바른생활 실천점검표를 통해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화목한 우리 가족’에서는 매월 1회 가족회의 시간을 마련하여 함께 공통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중요성 및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 (라) ‘착한 일 했어요’, ‘칭찬 릴레이’, ‘친구사랑’ 활동을 통해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괴롭힘이나 집단 따돌림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 (마) 매주 효행 실천 항목을 실천 반성하는 활동을 통해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인사 바르게 하기 등이 자연스럽게 습관화 되었으며, 매월 2주 토요일업일표 실천과제를 통해 생활속에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함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부모님께는 아이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V. 사랑나눔터에서 가꾼 양식

“나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 좋아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도 더 잘할 수 있어요.”-사랑나눔터 장애아동 000의 글-

작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가 자라 큰 숲을 이루듯.....

내일을 희망이라 부르는 이유는; 오늘도 나눔을 실천하며 커가는 사랑나눔터 나누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나눔터 나누미들은 소중한 희망의 가치를 위하여, 함께하는 친구를 위한 작은



나눔을 오늘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이들은 2008년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방법을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나눔터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실천 과제 1] 사랑나눔 만들기 맞춤 장애이해 프로그램 실천으로

가. 일반아동, 학부모의 통합교육 및 장애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 다양한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

[실천 과제 2]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사랑나눔 맞춤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가. 일반아동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별화교육과정의 계획과 통합수업의 적용으로 좀 더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수업시간 부적응 행동이 감소되었다.

나. 장애아동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수정 지원으로 다양한 학습내용을 제공하여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향상되었다.

[실천 과제 3] 사랑나눔 맞춤 또래활동 프로그램 실천으로

가.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였고, 공동사회의 한 일원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의 자연스러움을 깨달았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고 학급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사회적응능력이 신장되었다.

[실천과제 4] 함께 쌓아가는 사랑나눔 맞춤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천으로

가. 다양한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해서 배움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동적 태도, 친구에 대한 배려, 모둠의 약속 및 실천, 나눔의 보람 등을 배우게 되었으며 개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의 사회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다. 사회적 기술부족 및 대인관계 경험부족으로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장애아

동에게 사회적응 체험활동은 제한적 환경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감소되어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라. 인성 가꾸기 활동을 통해서는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친구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과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바른 심성을 지닌 어린이로 변해갔다.

사랑나눔터에서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균형적인 기회 아래 서로 다르지만 큰 꿈을 갖고 키워가며, 서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존중하며, 함께 어울려 즐겁고 신나게 생활했던 사랑의 터전이 되었다.

Ⅵ. 더 행복한 사랑나눔터를 꿈꾸며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통합교육도 이러한 노력들 중의 하나이다. 통합교육은 일반학생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의 장이며, 장애학생에게는 지적 능력과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학급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교나 학급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다. 이러한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통합학급 사랑나눔터 담임으로서 계획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실천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통합교육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더 큰 꿈이 생길 수 있게 하며 그 꿈을 키워주고 싶었다. 사랑나눔터를 맡으면서 일반학급 담임을 할 때보다 학급활동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에 아동의 수준과 특성, 흥미를 고려한 적합한 교육환경,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초·기본교육에 충실하며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계발시켜 주려 했다. 또한 서로 나눔을 실천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우관계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더 나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살아 갈 사회적응능력을 신장시켜 주고자 했다. 이렇게 사랑나눔터 시작

과 더불어 가졌던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며 강력한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장애아동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동등한 권리 및 기회를 강조하는 통합 교육은 서로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사랑나눔터에서의 경험이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나와 다르지 않는 너,
그리고 우리



I . 시작하면서	153
1. 수진이와의 만남	153
2. 통합교육 이해하기	154
3. 수진에게 다가가기	155
II . 사랑나무 심기 계획	155
1. 우리 반 친구들	156
2. 활동프로그램 실천 기간	156
3.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학급 실태 파악	156
4. 장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2008년 3월 기준)	157
5. 통합교육 생활지도 프로그램	158
III . 사랑나무 가꾸기	160
1. 실천과제 [1]의 실행	160
2. 실천과제 [2]의 실행	166
3. 실천과제 [3]의 실행	171
IV . 사랑나무에 맺힌 열매들	179
1. 이렇게 변했어요.(2008년 10월 기준)	179
2. 사랑나무 열매	181

나와 다르지 않는 너, 그리고 우리

심은보 (봉덕초등학교 교사)

I. 시작하면서

1. 수진이와의 만남

새학기를 준비하는 2월말 우리 반 아동의 명단을 받아보니 비고 사항에 한 항목이 있다. "지체부자유아" 그 단어를 보는 순간의 당혹스러움이란.....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아동을 담임해 본 경험은 있으나 "지체부자유 아동"의 경우는 처음이다. 새 학교로 발령받아 새로 만나는 아이들에게 사전 정보도 없다. 재빨리 특수선생님을 찾아 상태를 여쭙보니 뇌병변으로 인한 뇌성마비 아동이란다. 집으로 돌아와 관련 책을 뒤적이고 관련 정보들을 검색하였으나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수진이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개학 첫 날 학급으로 들어가니 이미 수진이는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또래보다 작은 키와 여린 몸으로 다리에는 보조기구를 장착하고 의자에 앉아있다. 휠체어가 옆에 놓여있고 손을 사용하기는 하나 부자연스럽다. 개학식을 하기 위한 아침조회가 있어 강당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보조 선생님도 아직 오시지 않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다리가 어찌나 가늘고 여리던지 잘못 만지면 부러질까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수진아,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선생님이 아직 잘 몰라서. 안아서 휠체어로 옮기면 될까?"

그렇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수진이를 안아 올려 세우고 휠체어에 겨우 앉혔다. 그 조심스러움과 긴장감, 떨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다. 나중에 보조선생님께 이야기 말씀드리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녀석……." 하신다.

썩 자연스럽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진이 혼자서도 책상을 짚고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안아주기를 기다린 행동을 두고 한 말씀이다. 그렇게 수진이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교내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수진이의 경우는 거의 원적학급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 이동과 여타의 필요한 경우 보조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새학기로 정신없는 동안 수진이와 반 아이들을 살펴보니 통합교육이라 학급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는 하나 전혀 교류가 없었다. 유달리 수진이를 챙기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친구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저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이외에 수진이는 우리 반에 없는 친구나 마찬가지로 형태로 수진이와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분위기, 무관심한 분위기에 마음이 아프다. 이로써 나는 좀 더 다른 형태로 접근하고 동기를 마련해 보기를 결심한다.

2. 통합교육 이해하기

통합학급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동향을 살피기 위해 서적을 찾아보니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입문 통합교육(학지사, 한국통합교육학회)”에 의하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 적응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통합교육의 동향은 장애인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자기중심적인 생활태도, 개인주의적 성향, 타인에의 무관심한 아동성향. 시대정신, 학습자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통합교육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애우와 일반아동 모두에게 인간의 외모, 능력, 성격 등의 차이를 인정, 수용, 존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개인차과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 학습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한다.

3. 수진에게 다가가기

수진의 부모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특수학급과 관련되기는 꺼려하셨다. 수진이 또한 사춘기를 맞은 또래의 아이들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수진이와의 상담은 조심스러워 부모님과 상담을 하고보니 수진이는 자신의 몸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쩔 다행이고 어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인정이 수진이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상담과 권유를 통하여 수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장애에 대한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다. 수진이는 대부분의 교과에서도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서는 속도감있는 글쓰기가 곤란하고, 단순한 사고로 해결될 수 없는 수학에서도 유창한 반복계산이 어렵다. 전담시간인 음악과와 미술과도 보조선생님의 도움 없이는 곤란한 상태 이외에도 사사소소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 이는 또래 관계로 이어져 사회성 발달, 인지발달, 인성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적극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절실했다.

II. 사랑나무 심기 계획

수진이와 학급 아동들의 생활지도 전개에 앞서 무엇보다도 학급 아이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3월에 수합된 가정기초조사서와 아동들과의 면담, 일부 학부모와의 전화통화, 3~4월에 걸친 아동 관찰과 설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학급

실태를 정리할 수 있었다. 더불어 장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 결과도 알 수 있어 앞으로의 생활지도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었다.

1. 우리 반 친구들

소속	학년 반	인 원		
		남	여	합계
○○ 초등학교	6학년 ○반	19	18	37

2. 활동프로그램 실천 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3.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학급 실태 파악

구 분	실태 및 행동특성	중점 지도 내용
기본 생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이 미흡	○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실천 의지 기르기
	자신의 과제나 역할을 끝까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함	○ 책임감 기르기
	웃어른을 보거나 선생님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아동이 대부분임	○ 때, 장소, 상대에 맞는 인사 예절 알고 실천하기
공동 생활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서로의 입장만 내세워 친구 간 종종 다툼이 있음	○ 자아존중감 및 이타심 기르기
	모둠별 학습활동에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고 다투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음	○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며 협동심 기르기
	자신에게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닥에 함부로 버림	○ 주인의식 갖기
가정 환경	편부, 편모 아동은 없으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가 1명	○ 교사의 세심한 관심 필요
	37명의 아동 중 맞벌이 가정의 아동이 18명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여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음	○ 부모님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제시 및 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유도

4. 장애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2008년 3월 기준)

장애아동과 통합교육의 실시하기 전 일반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 이해정도를 파악하고자 설문을 실시하였다.

편견 지수 체크리스트 응답결과

빈도 단위 : 명(%)

순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전혀 아니다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1	2	8	24	16	47	5	15	4	12	34	100
2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2	6	20	59	8	23	2	6	2	6	34	100
3	장애인을 보면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0	0	2	6	6	18	14	41	12	35	34	100
4	장애인은 항상 도와줘야 한다.	3	9	5	15	20	59	5	15	1	2	34	100
5	장애인은 무능하다.	0	0	5	15	8	24	9	26	12	35	34	100
6	장애는 유전된다.	0	0	4	12	11	32	8	24	11	32	34	100
7	장애인은 비방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	0	4	12	9	26.5	9	26.5	12	35	34	100
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자꾸만 시선이 간다.	8	23.5	12	35	8	23.5	4	12	2	6	34	100
9	내 짝꿍이 장애인이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15	44	8	24	10	29	0	0	1	3	34	100
10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다.	4	12	6	18	11	32	6	18	7	20	34	100

수진이를 제외한 일반 아동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보면 왠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런 편이다” 59%, “장애인을 보면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 전혀 아니가” 35%, “장애인은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 보통이다” 59%, “장애인은 비방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전혀 아니다” 35%,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자꾸만 시선이 간다 - 그런 편이다” 35%, “내 짝꿍이 장애인이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 매우 그렇다” 44%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편이나 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 어린 시선으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이 짝꿍이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아동이 44%로 높게 나와 아동들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5. 통합교육 생활지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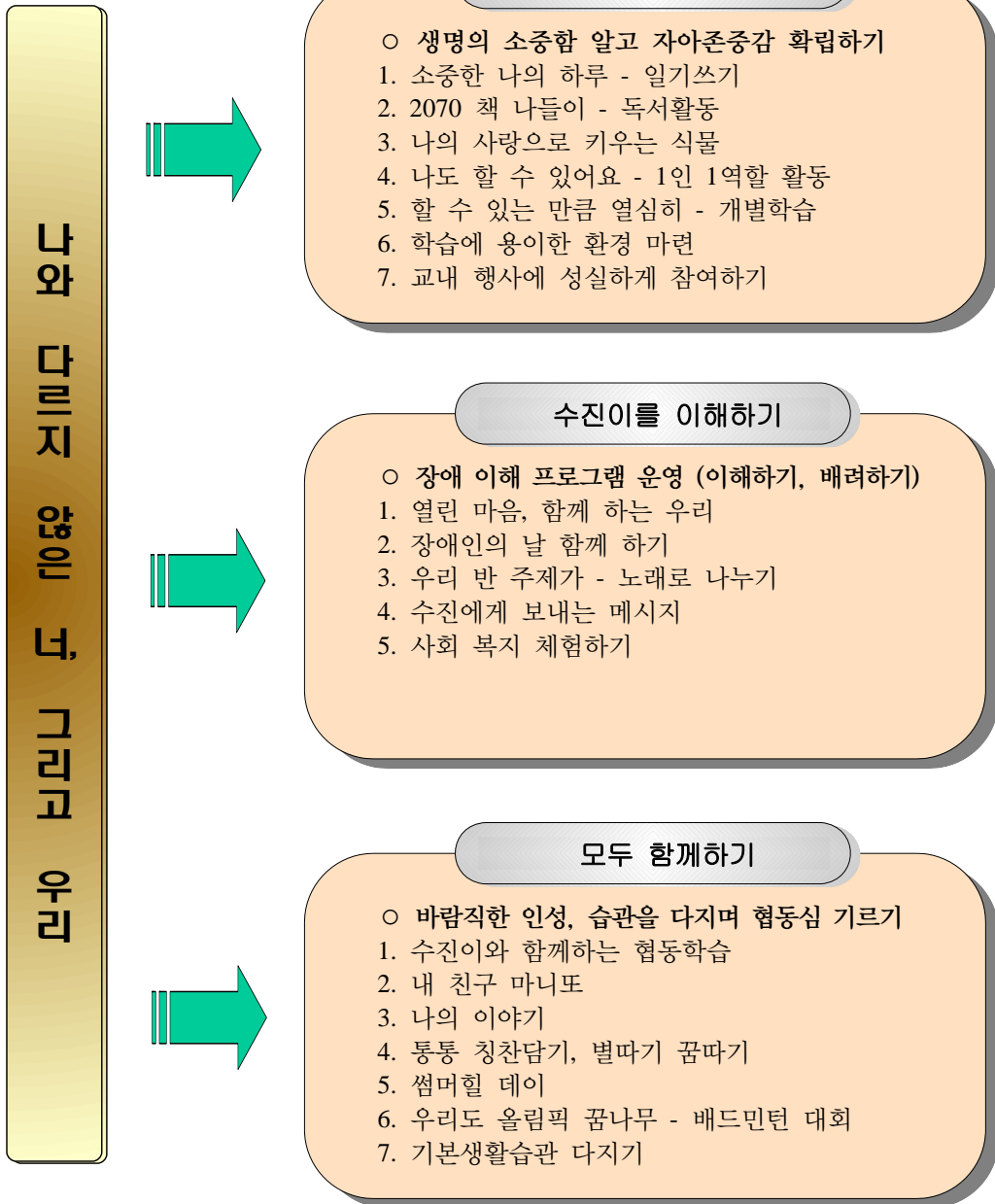
1) 월별 주제 설정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월별 중점 주제를 설정하고 생활지도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학교생활 속에 자아존중감을 확립해 나가고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며 협동심 고취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고려하여 월별 주제를 설정하였다.

절차	내 용		실 천 시 기											
			3	4	5	6	7	8	9	10	11	12	1	2
준비 단계	자료수집	선행실천 및 이론 검토												
	실태조사	기초조사 및 관찰, 면접 상담												
	방향설정	실태 분석 및 실천 중점 구체화												
실천 단계	계획서 작성	실천 계획 수립												
	실천지도	관련교과시간, 재량특활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통한 세부 실천 중점 지도												
	지도 반성 및 보완	문제점 발견 시 수정 보완지도												
검증 및 평가	검증 및 실행 평가	질문지 및 관찰, 면접 상담을 통한 검증												
	보고서 작성	실천사례 보고서 작성												

2) 실천 과제

통합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감, 협동심 고취 프로그램



Ⅲ. 사랑나무 가꾸기

1. 실천과제 [1]의 실행

나를 사랑하기 - 생명의 소중함 알고 자아존중감 확립하기

반 아이들과 수진이가 어울릴 수 있고 장애에 대한 아동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더욱이 수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진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확립하는 일이 우선이라 여겨져 자존감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았다.

1) 소중한 나의 하루 - 일기쓰기



수진이는 문장표현력이 우수한 아동이다.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표현하고 꿈을 가지고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했다. 이에 수진이의 장점을 파악하고 칭찬을 통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삼기로 했다. 일기를 통해 수진이에게 꾸준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부모님의 코멘트 달기를 통하여 부모님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꾸준한 일기쓰기를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2) 2070 책 나들이 - 독서활동

수진이는 손발 사용에 제약이 있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대신 독서를 통하여 세상과 접하고 있었다. 학급 뒤에 마련해 둔 2080독서관의 책들을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꾸준히 읽어나간다. 다 읽은 후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스티커를 채우고 또 다른 책을 읽기 시작한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며 수진이 부모님께서도 방학 중 읽을 전집을 추천해 달라는 전화를 주실 정도로 독서교육에 열심이다. 독서활동은 수진이가 즐겨 할 수 있는 활동 중 하나이므로 이를 적극 독려하고 칭찬하였다. 또한 글씨 쓰기가 미흡하나마 독서학습지도 성실하게 해나가 바람직한 독후활동을 이룬다. 학기 초에는 무심히도 다른 친구들과 같은 독서학습지를 내주었으나 수진이가 힘들어하여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다.



3) 나의 사랑으로 키우는 식물

학급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환경적인 요인과 아이들에게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적인 의도에서 1인 1화분 기르기를 하였다. 수진이도 자신의 화분을 교실 창가에 두고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진이의 거동이 불편하여 물을 주거나 돌보는 일은 보조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물 쪽으로 이동해 주기를 부탁하여 관찰하는 등 관찰재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4) 나도 할 수 있어요 - 1인 1역할 활동

사지의 움직임을 원활히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이동조차 곤란한 수진에게 학급 일반 아동이 수행하는 1인 1역할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게다가 체육과와 같은 신체활동이 주를 이루는 수업에서는 참가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버리는 시간이 많다. 수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한 끝에 학급 주요 활동에서의 사진 촬영을 맡겨보기로 했다. 수진아가 감당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선정하는데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힘들어했고 막상 찍고 싶은 장면을 잡았다 하더라도 셔터를 누르는 순간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또는 손이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학교 카메라에서 담임의 카메라 결국에는 수진이 가정의 카메라를 이용하기까지 이르러 그나마 흔들리지 않는 컷을 찍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수진이도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5)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 개별학습

- 국어과 - 수진은 자신의 의견을 발표 하고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빠른 글쓰기가 어려운 수진에게는 국어시간 마이크를 이용한 더 많은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칭찬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시켰다. 이에 다른 아동들도 수진의 발표에 적극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수진을 배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사회과 - 수진의 경우에는 필기를 하는 대신 사전에 필기 자료를 정리하여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로 준비하여 주었다. 사전 독서 경험으로 인한 지식과 관련하여 이해함으로서 사회과 성취도는 좋은 편이다.

- 수학과 - 교과 특성상 많은 연산 과정이 뒤따라야 하나 손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성취도가 낮은 과목 중 하나이다. 게다가 다른 친구들이 수진의 연산 속도를 배려하고 기다리기엔 무리가 있어 하는 수 없이 수업 진행은 일반 아동의 속도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 수진은 계속해서 수학과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될 수 밖에 없었고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 회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계속된 고민 끝에 일반 아동과의 차이가 이해력 부족보다는 연산속도의 차이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 학습 활동에서도 또래 모둠이나 보조교사의 도움을 통하여 필기, 노작 활동 등의 학습활동 지원 및 도움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가능한 수업활동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내용을 수정하거나 적절한 교구를 이용하여 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학습에 용이한 환경 마련

- 맞춤형으로 제작된 의자 사용 - 오랜 시간 동안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앉아있어야 하는 수진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쿠션이 되어져있고 수진의 신장에 맞춰 제작된 의자를 사용하였다. 의자에 따라 책상의 높이도 낮아야하니 이에 따라 주변 몇몇 친구들의 책상도 높이를 맞춰 배치하여 수진의 활동을 지원하고 칠판을 보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실에서는 휠체어의 드나들이 용이한 자리에 배치하고 교사가 쉽게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짝꿍을 수시로 바꾸어 다양한 어린이들과 상호작용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여름방학 중 수술 한 후 다리 상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보조대를 제작 활용하였다.



7) 교내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수진이는 교내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운동회에서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오후 경기까지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가을 현장학습에는 부모님, 보조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며 사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그 외 체육시간, 강연활동, 어린이 조회 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행사의 필요성을 알고 의미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 학급 임원 선출시 자신감있게 손을 들고 친구를 후보로 추천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등 학급 자치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각종 교내 대회에도 의욕을 가지고 참여하여 친구들도 수진이의 성실함에 감동하고 있다. 이에 지난 어린이날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교외 모범어린이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8) 교단일지 하나

동학년 회의시간이다. 부장회의 결과에 대한 전달을 받으며 학년연구실에 있는데 특수보조 선생님이 수진이의 휠체어를 밀고 씩씩거리며 들어오신다.

"선생님, 저 너무 속상해서 선생님이랑 상담 좀 하려고 왔어요."

이유인 즉슨 수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본 후 옷을 입히느라 세워 놓고 꼭 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진이가 난데없이 깔깔거리고 웃더란다. 왜 웃느냐 물으니 "그냥요" 라고 말하고는 또 혼자서 선생님을 바라보며 배꼽을 잡으며 웃는단다. 선생님의 어느 말이 또는 어떤 행동이 그리도 웃기냐고 물어도 그저 웃기만 하여 나이가 있는 선생님께서서는 모멸감을 느낄 만도 하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전에도 위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 보조선생님, 수진이와 상담도 해보고 관찰하고 있는 중이었다. 수진이는 보조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나 존경심 또는 어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해 보였다.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님께서 보조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모님이 보조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부모의 영향으로 수진이도 보조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당연했다. 부모님께 보조선생님을 같은 교사로 인정하고 수진에게도 그러한 부모님의 생각이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사람간의 예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을 부탁드렸다. 교실에서도 어른들께 공손히 대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하되 예의를 거슬러서는 안 됨을 반복하여 당부하였다. 또한 보조선생님께서도 수진이를 좀 더 이해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특수반 선생님과 함께 중재하는 일도 잊지않아야 한다.



이런 점이 좋았어요!

- ☀ 꾸준한 일기쓰기를 통하여 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봄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교사에게는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여 수진이를 더욱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 독서활동을 통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꿈을 키우고 동기를 마련하는 등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을 가져왔다.
- ☀ 식물 키우기를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 1인 1역할 활동을 통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 ☀ 개인차에 따른 개별학습을 통하여 학습에 참여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학습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도왔다.
- ☀ 각종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공동생활 속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회성 신장을 가져왔다. 성취동기를 마련하여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실천과제 [2]의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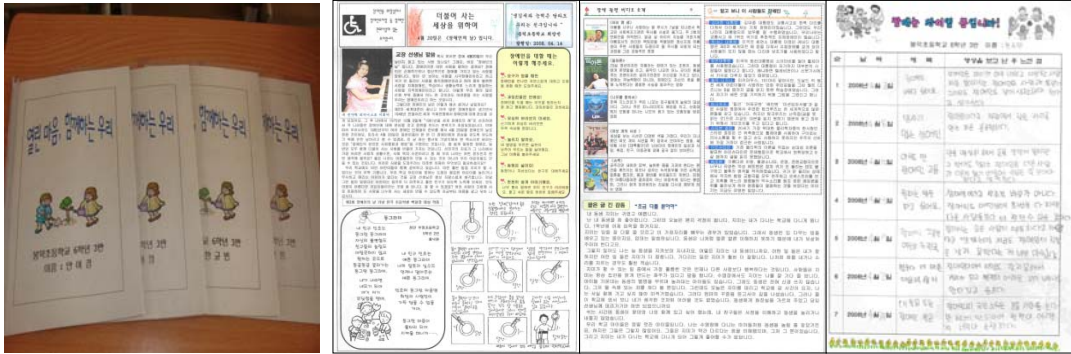
수진이를 이해하기 -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이해, 배려하기)

1) 열린 마음, 함께하는 우리

- 동영상 자료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수선생님께 자료 추천을 부탁드렸다. 많은 자료를 보내오신 중 “서울경인특수학습교사연구회”에서 제작한 <열린 마음, 함께하는 우리> 라는 자료가 눈에 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의 삶과 일상 등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간단한 책자와 함께 2 ~ 4분 정도

의 영상자료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침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3월부터 10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한 학습지를 작성해 봄으로써 아동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수진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 영화 감상 - 6월, 9월 토요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 “날아라 허동구”와 “말아톤” 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2) 장애인의 날 함께 하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수선생님께서 장애인의 날 신문을 제작 배부 하였고, 학급에서는 포스터 그리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제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기특했다. 잘된 작품은 복도에 게시하여 다른 학급 어린이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

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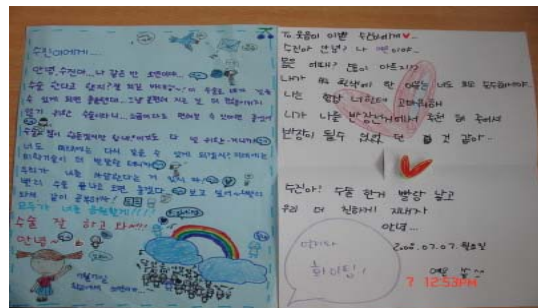
3) 우리 반 주제가 - 노래로 나누기

대중매체를 통해 아동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있는 문화 중 으뜸은 단연 노래일 것이다. 따라서 노래 부르기를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어려움에 대한 극복의지를 가지며 온화한 정서를 나눌 수 있도록 음악으로 접근해보았다.

월	노래	가수
3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	변진섭
4월	아름다운 세상	유리 상자
5월	거위의 꿈	인순이
6월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
7월	하하하송	자우림
9월	I have a dream	ABBA
10월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니	여행스케치
11월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
12월	아자아자!	코요테

4) 수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여름방학을 앞 둔 7월 수진이는 두 다리의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근육 수술을 받았다. 1학기를 함께 다 미치지 못하고 수술로 인하여 수진이는 학교에 나오지 못했고 우리 반 모두는 직접 문병을 하지는 못하니 편지로나마 응원의 메시지를 수진이에게 전하기로 했다. 비록 남자친구들의 경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편지를 시작해야할지 난감해 하는 모습들도 보였으나 수진이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반 모두가 한마음이었을 것이다.



5) 사회 복지 체험

좀 더 직접적으로 수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궁리한 결과 작년에 사회 복지 체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1개 모둠 8명을 데리고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로 사회복지체험을 하기로 했다.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의 두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었다. 복지관 선생님의 장애이해교육은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져 평상시 학교에서 하는 본 교사의 수업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시작된 체험활동 후 아동들은 수진이 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답답했는지 걱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다.



6) 교단일지 들

쉬는 시간 한 여자친구가 헐레벌떡 교사연구실로 아와 나를 부른다. 깜짝 놀라 전담교실로 가보니 수진이가 끼이끼이 울고 있었다. 왜 우느냐고 물어도 너무 속상한 울음을 토해내느라 대답도 하질 못한다. 개구쟁이 두 녀석이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곧 앞으로 나와서는 잘못했다고 하기에 우선 수진이랑 이야기를 한 후 다시 이야기 하자고 들여보냈다. 수진이의 울음이 그치고 이유를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남자친구들이 의자를 툭툭 차며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속상해도 대항할 힘도 없고 참았는데 오늘은 기어이 전담 시간에 수진이의 의자를 차며 길막지 말고 비키라고 소리를 질렀단다. 너무 속이 상해서 울음을 토해낸 것이었다.

무서운 얼굴로 교실로 돌아와 해당 어린이들을 불러 이야기를 해당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이 한 일이 얼마나 수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인지,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했을 수진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반성하라고 하니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곧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진이에게 사과를 하였다. 두 녀석에게는 사과하면 잊혀질 일이지만 수진이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지 않았을는지 걱정이다.

여자아이들 보다는 남자아이들이 수진이에게 더욱 무심했다.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저 관심이 없다. 위의 경우처럼 수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거의 없기는 했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하게 타이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주의를 준다. 두 친구 중 한 친구는 요즈음 들어 조심스레 부끄러이 손을 들며 수진이를 이동을 돕겠다고 나서기도 하여 여간 기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이 좋았어요!

- ☀ 장애이해교육에 동영상 자료, 영화, 신문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아동들의 이해를 돕는데 용이하였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많은 아동들이 편견을 깨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개개인의 다양성은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심을 키울 수 있었다.
- ☀ 장애인의 날 포스터 그리기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 게시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 월별로 반 주제가 바뀔 때마다 부르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욕을 얻을 수 있었으며 노래 가사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배려심도 키울 수 있었다.
- ☀ 수진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통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친구의 아픔을 나누는 마음을 가져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 ☀ 사회복지체험을 통하여 타인의 아픔을 나누고 역지사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타심을 기르는 효과를 가져왔다.

3. 실천과제 [3]의 실행

모두 함께하기 - 바람직한 인성, 습관을 다지며 협동심 기르기

1) 수진이와 함께하는 협동학습

수진이는 다른 친구들만큼 아니면 그 보다 더 욕심이 많고 성실하다. 한번도 숙제를 빠뜨린 적이 없으며 여름방학 중 수술로 인해 몸이 아프고 불편한 상태에서도 어머니를 졸라 방학숙제를 해왔을 정도이다. 모든 교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하였다. 사회과 수업에서 직접 협동신문이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발표학습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눌 것을 당부했고 실과 조리

실습 참여하여 수진이 가능한 수행활동을 할 것을 권했다. 과학시간에도 위험하지 않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많은 다양한 활동을 직접해봄으로서 수진이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2) 내 친구 마니또

생활지도 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진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하는 수진은 또래들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듣고 혼자 배시시 웃어보기도 한다. 일반 아동에게는 수진을 이해하고 수진은 다른 친구들과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마니또 게임을 진행했다. 수진이 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서로를 관찰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도움을 받거나 친절을 받는 아동은 사뭇 즐거운 표정들을 지어보였다. 다른 아동은 한 학기 1번의 마니또 게임을 진행하는데 수진의 경우는 늘 마니또를 두어 보조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학교를 비우실 때는 친구들이 돌아가며 수진의 생활을 도왔다. 화장실 사용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특수선생님께서 도와주셨으나 간단한 이동은 친구들이 도와주기를 자처했다. 휠체어를 듣거나 하는 것은 남자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의자에서 휠체어로의 이동, 교실간의 이동은 언제나 여자 친구들이 기꺼이 나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3) 나의 이야기

수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자존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꾸중 듣는 일을 개의치 않거나 하는 것 모두 자존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존감 즉 자아존중감을 일깨우기 위하여 교실 한 면에 자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코너를 마련하였다. 친구들의 생일을 게시하여 서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장래희망과 소개를 적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시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탄생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였다.



.....봉덕초등학교.....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파일(F) 편집(E) 보기(V) 즐겨찾기(A) 도구(T) 도움말(H)

주소(D) http://www.cjbongduk.es.kr/class/class_madang.html?mode=View&idx=13280&page=4&table=class04&search=&s_w=&s_v=&submenu=&bunlu=

1학년
1반 2반 3반 4반

2학년
1반 2반 3반 4반

3학년
1반 2반 3반 4반

4학년
1반 2반 3반 4반

5학년
1반 2반 3반 4반

6학년
1반 2반 3반

Home > 교실의 향 > 6학년 3반

공지사항 공부방 우리들 미당

가정통신문 학급앨범

작성자	박수진
이메일	kooja9922@yahoo.co.kr
글제목	내가 태어난 날 ♡

나는 다른 아이를 보다 3월이나 빨리 태어나서 청주에있는 병원에서 산호호흡기라는 기계가 없어서 서울에있는 성애병원에서 1.5kg의 작은 몸무게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라고하는 엄마의 배속과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기계 속에서 50일 동안 자라서 몸무게가 2.3kg일때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늘나라로 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나는 10월10일 오후 5시40분에 태어났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 잘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엄마는 나를 자연분만으로 낳아다고 하신다. 나는 자연분만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나를 자연분만으로 낳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부모님께 정말 잘 해야 겠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

다음 ▲ 내가 태어난날
이전 ▼ 마더가나를 낳으시던날

글쓰기 수정 답변 삭제 목록

Copyright © 2004 bongduk. All right reserved 학교홈페이지 : http://www.cjbongduk.es.kr

시작 3 Cool M... 2 Internet ... 차례수집 2 Hwp.exe 제목 없음 ... 오전 9:45

4) 통통 칭찬담기, 별따기 꿈따기

학급에서의 상제로서는 통통 칭찬담기와 별따기 꿈따기를 이용하였다.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게시해놓고 규칙을 잘 지키거나, 숙제나 발표를 열심히 하였거나 봉사 활동을 솔선수범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등의 자기 실적에 따라 각자의 요구르트 병에 깃발을 모아 10개가 모이면 별따기 꿈따기가 1단계 올라가는 제도이다. 한 학기동안의 결과를 보고 가장 우수했던 아동에게 학기말에 도서상품권을 상으로 수여하니 2학기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5) 썸머힐 데이

아동들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하여 토요일을 이용하여 썸머힐 데이를 운영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영국의 교육자 Nill의 교육철학을 담은 학교로 아동들이 주체가 되고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운영되는 썸머힐 학교에서 응용한 프로그램이다. 아동들의 창의력과 자유의지를 고취

시키고자, 아동들에게 토요일의 일정과 과목을 자유 토론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 교사는 지켜보고 조언하고 조력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자유 토론 과정에서 처음에는 산만한 듯 보였으나 곧 자신들만의 규칙을 적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썸머힐 데이 중 1시간을 차지했던 음식뷔페는 특히 인기가 좋았다.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접시에 담아 정리하고 나눠먹는 모습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6) 우리도 올림픽 꿈나무 - 배드민턴 대회

지난 여름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는 이어져 아동들이 체육시간과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을 하기를 원했다. 마침 체육과 교육과정에도 네트경기가 포함되어 있어 체육시간에 배드민턴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10월 초에는 학급 내 배드민턴 대회를 실시하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배드민턴

대회에 학급 아동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그 어떤 활동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 수진이는 같이 참여할 수 없어 대신 점수판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점수판을 관리하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7) 기본생활습관 다지기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은 자신의 기본생활습관 정착에서 비롯된다. 아동들의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하여 꾸준히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예절에 대하여 지도하였다. 특히 수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람간의 기본 예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듯 했다. 틈이 날 때마다,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자신의 과제와 역할 수행에 있어 책임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3분 인사는 점심시간 급식소로 내려가기 전 복도에 줄을 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인사하기를 연습해 봄으로써 마음은 있으나 어색하여 인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였다.



8) 교단일지 셋

“정보와 생활” 재량 시간. 아이들에게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아동들을 순회하며 지도하고 있는데 한 남자 친구가 다가와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 한다.

“선생님, 수진이한테 좀 가보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수진이 자리로 가보니 수진이가 실수를 했나보다. 신체 조절능력이 미흡하여 생리작용을 완전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신도 미리 신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조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더욱이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 집중하여 미처 도움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부랴부랴 보조선생님을 모셔오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약간의 응성임이 있었으나 다른 아동들 모두는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6학년 쯤 되었으니 눈치가 빨할 것이다. 그러나 잠깐의 술렁임 이후 모두들 모르는 척 해준 아이들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이런 점이 좋았어요!

- ☀ 자기조절능력이 미흡한 수진이와 한 교실에서 한 모둠에서 생활하고 도우며 아동들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에 익숙해짐을 보였다.
- ☀ 마니또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져나갔으며 이는 학교생활 전반으로 전이되어 다툼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
- ☀ “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이타심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나아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 ☀ 칭찬제도를 눈에 보이게 게시함으로써 스스로 동기를 마련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신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 씬머힐데이 운영을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배양되었으며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예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배드민턴 대회를 스스로 계획, 조직, 진행하며 각자의 역할 분담에 책임감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 ☼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치교육을 하여 확고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으며 기본 예절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예절에 맞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IV. 사랑나무에 맺힌 열매들

1. 이렇게 변했어요. (2008년 10월 기준)

통합교육을 주제로 한 생활 지도를 실천하기 전인 3월, 아동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조사한 바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과 실천, 체험을 한 후 현재의 설문을 통하여 아동들이 인식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견 지수 체크리스트 응답결과

빈도 단위 : %

순	항 목	매우 그렇다	증감	그런 편이다	증감	보통 이다	증감	아닌 편이다	증감	전혀 아니다	증감	계
1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0	-2	11.5	-12.5	25.7	-21.3	37.1	+22.1	25.7	+23.7	100
2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5.7	-0.5	17.1	-41.9	28.6	+5.6	37.1	+31.1	11.5	+5.5	100
3	장애인을 보면 웬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0	0	5.8	-0.2	34.2	+16.2	17.1	-23.9	42.9	+7.9	100
4	장애인은 항상 도와줘야 한다.	0	-9	25.7	+10.7	28.6	-30.4	28.6	+13.6	17.1	+15.1	100
5	장애인은 무능하다.	0	0	8.6	-6.4	17.1	-6.9	42.9	+16.9	31.4	-3.6	100
6	장애는 유전된다.	0	0	17.1	+5.1	22.9	-9.1	34.3	+10.3	25.7	-6.3	100
7	장애인은 비방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0	0	5.7	-6.3	25.7	-0.8	28.6	+2.1	40	+5	100
8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장애인을 만나면 자꾸만 시선이 간다.	11.5	-12	20	-15	37.1	+13.6	17.1	+5.1	14.3	+8.3	100
9	내 짝꿍이 장애인이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8.5	-35.5	17.1	-6.9	34.3	+5.3	37.3	+37.3	2.8	-0.2	100
10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다.	2.8	-9.2	8.6	-9.4	28.6	-3.4	28.6	+10.6	31.4	+11.4	100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 전혀 아니다”25.7%(+23.7),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 그런 편이다”17.1%(-41.9), “장애인은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 보통이다”28.6%(-30.4), “내 짝꿍

이 장애인이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 매우 그렇다”8.5%(-35.5), “아닌 편이다”37.3%(+37.3)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편견이 크게 수정되었음을 보여주며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정심도 고쳐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기 초 장애인 짝꿍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보였던 결과의 수치는 많이 낮아지고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인다. 위의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 학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큰 폭으로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랑나무 열매

통합교육을 주제로 하여 생활지도를 실천해 나아갔지만 어쩔 수 없이 한계는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인식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으나 수진이의 신체 활동 제약으로 인하여 여타 다른 아동들과 같은 또래관계 형성 도달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여자친구와의 관계 개선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사춘기를 맞은 남자친구들은 선뜻 수진이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주제로 인한 생활지도는 아동들의 생활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시사점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첫째, 통합학급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에게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대중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확립할 수 있었다.

둘째, 통합학급에서 장애아동이 학급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 모두에게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일반 아동이 장애아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서 통합교육의 환경을 넘어서 장애,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이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넷째,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발달에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가져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배울 수 있었다.

다섯째, 자신의 건강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통합교육경험이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거부감이나 왜곡된 사고와 편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체험 및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혜숙, 2003 -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 연구.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사실은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선행지식과 이해 그리고 직·간접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가를 말해준다. 장애 아동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일반 아동에게는 그 무엇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이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성인들이 먼저 장애아동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상호의존성과 협동을 강조하며 아동들을 안내해야한다. 보다 나은 미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 사회,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동인권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신문 활용 교육(NIE)을 통한
도서관 인권교육



1. 수업 동기	187
2. 수업대상 및 기간	187
1) 고양시 마두도서관 신문 활용 교육	187
2) 고양시 화정 어린이 도서관 평화 신문 만들기	188
3. 고양시 각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	188
1) 고양 마두도서관 신문활용교육(NIE)수업 계획안 -1,2학년	188
2) 고양 마두도서관 신문활용교육(NIE)수업 계획안 -3,4학년	189
3) 화정 어린이 도서관 - 평화 신문 만들기 수업지도안	191
4. 수업자료, 활동지, 활동 결과물	193
1) 마두도서관 2차시 - 인권, 평등이란?	193
2) 마두도서관 3차시 - 주제가 있는 만화 (주제 : 평등)	194
3) 마두 4차시	198
4) 마두 5차시 - 우리가 원하는 학교	201
5) 마두 6차시 -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201
6) 마두 7차시	207
7) 마두 8차시 - 공통점과 차이점	212
8) 마두 9차시 - “자연의 소중함 알기”	216
9) 마두 10차시 - 상상 만들기	218
10) 마두 11차시 - “조금 다를 뿐이야”	221
11) 마두 12차시 - 인권 나무 만들기	223
12) 화정 어린이 도서관	223

신문 활용 교육(NIE)을 통한 도서관 인권교육

이 애 리 (인권교육활동가)

1. 수업 동기

몇 년 동안 도서관에서 신문활용교육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도서관 별로 주제를 정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한 주제가 인권, 평등, 환경 과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된 것이다. 수업내용은 신문기사에서 알게 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NIE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킨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인권의식을 깨닫고 인권을 실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나아진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며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평화롭고 아름다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함을 알게 한다.

2. 수업대상 및 기간

1) 고양시 마두도서관 신문 활용 교육

- ① 대상 : 고양시 관내 초등학생 1,2 학년 그룹 20명과 3,4 학년 그룹20명
- ② 기간 : 매주1회씩 총12회(3개월) 1시간30분 수업

2) 고양시 화정 어린이 도서관 평화 신문 만들기

- ① 대상 :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그룹 20명
- ② 기간 : 1일 체험학습 2시간

3. 고양시 각 도서관 전체 프로그램

1) 고양 마두도서관 신문활용교육(NIE)수업 계획안 -1,2학년

- ▶ 장소 : 마두도서관 대회의실
 - ▶ 강의 일정 : 2008년 8월 27일 ~ 2008년 11월 12일 (매주 수요일, 총12회)
 - ▶ 강의 시간 : 오후 2시30분 ~ 오후 4시 (1시간 30분)
 - ▶ 준비물 : 신문(종합일간지1부),딱 풀, 가위, 8절 스케치북, 색연필, 색 싸인펜, 필기도구
- ※ 꼭 읽어 보세요 ▶ 신문이 없으면 수업을 진행 못 합니다. 꼭 준비해 주세요. *^^*

교육대상	초등1, 2학년	강사	이 애 리
학습목표	아동의 인권교육과 평등을 주제로 자신들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함과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신문기사, 시사만화, 광고, 사진 등 각 구성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NIE활동으로 신문과 친숙해지며 창의력, 표현력, 관찰력, 다양한 글쓰기, 인성교육, 인권 및 평등교육 등을 배운다.		

차시	활동제목	내 용	비고
1	신문 훑어보기	*신문과 NIE란? *신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보기 (기사, 사진, 시사만화, 광고, 여러 시각적 요소)	
2	인권, 평등이란? 소중한 나의 몸	*인권과 평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이해하기 *내 몸 각 부분의 역할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3	나는 만화가 (주제 : 평등)	*신문 만화의 마지막 한 컷 더 그리기 *신문 사진과 사진설명글을 읽고 만화로 표현하기	

차시	활동제목	내 용	비고
4	그림으로 표현하기	*아동의 인권과 관련 있는 기사를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설명글 쓰기	
5	우리가 원하는 학교	*신문광고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내가 바라는 미래의 학교 꾸미기- 설명하기	
6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신문기사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격려 편지 보내기	
7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얘기하기 *기사 속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을 신문에서 찾아 선물하고 이유적기	
8	그림일기	*신문 사진을 이용하여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그림일기 쓰기	
9	“자연의 소중한 알기”	*환경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 나의 환경 지수 알아보기 *신문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물건 찾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때를 적어보자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10	상장 만들기	*장애를 극복하거나 인권운동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단체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주인공에게 상장 만들어 주기	
11	“조금 다를 뿐이야” (모둠 활동)	*장애인에 관한 기사 읽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서약서 만들기	
12	인권 나무 만들기 (모둠 활동) NIE 수업 마무리	*신문 색종이를 이용한 나뭇잎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넣기 - 인권 나무꾸미기 *NIE 수업을 받고 느낀 점 발표하기	
♥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칭찬 격려 부탁드립니다.* ^^*			

2) 고양 마두도서관 신문활용교육(NIE)수업 계획안 -3,4학년

- ▶ 장소 : 마두도서관 대회의실
- ▶ 강의 일정 : 2008년 8월 27일 ~ 2008년 11월 12일 (매주 수요일, 총12회)
- ▶ 강의 시간 : 오후 4시 ~ 오후 5시 30분 (1시간 30분)
- ▶ 준비물 : 신문(종합일간지1부),딱 풀, 가위, 8절 스케치북, 색연필, 색 싸인펜, 필기도구

※ 꼭 읽어 보세요 ▶ 신문이 없으면 수업을 진행 못 합니다. 꼭 준비해 주세요.

^^

교육대상	초등3, 4학년	강사	이 애리 (한국NIE협회 연구원)
학습목표	아동의 인권교육과 평등을 주제로 자신들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함과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며 신문기사, 시사만화, 광고, 사진 등 각 구성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NIE활동으로 신문과 친숙해지며 창의력, 표현력, 관찰력, 다양한 글쓰기, 인성교육, 인권 및 평등교육 등을 배운다.		

차시	활동제목	내용	비고
1	신문 훑어보기	* 신문과 NIE란? * 신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찾아보기 (기사, 사진, 시사만화, 광고, 여러 시각적 요소)	
2	인권, 평등이란? 우리 몸 각 부분의 권리	* 인권과 평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이해하기 * 우리 신체의 소중함 알기- 광고의 사람 모델을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의 권리에 대하여 작성하기	
3	주제가 있는 만화 (주제 : 평등)	* 신문 만화의 각 컷을 줄글로 표현하기 * 신문 기사를 읽고 기사 속 내용을 만화로 표현하기	
4	평등 공익광고 만들기	* 신문 광고의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기 * 광고 문구 바꿔보기 * 신문의 여러 요소를 이용하여 공익광고 만들기	
5	우리가 원하는 학교	* 신문광고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내가 바라는 미래의 학교 꾸미기- 설명하기	
6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기사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기사 속 주인공이 되어 일기 쓰기	
7	“꿈을 펼쳐라” 나의 명함 만들기	* 아름다운 직업- 신문에서 직업의 종류 찾기 *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할 점 적어보기 - 신문을 이용해 미래의 명함 만들기	
8	공통점, 차이점	* 기사 속 주인공과 나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고 느낀 점 적고 발표하기	

차시	활동제목	내용	비고
9	“자연의 소중함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나의 환경지수 알기 * 신문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물건 찾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때를 적어보기 *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10	상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극복하거나 인권운동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단체나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고 주인공에게 상장 만들어 주기 	
11	“조금 다를 뿐이야”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 관한 기사 읽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서약서 만들기 	
12	인권 나무 만들기 (모둠 활동) NIE 수업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색종이를 이용한 나뭇잎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넣기 - 인권 나무꾸미기 * NIE 수업을 받고 느낀 점 발표하기 	
♥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칭찬 격려 부탁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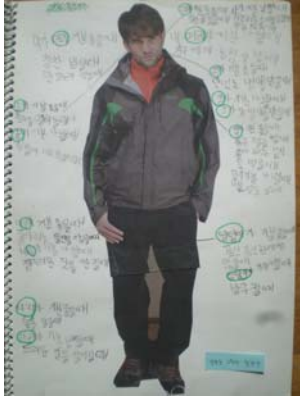
3) 화정 어린이 도서관 - 평화 신문 만들기 수업지도안


학년	4학년		학습시간	2시간 30분
활동주제	평 화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들이 평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본다. *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평등은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됨을 배운다. * 독후 활동으로 신문 만들기 수업에서 다양한 표현의 NIE 활동을 통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초등학생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행동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준비	교사	평화 관련 책, 일간신문, 활동지, A3색지, 예시자료		
	학생	가위, 딱 풀, 색연필, 색 싸인펜, 필기도구, 일간신문		
단계	교수·학습활동			

<p>도입 (15분)</p>	<p>* 평화, 인권, 평등이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우리주위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별과 평등에 대해 얘기하기. *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실천 사항을 말한다.</p>
<p>활동 과정 정리</p> <p>전개 (115분)</p>	<p>▶신문 만들기 - 신문의 구조와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 신문을 만들 때 신문의 기본 틀과 구성요소(기사, 사진, 시사만화, 광고 등)에 대한 설명하기 (15분)</p> <p>-----</p> <p>▶ 신문 구성요소와 신문의 구조 만들기 - 모둠활동 (60분) * 기사 쓰기- 평화관련 지정서적을 읽고 책 속에서 뉴스거리를 찾아 기사문 쓰기 (기사문에 대한 설명) * 사진-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사진과 사진 설명글에 대한 설명) * 시사만화 - 책 속에서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하기 (시사만화에 대한 설명) * 광고 - 평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광고 만들기 (신문의 여러 구성요소 이용) (신문광고 중 공익광고에 대한 설명) 그 외 - 독서 퀴즈, 명언, 작가 소개, 주인공 소개, 책과 관련된 다른 책 소개 등 ▶ 중간 휴식 10분</p> <p>-----</p> <p>▶ 신문 만들기 완성 - 모둠활동 (30분) 제호(신문이름), 발행일, 발행인을 적고 기사, 사진, 만화, 광고 등의 위치와 신문의 구조에 맞게 신문 만들기</p>
<p>정리 (20 분)</p>	<p>* 평화 신문 전시와 신문 만들기 활동 후 느낀 점 발표 * 불평등과 인권 문제의 시작과 해결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또한 불평등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을 꼭 하도록 약속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다.</p>


4. 수업자료, 활동지, 활동 결과물


1) 마두도서관 2차시 - 인권, 평등이란?

학년	초등 1, 2학년
주제	소중한 나의 몸
NIE 활동	▶ 신문광고의 모델의 전신 모습을 찾아 붙이고 내 몸 각 부분의 역할을 알고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적어보기
활동 결과	 <p>안곡 초 2학년 정유진</p>

학년	초등 3,4 학년
주제	우리 몸 각 부분의 권리
NIE 활동	* 우리 신체의 소중한 알기- 광고 모델의 전신사진을 이용하여 신체 각 부위의 권리에 대하여 작성하기
활동 결과	 <p>강선 초등 3학년 노지은</p>

2) 마두도서관 3차시 - 주제가 있는 만화 (주제 : 평등)

학년	초등 1, 2학년
주제	나는 만화가
NIE 활동	▶ 신문 사진과 사진설명글을 읽고 만화로 표현하기
내용	<p>[포토뉴스] 식사 배급 기다리는 사이클론 피해 어린이들</p>  <p>미얀마의 대형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해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이 7일 고아원으로 개조된 양곤강 건너편 달라의 한 학교에서 식사배급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은 '나르기스'로 숨진 사람이 최대 10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고, 미얀마 국영방송은 12일 현재 2만845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 AP연합뉴스 2008년5월12일</p>
활동 결과	 <p>안곡초등 2학년 정유진</p>

학년	초등 3,4 학년
주제	주제가 있는 만화
NIE 활동	▶ 신문 기사를 읽고 기사 속 내용을 만화로 표현하기
기사 출처	2008년 9월5일 소년조선일보 기사제목: [세계의 어린이들] "아이들이 놀려서 학교 못 가요"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강선초등 3학년 전민주</p>

※ 참고

< 기사내용 - 소년조선일보 2008년 9월 5일 >

[세계의 어린이들] "아이들이 놀려서 학교 못 가요"

잠비아의 열한 살 소년 두비

엄마로부터 에이즈 감염돼 출생

에이즈 고아는 130만 명에 달해



▲ 두비가 평일 낮인데도 에이즈에 걸려 학교에 못 가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비의 얼굴엔 종기가 많이 나 있다.

최근 아프리카 중부 내륙국가 잠비아에서 필자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한 아이를 만났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친구 ‘두비’.

두비는 잠비아 시골에 사는 열한 살 소년이다. 평일 낮인데도 두비는 집에 있었다. “왜 학교에 안 갔어?”라는 질문에 두비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 없어서요”

그러나 두비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이 놀리고 따돌려서 못 가요”라고 짧게 말했다.

두비의 얼굴과 몸 이곳 저곳에는 종기와 상처가 나 있었다. 입술도 크게 부풀어 있어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 때문이다. 두비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은 올 초 알게 되었다. 치료제를 먹고 있지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다.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양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할머니 혼자 다섯 명의 손자를 돌보는 형편에선 문지 않아도 뻘하다.

두비는 엄마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엄마는 두비를 낳고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아마도 에이즈 때문으로 보인다. 두비의 병 역시 엄마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99.9%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빠는 행방불명된 지 오래다.

잠비아에는 ‘두비’와 같은 어린이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 성인의 16%가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고, 14세 이하 어린이 8만5000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 모자(母子) 감염률은 매우 높아서, 매년 3만 명의 신생아가 에이즈 보균자로 태어나고 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이른바 18세 이하의 ‘에이즈 고아’는 130만 명에 가깝다.

에이즈는 비단 잠비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프리카대륙 전체의 문제다. 아직도 에이즈의 위협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은 탓이다. 주사기 바늘과 면도날 등을 함부로 돌려쓰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한다.

다행히 최근엔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가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잠비아 정부 역시 2002년 ‘성병 퇴치를 위한 정부 기관’을 세웠다. 2007년엔 3만1600명의 에이즈 감염 산모들에게 예방약을 먹여 신생아 감염률이 6000건 정도 줄어들었다.

당시 필자가 갖고 있는 것은 점심 식사용 바나나 몇 개가 고작이었다. 할머니에게 바나나를 드리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필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그리고 두비에 대한 관심은 어느새 수많은 ‘두비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래, 사랑은 작은 하나의 계기로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한 생명을 품으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을 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두비를 가슴에 품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해준 두비가 너무나 고맙다.

△ 잠비아 =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7.5배 크지만, 인구는 1150만 명으로 우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94.1%가 하루 2000원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 42%의 어린이는 만성영양실조, 66%의 어린이는 비타민A 결핍 증상을 보인다. 초등학교 진학률과 안전한 식수 보급률은 60%가 채 안 된다.

/ 월드비전 한혜원 팀장(기획연구실) 소년조선일보 2008년9월5일

3) 마두 4차시

- 1,2학년 - 그림으로 표현하기
- 3,4학년 - 공익광고 만들기 (주제: 평등)

학년	초등 1,2 학년
주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NIE 활동	인권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기사 속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기사 출처	2008년 7 월24 일 부산일보 기사 제목 : 한국 '어린이 인권 우표' 가장 아름다운 우표 뽑혀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안곡초등 2학년 정유진</p>

※ 참고

〈 기사내용 - 부산일보 2008년 7월 24일 〉

한국 '어린이 인권 우표' 가장 아름다운 우표 뽑혀
우리나라 우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표
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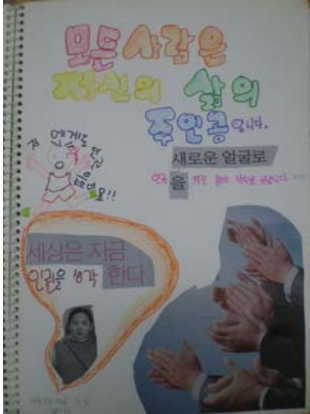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발행한 '어린
이 인권보호 특별우표'(사진)가 22일(현지시간) 이
탈리아에서 개최된 'ASIAGO 국제우취예술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표'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아름다운 우표상에 선정된 '어린이 인권보
호 특별우표'는 2006년 열린 '2007세계우표디자인
공모대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을 받은 노혜림(23)
씨의 작품이다. 전 세계 어린이들은 특별한 보호
속에서 행복과 사랑,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2008. 07.24 - 부산일보)

학년	초등 3,4 학년
주제	공익광고 만들기 (주제: 평등)
NIE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광고의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이해하기 ▶ 평등 공익 광고의 광고 문구 바꿔보기 ▶ 신문 속의 기사를 읽고 가난한 우리친구들의 인권을 위하여 친구들이나 어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 보자 또한 평등한 권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아 본다. ▶ 어떤 카피를 주로 쓸지 등을 결정하고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 신문의 여러 요소를 (사진, 광고, 광고 글, 그림, 기사제목 등...) 이용하여 표현해본다.

<p>활동 결과</p>	 <p>저동초등학교 4학년 김연희</p>
--------------	---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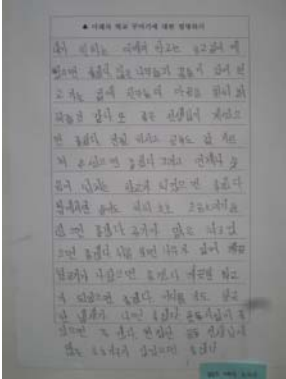


▶ 공익광고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 발전을 위해 광고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펼치는 의식개혁 캠페인이다.


☞ 공익광고협의회 - 공익광고 (평등)

4) 마두 5차시 - 우리가 원하는 학교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우리가 원하는 학교
NIE 활동	▶ 신문광고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내가 바라는 미래의 학교 꾸미기 ▶ 미래 학교에 대한 설명하기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강선초등 3학년 노지은</p>

5) 마두 6차시 -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학년	초등 1, 2 학년
주제	기사 속 주인공에게 격려 편지 보내기
NIE 활동	▶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신문 기사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편지글 쓰기 형식에 맞게 격려 편지 보내기.
기사 출처	중앙일보 2005년 10월 25일 기사 제목 :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중. 도시 바닥을 구르는 빈민 아동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초등 1학년 박정민</p>

학년	초등 1, 2 학년
주제	기사 속 주인공에게 격려 편지 보내기
NIE 활동	▶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신문기사를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편지글 쓰기 형식에 맞게 격려 편지 보내기.
기사 출처	중앙일보 2005년 10월 25일 기사 제목 :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중. 도시 바닥을 구르는 빈민 아동
활동 결과	 <p>황룡초등 4학년 이유진</p>

※ 참고

< 기사 내용 - 중앙일보 2005년 10월 25일 >

[가난에 갇힌 지구촌 아이들] 중. 도시 바닥을 구르는 빈민 아동
밀바닥 내몰린 아이들
쓰레기 더미서 고철 찾고
돼지 배설물 위에서 자고 ...

도시 밀바닥으로 내몰린 지구촌 아이들은 가난에 녹아든다.

◆ 네살짜리 장사꾼

소키(9)·산티(4) 자매는 캄보디아의 세계적 관광지, 앙코르와트 사원의 도시 씨엠립에 산다. 등교시간, 자매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앙코르와트 외곽 바레이 호수의 작은 섬으로 향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다. 조악한 나무 팔찌, 기

넘 엽서 등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조그만 것이 관광객을 졸졸 따라다닌다.

"언니, 팔찌 예뻐요. 다섯개에 1달러"라고 소리치며 한국인 관광객의 시선을 끌려 안간힘을 쓰는 소키가 안쓰럽다. 산티는 열심히 관광객을 따라다니며 엽서를 들이민다. 운 좋은 날 버는 돈이 5달러 정도. 농사 짓는 부모가 종일 일해도 그만큼 못 번다. 많은 아이가 학교를 떠나 관광지 주변을 떠도는 이유다. 가난은 자매에게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기술을 가르친 대신 어린시절을 앗아갔다.



◆ 쓰레기 형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의 최대 빈민지역 리테타에서 만난 아미수(8).아비지(6) 형제는 쓰레기나 다름없어 보인다. 함석집이 다닥다닥 붙은 좁은 골목엔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이 나뒹굴고, 그것들이 함석집에서 쏟아진 시궁창물과 함께 고여 있는 동네. 그 한켠 산처럼 솟은 쓰레기 더미가 형제의 일터다. 쓰레기에서 고철 조각을 찾아낸다. 손으로 종일 뒤진 두 아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취가 진동한다. 그런 꼴로 번 3~4비르의 돈, 우리 돈 약 500원으로 음식 찌꺼기로 만든 '꿀꿀이죽'을 사먹는다. 부모가 있지만 조막만한 함석집, 흙바닥에서 사는 처지라 애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 아디스 아바바시에는 절대 빈곤층이 30%가 넘는다.

◆ 돼지와 함께

페루의 쿠스코 인근 농촌에 사는 가리(5·사진 가운데)는 돼지와 산다. 축사가 없으니 '집따로 우리따로'가 안 된다. 그냥 같이 산다. 맨발로 배설물을 밟고, 날이 추워 수도가 얼면 돼지 분노가 똥똥 뜬 우물물을 쓴다. 끓이기는 해도 설사병에 자주 걸린다. 씻는다 해도 저 물에 씻을 테니 깨끗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뭔가 탈이 난 걸까. 가리는 자꾸 몸을 긁고 하품도 잦다. 지금은 안데스 고산지대를 휩쓴 건기에 가뭄이라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도 전 재산인 돼지 12마리는 절대 못 건드린다. 고기는 꿈도 못 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쿠스코 인근에 사는 5세 이하 아동 43%가 영양실조에 걸린다.

◆ 특별취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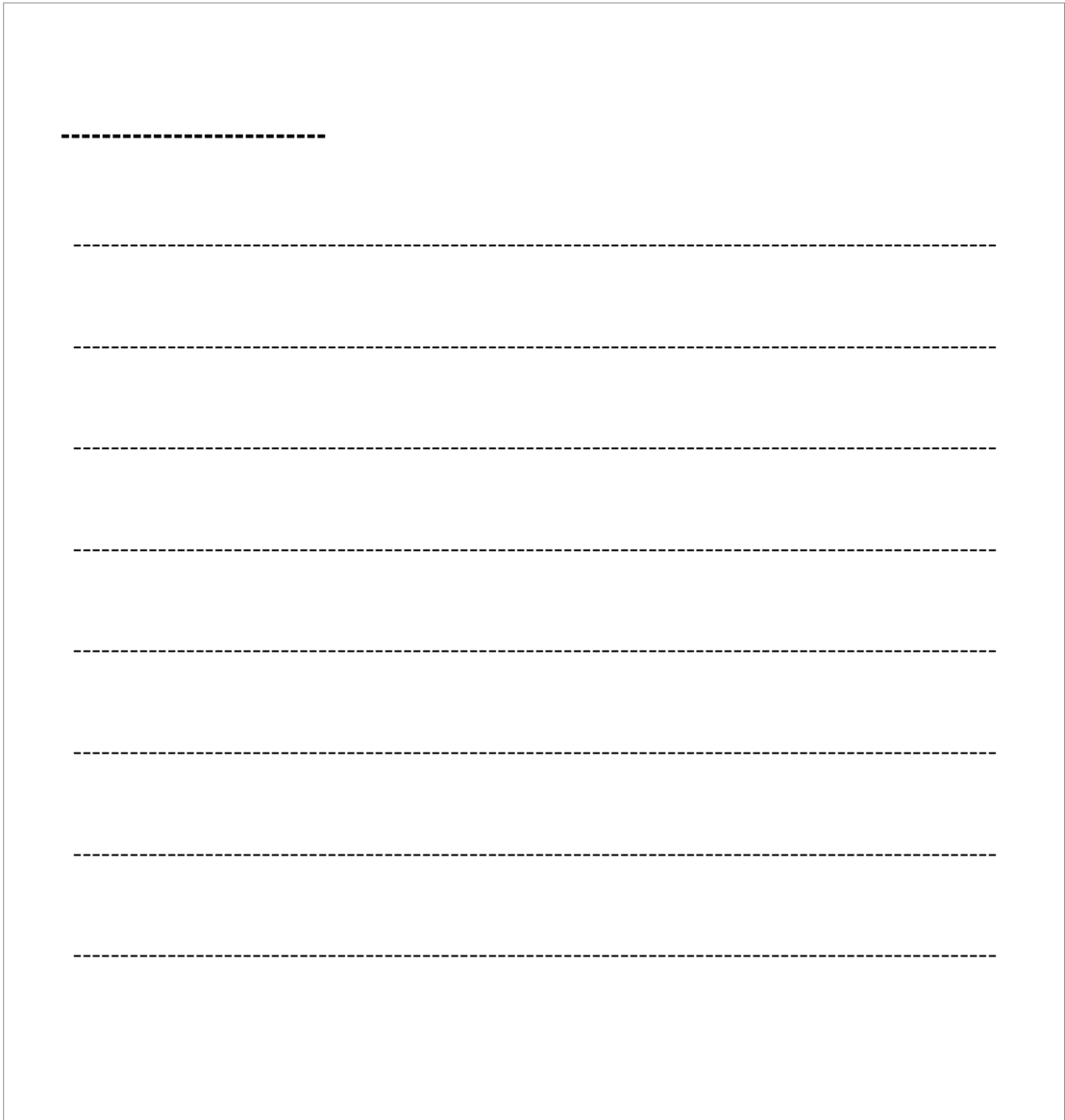
아시아 = 김은하 기자, 최병관 사진가

아프리카 = 안성규 기자, 이창수 사진가

남미 = 이원진 기자, 최재영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사진담당

<활동지> - 1,2학년

☺ 내가 만든 편지지로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containing ten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most of the width of the box, leaving a small margin on the left and right sides.

<활동지> -3,4학년

☺ 신문에서 기사를 읽고 기사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일기 쓰기


제목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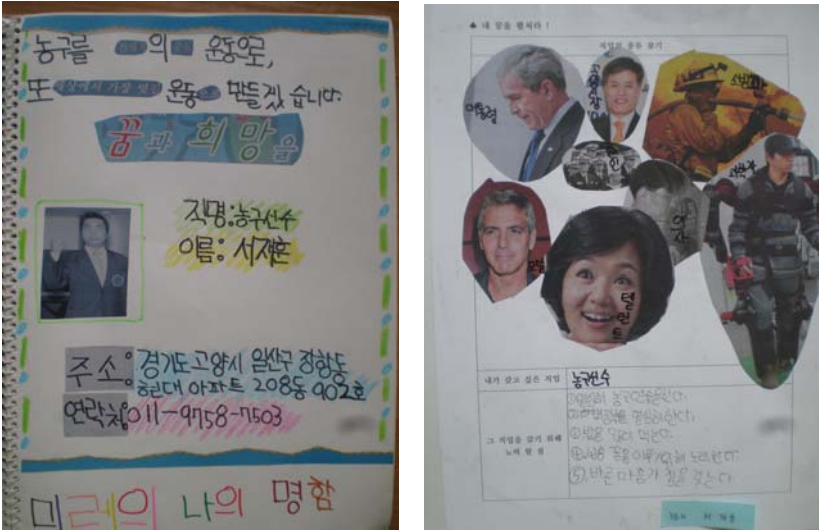
날짜 : _____

날씨 : _____

6) 마두 7차시

- 1,2 학년 -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 3,4 학년 - “꿈을 펼쳐라” 나의 명함 만들기

학년	초등 1, 2 학년
주제	“우리가 도와주어야 해요”
NIE 활동	▶가난 때문에 고통 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얘기하기 ▶기사 속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을 신문에서 찾아 선물하고 이유적기
기사 출처	2008년 10월 10일 소년 조선일보 기사 제목 : [세계의 어린이들] 식수 부족한 나라 캄보디아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활동 결과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초등 1학년 박정민</p>

학년	초등 3, 4 학년
주제	“꿈을 펼쳐라” 나의 명함 만들기
NIE 활동	▶아름다운 직업- 신문에서 직업의 종류 찾기 ▶내가 갖고 싶은 직업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할 점 적어보기 ▶신문의 구성요소를 이용해 미래의 나의 명함 만들기
기사 출처	2008년 10월 10일 소년 조선일보 기사 제목 : [세계의 어린이들] 식수 부족한 나라 캄보디아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활동 결과	 <p>문화초등 4학년 서재훈</p>

※ 참고

<기사 내용 - 소년 조선일보 2008년 10월 10일 >

[세계의 어린이들] 식수 부족한 나라 캄보디아 "깨끗한 물 마시고 싶어요"

▲ 월드비전 제공 캄보디아의 한 소년이 항아리에서 희뿌연 물을 뜨고 있다. 오염된 물 때문에 많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설사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월,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5시간만 타고 가면 되는 가까운 곳인데도, 그곳의 어린이들은 우리와 참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변화가 숙소 옆 공원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한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나이인데도, 소녀는 하루 종일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간식을 팔러 다녔다. 문제는 이런 처지의 어린이들이 캄보디아 전체 어린이 중 45%나 된다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로 가지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고 있었다.

시골 어린이들은 아예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신생아 및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신생아는 9.7%, 5세 이하 아동은 14.1%가 목숨을 잃고 있다. 주된 사망 원인은 어이없게도 ‘설사병’이다.

14살 찬툼이 살고 있는 우동 지역도 캄보디아의 수많은 농촌 지역처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들이 자주 설사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개울이나 연못, 또는 얇은 우물에서 식수를 떠먹는다. 하지만 물은 늘 희뿌연다. 찬툼은 “설사병을 막기 위해 물을 끓여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끓인 물은 정말 맛이 없다”며, 오염된 물을 그냥 별걱별걱 마셨다.

찬툼네 마을과 같은 곳에서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작 작은 정수기 하나다. 값싼 작은 정수기는 10년 동안이나 쓸 수 있고, 물을 깨



깨끗하게 정수해 설사 같은 가벼운 병으로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혼한 물....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없어 또래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캄보디아의 모든 물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친구들이 사는 마을에 깨끗한 우물 하나, 작은 정수기 하나가 전달 될 수 있다.



△ 캄보디아는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있다. 면적 18만 1,040km²로, 남한의 약 2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00달러(2007년 기준)인 가난한 나라다. 안전한 식수보급률이 41%에 불과해, 5세 미만 어린이 100명 중 14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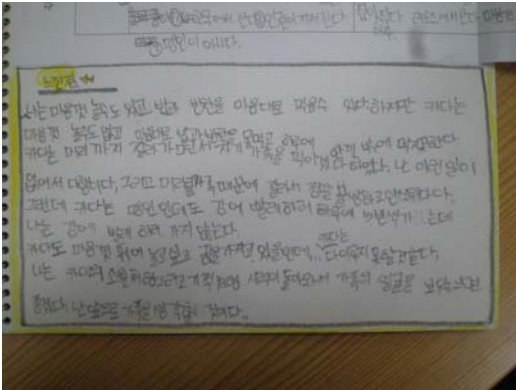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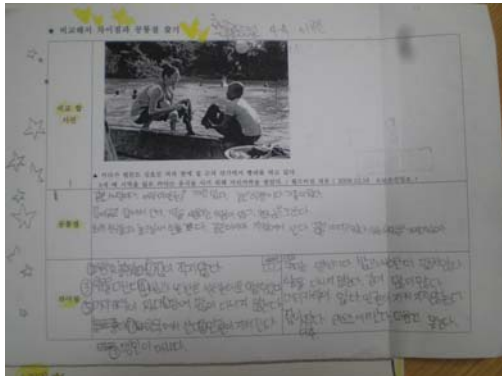
/ 월드비전 이지은 간사

<활동지>

♣ 네 꿈을 펼쳐라 !

직업의 종류 찾기	
신문에서 직업의 종류 찾아 붙이기	
내가 갖고 싶은 직업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 할 점	

7) 마두 8차시 - 공통점과 차이점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공통점과 차이점
NIE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설명글을 읽고 기사 속 주인공과 나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기 ▶ 공통점 차이점을 넣어서 느낀 점 발표하기
활동 결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 style="text-align: center;">황룡초등 4학년 이유진</p>

※ 참고

<기사 내용 - 소년 조선일보 2008년 10월 16일 >

[세계의 어린이들] 라오스의 열 두살 소녀 카다

"기적이 일어나 시력 찾았으면..."

가난과 굶주림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 라오스. ‘희망의 빛’을 전하기 위해 최근 월드비전 홍보대사 탤런트 김효진 씨와 가수 Mr.타이푼, 한국시력예방재단 의료봉사팀과 함께 라오스에 다녀왔다.

한 마을에서 소녀를 만났다. 카다(12세)라는 이 소녀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장작더미 뒤로 숨어버렸다. 우리는 카다가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다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盲人·눈먼 사람)이었다. 그저 낮은 목소리에 놀라 본능적으로 숨었을 뿐이었다.



▲ 카다가 탤런트 김효진 씨와 함께 집 근처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4세 때 시력을 잃은 카다는 음식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다. / 월드비전 제공

카다는 감염성 질환으로 한쪽 눈이 함몰되었고, 나머지 눈도 실명했다. 네 살 때 이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우리 의료봉사팀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간단한 시술뿐이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카다의 집을 방문했다. 집 안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일행은 청소를 시작했다. 빗자루와 걸레로 방바닥을 쓸고 닦은 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빨래와 이불을 들고 근처 강가로 향했다. 카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가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축에 치어 넘어지는 일도 잦다고 했다.

해가 질 무렵 식사가 시작됐다. 밥과 반찬 한 개가 전부였다. 그나마 양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날 처음 먹는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다.

빡빡 밀어버린 카다의 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유를 묻자 “음식을 구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다”고 했다. 카다는 “기적이 일어나서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족들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병원에만 일찍 갔더라면 카다는 시력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간단한 약 처방만 했더라면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김효진 홍보대사는 “돈 몇 푼 때문에 예쁜 두 눈을 잃은 카다가 너무 가엽다”면서 눈물을 펴펴 쏟았다.

매월 2만 원이면 라오스 어린이 1명의 두 눈을 지켜줄 수 있다. 매월 2만 원이면 라오스 어린이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작은 정성으로 한 사람의 삶을 보살피는 일...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라오스는 :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다.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100달러(2007년). 출산율은 4.5명으로 무척 높지만, 안전한 식수보급률이 51%에 불과해 5세 미만 아동 1,000명 중 7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평균 수명도 56.29세에 불과하다.

/ 월드비전 이현정 주임(홍보팀) (2008년10월16일 소년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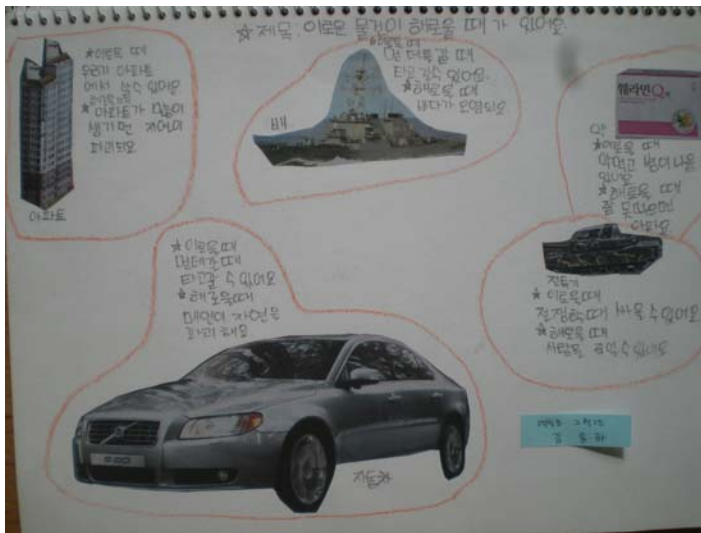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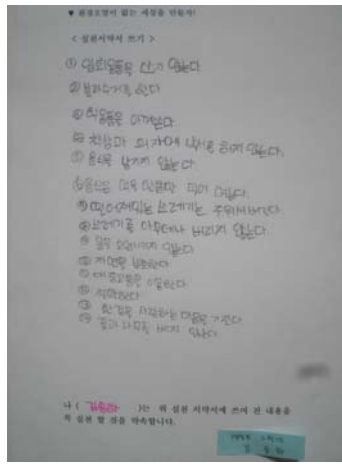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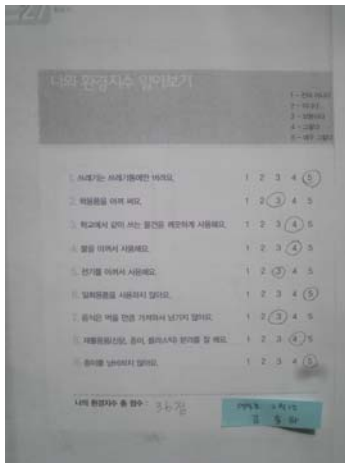
<활동지>

★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비교 할 사진	 <p>▲ 카다가 텔런트 김효진 씨와 함께 집 근처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4세 때 시력을 잃은 카다는 음식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았다. / 월드비전 제공 (2008.10.16 소년조선일보)</p>
공통점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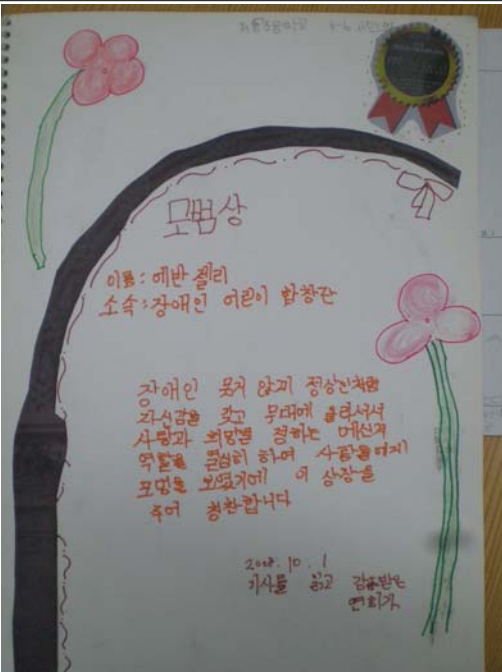
8) 마두 9차시 - “자연의 소중함 알기”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자연의 소중함 알기”
NIE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나의 환경지수 알기 ▶ 신문에서 우리에게 이로운 물건 찾아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때를 적어 보기 ▶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p>활동 결과</p>	<p>* 노력 할 일</p> <p>* 나의 환경지수</p> <p>* 이로운 물건이 해로울 때</p> <p>백석초등 2학년 김송하</p>
--------------	---

9) 마두 10차시 - 상장 만들기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상장 만들기
NIE 활동	▶ 장애를 극복하거나 인권운동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한 기사를 읽고 주인공에게 상장 만들어 주기
기사 출처	2008년 9월 19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제목 : "자신감 '업'...희망의 노래 불러요"
활동 결과	 <p>저동 초 4학년 김연희</p>

※ 참고

<기사 내용 - 소년 조선일보 2008년 9월 10일 >

"자신감 '업'... 희망의 노래 불러요"

오늘 '장애인어린이합창단' 에반젤리 공연

“어린이합창단은 많은데, 왜 장애 어린이를 뽑는 곳은 없을까?”

2004년 가을, 홍창진 신부와 방송인 손현주 씨, 지휘자 김은나 씨는 문득 이런 의문을 품었다.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장애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장애인어린이합창단 ‘에반젤리’는 그렇게 탄생했다. 에반젤리는 라틴어로 ‘사랑을 하다’라는 뜻. 공개 오디션을 통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19명을 선발했다. 처음에 주변 반응은 냉담했고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2005년 3월, 세상 앞에 서기 두려웠던 아이들은 당당히 무대에 섰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결눈질 하기 싫어요...’ 서있기도 힘든 한 아이는 팔꿈질을 참으며 무대를 지켰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하나가 되어 노래를 불렀다. 이내 공연장은 ‘홀쩍홀쩍’ 눈물 흩치는 소리로 가득 찼다.



▲ 에반젤리 단원들이 장지현 지휘자와 함께 '나무의 노래'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다.
/ 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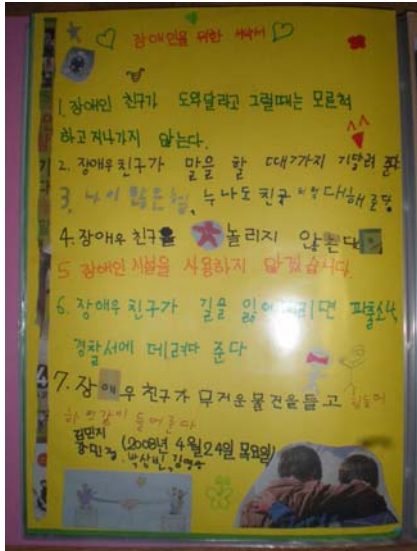
단원들의 생활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동민 양(안양 남초등 6년)은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됐다. 동민 양의 어머니 이현정 씨는 "반 친구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김지현 양(수원 효천초 5년)은 "합창단원으로 등산가 엄홍길 선생님과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웠다"고 말했다.

에반젤리 합창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제6회 장애인어린이 축제 공연에 출연한다. 에반젤리를 후원하는 사단법인 마음은행의 신혜정 사무국장은 "우리 아이들이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김아림 기자 2008.9.19 소년조선일보

< 활동지 >

10) 마두 11차시 - “조금 다를 뿐이야”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조금 다를 뿐이야”
NIE 활동	▶ 장애인에 관한 기사 읽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서약서 만들기 (모둠 활동)
기사 출처	2008년 4월 18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제목 : "장애 친구도 똑같은 친구"
활동 결과	 <p>1. 장애인 친구 도와달라고 그럴 때는 모른척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p> <p>2. 장애우 친구가 말을 할 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p> <p>3. 내기 많은 놀이, 누구나 친구 할 수 있다.</p> <p>4. 장애우 친구를 놀리지 않는다.</p> <p>5. 장애인 시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p> <p>6. 장애우 친구가 길을 잃어 버리면 파출부나 경찰서에 데려다 준다.</p> <p>7. 장애우 친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을 때 도와준다.</p> <p>2008년 4월 24일 목요일 남상민, 김우주</p>

※ 참고

<기사 내용 - 소년조선일보 2008년 4월 18일 >

"장애 친구도 똑같은 친구"

(2008.4.18 소년조선일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어떻게 해야 할까

"놀리지 말고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2007년 9월 현재 208만 77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2%나 된다.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주몽학교(장애인학교) 이은희 선생님은 “장애인은 도와줘야 할 친구이기애 앞서 똑같은 친구”라고 말했다. 친구들끼리 필요할 때 서로 돕듯이, 장애인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


주면 된다고 했다. 서울 서강초등학교 이은정 선생님(특수 교사)은 “무조건 다 도와주다 보면 장애 친구가 오히려 수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장애 친구에 대한 에티켓

- 신체 특성을 빗댄 비하 용어를 쓰거나 놀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휠체어·보청기·목발 등의 보장구는 신체와 똑같다. 허락을 받고 조심해서 만져라.
- 점자를 손톱으로 긁으면 읽을 수가 없다.
- 말이 느리고 발음이 불명확해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준다.
-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는다.
- 청각장애인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은 큰 실례이다.
-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지적 장애인을 만나면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다 준다.

(도움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김성수 과장) 류현아 기자 haryu@chosun.com

11) 마두 12차시 - 인권 나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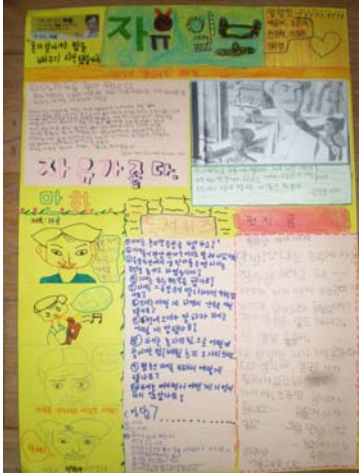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인권 나무 만들기
NIE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색종이를 이용한 나뭇잎을 만든다. ▶ 신문 색종이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넣기 - 인권 나무꾸미기 ▶ NIE 인권 수업을 받고 느낀 점 발표하기
기사 출처	2008년 4월 18일 소년조선일보 기사 제목 : "장애 친구도 똑같은 친구"
활동 결과	

12) 화정 어린이 도서관

- ▶ 인권, 평등책 읽고 평화 신문 만들기

< 평화 책 선정 >

- ① 사라, 버스를 타다 ② 자이, 자유를 찾은 아이

학년	초등 1,2,3,4 학년
주제	평화 신문 만들기
NIE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쓰기 - 평화관련 지정서적을 읽고 책 속에서 뉴스거리를 찾아 기사문 쓰기 (기사문에 대한 이해하기) ▶ 사진 -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사진과 사진 설명글에 대한 이해하기) ▶ 시사만화 - 책 속에서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하기 (시사만화에 대한 이해하기) ▶ 광고 - 평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익광고 만들기 (신문의 여러 구성요소 이용) (신문광고 중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하기) ▶ 그 외 - 독서 퀴즈, 명언, 작가 소개, 주인공 소개, 책과 관련된 다른 책 소개 등을 신문지면에 배치한다. ▶ 신문 만들기 완성 - 모둠활동 제호(신문이름), 발행일, 발행인을 적고 기사, 사진, 만화, 광고 등의 위치와 신문의 구조에 맞게 신문 만들기
활동 결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① 사라, 버스를 타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② 자이, 자유를 찾은 아이</p> </div> </div>

※ 참고

<책소개>

♣ 사라, 버스를 타다

저자: 윌리엄 밀러, 그림: 존 워드 번역: 박찬석 사계절 출판사



책 소개

사라는 호기심 많은 흑인 소녀입니다. 흑인은 버스 뒤에 타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서 한번도 버스 앞쪽에 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면서, 버스 앞쪽이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던 사라는 어느 날 버스 앞쪽으로 가지요. 버스 운전사는 뒤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법을 어긴

사라는 체포됩니다. 어린 소녀의 용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법을 바꾸기 위해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하며, 결국 옳지 않은 법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권위에 의해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소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이지요.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차별을 위해 일부러 차별하기도 하며, 알지 못해서 또는 감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또는 전통적인 편견 등에 의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별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불합리한 차별 행위가 다수의 합의에 의해 벌어질 때, 그것이 불합리하며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흑백 차별이라는 부당한 법에 맞설 용기를 낸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모두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법으로 정한 일이라 따랐던 차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소녀는 작지만 울림이 큰 용기를 보여주었으며, 그것이 결국 부당한 법을 바꾸는 불씨가 됩니다. 1950년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차별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불씨가 된 로사 팍스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쓴 것입니다. 1955년 12월 어느 날, 피부색에 따른 인종 차별이 ‘분리하되 동등하다’는 명분하에 법적으로 행해지던 미국의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로사 팍스라는 42세의 흑인 여인이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 양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됩니다. 이 사건으로 ‘몽고메리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일 년 후 버에서의 흑백 차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납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이 운동은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인터파크 제공]

〈작가 소개〉

○ 글쓴이 윌리엄 밀러

그림책 작가로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한 미국 흑인 작가들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작가가 발표한 첫 번째 그림책 『조라 허스턴과 멀구슬나무』는 미국 흑인 여성 문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라 닐 허스턴의 삶에 관해 자신이 쓴 시를 간결하게 바꾼 것입니다. 작가는 모든 작품에서 미국 흑인의 투쟁과 재할, 축제 같은 주제와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리처드 라이트와 도서관 카드』 『한밤의 골프』 등의 책을 썼다. 현재 미국 펜실베이니아 요크 대학에서 문예창작과 흑인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불씨가 된 로사 팍스 사건의 핵심을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장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 그린이 존 워드

뉴욕에 있는 비주얼 아트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포파의 새 바지』 『알록달록 켄테』 『자유를 향한 수수께끼』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 작가는 인물의 눈빛과 동작을 힘차고 선명하게 그려내어 인물의 감정과 의지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 옮긴이 박찬석

1973년에 태어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한 책으로는 『밤 풍경이 난 좋아』 『싫어!』 『빈둥거리는 아기 오리』 『레드월 수도원의 겨울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Jim Crow 법

짐 크로우라는 이름은 19세기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에 나온다. 짐 크로우는 나중에 미국 내 흑인들을 경멸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흑백분리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짐 크로우 법은 미국 남부에서 실시됐던 흑백 분리정책을 말한다. 짐 크로우라는 이름은 1830년대 뮤지컬쇼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음유시인들이 벌인 이 같은 뮤지컬쇼에서는 백인들이 얼굴을 검게 칠하고 흑인 역할을 했다. 이같은 쇼는 흑인들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았다.

1880년대부터 ‘짐 크로우’는 남부의 여러 주와 도시가 흑인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기 위해 제정한 흑백분리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짐 크로우 법은 흑인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백인들과 같은 식당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대법원은 여러 차례 짐 크로우 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1896년에 나온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이다.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은 철도 회사가 백인 승객들이 타는 객차와 흑인 승객들의 객차를 분리하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2 대의 다른 객차에 분리해 태우는 것은 “분리되긴 하지만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1899년, 인종별로 다른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NAACP)’는 짐 크로우 법을 폐지시키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침내 1954년 미국 대법원은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브라운 대 교육부’로 알려진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의 마을과 도시들에, 흑인과 백인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짐 크로우 법은 마침내 1960년대 민권운동에 의해 폐지됐다. 이같은 노력으로 민권법을 포함해 투표법, 공정주택법 등 연방정부의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됐다.

♣ 자이, 자유를 찾은 아이

저자: 폴 티에스 그림: 크리스토프 메를랭 사계절출판사



책 소개

이 그림책은 우리 세계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아동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와 함께 만든 책입니다.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야기이지만 국제사면위원회의 실제 사례 보고서를 기초로 엮은 것이지요. 아동노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가난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자이는 가난 때문에 양탄자 공장으로 팔려 가서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양탄자 공장 주변에는 축구공이나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도 아이들이 일을 합니다. 자이와 마찬가지로 감금당한 채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동노동 중에서도 가장 나쁜 형태인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노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책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인도에 사는 소년 자이는 양탄자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합니다. 짐승처럼 바닥에서 자고 먹고 감시당하며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양탄자를 짚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이는 꿈을 잊지 않습니다. 예전 고향 마을 개울가에서 못 새들과 놀던 때를 기억하지요. 새들이 유난히 자이를 따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자이더러 마법사라고 했습니다.

다. 자이는 항상 그때를 기억하며 양탄자를 짍니다. 어느 날 자이는 특별한 양탄자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양탄자 속의 새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아름다운 작품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자이는 꿈결인 듯 현실인 듯 그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하지만 정작 고향마을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고 자이한테 떠오른 생각은 공장주를 찾아가 그의 예쁜 딸에게 양탄자를 바치자는 거였지요. 자이는 공장주에게 마법의 양탄자를 줄 테니 자유를 달라 간청하고, 예쁜 딸에게는 마음을 줍니다. 공장주와 그 딸은 자이에게 그러마고 했지만 그것은 양탄자를 빼앗기 위한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자이는 양탄자를 빼앗기고 자유를 얻기는커녕 두 발을 쇠사슬에 묶이는 보복을 받습니다. 꿈 같은 마법의 힘이 가져다 준 자유는 그렇게 한바탕의 쓰디쓰고 잔혹한 꿈으로 끝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이는 마침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공장에서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이는 날마다 못으로 쇠사슬을 자른 끝에 드디어 스스로의 힘으로 도망을 칩니다. 새로운 삶이 자이 앞에 펼쳐집니다. 자이가 공장을 빠져나와 대도시의 어둠 속으로 도망치던 날, 자이의 콧속으로는 오렌지와 바닐라 향기가 훅 끼쳐 들어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 속에서 책을 덮게 하는 이 향기는 아프고 슬픈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고통을 진정시켜 주지요. [인터파크 제공]

이 책의 통합검색 결과보기

〈작가 소개〉

○ 저자 | 폴 티에스

글쓴이 폴 티에스는 1958년 프랑스의 국경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마드리드, 도쿄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현재 파리에 살고 있으며 태양과 투우, 휴가, 맛있게 잘 구운 고기, 정치, 서점, 우연히 길에서 즐기는 방랑, 여행, 그리고 봄, 가을을 좋아합니다. 겨울을 가장 싫어하고 여름은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늑대 수프』, 『나는 호랑이를 사랑한다(JE SUIS AMOUREUX D'UN TIGRE)』, 『공주의 그림자(L'OMBRE DE LA PRINCESSE)』 등의 책에 글을 썼습니다.

○ 그림 / 크리스토프 메를랭

그린이 크리스토프 메를랭은 수많은 그림책과 잡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직접 원고를 쓰고 그림을 그려 펴내는 그림책 작가이기도 해서 『발 냄새 나는 곰 아저씨』, 『아기돼지는 먹기만 해. 씻지도 않아!』, 『세네갈의 생 루이 도시(SAINT-LOUIS DU SÉNÉGAL)』 등 여러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개성이 넘치는 이 작가의 그림은 시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림책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 옮긴이 / 김태희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불문학을 공부했고, 지금 어린이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I. 서론	234
1. 인권, 교육, 인권교육	234
2. 지원 동기	235
II. 본론	236
1.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236
2. 캠프와 공동체 놀이	241
III. 결론	243
1.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243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이 은 선¹⁵⁾, 임 정 민¹⁶⁾

교육은 교육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삶의 변화에 목적을 둔다. 우리는 “캠프”를 통하여 공동체의 경험을 생산하며, 그 안에서 “공동체 놀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경험은 단순히 말뿐인 교육, 삶과 단절된 교육이 아닌 삶에 녹아드는 인권교육의 실천사례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와 우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과 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하여 그것들이 가지는 목적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해 보았다.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노력이 있었으며, 그로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보고서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캠프활동과 공동체 놀이가 가지는 특징과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할 것이다.

이번 공모전을 추천해 주신 고병헌 교수님과 사례 분류에 도움을 주신 연구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39회 졸업.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재학 중. 현재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에서 Program Director로 5년째 활동 중.

16)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39회 졸업.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중. 현재 “청소년과 놀이

I. 서론

1. 인권, 교육, 인권교육

1) 인권

“나(인간)로써 존중 받으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권리”

인간은 두 가지 권리를 갖는다. 첫째는 생명의 소중함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존중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둘째는 각 개인이 가진 개성의 발전이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이를 통하여 자아를 찾을 권리가 있다.

2) 교육

*“환경 안에서 삶의 방향성을 제시,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하도록 돕는 행위”*

이는 현사회가 지향하는 교육과는 달리 좀 더 포괄적인 ‘삶’중심의 개념이다.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교육은 환경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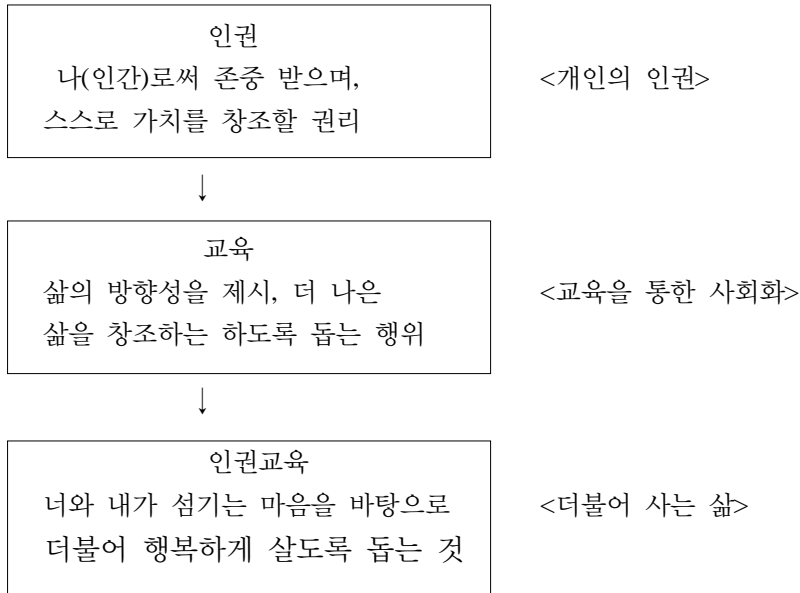
3) 인권교육

“너와 내가 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

개인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나로서 존중받고 너로서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인권을 가지는 개인들은 인권 교육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정의를 간단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 연구소”에서 선생님이로 4년째 활동 중.



2. 지원 동기

이은선과 임정민은 현재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은선은 이곳에서 5년째, 임정민은 4년째 활동 중이다. 이 활동은 자원봉사이며, 우리들 이외에도 학교와 전공, 직업이 각기 다른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대다수의 자원 봉사자들처럼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함께 소통하며 변화함을 느꼈고, 현재는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대학생할 전반에 걸쳐 이곳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소가 ‘공동체의 삶’과 ‘놀이’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캠프활동과 공동체놀이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내가 세움 받고 남을 세우는 것을 놀이를 통해 삶속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이런 놀이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사례를 통한 변화의 몇 가지 유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통한 훈련으로, 우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하나의 비전을 지

닌 운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었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동역하고자 이번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다.

II. 본론

1.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여기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경험에 기반 한 것들이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가 아님을 밝힌다. 그러나 경험에 기반 한 만큼 객관성 이상의 진실성, 사실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교육은 그것을 통한 삶속에서의 행동변화에 목적을 둔다. 때문에 이곳에서의 사례들은 주로 교육 대상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 될 것임을 밝힌다.

1) 형제가 없는 청소년

(1) 형제가 없는 청소년들의 특성¹⁷⁾

외동의 경우 형제가 없으므로 그로 발생하는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의 경우 공동체 놀이 진행 중 또래간의 이해가 부족해 고집을 부리거나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형제애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자신보다 고학년이나 저학년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학년에 반말을 사용,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지 못함 등) 그래서 자칫 버릇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또래집단에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 변화과정

외동의 경우 캠프기간에 고학년과 저학년을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형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형제애를 체험하게 된다.

17) 개개인의 사람들을 특성으로 묶어서 일반화시킨 접근법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구성의 체계를 위하여 굳이 분류를 나누고 일반화된 특성을 상정하였음을 밝힌다.

〈사례1〉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던 A군(외동)은 캠프기간 중 다른 또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때 A군보다 2살 많던 B군이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고 A군을 위로하였다. A군의 캠프가 끝나고 엄마에게 B군과 같은 형을 낳아달라고 했다. 형제를 거부하던 A군의 이런 변화는 어머니에게 놀라운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어머니는 선생님께 아들의 변화에 감사하다며 전화를 하셨다.

(3) 교육과정

외동의 경우 주위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독점한다. 그 결과 외동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캠프기간동안 수많은 협동 놀이를 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의견의 수용과 포기의 경험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체에서 조화롭게 사는 법을 터득한다.

〈사례2〉

캠프 중 청소년들은 ‘가위바위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가위바위보’를 통한 편리하지만 단순한 의사소통보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집단의 의사결정은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서 이루어지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외톨이 청소년

(1) 외톨이 청소년들의 특성

외톨이(왕따)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존감 결핍이다. 이 청소년들은 대화하기를 거부하며 프로그램 참여율도 떨어진다. 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또래집단은 이들에게 ‘이상한 아이’, ‘답답한 아이’, ‘조용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인식이 심화되면 외톨이 청소년들의 의견은 쉽게 묵살되고, 자신의 생각이 발언되는 것을 거부하고 두려워한다. 이들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타인과 함께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부하며, 관찰자가 되기를 좋아한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2) 변화과정

캠프기간 중 모든 청소년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존감이 확립되고, 스스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선생님은 청소년들의 각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드백을 준다. 또한 이런 외톨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려준다. 그러면서 다른 또래 청소년들이 함께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례3〉

A양의 경우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것을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었다. 이 콤플렉스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면서 중학생이 되어 왕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첫날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둘째 날 저녁에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 중 끝까지 남아서 성실히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발견하고 다른 또래 친구들과 그 사실을 나누었다. 이후 또래 친구들은 A양에게 “장금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A양은 보람을 느끼며 마지막 날까지 친구들의 식사준비를 도왔다. 그리고 이 사실에 친구들은 고마움을 표현했다. 캠프가 끝난 후 A양은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양은 쿠키를 구워 학교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학교에서 “요리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2년 후 A양은 훨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유럽으로 요리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갔다.

3) 결핍가정 청소년

(1) 결핍가정 청소년들의 특징

결핍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존감이 낮은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자신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죄책감이나, 혹은 부모님께 욕이 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는다. 이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이지 못하며,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이 때로는 폭력적 성향으로 표출 될 수도 있다.

(2) 변화 과정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캠프장에 와서 생활을 통해 ‘가정’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아버지가 없는 청소년은 남자 선생님을 통해서 ‘아빠’의 역할과 어른남성에 대한 신뢰를 경험한다. 한 부모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에게 없는 부모님의 모습을 선생님을 통해 그려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 또 생활전반에 걸쳐 선생님들과 부딪히며 가정 안에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이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정상’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선생님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 등이 놀이를 통해 긍정적으로 나누어지도록 노력한다. 결손 가정의 청소년이 스스로를 피해자/혹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임을 공동체를 통해 알도록 한다.

〈사례4〉

C양은 공부방을 통해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결손가정 청소년이다. C양은 환경적 요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화가 나서 자신을 자학하거나, 너무 우울해져서 캠프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거부하던 C양이 처음으로 참여한 것이 ‘풍선 터뜨리기’였다. 이를 통해 C양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다. 이를 본 C양의 담당선생님이 “자연느낌나누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C양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선생님은 C양이 자신의 환경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보호 하며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놀이로 제시해 준 것이다.

현재 C양은 자연 안에서 자신의 글과 소통하고 있다. 이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주변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4) ADHD 청소년

(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들의 특징

과잉행동장애 청소년들은 내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표현 방법이 서툴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자기 것을 분출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며

주변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과잉행동장애 청소년들이 가지는 폭력적 성향의 감정표현은 이런 주변과의 어려운 관계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관계를 갈망하고 있다.

(2) 변화 과정

과잉행동장애 청소년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대부분 “위험한 아이”, “무서운 아이”, “나쁜 아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이런 낙인으로 인해 그런 증상은 더욱 심해진다. 결국 정신과 치료와 약물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캠프는 수용적인 관계 안에서 ‘공동체놀이’를 통해 이런 청소년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전한 놀이를 통해 그들의 내적인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5〉

처음 캠프를 참여 할 당시 D군은 “(고삐 풀린)망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D군은 단 1개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진행 중 괴성을 지르고 식사 중에는 물을 테이블 위에 뿌리는 식으로 역할과 약속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3년 동안 꾸준히 연구소에서 하는 활동에 참가해서 함께한 결과, 지금은 자신이 먼저 놀이를 제안하고 놀이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캠프 선배로서 캠프 후배들에게 놀이를 소개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책임지려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늘 혼자였지만, 이제는 또래 친구들과 관계에서 자신을 컨트롤하며 다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5) Asperger's syndrome **청소년**

(1) Asperger's syndrome 청소년들의 특징

Asperger는 자폐의 일종이다. Asperger 병은 자폐증상은 자폐증보다 약하지만,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수학/과학에 뛰어난 능력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Asperger 증상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폐증상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 변화과정

Asperger 증상을 가진 청소년들을 또래 청소년들은 자폐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때 선생님은 장애를 가진 친구와 비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Asperger를 가진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 아니라 지적능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특별한 아이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사례6〉

K군은 Asperger 증상을 가진 청소년이다. K군은 사회에서 외톨이로 지내왔다. K군이 9살 때 처음 캠프에 참여했을 당시만 해도 사회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주위의 청소년 중 어느 누구도 K군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래 청소년들은 “이상한 애”, “바보”, “귀찮은 존재”로 K군을 생각했다.

이때 K군의 담당선생님은 K군에게 작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K군이 집단 안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다. 식사시간에 모듬의 수저를 놓는 작은 일이 이 교육의 시작이었다. 캠프장의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수년에 걸쳐 K군의 사회성을 증진시켰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힘을 주었다.

현재 K군은 계속해서 캠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회장을 하는 등 공동체 안에서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다.

2. 캠프와 공동체 놀이¹⁸⁾

1) 캠프에 대한 이해

(1) 캠프의 목적과 의의

캠프에서 사람들은 야외에서 집단을 이루어 며칠 또는 몇 주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이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개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공동체생활의 목적은 사람들이 각자 지, 덕, 체, 그리고 사회성이 조화를 이룬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 있고 하였다¹⁹⁾

18) 이하의 내용은 전부 전국재(2002), 조직캠프의 전인교육적 모형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서 발췌/기반 하였음을 밝힌다.

(2) 캠프의 인권 교육적 의의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에 필수적인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캠프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다. 캠프장의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며, 건강한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 기술과 덕목을 체험하고 학습하게 된다. 캠프는 청소년들이 지, 덕, 체가 조화로운 성장을 이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체 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가능성을 가진다.

2) 공동체 놀이에 대한 이해

(1) 공동체 놀이의 교육적 의의

놀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며, 이 특징들로 인하여 교육적 효과를 갖게 된다.

- ① 모든 놀이는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이다.
- ② 놀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진지한 행위라는 것이다.
- ③ 놀이는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닌 허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도 놀이하는 사람은 이에 몰두하고 헌신하여 진지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④ 놀이에는 그 놀이를 지배하는 그 놀이만의 절대적인 규칙과 질서가 있다.
- ⑤ 놀이는 장소와 지속성에 의해 일상적인 삶과 구분된다.
- ⑥ 놀이는 놀이가 끝난 뒤에도 지속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캠프기간 중 다루어지는 공동체 놀이의 경우 몇 가지 특징을 더 갖는다.

첫째. 비경쟁/협동놀이로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해서 서로를 만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놀이를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은 이후 활동에서도 협동의 동기가 된다. 또한 함께한 이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신뢰/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둘째.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중심의 놀이이다. 놀이라도 강제로 참여시키면 그것은 인권존중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런 과정에서는 놀이의 교육적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

19) Ball, 1990; Dimock, 1929; Gass, 1993; Mitchell, Crawford, Robberson, 1970

다. 공동체놀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음으로써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참여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도와준다.

셋째. 비지시적 인간중심 활동의 놀이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가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한다. 놀이의 과정에서는 놀이때마다 새롭게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장과, 집단안의 역동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뽑아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소집단 활동은 공동체놀이의 핵심요소이다. 인간 중심활동이 이루어지고, 관계와 나눔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작을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작을수록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교류가 빈번해지고 긴밀하고 친밀 해진다.

Ⅲ. 결론

1.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지금까지 캠프, 놀이의 의의와 이를 통한 다양한 변화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끝으로 이런 변화들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캠프는 더불어 사는 이상적인 교육과 생활공동체의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캠프를 통해 삶으로써 교육을 실천하고, 더불어 남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아를 찾는다. 이 과정이 인권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놀이는 이런 교육의 과정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주며, 몸으로 체험하도록 돕는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면, 백번 보는 것은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실천이 진정한 교육이다. 캠프와 놀이는 이런 인권교육이 삶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론적이지는 않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진실을 믿고자 노력했음을 밝히며, 무엇

보다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다가가기 보다는 ‘공감’의 형태로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데 힘을 실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런 실천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 신나게 놀 것이다.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 인권평화기행 -



I. 인권평화기행 소개	248
II. 인권칼럼	249
III. 인권교육	252
1. 인권교육 -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252
2. 영상으로 만나는 전쟁과 인권	264
IV. 인권평화기행	272
1. 고양 금정굴	272
2. 파주 금파리 대인지뢰 피해자 마을	280
3. 인민군 묘 (북한군, 중국군 묘)	285
4. 임진각, 자유의 다리	290
V. 인권캠프를 마치고(학생소감)	295
1박 2일 동안 인권캠프에 다녀왔다.	295
인권 교과서에서 그저 지나치듯 배웠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296
VI. 사진으로 보는 인권캠프	296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 인권평화기행 -

박진홍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사)



<https://blog.naver.com/yyong41>

I. 인권평화기행 소개

“인권”, “평화”, “기행”

우리가 이틀 동안 마주하게 될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런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인권...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자유로움, 평등함, 정당함, 생명...

평화...싸우지 않는 것, 전쟁의 반댓말, 사이좋게 지냄, 죽이지 않는 것...

기행...노는 것, 즐거운 것, 멀리 떠나는 것...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언뜻 이런 말들이 먼저 생각나네요. 인권, 평화, 기행 이러면 왠지 무겁고, 어렵게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풀어 놓고 보니 참 쉽고, 익숙한 말들이 되어버리네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떠나는 “인권평화기행”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하여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생각해보는 여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째날은 학교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 해보고, 둘째날은 늦가을 단풍도 구경하고, 가을걷이가 끝난 너른 들판도 보면서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전쟁 중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만나고, 전쟁으로 생긴 지뢰피해자 분들도 만나면서 사람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반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만나고,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많이 바쁘게 이동할 수도 있겠구요. 날씨가 추워서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신 분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며 힘들게 사셨고 살고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진지함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즐거운 여행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 행사 주제 : 전쟁과 인권

■ 프로그램 명 : 현산중학교 “인권평화기행”

■ 참가자 : 현산중학교 전교생(100여명)+지도교사(10)+원불교인권위 활동가(2)+강사진(1+3)

■ 일시 : 2007년 11월 1일(목) ~ 2일(금) (무박 1.5일)

■ 장소 : 현산중학교 교내(첫째날) / 고양금정굴, 파주 지뢰피해자마을, 인민군묘, 임진각 등(둘째날)

● 행사 기초 : 전쟁을 통해 야기되는 비인권적 실상과 인권적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 마련

● 전체 구성 : 인권교육(1일차, 8시30분~12시 30분) / 인권평화기행(2일차, 8시~16시)

● 진행 방식 : 교육은 1,2,3학년을 고루 섞어 2개 모둠으로 나누어서 진행 / 기행은 전체 진행

II. 인권칼럼

전쟁과 인권 - 전쟁에서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다...

강 영 석 (원불교인권위원회 활동가)

▶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전쟁의 의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에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흔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입시전쟁, 사랑과 전쟁, 쓰레기와의 전쟁, 정부와 언론 간의 전쟁, 대통령 후보 간 자질 검증 전쟁, A 회사와 B 회사 간의 마케팅 전쟁, 야구의 대표전쟁, 축구 국가대표팀의 원톱 전쟁, 드라마 <전의 전쟁> 등등.....

이처럼 다양한 분야와 내용에서 우리는 전쟁이란 말을 그 뜻이나 내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쓰고 있는데, 이때 쓰이는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개 치열한 경쟁, 필수 제거, 매우 급박함, 폭력, 적자생존의 상황, 질서의 파괴 등 강하게 표현할 때 쓰인다.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에서 자주 쓰여서 그런지 우리들은 이제 머릿속에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참혹함이나 반인권적 상황을 떠올리기보다는 그저 성능이 뛰어난 무기들과 강해 보이는 군복차림의 군인을 떠올리는 정도로 가볍게 넘겨 버리기까지 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감총알이라도 가상전쟁을 해볼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 최고사령관이 되어 가상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전쟁 소재의 수많은 컴퓨터게임, 이라크 전쟁이 실시간으로 매체 중계가 되는 환경에 익숙한 우리에게 무인조종 되는 최첨단 무기, 영화에서나 본 듯한 멋진 헬멧과 선글라스로 무장한 군인아저씨를 떠올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7년 오늘도 역사책에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현실이다. 가까이에는 이라크전쟁에서 6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100일 동안 100만여 명이 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하루에 일만 명.

▶ 인권 말살의 현장, 학살의 문제

인권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혹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면 ‘살아갈 권리’ 즉 생존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집단적으로 파괴한다는 것만으로 가장 반인권적 범죄행위이다. 또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전쟁과는 무관한 여성, 어린이 등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해진다.

▶ 전쟁의 모습들

전쟁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교를 다닐 나이에 총을 드는 아이들, 강간당하는 여성들, 그에 따라 원치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고통 받는 부모와 아이들, 차별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점령지의 사람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국익(집단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리는 군인들, 사람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 늘 소음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군사 주둔지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 땅을 빼앗겨야 하는 사람들(대추리),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적 외상(극단적 폭력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전쟁의 이름으로 평화롭게 생존해야 할 권리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살펴야 할 세금이 무기 거래와 파괴된 사회시설을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 언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지 모르는 전쟁폐기물 등은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져야 할 삶의 고단함이다. 파괴된 자연과 세상에 공존해야 할 못 생명들의 죽음은 전쟁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상처이다.

이렇듯 전쟁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

▶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미국은 수년에 걸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점령했다. 그 이유 중에는 이슬람 사회의 여성 억압적 구조를 개선시키고 여성인권의 보호한다는 명목도 있다. 또 북한과 날을 세우면서도 주민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항상 우리와 적을 구분 짓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결코 전쟁에 승리자는 없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이나 나라도 결국은 목숨과 재산을 잃거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하는 피해자에 다름 아니었다. 설사 전쟁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 민족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나라의 국민과 민족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몇몇 국가(민족)지배자 집단이나 무기를 만들거나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회사의 이익은 있었어도 국민 전체의 삶이 풍요로워 지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오늘날에도 많은 전쟁을 치루고 있는 미국도 아직 빈곤과 차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누구의 이익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 평화와 인권을 위한 노력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평화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평화를 이야기할 권리가 있고, 평화를 만들 권리도 있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전쟁의 목적과 화려한 무기들 너머 저편에 숨죽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폭력성에 귀 기울이고, 전쟁의 고리를 끊어내는 활동은 모든 인권을 위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Ⅲ. 인권교육

1. 인권교육 -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보편적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 가까이에 있는 작은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그것이 개개인의 세계일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일하는 농장이나 사무실도
모두 개인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남녀노소는 차별 없이
공평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가깝고 작은 곳에서 이러한 권리가 의미가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이 가정 가까이에서 실현되도록
시민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계에서의 진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 엘리노어 루즈벨트, “우리의 손에 In Our Hands”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 연설)

(1) 인권의 정의 - 인권이란?

1946년 UNESCO의 탄생과정에서 기구의 성립 목적을 ‘정의, 법의 지배,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하여 여러 국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도출된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단순히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가.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는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의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나온다. 여기서의 ‘타고난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로서, 인간 사회에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인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사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나.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간의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질을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라는 어떤 조건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즉,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 유무, 직업, 수입 또는 다른 어떤 사회적·종교적 특성,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또한 인권의 내용이 실체법으로서 정해지고 시행되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이 소유하는 권리의 최고 가치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이것은 인권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과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인권은 사회적 강자에 의해 유린당하기 쉬운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더 강조될 뿐이다.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권이 약자의 권리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권을 침해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투쟁하여 얻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인권이다. 이

런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 위에 확보해 낸 인간의 권리이다. 현재도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고통을 받는 약자야말로 정말로 인권을 누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인권은 약자들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권은 바로 약자들인 인권 피해자들의 삶을 드러내는 언어이다.

라. 인권은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면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인권을 누릴 때, 나와 동일한 인간인 다른 사람의 인권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적인 상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나의 인권은 사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도 사회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인권과 관련하여 갖는 책임은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 주어야 하는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이 두 가지 책임은 결국 전 인류가 인권을 누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마.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한 권리이다.

인권은 단순히 한 인간의 권리로만 제한할 수 없다. 인권 침해 현상이 사회적 구조와 관련되거나 국제적 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집단이나 사회구조에 초점을 둘 경우 인권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불평등 구조로 억압받는 제3세계나, 한 국가 내에서 고통 받는 소수집단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권리로만 인권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국가 모두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집단까지 포괄하는 인권 개념은 인권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장시켜 인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성향을 더 높여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개인과 집단 간의 불가분성을 갖는다.

바.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한 국가 내 국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에서 인간은 그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한받고 살아간다. 인권은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인권은 제도적 제한과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위협받거나 부정될 때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용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며,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사. 인권은 사회 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된다. 즉, 인권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제도, 관습, 법률의 상위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권의 범위 밖에 있는 제도나 법률, 관습에 대하여 도전을 통해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사회가 변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의 사회 변화 요구’에 기초하여 행해진 끊임없는 투쟁이 현재의 인권 상태를 가능하게 한 것이며, 인권을 점점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 점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2) 인권의 역사와 그 변화

인권의 개념적 특성과 달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은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내용과 형태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발달되어 왔다.

가. 인류 역사는 인권 확장의 과정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인간의 권리로서 인권은,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을 통해 얻어낸 산물이지 본래부터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기록이다. 고대 그리스사회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가진 일부 시민이 있었고, 중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면 경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민권자들이 있었으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여러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다양한 인간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류의 역사는 인권의 내용과 인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양적인 면에서의 확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세계 인권 선언과 그 배경

(세계 인권 선언 전문은 자료집 “세계 인권 선언”부분 참조)

"더 이상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

2차 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 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 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총48개국이라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언문을 도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분과의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맥길 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험프리 박사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제3차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에서 그 문안이 토론되고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선포는 몇 가지 이유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선언문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으로서 부여받는 기본권에 대해 명료하고도 포괄적인 전망을 제시하였다. 비록 과거부터 종교적 지도자나 철학자, 학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피력해 왔지만, 세계인권선언문은 정부들이 채택한 포괄적이며 국제적인 선언문으로서 는 최초의 것이었다.

다. 카렐 바사크의 인권 3세대(단계)론

프랑스의 법률가인 카렐 바사크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를 근거로 하여 인권의 3세대(단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두 번째

는‘평등’에 근거한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세 번째는 새롭게‘우애, 박애’라고 하는 연대를 위한 권리를 말한다. 이를 인권이 발달해 온 단계로 파악하여 1단계-2단계-3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에서 인권이 확장되어 온 개념으로 보아 1세대-2세대-3세대 인권이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간 개념을 고려하여 세대 구분으로 표기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의 인권 내용은 이전 세대의 인권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1) 1세대 인권

이것은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 17·8세기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1세대의 인권을‘소극적’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자유로운 선거의 권리’ 등도 정부의 개입 없이는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세대 인권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자유’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2) 2세대 인권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 중심의 인권으로서 19세기를 전후하여 발달하였다. 이 세대 인권의 특징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망되며, 이런 점에서 1세대의 인권에 비해, ‘-에 대한 권리’로서 적극적인 권리로 여겨진다.

3) 3세대 인권

이것은 앞의 두 세대의 권리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세계에서의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이 세대의 권리는 인권의 특성인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과 인종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빈부 문제, 국제무기경쟁

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한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다.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한국의 인권상황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1) 국가 보안법과 보안관찰법

지금도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다. "양심수"라는 개념은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경우로서, 자신의 평화적인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 또는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의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도 약 100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이들 양심수의 약 80% 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며,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 국가활동", "간첩" "반 국가단체, "국가기밀" 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며 법원의 관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반 국가단체의 주모자로 기소된 사람에게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반 국가단체의 지지자나 다른 구성원들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4조에 대해 위헌성이 있으며, 적용과정에서 임의성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며, 기존 남북교류법과의 상치되며 또한 오랜 인권침해의 주요요인이자 냉전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와 함께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 역시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며, 즉시 폐지되어야 할 구 시대 유물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

현재 국내에는 936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들은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로 이들을 구금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이미 회원국으로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보장하는 양심, 신념 및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국가가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특수한 남북 대치상황을 이유로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이미 국가의 권한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는 곧 인권 침해와 직결된다 할 수 있다.

3) 낙후된 교도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도소 수감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한국의 교도소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철 수인들이 심한 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낡은 수용시설로 인해 여름철에는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감방에서 수인들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수인들은 자신에 대한 형 선고나 가혹행위에 대해 진정, 청원을 한다는 이유로 일부 수인들이 징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징벌을 받는 수인들은 독방에 구금되는데, 때때로 이 기간 중 최고 60일간 수감을 찬 채로 있어야 하거나,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고 통신 등이 금지되고 있다. 한국 교도소의 정원 초과문제는 심각하며, 교도소의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5만 8천명인데도 현재 6만4천명 정도가 수감되어 과밀로 인해 수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수인들의 진정, 청원, 항소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수인들에게 적절한 절차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가혹행위에 반발해 항소를 하는 수인들은 교도소 당국으로부터 더 큰 징벌의 위협에 직면한다. 징벌은 60일 이상 독방 감금에서부터 교신 또는 가족들과의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 당하고 있다.

4) 평화적 시위에 대한 부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법의 모호한 조항들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시절 위 조항들을 위반한 혐의로 최소한 600명의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체포되었고, 최근 평택 대추리, 이랜드-뉴코아 시위 시 주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치 않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5) 난민문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만 명의 난민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찾아 세계를 떠돌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도 약 150여명의 외국인들이 난민지위를 얻기 위해 법무부에 그 지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1992년에 유엔난민협약 1952에 서명하고 1994년에 개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지만, 난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무도 지키지 않고 난민보호시설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청자중 단 한 명에게만 난민지위를 인정하였다. 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심사기간동안 최소경비도 지불하여야 하는 유엔난민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어떠한 책무도 무시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들이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

6) 생명권과 사형제도 문제

2007년 10월 현재 통계에 의하면, 63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대기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했지만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부 또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배치되므로, 감형 없는 종신형을 통해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킴과 동시에, 최소한의 교도행정과 교육을 통해 사형수들에게 교화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형폐지를 모든 국가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선택의정서’에 가입함과 동시에 사형이 인권침해이자 생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권)측면에서의 인권상황

1)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무너지는 사회권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고임금,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 환경은 국제사회를 주도해 나아가는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앞에 무력하였으며, 이에 해방 후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게 되고 한국은 IMF의 경제 관리 체계에 처하게 된다. 무디스와 같은 신용평가회사

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 약 2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무차별적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으며, 결식아동, 노숙자 그리고 부도 및 정리해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간략히 경제적 권리분야의 변화를 정리한다면, 노동권을 인식하고 제도화하는 초기 과정이 현재 한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의 인권기준과는 그 권리실현 부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사회 문화적 권리측면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그 인식의 기반 및 관습 및 관행에는 과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교육환경 및 교육권의 문제나, 유교전통의 가부장제에서 파생되는 남녀차별 및 낙태문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권의 측면은 여러 번 정권이 바뀌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영역에서의 권리문제

인간 복제, 유전자 문제, 사이버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등 같이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의 출현은 세계인권선언이 좀더 구체화되고 발전적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 주민증, 지문날인, 인터넷 등급제 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회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법률적, 제도적 준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재 한국에는 약 36만명(2006년 8월, 법무부 공식집계)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직업을 찾아 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복지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체불과 작업장에서 가혹행위에 위협 당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폐쇄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4) AIDS감염자의 인권

UNAIDS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3천 6백만 명의 에이즈 감

염인이 있으며, 매년 약 530만 명의 새로운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약 1,500명의 감염인이 보고되었으며, 수천의 보고되지 않은 감염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후천성 면역결핍증병 예방법 제3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2장의 신고 및 보고, 제3장의 검진, 제4장의 감염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주, 즉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범위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가 매우 강하며, 감염인의 인권을 심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인 사생활권, 명예권, 가족 유지권, 생명권 등의 통제를 통한 에이즈에 대한 예방과 비 감염인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심각히 제한되고 있다.

♠ 생각해보기 1 - 스스로 만든 나의 인권

<나의 인권선언>

@ 나의 인권선언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나요? 어덯 가지 항목을 생각해 보고, 이유도 적어 보세요.

	나의 인권 선언 목록	이유
1		
2		
3		
4		
5		
6		
7		
8		

2. 영상으로 만나는 전쟁과 인권

“미니와 함께하는 전쟁과 평화이야기”

미 니 ('경계를 넘어',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활동가)

(1) 전쟁과 인권 - 전쟁,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

현산의 중딩 여러분 방가 방가. 저는 '경계를 넘어' 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미니라고 해요. 뭐하는 인간이냐구요? 그냥 뭐 좀 더 싸가지 있는 세상 만들어 보자고 구라도 풀고 데모질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다리 짧고 머리 큰 인간이에요. ㅋㅋㅋ

여러분들 앞에서 데모질 할 일은 없을 테고, 오늘은 무슨 구라를 풀려고 나왔냐구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구요, 그냥 전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싶어 나왔어요. 여러분 사는 게 전쟁 같으시다구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

그런데 중딩 여러분들은 게임이나 영화 말고 진짜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시나요? 별로 안 한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친 척하고 잠깐 눈을 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머리 속에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는 영화에서 많이 봤던 전투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폭탄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집에 텔레비전이 다 부서졌으니 <원더걸스>나 <빅뱅>을 볼 수도 없겠죠. 또 컴퓨터가 다 망가졌으니 게임이나 인터넷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텔레비전이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가족 가운데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한 분 아니면 형제자매 가운데 누군가가 무너진 집 더미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운이 좋아 살아 있는데 집 더미에 깔린 가족들을 구할 수 없다면……. 그 폭탄이 학교에 떨어져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치고 죽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전쟁은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거 별 거 아니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친구와의 사랑이든, 연인 관계이든 누구나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마음 아프고 싫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게 싫으니깐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요.

지금 한국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말고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전쟁이 어떻게 사랑을 배신하는지 볼까요?

지난 2001년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네들 가진 땅과 돈으로도 모자라 더 많은 땅과 돈을 갖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되면서 어린이 4명 당 1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대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동생 4명 중 한 명이 초딩도 되어보지 못하고 다른 세계로 떠나는 거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이를 가진 임산부 6명 중 한 명이 아기를 낳다가 죽는대요. 아이들도 죽고 엄마도 죽고……. 서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라크는 또 어떤데요. 지난 1991년부터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라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대요. 특히 이라크의 경우는 10년 넘게 전투 없는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 되었어요. 전투 없는 전쟁이 뭐냐구요? ‘경제봉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과 유엔이 나서서 이라크가 외부와 아무런 무역을 할 수 없게 가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깐 당장에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서 사람이 아파도 치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리고 2003년부터는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 지금 4년 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전쟁이 오래 계속되다보니 자연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그러니깐 이라크의 많은 초딩과 중딩들이 가족과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껌과 장난감을 팔고 있어요.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놀아야 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라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 지도를 보면 이라크에서 왼쪽으로 요르단 지나 있는 곳이죠. 이곳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78%를, 1967년에 나머지 22%를 전쟁을 통해 점령한 지역이에요. 두 번의 전쟁에서 쫓겨난 사람만도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 고향에서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정들었던 가족과 친척, 이웃을 다시 만나지도 못한

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국경만 넘으면 바로 저기가 고향이고 자기가 살던 집이지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고향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네요.

저라고 태어날 때부터 미국과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게, 함께 있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저야 어차피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니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별 상관없지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불어온 모레 바람이 하늘을 덮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온갖 공해 물질이 담겨 있어서 비라도 올라치면 머리 빠지지 말라고 비를 피해야 했지요. 중국에서 공해 바람이 부니깐 한국에 있는 저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결국 나라 이름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하늘에 살고 있고, 누군가 공해를 줄이거나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지요.

전쟁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전쟁이란 게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어디선가 발생한 것을 막지 못하면 이곳저곳으로 번져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멈추지 못하니깐 이라크로 번지고, 이라크에서 멈추지 못하니깐 요즘은 미국이 이란마저 공격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깐요. 어떻게든 멈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젤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남자인든 여자인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라크인이든 한국인이든 힘 없고 돈 없다고 무시당하거나 두들겨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생이 별 이유 없이 두들겨 패면 열 받죠? 길에서 어른들이 어리다고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그냥 몇 대 맞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하물며 죽임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람은 생김새나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을 때리고 괴롭혀서 돈을 긁어모으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그건 싸가지 없는 짓 아니에요?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고서 지는 비싼 옷 입은 채 웃다니 말이에요.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돈을 좀 못 벌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싸가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현산의 중딩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시기 하다 그래도 기본적인 싸가지는 있는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봐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나이 적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또 저 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그쵸? ^^

♣ 생각해보기 2 - 난민! 우리를 기억하세요.

<난민 되어보기>

@ 우리 스스로 난민이 되어봅시다.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료집 뒷장의 “세계인권선언”을 참조하여, 아래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난민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또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려는 Y국의 이민국 관리의 입장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최선의 상황(해결책)을 찾아봅니다.

“X국과 Y국의 국경에 어둡고 춥고 습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Y국으로 건너가길 희망합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으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은 파괴되어서 가진 돈도 없고 여권 말고는 아무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Y국의 이민국 관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난민을 통과시키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민들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으며 이민국 관리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펼칩니다.”

◆ 난민들의 입장

- 1.
- 2.
- 3.

◆ 이민국의 입장

- 1.
- 2.
- 3.

▣ 우리가 찾은 해결책

- 1.
- 2.
- 3.

(2) 영상으로 만나는 팔레스타인 - <21세기 게토, 팔레스타인>, <장벽 그리고 이산>

이번에 만날 영상은 두 편이에요. 모두 MBC에서 만든 건데요, 하나는 <21세기 게토, 팔레스타인>이라는 거고, 다른 한 편은 <장벽 그리고 이산>이라는 거예요. 이 두 편을 선택한 이유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는 뜻도 있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만이 전쟁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에서는 길을 갈 때 수시로 검문소를 만나요. 검문소에서는 신분증은 물론이고 짐 검사도 받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를 오거나 PC방, 노래방을 갈 때마다 경찰이 나서서 ‘거기 왜 가냐’, ‘언제 집에 갈거냐’, ‘가방 보자’, ‘신분증 꺼내 봐라’라고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문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이제 그만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거나 하면 모든 검문소를 닫아 버려요. 그러면 학교도 직장에도 갈 수 없고, 물건을 실은 차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그야말로 팔레스타인 사회가 멈춰 버리는 거예요. 엽기적이죠?

또 하나 엽기적인 사건은 바로 장벽이에요. 보통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귀찮아졌는지 이제 아예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거대한 장벽을 쌓았어요. 장벽은 크게 두 종류인데, 하나는 높이가 8~9m나 되는 콘크리트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철조망 장벽이에요. 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으니깐 여러분의 동생뻘쯤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변이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해가 뜨는 것도, 해가 지는 것도 장벽 너머로 보게 되는 인생인 거예요.

*단체소개

〈「경계를 넘어」는 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외국에 가 본 일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본 적은요? 그 분들을 만나 보니깐 어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던가요? 아니면 생김새와 쓰는 말은 달라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멋진 사람들이던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란 것이 다른 듯해도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는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수해가 나서 이재민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무어라도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면 ‘그래, 뭔가 해야 할 것도 같고...’ 하면서 아리송한 표정을 짓죠.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곤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이나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보고, 교육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구별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같은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일까, 아닐까?’ 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단체예요. 우리가 국가나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비록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지만 억울하게 두들겨 맞으면 더 이상 맞지 않도록 함께 ‘이제 그만~~~!!!’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혹시 저희의 목소리가 궁금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주소는 <http://www.ifis.or.kr>입니다. ^_____^

♣ 생각해보기 3 - 평화지킴이 계단 오르기

<평화지킴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 자, 모두 평화의 계단에 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개인의 평화를 위해, 학교의 평화를 위해, 국가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평화지킴이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 적고 한 걸음씩 내딛어 보자구요~!!

개 인(나)	학 교	국 가	전 세계(세상)

IV. 인권평화기행

1. 고양 금정굴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6.25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또 그 전쟁의 상처는 반세기(50여년)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나라가 분단되면서 생긴 이산가족의 아픔은 남과 북의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열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전쟁은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하면 여러분들은 전투복과 헬멧을 쓰고 멋진 총을 든 군인 아저씨들을 먼저 떠올리지요. 멋진 비행기나, 전차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요즘엔 온라인 게임도 전쟁, 전투를 배경으로 많이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와 같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누나,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다치기도 한답니다.

한국전쟁에서도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 중에 총알, 폭탄을 맞아서 죽기도 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까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죽음으로 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왜 죽어야하는지 영문도 모른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수 백만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했는지 밝히는 일은 그 분들의 원혼을 달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죽음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실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목숨, 생명은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약 1백만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90%가 남한의 군경과 우익청년단 그리고 미군에 의한 학살이다.

한국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민간인 학살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민족적이거나 인종적 학살이 아니라 이념에 바탕한 정치적 학살이었고 정치권

력은 이념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동시에 이념적 학살이었다.

셋째, 학살의 유형은 남한이나 북한은 직접적, 대면적, 근접적이고 원시적인 학살이 주를 이루었으나 미국은 북한에 대해 B-29의 전략폭격기에 의한 공습, 함포사격 등으로 초토화작전을 펼치고 남한에서는 피난민을 무차별 공중폭격 하는 작전을 펴 비대면적, 원점학살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의 이러한 학살양태는 고도의 전쟁기술을 학살에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 역시 북한을 40여일 점령하는 동안과 남한 내의 전선에서 원시적이고 직접적이면서 대면적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넷째, 중국의 경우 이제까지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의혹을 사지 않고 있어 미국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섯째, 남한 당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악마화를 거의 공식화하였고, 북한은 ‘반동분자’로 몰아붙여 응징을 당연시하였으나 비인간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비인간화와 한국인에 대하여 ‘gook’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인종차별주의가 서로 결합하여 학살이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운동장이지만
우리는 함부로 뛰어다닐 수 없어요.
우리 가족중 누군가가 거기에 묻혀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 그 어느 곳도 묘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2) 고양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

가. 여는 글

'전쟁의 광기' 때문이라고,
그저 '이념대립' 때문이라고
무책임하게 말해버리기엔 너무도
억울한 죽음.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죽음.
죽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드러내고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죽음.
수십, 수백 어떤 이들은 1000~2000명으로 추정하는 솔한 죽음이
고양 땅에서 일어났다.
동네 근처 산자락 금정굴이
바로 그 죽음의 최대 현장이었다.

나. '고양 금정굴 사건'이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인민군에 의해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은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 때 고양시 일대도 함께 수복됐는데, 군인과 경찰, 치안대, 태극단 등이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1개월여에 걸친 부역자 색출과 처단이었다.

고양 지역의 경우 부역혐의자 처단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당시 고양군 전역에서 고양경찰서에 끌려온 사람들은 금정굴로 끌려가 죽었고, 면 단위의 지서나 창고에 끌려온 사람들의 상당수는 면 치안대에 의해 자체 처형되었으며, 그 밖에 리 치안대에 의해 리나 마을별 처단이 이루어진 곳도 많았다.

경찰의 주도하에 진행된 치안대 및 우익단체의 부역자 색출작업은 1천 명 이상의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극적인 좌익 활동가들은 대부분 이미 인민군을 따라 월북한 후였고, 가해자들에 의해 빨갱이로 몰린 사람들의 대다수는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 인민군 점령시 기껏 곡식의 낱알을 세는 정도의 일을 한 소극적인 부역자, 개인 감정으로 빨갱이로 몰린 주민들이었다.

9.28 수복으로 좌익세력이 월북하고 수복 지역의 치안은 경찰 조직과 민간인들로 구성된 치안대가 함께 맡게 됐다.. 능곡, 일산, 송포 등지에서 만들어진 치안대는 막강

한 위세를 떨치며 부역혐의자와 불온수상자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했다. 치안대는 마을의 30, 40대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었고, 그 핵심은 우익단체원들이었다.

리 단위, 면 단위의 치안대는 경찰의 명령 하에 움직였다. 당시 고양경찰서에는 치안대가 잡아온 부역자들을 감금해두는 창고가 있었다. 경찰서장이던 이무영은 부역혐의가 조금만 있어도 무조건 살상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경합동수사본부의 수색을 받기도 한 이무영의 살상 행위는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극심한 것이었다.

유족들과 목격자, 생존해 있는 가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의 대다수는 부역혐의자의 가족 또는 개인 감정이 있는 경우들이었다. 치안대는 '빨갱이 씨를 말려야 한다'며 청년들은 물론 어린아이와 부녀자의 살상도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집안이 몰살당했다. 심지어는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의 집과 인연이 있다거나 집안간에 분쟁이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부역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잡혀가 죽었다. 일단 부역혐의자로 몰리기만 하면 무차별적으로 잡혀간 것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송포면 가좌리의 창고를 비롯한 각 면 단위의 경찰지서 수용소에서 고양경찰서 창고로 옮겨졌다. 좁고 어두운 창고 안에 갇힌 사람들은 끝도 없이 자행되는 가혹 행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다. 어쩌다 운이 좋으면 식구들이 창고로 넣어주는 밥으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고, 경찰서와 치안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었다. 매일매일 잡혀 들어오는 사람들로 창고가 가득 차면 창고를 비우는 작업이 시작됐다. 창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객이 됐다.. 면회를 간 가족들은 식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죽음을 짐작했다. 창고 밖으로 불려나간 사람들은 전시상황에서는 1심만으로 끝난다는 간략한 재판과정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금정굴로 끌려가 무참하게 죽어갔다.

부역 혐의로 굴비 엮듯이 묶여 금정굴로 끌려가는 것을 본 목격자는 많았다. 치안대와 경찰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일산 시장을 지나쳐 가는 길에서 일산중학교 쪽으로 경로를 옮겼다가 다시 철길을 따라 가는 등 여러 방면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으나, 이런 장면이 여러 사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목격됐다.

1993년, 유족들 스스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지역시민단체들은 금정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제1회 위령제를 치르고 진상규명운동에 나섰다. 제3회 위령제인 1995년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학살 현장에서 자체 모금

으로 유골을 발굴했다.

1차 발굴된 유골 감정 결과 오른쪽 대퇴골 153개, 두개골 74개가 확인됐고, 부녀자의 뼈도 10% 이상이며 10대의 뼈도 있음이 확인됐다. 50년간의 유골의 유실률과 어린이 및 부녀자 뼈의 유실률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하면 1차 발굴된 유골만으로도 수백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직굴인 금정굴의 깊이 15m부터 17m 지점에서만 형체가 그대로인 두개골 70여 점, 손을 묶었던 P.P선 150여 점, 신발 110짝, 장뼀 780점 등 수많은 유골과 유품들이 발굴됐다. 가지런히 비녀를 꽂은 머리, 어느 소녀의 굵은 땀기머리, 문양도 선명한 허리띠의 버클, 죽은 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히는 도장, 어린아이의 것을 포함한 100여 짝의 신발이 발굴됐다.

유족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관계 요로에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족 50여 명, 목격자 여러 명, 가해자 등 관계기관 종사자 여러 명의 증언을 받았고, 당시 이무영 고양경찰서장의 신원도 확인했다.

정부와 국회, 도와 시, 경찰서의 외면이 계속되던 중 1998년 경기도의회에 청원이 받아들여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1999년 말 도의회는 1차적인 진상조사 후 펴낸 보고서에서 금정굴 사건을 경찰 주도하의 불법 학살로 잠정 규정하고, 경기도에는 위령사업의 시행을,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반대 의사로 위령사업은 시행되지 못했다. 2005년 7월 고양시의 용역을 의뢰받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의 추가발굴 예비조사가 있었으나 더 이상의 유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금정굴유족회를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고양금정굴공대위 등 많은 시민단체의 피나는 노력으로 2006년 5월 고양금정굴사건을 비롯한 고양파주 지역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어 2007년 6월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금정굴 학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 발생 57년 만에 국가차원에서 금정굴 사건을 경찰 책임하의 불법학살로 공식인정하였다.

- 출처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 2005) / 고양금정굴학살 희생자 제57주기 위령제전 자료집

(3) 다큐멘터리 “금정굴”



금정굴<한국 / 다큐멘터리 / 30분>

하게 처형하였다. 40여년간 묻혀져 있던 유골이 고양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발굴되어 유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역사 속 비극적인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고양시 탄현동 고봉산 자락에 있는 금정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6.25전쟁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찾은 맥아더 장군과 국군들은 서울일대에서 부역자색출과 처단을 할 때 고양시 경찰과 우익단체들은 고양시 사람 가운데 부역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폐광에 몰아넣고 무자비

*단체소개

*고양금정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http://haxalg.y.jinbo.net>)

고양 금정굴 공동대책위원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3-1 /

전화번호 : 031-967-9944 /

고양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 9월 결성된 단체이다.

1993년 고양 시민회, 농민회, 전교조, 항공대학생회, 용마피혁 등 5개 단체가 결성되어 ‘금정굴 사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98년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2000년에 이르러 유족회와 고양시민회 등 고양시에 있는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며 피해자와 피해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년 가을 고양금정굴학살 희생자 위령제를 주관하고 있다.(올해 제57주기 위령제는 10월13일 고양금정굴 현장과 증산공원에서 개최되었다)

● 고양 금정굴 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reflections on the Goyang Geumjeonggul case site visit.

♣ 생각해보기 4 - 우리는 평화지킴이, 민간인 학살을 고발해요~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해보기>

@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는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양 금정굴 외에도 한국에서는 많은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역사(예를 들면, 2차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의 집단학살사건)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봅시다.

◆ 한국 전쟁 전후 또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해 봅시다.

1. 사건 개요

2. 죽임을 당한 이유

◆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1. 사건 개요

2. 죽임을 당한 이유

◆ 평화지킴이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 1.
- 2.
- 3.

2. 파주 금파리 대인지뢰 피해자 마을

(1) 한국에서의 지뢰피해

가. 여는 말

이 땅에 전쟁이 끝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방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의 나날을 구가하며 먼 나라의 분쟁과 전쟁 피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민통선 근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뢰라는 못된 전쟁무기에 희생되어 생명을 잃었고 살아남았어도 다리를 잘리거나 실명하여 상이군인 아닌 상이민간인으로 어려운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6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지뢰사고를 당하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지대한 고통 속에서 막막한 삶을 살아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희생자를 노리고 있는 지뢰라는 무기에 민간인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수단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뢰에 관한 그 제조, 매설, 관리, 제거의 모든 취급책임이 군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에 속하지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너무 인색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인 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의 존재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 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 (사진=한국대인지리대책회의)



〈한국 후방 36개 지역 대인지리 매설 지역〉

한국전쟁이후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지뢰피해자의 숫자는 250여명에 이른다. 지역으로 보면 휴전선 부근인 강원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뢰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꼭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놀랍게도 지뢰피해는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한 전 지역에 걸쳐있으며, 그 피해는 2007년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뢰매설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과 지뢰제거 작업의 지연으로 많은 지뢰들이 유실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뢰피해의 경우 많은 부분 피해자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정부의 책임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는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뢰대책협의회(KCBL)는 한국전쟁 이후 최소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지뢰 사고로 피해를 입고 2,000~3,000명의 군인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거나 딸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지뢰를 밟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개간하거나, 생계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군부대 주변 제조작업에 동원되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등 생계형 피해자들 수가 많다.

피해유형은 사망, 뇌손상, 실명, 발목절단, 다리절단, 팔절단, 손가락절단, 전신파편상, 발가락절단 그리고 재산을 비롯한 물질적 피해, 사고후유증 등 정신적 피해 등이다.

한국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정부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들도 보상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KCBL은 국가배상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배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소송은 지뢰사고 후 3년 이내라는 민법상의 제한이 있어서 사고 후 3년이 지난 많은 민간인피해자들은 소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KCBL은 2005년 9월 국회에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 했는데 이 법안은 시효와 관계없이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지뢰피해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다. 또한 아울러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매설된 지뢰의 제거, 지뢰사용의 금지, 지뢰사고 예방교육에 나서야 하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가간의 약속인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비인도적 무기의 제거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에는 매설된 지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고 잘 보호관리 되기 때문에 지뢰피해가 단 한건도 없다’는 보고서를 낸바 있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에는 수백만발의 지뢰가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은 약 200만발의 대인지뢰를 비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경우 약 110만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군과 한국군은 실제 지뢰 매설 훈련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방부는 최근까지 지뢰자동살포기를 개발 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 파주 금파리 지뢰피해자 마을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와 금파리는 전쟁후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지금은 북녘땅이 되어버린 강건너 장단면에서 살다가 전쟁때 잠깐 이주했다가 눌러 앉게된 사람들과 타지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겨울농한기가 되면 전 주민이 민통선 안에 있는 미군 부대안으로 들어가 시야를 가리는 풀과 나무를 정리하는 마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대부분 지뢰밭인 이 지역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지뢰를 밟으면 본인의 책임이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들여보냄으로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못하도록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뢰사고가 나면 마을사람 전체가 일을 못하도록 함으로서 지뢰피해를 개인적으로만 삭히도록 교묘히 강제하였다. 이런 결과로 지뢰 피해자는 점점 늘어만 갔다.

〈지뢰관련 퀴즈〉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중에서

질문 1 ; 세상에서 지뢰가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나라는 ?

정답 ; 아프가니스탄!

질문 2 ; 아프가니스탄에 묻힌 지뢰의 수는?

정답 ; 1천만 개 이상!

질문 3 ; 오늘부터 아무도 지뢰를 묻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재 묻혀 있는 지뢰를 모두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답 ; 천 년 (지뢰 제거는 하나하나 수작업을 통해 제거해야 하기 때문)

질문 4 ; 지뢰 한 발 값과 그 한 발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돈은?

정답 ; 생산 비용과 매설 비용까지 합해 5달러.

제거 비용은 최대 1천 달러!

--- 더욱 힘빠지는 사실은

1> 1년에 제거되는 지뢰는 겨우 10만 개지만 새로 묻는 지뢰가 무려 2백만 개라는 사실.

2> 그리고 한국은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

단체소개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는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와 공동으로 1997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제대인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의 한국지부로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대인지뢰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자들을 조사 파악 및 후원하고 대인지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오타와 조약에 한국정부가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992년 북미 및 유럽 여러 나라의 NGO가 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노력을 결집하여 ICBL을 발족시켰고, 이는 현재 세계 70개국, 약 1,500여개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28개 NGO들이 모여 1997년 11월 6일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를 발족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매설되어 있는 지뢰의 상황과 후방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지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한국전쟁 이후 지뢰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유엔총회와 ICBL 총회 및 오타와 조약 조약국 회의, 일본대인지뢰대책회의(JCBL: Japan Campaign to Ban Landmines)와의 공동 심포지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지뢰피해 상황을 국제회의의 의제로 설정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벌여 왔습니다.

- 파주 금파리 지뢰피해자마을을 답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3. 인민군 묘 (북한군, 중국군 묘)

(1) 한국전쟁의 피해

가. 여는 글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남한과 북한의 피해는 물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40여 개국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남한의 여기저기에는 유엔군 참전비와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군인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민간인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 수는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만큼 많거나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에서도 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당시 전쟁을 통해 가족이나 친지를 잃은 사람들은 거의 전국민 대다수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공장, 농토, 강산 등의 삶의 터전의 파괴는 굶주림의 고통과 빈곤한 삶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굶주리고 병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겠지요? 실로 전쟁은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이 중단된 ‘휴전(정전)’ 된 상황이지요.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요? 아직도 남한에서는 북한이라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민족을 적으로 보는 깊은 불신과 갈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학교 다닐 때 공산주의와 북한은 무조건 나쁘다는 반공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파괴 되는 것 못지않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갈등과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커진 것도 모두 전쟁이 가져다준 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한국전쟁의 피해

전쟁은 큰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추산에 의하면 북한은 인구의 28.4%인 272만여 명을 사망과 난민으로 잃었고, 남한은 133만여 명을 주로 사망자로 잃었다. 중국은 공식발표에서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합쳐서 13만명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나치게 적은 수이다. 커밍스, 헐리데이는 100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사망자, 행방불명자를 합쳐 6만 3천명 정도의 희생자를 냈다. 살아 귀국했다더라도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한 사람은 중국의 경우 가혹한 처우를 받았

고, 북한의 경우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경우 인명피해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민간인 사상자는 남한이 전체 사상자의 50%, 북한은 80%에 달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한국전쟁의 비인간적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북한에서 이렇게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미군기의 용단폭격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한국전쟁 기간동안 북에서 남으로, 동에서 서로, 중부에서 남부로, 다시 남에서 중부로 대규모의 인구가동이 일어났다. 정치적인 이유와 미군폭격을 피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한 인구는 대략 40~60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포함해 5백만 명의 전재민과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한반도를 한번 뒤집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 정치적 영향

북에서도 남에서도 통일을 위하여 강구된 전쟁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국토의 파괴와 남북사회의 이질화를 한층 더 철저화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서는 반공이, 북한에는 반미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체계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멸공통일' '승공통일' '반공국시'가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배척하는 '반미주의'가 모든 이념의 근간이 되었다.

라. 경제적, 군사적 영향

경제적으로 남한은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하는 예속자본주의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으며, 관료와 재벌이 유착된 천민자본주의, 관료자본주의가 한국경제의 기본적 속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경제는 미국에 예속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들어온 일본자본에도 예속되었다. 이런 경제적 예속과 더불어 한국전쟁 중에 군사작전권까지 넘겨줘 대한민국은 사실상 절름발이 주권국가로 전략하고 말았다.

반면 북한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고수했으며, 소련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과정에서 주체사상과 자주노선이 등장했다. 그러나 주체사상과 자주노선은 일정한 단계까지는 큰 힘이 되었으나, 결국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전쟁이 끝난 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의 남침을 두려워했고 북한도 또한 미국의 군사력에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남북한은 군비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군과 한국군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다. 이것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양쪽의 군대, 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구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 전쟁 전 10만 명 수준이었던 남북한의 군대는 각기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후 남북한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50만명 이상의 정규군을 집중배치했으며, 군대는 남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분단체제가 고착화됨으로써 군대와 더불어 경찰, 정보사찰기관도 그 역할과 기구가 더욱 확대, 강화돼 남북한은 철저한 관료통제국가로 변모했다.

마. 전쟁 후의 평화교섭

그런데 정전협정으로 판문점에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할 쌍방 5인씩의 대표로 이루어진 군사정전위원회가 설치되고, 또한 4개국으로 구성된 중립국감시위원회도 설치되었다. 평화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이 3개월 이내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 회담은 1954년 4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합의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하는 북한에 대하여 남한은 최종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인정하였지만, 중국군의 철수를 유엔군의 철수 이전에 완료할 것을 주장하여 대립은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40년간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조인한 미국, 중국, 북한, 그리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남한, 이 4개국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자료 4] 6·25전쟁에 의한 인적 피해의 현황

자료	구분	군인		민간인		기타	
		한국	북한	한국	북한	유엔군	중국군
한국 정부 발표	사망	147,000	520,000	244,663	-	35,000	-
	부상	709,000	406,000	229,625	-	115,000	-
	행방불명	131,000	-	330,312	-	1,500	-
	계	987,000	926,000	804,600	2,000,000	151,500	900,000
통일 조선 신문	사망	227,748	294,151	373,599	406,000	36,813	184,128
	부상	717,083	225,849	229,652	1,594,000	114,816	715,872
	행방불명	43,572	91,206	387,744	680,000	6,198	21,836
	계	988,403	611,206	990,995	2,680,000	157,827	921,836

(2) 인민군묘(북한군,중국군 묘지)

경기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야산, 군 관계자들은 ‘적군묘지’라고 부른다.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북한군과 중국군 300여 명이 안장돼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북한군과 중국군 시체는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미국과 북한이 유해 송환을 논의하기 시작

하면서 군 당국은 1996년 5월 적성면에 적군의 시체를 모았다. 1987년 김현희와 함께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뒤 자살한 김승일이 여기로 옮겨졌다. 1998년 반잠수정을 타고 남해안으로 침투하던 공작원 6명도 묻혔다. 육군 유해발굴단은 전쟁 때 숨진 적군 시체를 수습하면 이곳으로 보낸다.

묘지가 차차 2000년에 제2묘역을 만들었다. 육군 비룡부대는 적군묘지 내 봉분에 떼를 입히고 진입로를 정비한다. 3개월에 한 번씩 별초한다. 명절 때는 제사를, 주검이

새로 들어오면 합동위령제를 지낸다. 제네바 협정은 ‘교전 중 사망한 적군 유해를 존중하고 묘지를 관리해야 한다’(추가협정서 34조)고 명시하고 있다. 비룡부대 김정태 중사는 “한민족이고 한핏줄이니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사’의 시체를 인수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측에 요구한 적도 없다. 간첩과 공작원과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다.

[군 부대원들은 임진강을 건너고 북한산을 거쳐 서울 종로구 세검정 길에 도착했다. 1968년,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1월 21일 밤 10시경이었다. 자하문 초소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자동소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다. 31명의 부대원은 김신조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되거나 자폭했다] 1.21사태로 알려진 ‘납파간첩 김신조 청와대 습격사건’의 희생자들도 여기에 묻혀있다. 김신조 씨는 32년 뒤 동료들을 만났다. 적군묘지에 124군 부대원이 묻혔다는 동아일보 기사(2000년 2월 14일자)를 보고 나서였다. 그는 당시 미군이 발간하는 ‘성조지’ 취재진에 “우리가 통일되고 좋은 관계를 가진다면 누군가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적군묘지는 북쪽을 향해 만들었다. 부모 형제가 사는 북한을 보라는 배려에서다. 그들의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북한 측이 유해를 받아들이면 어떨까. 북녘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재회한 뒤 살아 있는 납북자, 국군 포로를 남녘의 부모 형제 품으로 보낼 수는 없을까.

● 인민군묘(북한군, 중국군 묘)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4. 임진각, 자유의 다리



○ 임진각

임진각은 1972년 처음 세워졌으며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있다. 임진각 안에 있는 경기평화센터는 약 30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세계 희귀 폐류, 1층에는 북한의 생활필수품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서는 최근의 북한 실상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하며, 3층은 전망대이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1986년 9월 26일 조성된 망배단(望拜壇)이 있다. 매년 명절 때면 실향민들이 이곳에 와서 고향을 향해 절을 하는 곳으로 향로와 망배탑이 있다. 망배단 뒤쪽에는 1953년 건설된 자유의 다리(경기기념물 162)가 놓여 있다.

○ 자유의 다리

경기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雲泉里)와 장단면(長湍面) 노상리(蘆上里) 사이, 임진강에 놓인 다리로 문산 시가지 북쪽 2km 부근에 있는데 임진강의 남과 북을 잇는 유일

한 통로이며, 원래 경의선(京義線)의 철교였던 것을 도로교로 개조(하행선 철교를 개조, 상행선은 6·25전쟁 때 파괴)한 것이다

휴전 협정이 조인된 후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던 국군과 유엔군 1만 2773명의 장병이 이 다리를 건너왔다. 판문점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함께 6·25전쟁의 비극을 상징하는 이 다리는 7·4공동성명 이후 남북회담 대표들이 지나다닌 길목이었다.

이전엔 자유로를 타고, 자유의 다리를 건너, 자유의 마을을 지나, 자유의 집으로 들어갔으나 이젠 자유의 다리 대신 통일대교를 건너 통일촌을 지나 통일각으로 간다.

자유의 다리는 남북한 포로교환을 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서에는 포로교환장소가 판문점으로 되어있다. 정전협정 3조 55항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판문점에서 교환된 것은 맞다. 유엔군, 국군포로들은 판문점에 임시로 설치해놓은 ‘환영 자유의 문으로’라는 간판을 통과하여 송환되었다. 그러나 포로를 인수한 것은 유엔군이었지 한국군이 아니었다. 한국은 정전협정 조인을 포기하면서 한국은 정전협정 조인을 포기하면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에 참여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53년 8월 한국이 포로를 맞이한 곳은 포로 교환 장소인 판문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독개다리에서였다. 송환된 포로들은 판문점에서 이미 인민군이 지급한 옷을 벗고 속옷 바람으로 건너오며 ‘자유만세’라고 외쳤고 그래서 이 다리는 자유의 다리가 되었다. 원래는 경의선 철교가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로교환을 위해 급히 나무로 만든 다리이다. 이전엔 경의선 철교를 자유의 다리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많아지자 그 옆에 거의 허물어져 있던 목교를 복원해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 당시 사진을 보면 자유의 다리는 경의선 철교 옆을 따라 교각의 반정도 높이로 임시 가설되어 있었다. 지금 경의선 철교 높이로 되어 있는 것도 맞지 않고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맞지 않다. 복원되기 전부터 지금모양으로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오긴 했지만 사진을 보니 납득 가지 않는 것이 많다. 과연 우리는 진짜 자유의 다리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단체소개**

사) 평화의 친구들

1996년 통일운동을 위해 설립된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를 모태로 2003년 3월 외교통상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평화와 관련한 교육, 훈련사업, 외국인노동자지원, 제3세계 개발지원사업 등 화해와 나눔을 통하여 남북의 갈등을 포함한 모든 불평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 평화의 친구들은 제3회 평화기행(캄보디아), 제3회 평화캠프, 평화강연회, 이란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모금, 이라크 전쟁피해 어린이 돕기, 미국의 이라크 전쟁반대 활동 등의 사업을 펼쳤으며 2005년에는 쓰나미 지진해일피해와 관련한 구호봉사활동과 제3세계 어린이 결연사업인 1달러운동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향후 제3세계 개발지원사업과 평화교육 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삶터에서 평화의 행동과 마음을 모어나갈 예정입니다.

-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 생각해보기 5 - 인권을 위한 기관단체를 찾아서

<인권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를 찾아서>

@ 인권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봅시다.

1. 내가 찾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은?

2. 내가 찾은 인권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 분야는?

3. 내가 찾은 인권 기관이나 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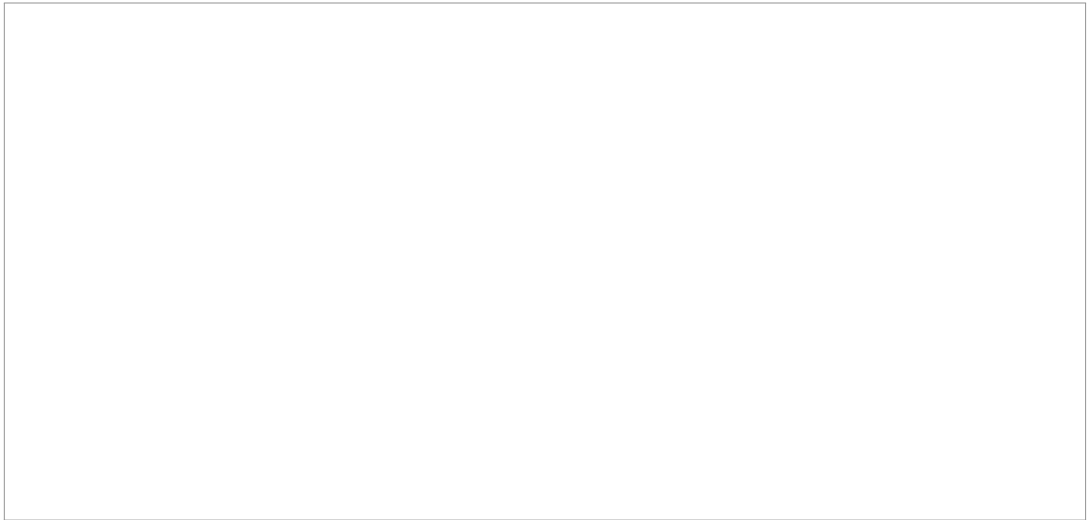
4. 이 인권 기관이나 단체를 정리하는 말을 몇 가지 주제로 표현하면?

♠ 생각해보기 6 - 인권평화기행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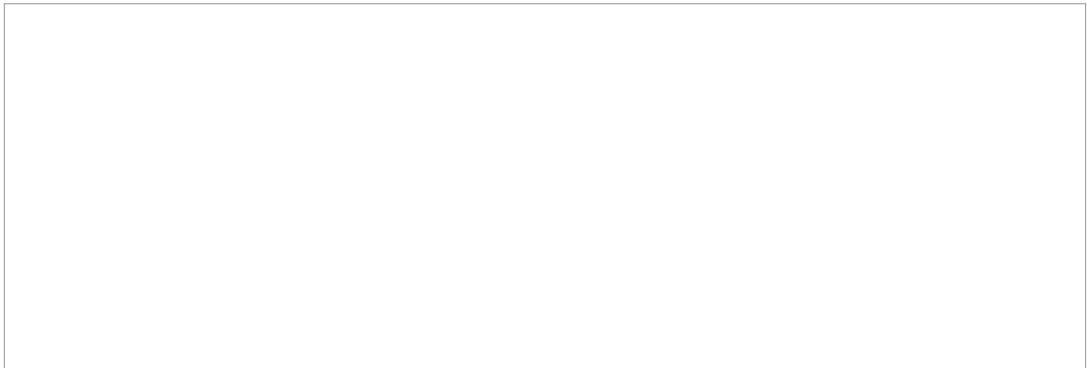
<인권평화기행 감상문 쓰기>

@ 우리는 이틀 동안 인권과 평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만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그분들을 떠올리며 기행 감상문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할 일들도 생각해 봅니다.

* 인권평화기행 감상문 쓰기



** 나는야~ 인권평화지킴이 이것만은 꼭 지킨다~!!



V. 인권캠프를 마치고(학생소감)

1박 2일 동안 인권캠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우선, 첫째 날의 인권이론수업은 '나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내가 나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또,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1박2일 동안 우린 인권캠프를 하였다. 그 동안은 인권이 우리가 사람이라서 있는 줄 알았지만, 그 동안 영상물과 자료를 보고 많은 걸 알았다. 인권은 우리가 가지지만, 그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겠다.

그리고 지뢰를 이용하는 이유는 초콜릿, 바나나모양의 지뢰를 만들어 아이들을 다치게 하여 나중에 적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만들었고, 전쟁 중 한사람을 두 명이상의 사람들이 한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총 든 병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인간은 어느 생명들보다 잔인하고 치밀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손수건에 통일기원 또는, 북한사람에게 전하는 말을 써놓았다. 나는 정말..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 전쟁은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나도 가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탐나거나 친구에게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화만 낼 것인가? 화를 내면 자기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화를 내면 친구는 화를 못내나? 물론 싸움을 무진장 싫어하는 몇몇 친구들은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이에 질세라 똑같이 화를 내버린다. 이 때 누군가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거나 선생님이 개입하면 더 이상 싸움이 커지지는 않는다.

전쟁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항복을 하거나 휴전을 해야 끝을 본다. 결국은 대부분 강국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수준 낮고 치사하게' 본다는 것이다.

1박 2일 동안 인권캠프에 다녀왔다.

첫째 날은 강당에서 인권에 대하여 배웠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셔서 편안하게 앉았다. 강당은 따뜻하고 좋았다. 나에 자세까지 편안하니 잠이 슬며시 왔다. 그때, 선생님께서 사람처럼 생긴 종이에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소중한

것을 쓰라고 하셔서 몇 가지를 써서 선생님께 드렸더니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리고선 그것이 바로 인권이 무시 받는 것이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장소, 너무나 가깝고 작아 세계 어느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게 강당에서 가장 기초적인 인권에 대해서 배우다가 식당으로 이동하여서 영상으로 만나는 전쟁과 인권에 관하여 배웠다.

인권. 교과서에서 그저 지나치듯 배웠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 인권에 관한 무박이틀의 캠프는 내겐 색다른 경험이었다.

첫째날, 인권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주무신 선생님들과 진행한 수업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자신들은 선생님이 아니라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다른 강의들과 다를 바 없이 프레젠테이션 하나 틀어줄 줄 알았던 교육내용은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학교 식당과 강당에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보고 선생님과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가볍게 인권에 대해 맛을 보았다.

VI. 사진으로 보는 인권캠프

평화의 행진

우리는 이제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다.



분단의 마지막 나라에서 우리는 각자의 손수건에 소원을 적었다. 분단의 벽을 넘어 서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만나고 싶다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손수건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듯 통일을 기원하는 하나의 길이 되었다.



인권평화기행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 평화의 인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는 인권과 평화가 항상 자리하게 되었다.

참고1 - 원불교인권위원회 소개

◎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교법에 따라 모든 사물이 근본적으로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인류와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한 몸, 한 형제라는 삼동윤리에 기반한 인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한 기운 한 몸이라는 진리적 가르침에 따라 생존권과 권익을 내 몸처럼 보호하고, 이로써 서로 친선하고 화합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자 합니다.

◎ 주요활동으로는

1. 청소년 인권활동
2. 인권대응활동

3. 인권교육프로그램 준비, 진행

4. 나만의 인권실천
등을 진행합니다.

◎ 활동가 되기

원불교 인권위원회는 ‘인권은 실천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구어가는 자그마한 실천들이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모여서 함께 꿈꾸고, 작지만 함께하는 실천과 나눔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느끼고, 함께 실천할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 인권위 자원활동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인권활동], 캠페인, 서명 등 [인권대응활동], [인권교육프로그램 만들기] 등의 기존 인권활동과 인권관련 다양한 활동을 직접 만들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권에 대한 기초 지식 나누기, 인권 세미나, 인권단체 방문, 다양한 인권교육 경험하기 등 원불교 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한 ‘활동가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하기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인권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회원이 되셔서 인권위 소식메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셔서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인 방법으로 재정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활동회원이 되셔서 인권위가 진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회원, 후원회원은 자동적으로 활동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직접 활동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회원참여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열기왕성한 분들께서는 직접 인권활동가가 되셔서 인권위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2 - 한국의 인권단체들...

인권단체연석회의 <http://hrnet.or.kr/>
 경계를넘어 <http://ifis.or.kr/>
 광주인권운동센터 <http://www.ingwon.org/>
 구속노동자후원회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군가협 <http://www.armyngo.org>
 대항지구화행동 <http://cgakorea.org>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http://minbyun.jinbo.net>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http://delsa.or.kr>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http://minkahyup.org>
 민주민족열사추모연대 <http://www.yolsa.org/>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http://humanrights.jinbo.net>
 사회진보연대 <http://pssp.jinbo.net/>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http://www.gendering.org/>
 새사회연대 <http://www.nociety.org>
 아시아인권센터 <http://www.achumanrights.org/>
 아시아평화인권연대 <http://www.sopra21.org>
 안산노동인권센터
<http://cafe.daum.net/ansanrights>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http://www.aidsmove.org>
 울산인권운동연대 <http://www.ulsanhr.or.kr>
 원불교인권위원회 <http://www.wonrights.or.kr>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http://www.jcmk.org>
 유엔인권정책센터 <http://kocun.org>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인권재단 사람 <http://hrfund.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http://sadd.or.kr/>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전북평화와인권연대 <http://www.onespark.or.kr/>
 전쟁없는세상 <http://www.withoutwar.org/>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http://www.nocut.or.kr> 및
<http://cafe.daum.net/youthhr>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친구사이 <http://www.chingusai.net>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http://www.dpikorea.org/>
 한국동성애자연합 <http://lgbt.or.kr/>
 한국레즈비언상담소 <http://www.kirikiri.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www.kscrc.org/>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한국인권행동 <http://www.hrkorea.org/>

인권친화적 학급운영 분야 인권교육 실천사례



우리들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I. 관심을 가지다	305
1.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인권과의 만남	305
2.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과 인권교육의 결합	306
II. 인권을 배우다	309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	309
2. 인권에 한 걸음 다가서기	310
III. 인권 지킴이가 되다	324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시작	324
2. 우리들은 인권 지킴이	329
IV. 인권을 마음에 새기다	337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의 공개수업	337
2.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전시회	345
V. 되돌아보다	346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346
참 고 문 헌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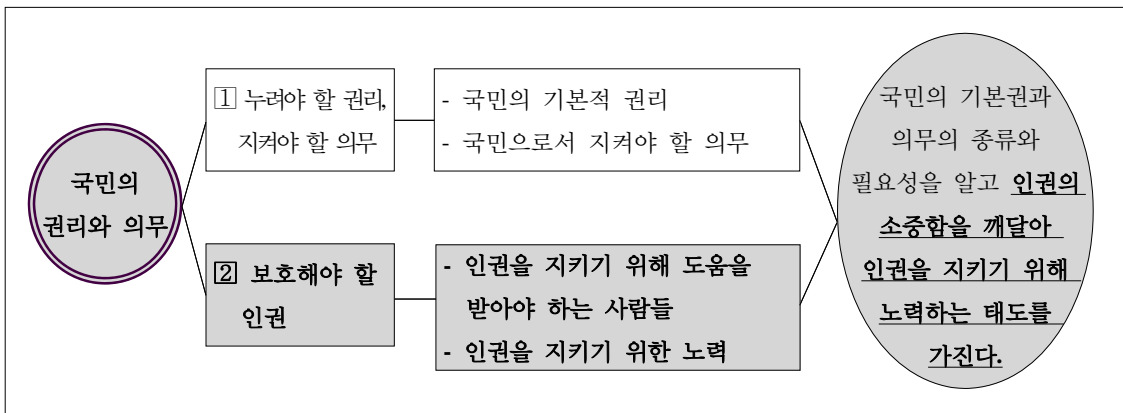
우리들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서 보 화 (서산 음암초등학교 교사)

I. 관심을 가지다.

1.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인권과의 만남.

6학년 2학기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1-③국민의 권리와 의무’ 라는 주제에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인권’의 발견이 인권과 관련된 수업을 계획하게 되는 첫 걸음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인권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인권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1] 인권과 관련된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2.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과 인권 교육의 결합.

2008년 3월부터 지금까지 6학년 2반에서는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사회과 수업연구 대회를 준비해왔다. ‘1-③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를 학습하는데 역시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 적용시켜 수업을 계획하였고,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이란?

1) 프로젝트 학습의 정의

프로젝트 학습이란 기존의 교육과정의 틀을 깨고 교과서를 주로 다루는 교수 방법 대신 교과 활동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 활동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¹⁾ 교사가 제시하거나 아동들이 선택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아동들 스스로 깊이 있게 탐색하며, 더 나아가 아동이 직접 창의적인 산출물을 창출해냄으로써 자신의 재능이 발휘되는 것을 통해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프로젝트 학습의 절차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²⁾ 프로젝트 학습은 준비하기, 주제결정하기, 활동 계획하기, 탐구 및 표현하기, 마무리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들 과정은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며 역동성과 순환성을 지닌다.

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계획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1-③국민의 권리와 의무’ 주제의 내용 요소를 분석하고

1) 김영수(2004). 초등사회과에서 프로젝트 학습 적용에 대한 실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 김대현 외(1999).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학지사.

재구성하여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을 계획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고 느낀 것을 내면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교육과정 분석 및 내용요소 선정

〈표 1〉 인권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 분석 및 재구성

단원	주 제	지도내용	내용 분석	프로젝트 학습	내용 선정
1-③ 국민 의 권리 와 의무	<p>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p> <p>보호해야 할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적 권리 ■ 국민으로 지켜야 할 의무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p>이 주제에서는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지켜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p> <p>※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직접 실천에 옮겨보는 활동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p>	<p>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인권) • 기본권의 필요성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우리나라 VS 다른 나라) • 세계인권선언서 • 인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

2)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지도 계획

〈표 2〉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지도 계획

단원	주 제		차시	제재별 주요 활동	프로젝트 학습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③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안내하기 • 국민의 기본권(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 기본권(인권)이 필요한 이유 토의하기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알아보기 •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조사하기 (우리나라 VS 다른 나라) • 문제점 토의하기 	
		②보호해야 할 인권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주제 결정 및 계획하기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활동내용 정리하기 • 프로젝트 활동내용 발표 준비하기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활동의 발표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가지기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 알아보기 	•

II. 인권을 배우다.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흐름.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스스로 활동 내용을 정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교수학습과정은 **PSES모형³⁾**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계획하였다.

예비단계 pre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안내하기 • 국민의 기본권(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 국민의 기본권(인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를 한다.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알아보기 •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 조사하기 •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알아보기 문제점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노력을 조사하여 비교해보고 문제점을 살펴본다.
계획단계 Sel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한다. • 역할분담 및 세부적인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로 나눈 부서별로 토의를 통해 할 일을 알아보고 역할분담을 한다.
탐구 및 표현 단계 Exp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프로젝트 활동 실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 바자회를 통해 성금 모금하기 -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하기 • 부서별 활동 내용 정리 및 발표 준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기
마무리 단계 S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활동 내용 발표하기 •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활동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발표한다.

3) 기존의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PSES 라 부르고자 한다.

2. 인권에 한 걸음 다가서기.

하나 . 인권의 의미 배우기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배워야 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인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끼리 토의 활동하여 인권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을 하였다.


가. 학습 전개 과정

〈표 3〉 인권의 의미 배우기 활동 내용

단 계	인권지킴이 프로젝트 예비단계 1
목 표	인권의 의미를 알아보고, 인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의하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의미 알아보기 ■ 인권(국민의 기본권)의 종류 알아보기 ■ 인권(국민의 기본권)이 필요한 이유 모둠별로 토의하기 ■ 세계인권선언서의 내용 살펴보고, 내용의 의미 토의하기

나. 학습 자료

1) 학습지



사회
기본학습지

1.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과서 13-20쪽, 2/19차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알아보기

6학년 2반 번 이름 :

1.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헌법 제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으로서 행복하려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3.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4. 국민의 기본권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모듬별로 토의해 보세요.

국민의 기본권	필요한 이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2)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서

쉽게 풀어쓴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제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지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다. 학습 내용 및 결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존재했던 신분제도, 노예제도,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생활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인권이 필요한 이유를 토의해본 결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인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종류를 알게 되었다. 또,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 .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 조사하기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지식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조사하는 수업을 하였다.

가. 학습 전개 과정

〈표 4〉 인권 문제 조사하기 활동 내용

단 계	인권지킴이 프로젝트 예비단계 2
목 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사례 조사하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 생각하기 ■ 인권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선택하고 이유 적어보기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택한 사람들과 관련된 인권문제 사례 조사하기 ■ 인권문제 정보를 정리하여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문제점 분석하기

나. 학습 자료

1) 학습지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하나.



6학년 2반 부서명 : 이름 :

-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내가 인권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지켜주고 싶어요!!	
이 유	

- 내가 선택한 부서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의 자료를 찾아서 모아보세요. (뉴스, 인터넷, 신문자료 등 이용)

자료의 내용	자료를 찾은 곳은? (자세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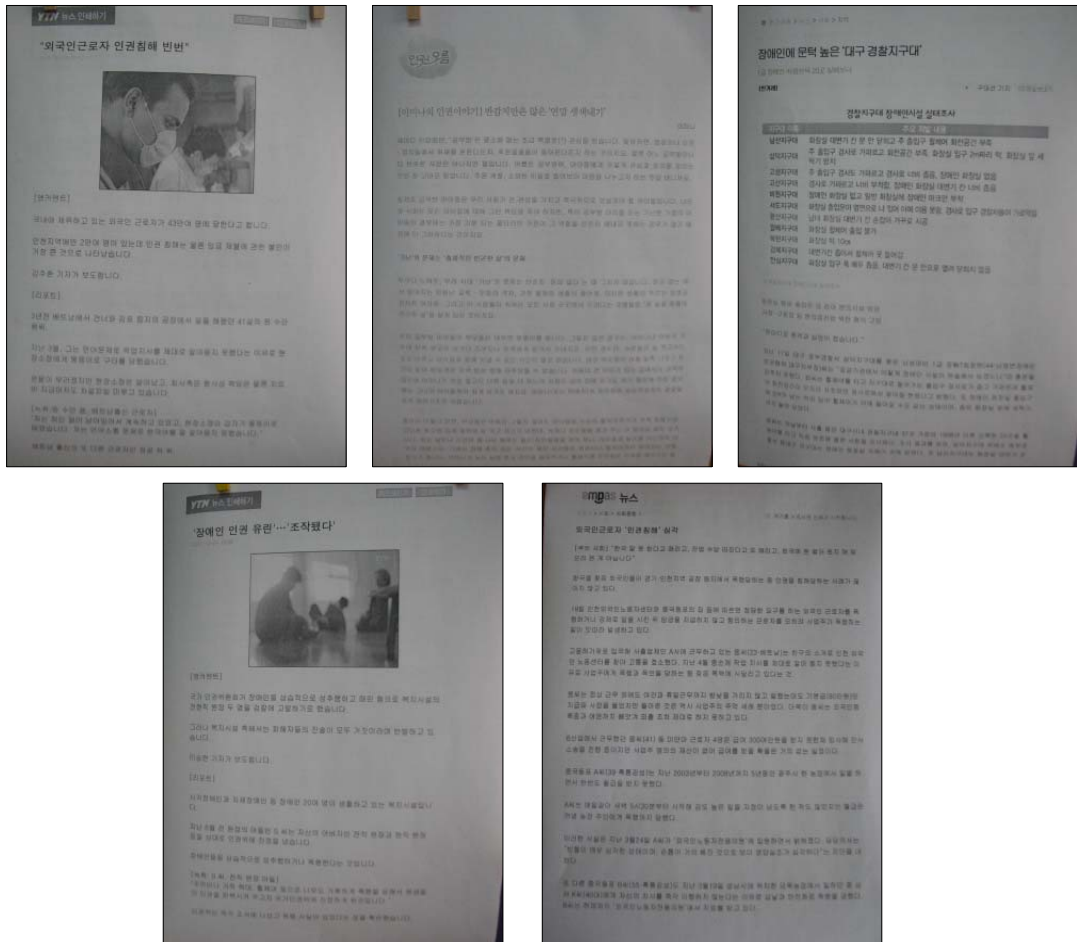
다. 학습 내용 및 결과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인권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서를 나누었다. 학생들의 선택을 통해 <장애인 인권 지킴이>,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의 세 가지 부서가 만들어졌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1) 인권 지킴이 부서 나누기

부서명	인원수	인권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
장애인 인권 지킴이	8명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7명	고아원 어린이들, 독거노인,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7명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2) 학생들이 조사한 인권문제 사례 기사들



[그림 2] 학생들이 조사한 인권 문제 사례 기사

3) 학습지 활동 결과물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하나.

6학년 2반 반이름 : **이은주** 이름 : **이희연**

■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장애가 있고 자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	취급이라고 회사 사람들이 부대 먹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때문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때문에 다른 부부들 처럼이 있어서.
소년소녀 가정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다르고 친구도 친구들이 따돌리는 데기 있어서.
고아원 어린이	부모님이 없다고 자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 내가 인권을 지키려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지키려고 싶어!!!	장애인
이유	장애인들이 자카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만 된게도 아니고 다른 비장애인들이 보다 편자가 부족할 거인데 사람들이 차별하고 나쁘게 생각하니까.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하나.

6학년 2반 반이름 : **이은주** 이름 : **이희연**

■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취급이라고 애라고 일본 돈만주고 취급은 높이지 않아서.
노년, 노년 가정	부모님없이 왜래나 김민영 때문에 친구들 못가게.
독거인	몸 보살피는데 마음도나 돈도 거저서 없애면.
노동자	돈 많고 배고고. 목고인 무시하게.

■ 내가 인권을 지키려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지키려고 싶어!!!	고아원 아이들
이유	부모 보살피지 않아서 마음도 없고 거저고 자라신 고아원 아이들한테서 부모님이 없는 동안엔 사랑을 아껴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하나.

6학년 2반 반이름 : **이은주** 이름 : **김은경**

<인권문제>

■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 (외국인)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모든 나라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는 한 힘들고, 남의 때문이다. (이경X)
소년소녀 가정 (고아원)	부모님이 한 제사가 때문에 아픈척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돈이 없기 때문에 처벌도 받으면서 하고, 고국 가 때문이다.
건과자	고도로써 건강 있어서 무시를 받기 때문이다.

■ 내가 인권을 지키려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지키려고 싶어!!!	소년 소녀 가정
이유	어린이들이 돈도 없이 부모님에게서 떠나있는데 남들에게 놀림 따돌림 무시를 당하는데도 돈도 키재고 키지 않고, 가정이 된다는 것은 힘들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슬하기 때 무이다.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하나.

6학년 2반 반이름 : **이은주** 이름 : **김은경**

<인권문제>

■ 우리 주변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 근로자	돈을 벌기 하는데, 원칙이 수탈당하니까.
장애인	몸이 불편하니까 이리로 서로 대접을 못받는다.
고아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글 안 읽는다.
소년소녀 가정	돈이 필요해서.
노동 노인	노년이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한다.

■ 내가 인권을 지키려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지키려고 싶어!!!	외국인 근로자
이유	돈을 벌기 타국에서 왔는데, 돈도 잘 안주고 사랑 취급도 해주지 않아서.

[그림 3] 인권 문제 조사하기 학습 결과물

셋 .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조사하기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살펴 보면서,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학습 전개 과정

〈표 5〉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조사하기 활동 내용

단 계	인권지킴이 프로젝트 예비단계 3
목 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조사하기■ 다른 나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 조사하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 토의하기

나. 학습 자료

1) 학습지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학습지 들.



6학년 2반 부서명 : 이름 :

- 다른 나라의 경우 내가 선택한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세요. (자료들도 모아놓으세요!)

나라 이름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부서별로 토의를 해보세요.

-

-

-

-

다. 학습 내용 및 결과

학생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었다.

〈표 6〉 부서별 인권 문제 분석 내용

부서명	문제점 분석
장애인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불편함. - 사람들이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함.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꺼려함. - 장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폭력을 행함.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에 생색을 내기 위한 일시적인 불우이웃 돕기. - 급식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음. -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줄 사람이 부족함. - 일시적인 돕기보다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말을 모르는 외국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음. - 외국인의 사회권을 무시하고 월급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킴. -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함. - 외국인이라는 이유(피부색, 언어 등)만으로 멸시 당함.

Ⅲ. 인권 지킴이가 되다.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의 시작.

본격적인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장애인 인권 지킴이>,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킴이> 부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서별 토의를 통해 스스로 계획하였다.

가. 학습 전개 과정

〈표 7〉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 활동 내용

단 계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단계
목 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위한 주제를 결정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역할 분담 나누기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별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할 수 있는 일 계획하기■ 세부적인 계획 세우기■ 역할분담 정하기

나. 학습 자료

1) 인권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6학년 2반 번 이름 :

- 우리 부서가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인권 지킴이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름	역할

날짜	해야 할 일	실행 여부 및 반성

다. 학습 내용 및 결과

1) 인권 지킴이 활동의 계획

〈표 8〉 부서별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 계획

부서명	인권 지킴이 활동 계획
장애인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림복지원을 찾아가 봉사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접기, 동화책 읽어 주기, 장기자랑 보여주기 ■ 장애인 학교에 찾아가 소중한 경험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교와 장애학교의 차이점 알아보기 - 함께 공부하기 ■ 인터넷에 사랑의 글 올리기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 성금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우이웃 돕기 성금 홍보 포스터 만들기 ■ 성금으로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 운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 글 올리기 - 홍보 포스터 만들기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하기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하기

2)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결과물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6학년 2반 반 이름 : _____

우리가 보아야 선명한 사람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름	역할
김호경	동화시랑의 글
박은연	사람의 글
김수현	삼기처럼
?	인형 만들기, 종이 접기

날짜	해야 할 일	실현 여부 및 반성
9/25	동화책 과제, 장기자랑	
9/29	서클분재원 전학	
9/29	종이접기	
9/30	서클중등학교 전학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6학년 2반 반 이름 : 노·노·독·독이

우리가 보아야 선명한 사람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름	역할
한진주, 남승우, 임희현	성금통 만들기, 태극만들기, 홍보
민명자, 가미현	포스터 만들기, 홍보, 태극 만들기
황정규, 이성근, 김순도	포스터 만들기, 홍보, 태극 만들기
전제	성금통 만들기

날짜	해야 할 일	실현 여부 및 반성
9.28	성금통 만들기	
..	포스터 만들기	
9.29 ~	성금통 만들기, 홍보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6학년 2반 반 이름 : 김·이·민·진·영·정·은·연

우리가 보아야 선명한 사람들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름	역할
박은연, 유수연, 정지민	포스터
임진영, 이연, 김민진	서명운동 (4학년)
이진영, 이진영	인터넷에 글 올리기
정은연	인터넷에 글 올리기

날짜	해야 할 일	실현 여부 및 반성
9/25	인터넷에 올릴 글 쓰기	
9/26	인터넷에 글 올리기	
9/30	포스터 그리기	
9/30	서명운동	

[그림 4]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계획서 결과물

2. 우리들은 인권 지킴이.

계획했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을 중점으로 하여 <장애인 인권 지킴이>,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킴이> 부서는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의 이야기

가. 서림복지원 봉사활동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은 음암초등학교 가까이에 위치한 서림복지원(충남 서산시 음암면 위치)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동물 가면 만들기, 색종이 접기, 손



[그림 5] 서림복지원 봉사활동 모습

과 발 따라 그리기와 같은 복지원 친구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복지원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림복지원에 도착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과 다른 모습에 긴장하고,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금방 친해지고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은 완성된 동물 가면을 쓰고 기뻐하는 복지원 친구들을 보며 함께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며 귀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다.

나. 서산 성봉학교와의 통합 교육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은 일반학교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비교해보기 위해 서산 성봉학교를 방문했다. 서산 성봉학교를 찾아가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림 6] 서산 성봉학교를 방문해 도예 통합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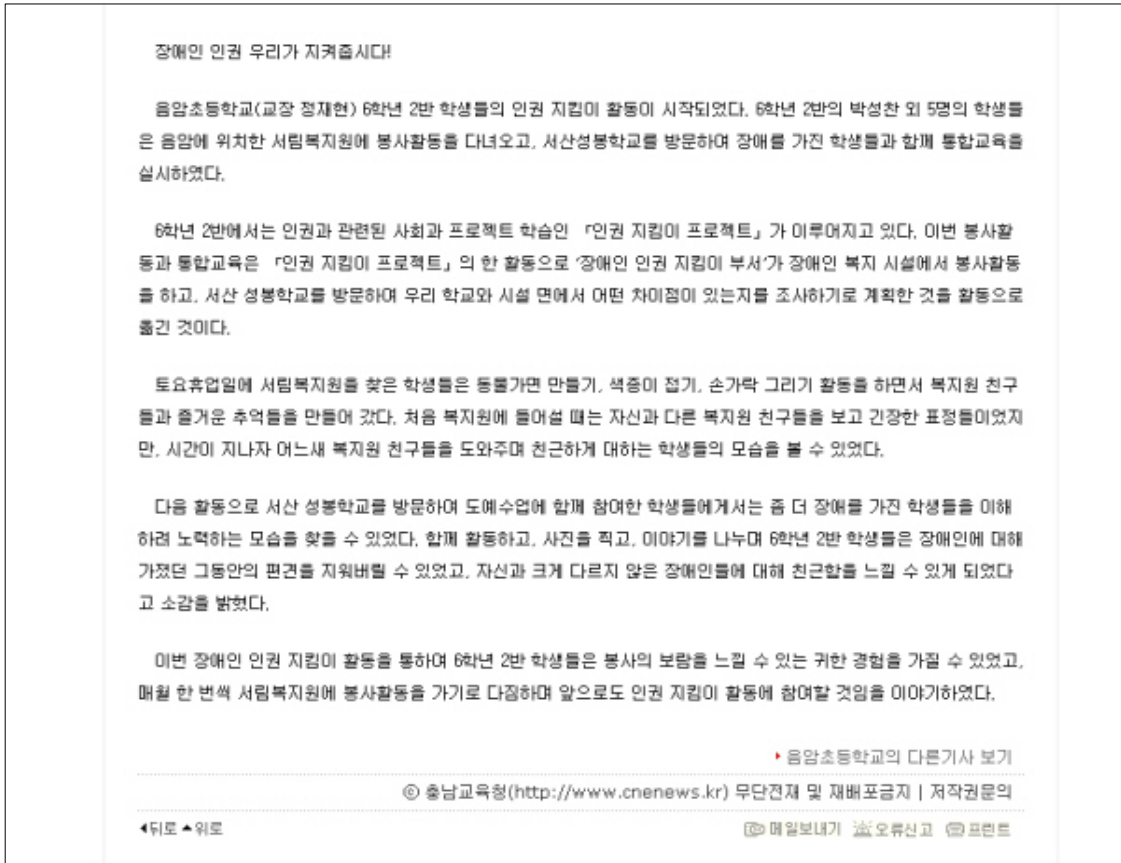
도에 만들기 수업에 함께 참여하였다.

서산 성봉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은 성봉학교를 견학하며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다른 점을 살펴보았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기도 하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다.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의 홍보와 계속되는 봉사활동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가 기사화되어 'e-멋진충남교육'에 실렸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기사가 되어 알려지게 되자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

The screenshot shows a news article on the website 'e-멋진충남교육'. The article title is '[서산 음암초] 인권 지킴이! 우리가 시작해요!' (Seosan Eumamcho Human Rights Guardians! We Started!). The article content includes the date '2008년 10월 14일 (화) 10:01:35' and the author '음암초등학교' (Eumamcho Elementary School). The main image shows four children wearing colorful headbands. To the right, there is a '최근 연거기사' (Recent Series of Articles) section with a list of articles and a small illustration of a person holding a large megaphone.



[그림 7] e-mentoring교육에 실린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의 기사

서림복지원의 봉사활동과 서산 성봉학교와의 통합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인권 지킴이 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활동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홍보하였고, 홍보 효과 덕분에 다른 학급의 학생들 역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장애인 인권 지킴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서림복지원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으기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들은 불우이웃 성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계획하였다. 불우이웃 성금 모으기 활동을 위해 불우이웃 돕기 홍보 포스터와 성금 모금함을 만들고,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으기 운동을 펼쳤다.



[그림 8]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으기 활동 모습

나. 희망의 선물 보내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으기를 통해 모아진 성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한 끝에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들은 봉사단체인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희망의 선물 보내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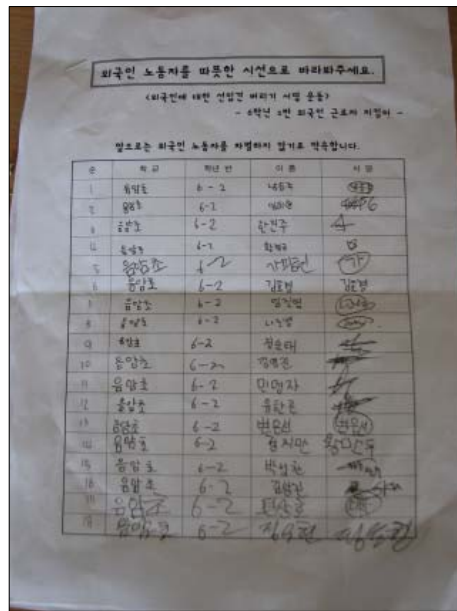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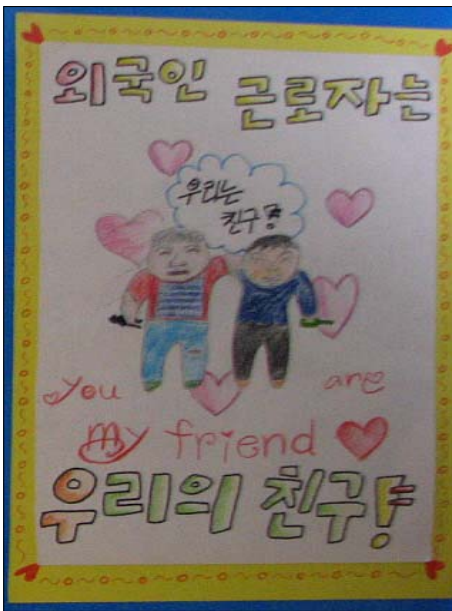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들은 활동을 통해 모아진 성금으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과 해외 후원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도서관 책을 보내는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림 9] 월드비전 희망의 선물 사이트

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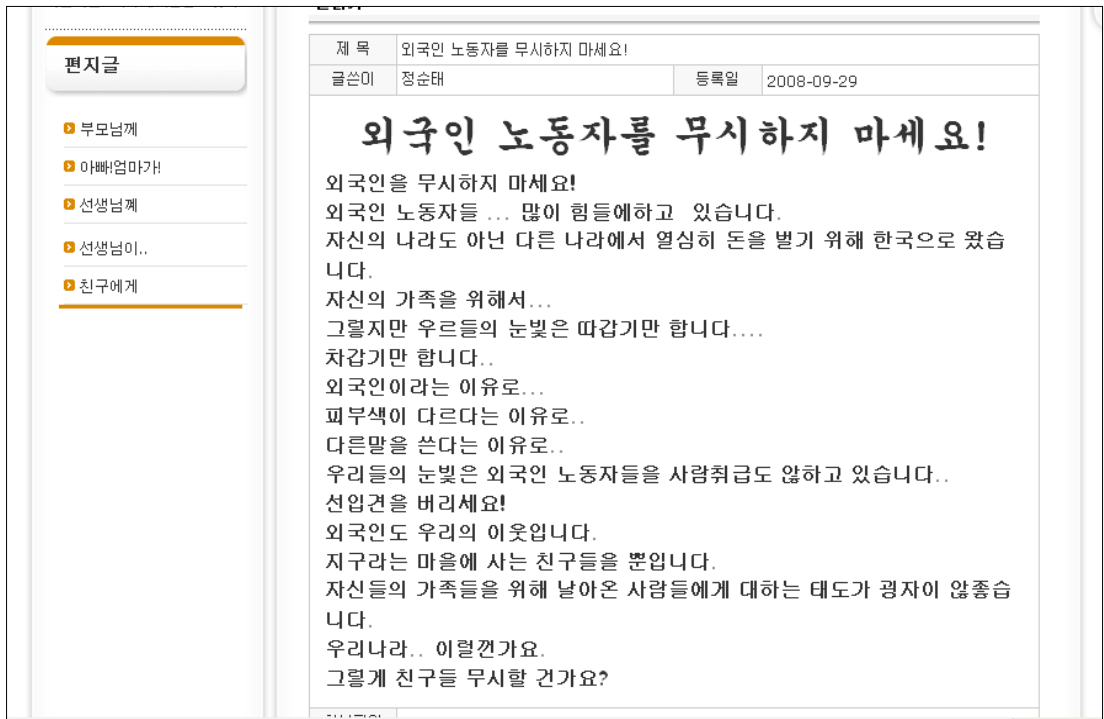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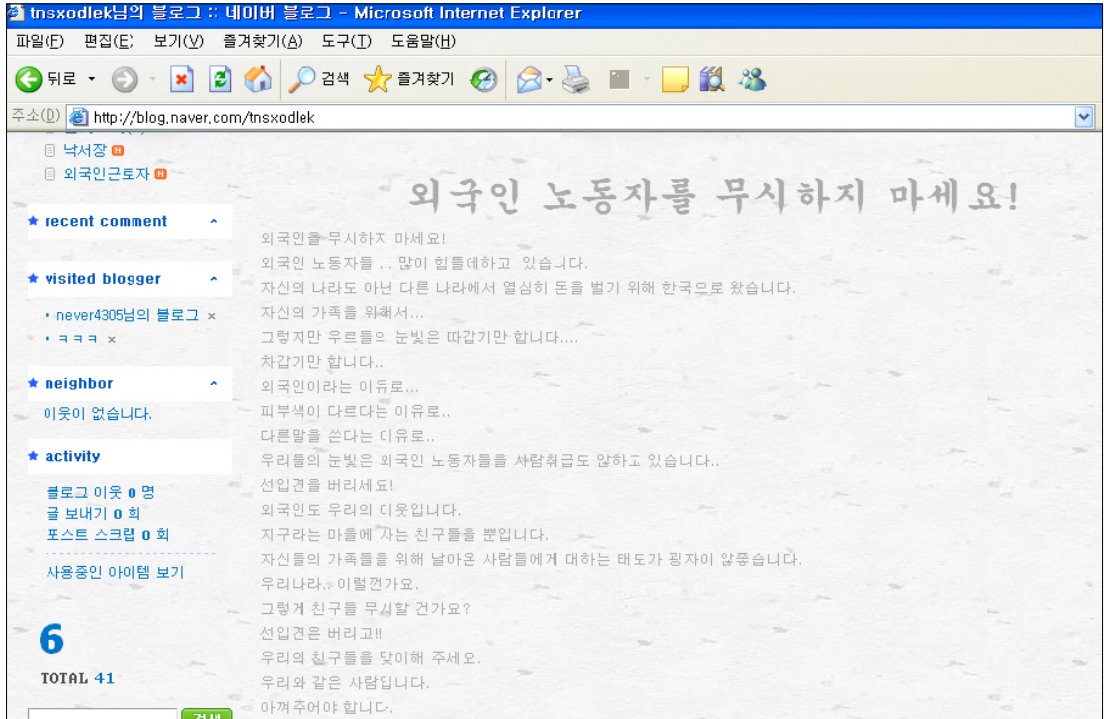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인권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버리기 운동을 계획하였고, 홍보를 위한 포스터와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림 10]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 및 홍보포스터

나.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학교 홈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글을 올려서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들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1] 인터넷 게시판을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활동

IV. 인권을 마음에 새기다.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의 공개 수업

지금까지 6학년 2반이 활동해왔던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수업을 가졌다. 학생들은 공개 수업을 통해 자신들이 활동해 온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고, ‘나만의 인권 선언서’ 만들기 활동과 인권 지킴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가.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사회	학년	6학년	장소	6-2반 교실
단원	1-③-② 보호해야 할 인권			차시	10 / 19
본시주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가지기				
학습목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수업모형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시킨 가치 수용 학습모형				

단계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파악	동기유발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속 인권 문제 찾기 ◇ 한 소녀가 울고 있네요. 왜 울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보여 주고) 무슨 이야기였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입니다. ◇ 성냥팔이 소녀는 왜 울고 있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어요. -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육을 받지 못해요. ◇ 성냥팔이 소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동영상 자료

		<p>있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 우리 6학년 2반이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가 있었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요. <p>◇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활동해온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꺼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할 문제를 읽는다. 		
수 용	<p>학습목표 확인하기</p> <p>활동 안내하기</p> <p>프로젝트 활동내용 발표하기</p> <p>소집단학습</p>	<p>◆ 학습목표 확인하기</p> <p>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가지기</p> <p>◆ 활동 안내하기</p> <p><활동 1> 우리는 인권 지킴이!!</p> <p><활동 2> 인권을 지키자.</p> <p><활동 2> 나만의 인권 선언서 만들기</p> <p>◆ <활동 1> 우리는 인권 지킴이!!</p> <p>◇ 우리 주변에도 성냥팔이 소녀처럼 인권을 지키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p>◇ 자 그럼, 그동안 우리 6학년 2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해요. 각 부서별로 지금동안 계획하고 활동해왔던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해주세요.</p>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활동 결과 정리 보드, 이젤 • 모형 마이크 <p>※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식으로 진행한다.</p>

<p>유 지</p>	<p>인권을 소중히 하려는 마음 다지기</p> <p>개별 학습</p> <p>나만의 인권 선언서 만들기</p> <p>개별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별로 직접 계획하고 준비했던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 장애인 인권 지킴이 부서 -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부서 -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킴이 부서 <p>◆ <활동 2> 인권을 지키자.</p> <p>◇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점이나 좀 더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들이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점과 느낀 점을 학습지에 적고, 발표한다. <p>◆ <활동 3> 나만의 인권 선언서 만들기</p> <p>◇ 다음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선언서의 내용입니다. <p>◇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계인권선언서처럼 인권의 소중함을 담은 나만의 인권 선언서를 만들어보도록 할꺼예요.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나와의 약속을 만들어보세요.</p>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 타이머를 사용하여 활동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권선언서 PPT 자료 • 나만의 인권선언서 학습지
<p>정 리</p>	<p>정리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만의 인권 선언서를 만든다. ◇ 여러분이 만든 인권 선언서를 발표해보세요. - 나만의 인권 선언서를 발표한다. <p>◆ 프로젝트 전시회 안내하기</p> <p>◇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든 활동판은 앞에 전시해놓을 거예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부서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활동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활동판에 인권 지킴이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세요.</p> <p>◆ 배운 내용 정리하기</p>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지킴이 스티커

차시예고	<p>◇ 이번 시간 공부를 하면서 인권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도록 해요.</p> <p>-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한다.</p> <p>◇ 학습지는 쉬는 시간에 각 부서별로 모아서 제출 해 주세요.</p> <p>◆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의 종류와 필요성 알아보기</p> </div>	<p>※ 학습지와 인권선언서는 쉬는 시간에 견어서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p>
------	--	---

◆ 본시 평가 계획

평 가 요 소	평가시기	평가방법
프로젝트 발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수업 중	상호평가, 관찰평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는가?	수업 후	학습지 평가
인권을 소중히 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나만의 인권 선언서를 만들 수 있는가?	수업 중 수업 후	학습지 평가, 관찰평가

◆ 판서계획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② 보호해야 할 인권

학습목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 가지기

동화 PPT 자료

세계인권선언서 PPT 자료

학습활동 순서 안내

나만의 인권 선언서



• 제1조. 나는 _____

• 제2조. 나는 _____





나는 앞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이 름 : _____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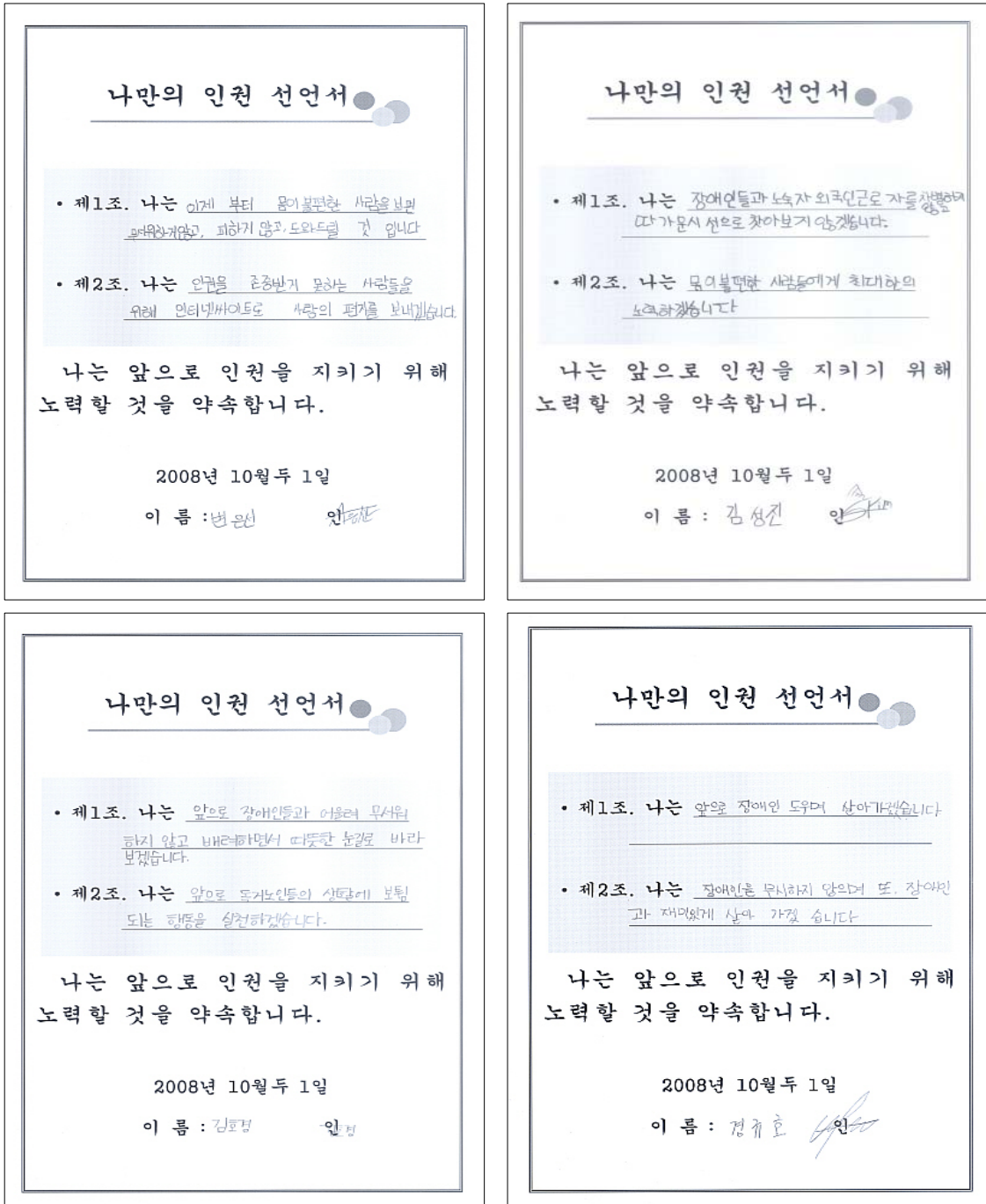
다. 학습 내용 및 결과

1) 인권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 학습지 결과물

<p> 사회 기본학습지</p> <p>1. 우리 나라의 인구 적지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과서 13-20쪽, 10/19차시) 인권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아끼는 태도 가지기</p> <p>6학년 2반 13번 이름: 임희현</p> <p>■ 그동안 우리 6학년 2반이 정말 열심히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해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적어주세요.</p> <p>나는 (<u>블루아웃</u>) 인권 지킴이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92 608 414 975">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블루아웃 사람들 다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왜 사람들은 권에서 따돌려듯이 몰아다니고 차별하는 건지 모르겠다. 블루아웃도 기뻐하고 노숙자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건을 이번엔 죄수를 할 때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참 놀랐습니다. 블루아웃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p> </td> <td data-bbox="442 608 671 975">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워야 하는 것,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p> </td> </tr> </table>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블루아웃 사람들 다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왜 사람들은 권에서 따돌려듯이 몰아다니고 차별하는 건지 모르겠다. 블루아웃도 기뻐하고 노숙자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건을 이번엔 죄수를 할 때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참 놀랐습니다. 블루아웃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워야 하는 것,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p>	<p> 사회 기본학습지</p> <p>1. 우리 나라의 인구 적지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과서 13-20쪽, 10/19차시) 인권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아끼는 태도 가지기</p> <p>6학년 2반 11번 이름: 임진영</p> <p>■ 그동안 우리 6학년 2반이 정말 열심히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해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적어주세요.</p> <p>나는 (<u>외국인 근로자</u>) 인권 지킴이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35 608 956 975">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인권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다시 인권을 존중받아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p> </td> <td data-bbox="985 608 1206 975">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외국인에 대한 인원은 많지 않고, 편견을 내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면 좋겠다.</p> </td> </tr> </table>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인권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다시 인권을 존중받아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외국인에 대한 인원은 많지 않고, 편견을 내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면 좋겠다.</p>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블루아웃 사람들 다 똑같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왜 사람들은 권에서 따돌려듯이 몰아다니고 차별하는 건지 모르겠다. 블루아웃도 기뻐하고 노숙자를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건을 이번엔 죄수를 할 때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참 놀랐습니다. 블루아웃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좀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워야 하는 것,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p>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인권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다시 인권을 존중받아 행복해 했으면 좋겠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외국인에 대한 인원은 많지 않고, 편견을 내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하면 좋겠다.</p>				
<p> 사회 기본학습지</p> <p>1. 우리 나라의 인구 적지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과서 13-20쪽, 10/19차시) 인권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아끼는 태도 가지기</p> <p>6학년 2반 13번 이름: 변은진</p> <p>■ 그동안 우리 6학년 2반이 정말 열심히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해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적어주세요.</p> <p>나는 (<u>장애인</u>) 인권 지킴이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92 1284 414 1651">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처음에는 장애인에 관심이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 싫었는데, 직접 시립복지 센터 가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고있는 세션 생활하고 좀더 보나, 몸이 불편할 뿐 일반사람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개 장애인 친구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니, 내가 관심하고 사보고 싶습니다.</p> </td> <td data-bbox="442 1284 671 1651">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장애인데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 않고, 다같이 모여 놀았으면 좋겠다.</p> </td> </tr> </table>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처음에는 장애인에 관심이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 싫었는데, 직접 시립복지 센터 가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고있는 세션 생활하고 좀더 보나, 몸이 불편할 뿐 일반사람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개 장애인 친구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니, 내가 관심하고 사보고 싶습니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장애인데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 않고, 다같이 모여 놀았으면 좋겠다.</p>	<p> 사회 기본학습지</p> <p>1. 우리 나라의 인구 적지 ③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교과서 13-20쪽, 10/19차시) 인권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을 소중히 아끼는 태도 가지기</p> <p>6학년 2반 1번 이름: 가미현</p> <p>■ 그동안 우리 6학년 2반이 정말 열심히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해주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고쳤으면 하는 점들을 적어주세요.</p> <p>나는 (<u>블루아웃</u>) 인권 지킴이입니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35 1284 956 1651">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의 관심과 어려운 것을 알아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은 눈빛으로 보편과 권익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td> <td data-bbox="985 1284 1206 1651">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이 좀더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인원이 노숙자를 더이상 시선으로 보지 않게.</p> </td> </tr> </table>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의 관심과 어려운 것을 알아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은 눈빛으로 보편과 권익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이 좀더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인원이 노숙자를 더이상 시선으로 보지 않게.</p>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처음에는 장애인에 관심이 없고, 가까이 다가가기 싫었는데, 직접 시립복지 센터 가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고있는 세션 생활하고 좀더 보나, 몸이 불편할 뿐 일반사람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개 장애인 친구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나니, 내가 관심하고 사보고 싶습니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장애인데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 않고, 다같이 모여 놀았으면 좋겠다.</p>				
<p>인권 지킴이 활동을 하며 느낀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의 관심과 어려운 것을 알아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더 많은 눈빛으로 보편과 권익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인권을 지키기 위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p> <p>노숙자, 독거노인, 보편소득자 등이 좀더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인원이 노숙자를 더이상 시선으로 보지 않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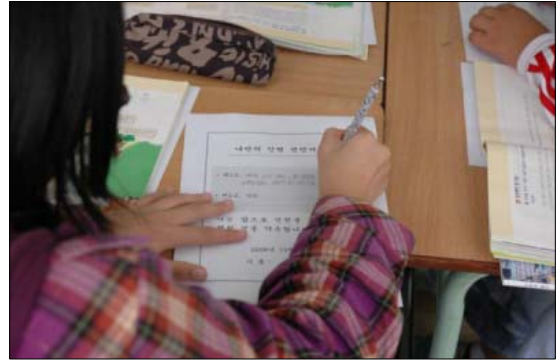
[그림 13]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점 결과물

2) 나만의 인권 선언서 결과물



[그림 14] 나만의 인권 선언서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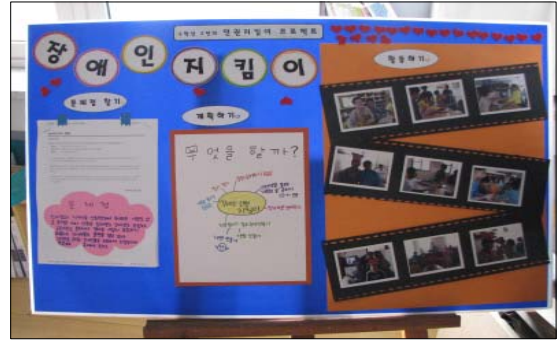
3) 공개 수업 모습



[그림 15] 공개 수업 모습

2.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전시회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의 공개 수업을 마치고, 수업에 사용되었던 발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전시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전시회를 통해 자신들이 해왔던 활동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었고, 다른 부서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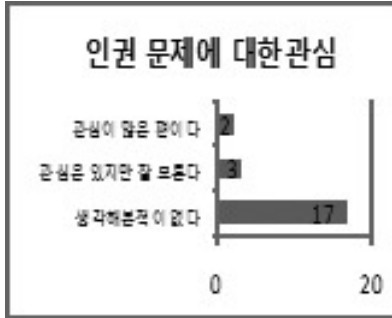


[그림 16]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전시회

V. 되돌아 보다.

1.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한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교육적 효과는 그동안 잘 모르던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 학생들은 인권에 대해 평소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77%)이 인권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답하였다. 인권에 대한 학습에 앞서 충분한 사전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림 17]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 전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설문조사

하지만 인권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이 끝난 뒤, 학생들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불우이웃,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서림복지원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놀아주면서 친해지고, 또 우리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처음에는 장애인이 무섭고 다가가기 싫었는데, 성봉학교를 가서 보니 몸이 불편할 뿐 우리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과 도자기를 만들고 나니 그동안의 내가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 < 장애인 인권 지킴이 활동 소감문 중에서 >

- 조사활동을 통해 불우이웃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모은 성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불우이웃을 따뜻한 눈길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 모두 똑같은 한 나라의 국민인데, 못산다고 차별하고, 노숙자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번 활동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모두 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했으면 좋겠다.

- < 불우이웃 인권 지킴이 활동 소감문 중에서 >

- 인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국인에 대한 안 좋은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활동을 통해 힘들게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온 사람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먼저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법과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 < 외국인 노동자 인권 지킴이 활동 소감문 중에서 >

프로젝트 학습 활동을 마치고 쓴 소감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지금까지 장애인과 불우이웃,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또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Ⅲ). 서울 :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2008).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6-2.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대현 외(1999). 프로젝트 학습의 운영. 학지사.
- 충청남도교육연수원(2007). 그래! 공부는 바로 이 맛이야.
- 충청남도서산교육청(2008).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연구대회 준비는 이렇게.
- 김영수(2004). 초등사회과에서 프로젝트 학습 적용에 대한 실행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경(2007). 인권 프로젝트 활동이 초등학생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 우리들 마음에 단비를 주는 참살이 -



I. 실천을 위한 주춧돌 쌓기	351
1. 우리 마음 속 참살이	351
II. 우리 참살이 동산 아이들의 지금 모습은	353
1. 우리 참살이 동산 아이들	353
2. 참살이지기 선생님의 교육관	354
3. 참살이 동산 학부모님들	345
III. 참살이 마음에 단비를 뿌려요	357
가. 참살이지기의 길라잡이	357
나. 참살이들의 고른누리	369
다. 참살이의 도담다담	381
라. 참살이의 너울가지	390
마. 참살이의 꼬까뼈	393
IV.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참살이는	401
1. 완성되어 가는 참살이를 위해	401
2. 참살이를 마무리하며…….	403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 우리들 마음에 단비를 주는 참살이 -

하 정 훈 (군산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 교사)

I. 실천을 위한 주춧돌 쌓기

1. 우리 마음 속 참살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바로 만남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교직경력 6년째이지만 40개월이란 군복무를 제하고 나면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초임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3월 꽃샘추위와 함께 했던 개학식 날. 화사하게 피어난 개나리 같은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에 모여 앉는다. 아이들도 나도 긴장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 당황해 하다가도, 호기심어린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칠라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이 또다시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듯 하다.

2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음의 새싹 같은 파릇파릇한 모습과 겹쳐 보이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선생님, 누구누구랑 싸워요.” “선생님 저 재량은 짝꿍 안할래요.”, “누가 자꾸 때려요.”, “아니에요, 재가 먼저 그랬어요.” 등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달려와 서로 일러바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모습들……. 또, 숙제를 안 해오거나 잘못을 해서 수업이 끝난 뒤 못 다한 숙제를 시키거나 타이르려고 하면 “선생님, 안돼요. 이러다 학원차 놓쳐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보내주세요

요.” 정해진 시간의 틀 속에 갇힌 채 살아가는 아이들…….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충동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 버리는 나약함을 보이는 아이들……. 심지어는 가정교육의 분야까지 학교교육에서 맡아주길 원하는 학부모님들까지……. 마음 한쪽 구석이 자꾸 아리기만 하다.

하지만, 저 깊은 마음 속 하나하나엔 풍성하고 반듯한 인권의 씨앗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으리라.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예로부터 교육이 지향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가치이다. 미래 사회를 책임 질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이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 가득한 참살이¹⁾를 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은 따뜻함, 밝음, 희망, 꿈을 뜻하며, “살이”는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아갈 생활이자, 각자의 최고의 지향점, 이상향을 뜻한다. 즉, 아이들의 참살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알고, 자신의 가야할 길을 모색하면서 자신감 있고, 밝은 태도를 통해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 했던가. 나라 국(國) 대신 가르칠 교(教)를 넣으면 “수신제가 치교평천하”가 된다. 우리나라 교육을 총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한살이 동산이 우리 사회 인권 교육의 작은 촛불 하나가 되기를 빌어본다.

1) 참살이란 원래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웰빙을 순우리말로 공모한 결과 당선된 용어임.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 사전적 의미로는 '복지·안녕·행복'을 뜻한다.

Ⅱ. 우리 참살이 동산 아이들의 지금 모습은

우리 참살이 동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실태를 행동관찰과 면담, 가정환경 조사서,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 분석해 보았다.

1. 우리 참살이 동산 아이들

교육 환경면

- 시내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라고 할 수 있다.
- 가정의 형태는 대부분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부모가정 1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하고 있다.
- 방과 후 아이들이 여러 곳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공부만큼 학원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이나 문화적이 혜택이 부족하다.

공동 생활면

- 자신들만의 또래집단을 구성하여 성별로 집단을 나누고 그 중에서도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끼리 그룹이 나뉘어져 있다.
-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일은 잘 처리하나 학급 전체나 모둠활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 자기의 잘못은 덮어두고 친구들의 잘못을 습관적으로 고자질한다.
-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 일쑤이다.
-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편하고 하기 쉬운 대로 일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개인 생활면

-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며, 발표도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자신의 의견 또한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
-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울음을 터트리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아이도 있다.
- 자신의 특기나 관심 있는 분야에 솔직하지 못하고 매일의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편이다.
-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나 줄글보다는 만화를 좋아하여 상상보다는 시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맞벌이 가정이 많고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경우도 많아 대부분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 참살이지기 선생님의 교육관

인(人)권교육! 인(忍)권교육! 인(謹)권교육!

- 사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잡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 교실 현장에서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는 소홀히 하고 있는 편이었다.
- 교직경력 또한 7년밖에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하고, 선배교사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 지식교육보다는 인권과 경험교육을 중요시하며, 특히 기본생활 태도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나, 학습결과를 의식하여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 참교육이란 인간성을 기르는 교육, 심성을 함양하는 교육, 도덕성과 사회성, 정서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학교 내 교직원 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협력적이며 허용적인 분위기속에서 하루하루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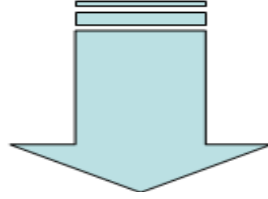
3. 참살이 동산 학부모님들

참살이 교육에 대한 바람

- 학부모의 교육열은 높으나,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가정형편이 곤란한 가정이 있어 가정 내에서 참살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고운 심성으로 자라길 바라고 있다.
- 참살이들의 하교 후에는 대부분 혼자 보내게 되어 가정 내 대화가 적은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는 편이다.
-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직접 참살이들의 학업 도움을 자신 없어 하는 실정이다. 가족신문 만들거나 가족이 함께해야 하는 과제에는 난감해 하시거나, 교육은 가정에서가 아니라 학교교육이 전부라고 여기는 분도 있다.
- 참살이들의 성적저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대한 원인이 학교교육이나 교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원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 참살이들에게 바른 심성과 꿈을 심어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참살이지기에 대한 바람

- 참살이들의 성적저하 현상이 교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원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학교 성적위주 교육이나 기초학습에 대해 더욱 잘 가르쳐주길 바라고 있다.
- 교사의 자상한 보살핌으로 참살이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기를 바라며, 교사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기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해 주길 바람
- 올곧은 심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권교육 지도를 중요시함



참살이 동산을 가꾸기 위한 대책

1. '참살이의 고른누리'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나와 함께 네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 행복한 배려의 마음을 기르게 한다.

2. '참살이의 도담다담'

자신을 소중한 능력을 찾아 정확히 알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참살이의 너울가지'

우리 땅과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통일의지를 키우며,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글로벌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4. '참살이의 꼬까삐'

교과와 관련이 있고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며, 보람을 느끼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Ⅲ. 참살이 마음에 단비를 뿌려요

1. 지도기간 : 2008. 3. 2 - 현재
2. 지도대상 :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장 전교생
3. 실천 내용 및 계획

가. 참살이지기의 길라잡이

1) 디딤돌 마련하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란 말이 있듯이 먼저 우리 참살이들의 인권교육을 주도할 나부터가 올바른 인권과 마음자세를 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행복한 참살이 동산, 참살이 학교를 만드는 첫걸음은 교사 스스로가 참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복한 미소를 띠는 것이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나를 낮추고 아이들 앞이 아닌, 그들의 곁에 있는 참살이지기로 거듭나기 위해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1〉 나부터 변화시켜 보아요.

번호	과 제	활동내용	관련 자료	실천시기
1	교단일기 작성하기	교단일기, 작성 / Upload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주1~2회
2	학급 홈페이지 구성하기	학급 홈페이지 구성 / 운영	위즈클래스 JBEduNet mireene	연중
3	학부모님과 e-mail 주고받기	학부모님과 참살이 지도에 관 한 편지 주고받기 / 의견 나누 기	E-mail	수시
4	참살이들과의 짹짹미 ²⁾	참살이들과 편지 주고받기를 통한 개인적인 고민거리 등을 상담하기	편지	수시

번호	과 제	활동내용	관련 자료	실천시기
5	독서 릴레이	주1회 이상 좋은 책을 읽고 이를 참살이들에게 대여, 추천	도서	주1회
6	학급문집 및 DVD 작성하기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학급 문집 꾸미기와 학급 영화제작하기	.	학년말
7	동학년 연수 및 교내 연수	좋은 인권교육 아이디어나 정보 공유	동료교사 및 기타	연중

2) 디딤돌 밟아가기

가) 교단일기 작성하기

- 교단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의 수업을 반성하는 활동
 - 주1회 이상 교단일기를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 각종 교육 실천사례, 교육수기 작성하여 여러 사람과 나누기
 - 홈페이지의 댓글 등을 통해 조언 구하기 ※ 개인정보 유출 등에 유의
- 학교나 학급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 등을 기록하기
- 참살이지기로서 만들어가야 할 학급을 위해 해야 할 일 계획하고 실천하기

나) 학급 홈페이지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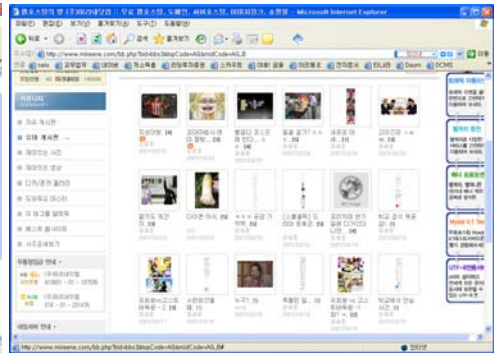
-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참살이들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 위즈클래스, JBEduNet, 미리내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학급 게시판과 미니홈피도 활용하여 학교 홈페이지 이용시에도 우이 학급을 들를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명은 “판타스틱 곰팅들”이라고 친숙하게 지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가 이번 에 교육청에서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원받아 우리 참살이들 모두가 홈페이지

2) 째짜미 : 둘이서만 몰래 하는 약속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

지에 가입하여 자유롭게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그림 1] www.wizclass.com/hun3757



[그림 2] www.mireene.com/hun3757



[그림 3] www.iredong.es.kr



[그림 4] 홈페이지 내 참살이 미니홈피

- 교수·학습자료 및 다양한 자료공유, 1:1상담실, 고민해결사 등 운영
-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고민 상담 및 대화하기를 통해서 학급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고, 참살이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이메일 주소와 생일, 기념일 등을 공개하여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는 참살이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주고 받은 카드의 내용이다.



2007년 . 월 7일 . 님으로부터 온 카드메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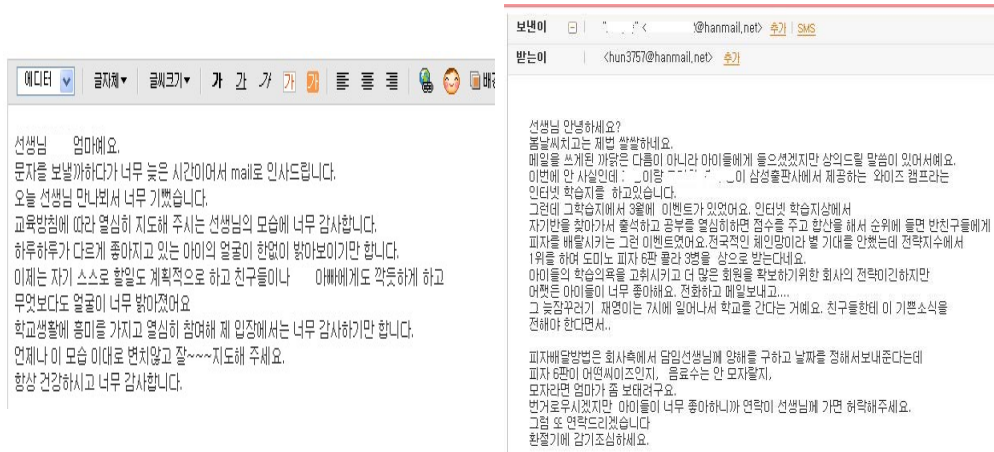


선생님!
사랑해요 ♡

[그림 5] 참살이와 e-세상에서 대화를

다) 학부모님과 e-mail 주고받기

- 학부모님과 연중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참살이들의 학교생활 모습과 지도내용 등을 안내



[그림 6] e-메일을 통한 학부모 상담

- 지도의 일원화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참살이 인권교육 지도
-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참살이 교육 실시

- 학기 초 학부모님에 참살이 교육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안내문에는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지도할 사항과 아이들과 만들어갈 참살이 동산의 취지에 대해 안내하였고, 학생들의 인권교육과 기본생활습관의 지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뜻에 동참해 주셨고, 많은 호응과 관심속에 참살이 계획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 이메일 주소는 hun3757@hanmail.net 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해 동안 믿음으로써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 따뜻한 정이 넘쳐나시길 바라면서...^^

5학년 5반 담임 하정훈 올림.

보호자 성함 :	<i>김정훈</i>	학부모님 의견
위의 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i>진심으로 선생님께 뜻에 동의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i>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radio"/>	

아래는 2007학년도 학급명부를 만들기 위한 조사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조사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5-5반 자녀 성명 : *김정훈*
 주소 : *영등포구*
 직업 :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연락처(핸드폰 있으시면 부모님 성함과 번호를 적어주세요.^^)
 -> *부() 모()* () ()
 동거학생(이리동초 다른 학년에 재학중이라면 학년반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 *학년 반 (동생)*
 담임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 *하정훈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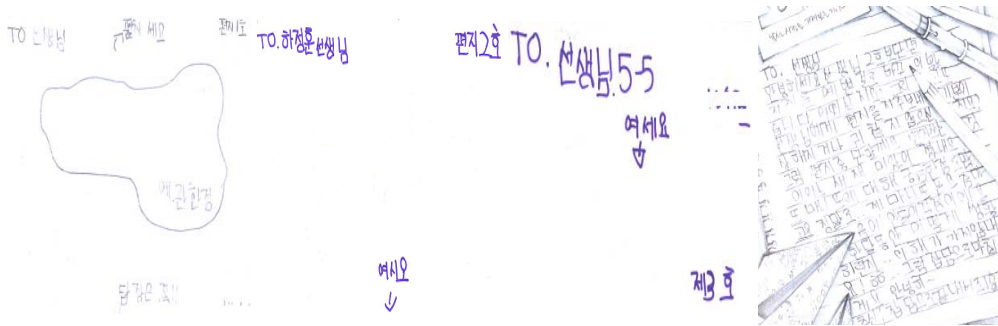
*걱정 마시고, 선생님 소신껏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많은 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귀에서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출발권 권하는 학부모님 통리서가 산뜻하고 열정이 가득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7] 학부모님과의 약속!

라) 참살이들과의 짹짜미

- “짹짜미란 남몰래 둘이서만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교사와 학생과의 은밀한 약속을 통해 스스로의 결심과 약속한 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였으며

- 연중 참살이들과 지속적인 편지 주고받기로 개개인의 고민거리 등에 대한 참된 의견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처음에는 인사말로 시작하던 편지들이 차츰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우리만의 짝짜미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수연(가명)이는 편지1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45호에 이르게 될 정도로 많은 고민 상담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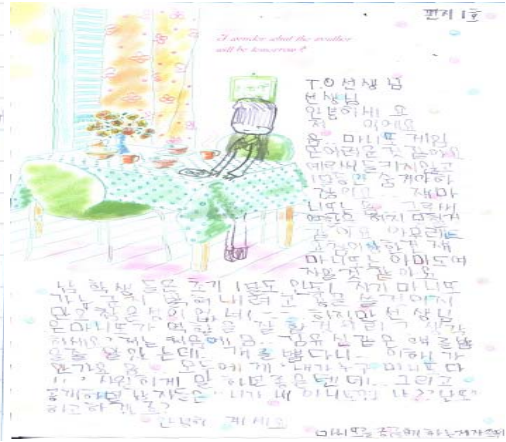
[그림 8] 참살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 연중 지속적으로 편지쓰기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아래의 사진은 우리 참살이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중 일부이다.



[그림 9] 참살이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아이요,
 선생님 5학년 5반과 5반지도 벌써 졸업이다 되어버려요, 초 5반이
 빨리 지나고 저는 5학년 5반을 떠나서 6학년과 6학년이 되게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여기 떠났고, 저는 아주 행복하게 배우고 있고 감사하
 요. 여기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말들이 있었나요?
 다음 배움기? 선생님, 그리고 이따금 그때 그친들은 생각하
 생각하 있어요, 참 힘들었어요, 아, 참, 생각하 때, 참, 참, 참,
 모두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5학년 반에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신게 정말 좋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만나서 정말 좋아요, 4학년 5학년 5반에는 정말 즐겁게
 온 우리 친구들 정말 좋아요, 우리 선생, 정말 사랑해 주시는
 가르치시는 거 감사해요, 그리고 아담 선생님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5학년 5반 선생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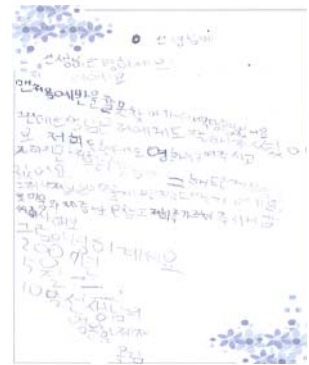


[그림 10] 참살이들로부터 받은 답장들

- 특히, 우리 반의 참살이들 중 장애가 있는 한 참살이로부터 받은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기가 당황스러웠을 때에도 잘 대해 주어서 감사하고, 자기가 선생님께 해드린 게 없어 도리어 죄송하단다. 이 무슨 말인가? 나아말로 우리 참살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고, 천냥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얻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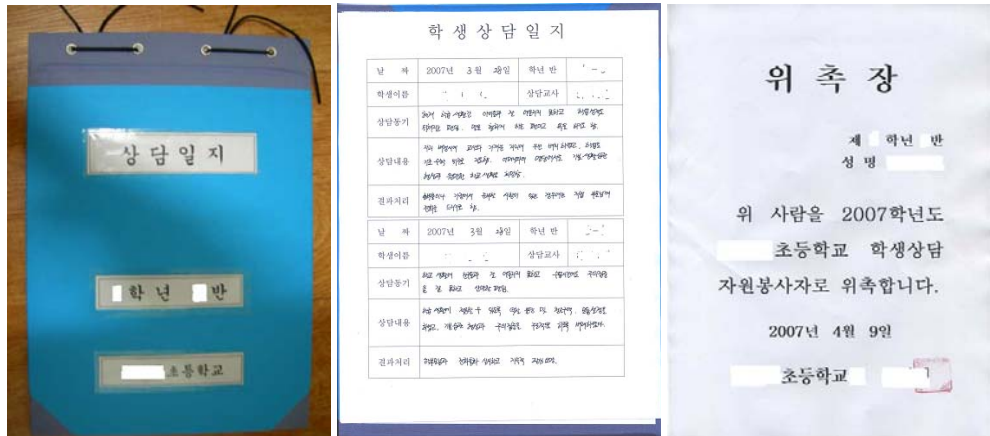
- 또한, 참살이의 고민거리에 대한 공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나름대로의 고민거리가 많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여러 문제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초부터 꾸준히 래포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참살이지기의 지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도록 노력하였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상담 일지를 매번 작성하여 누가 관리하였고,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또한, 참살이지기인 선생님 뿐 아니라 참살이들 서로간의 또래끼리 의견을 나누고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중 다른 참살이의 고민거리 들을 잘 들



[그림 11] 귀중한 선물

어주고 활동을 가장 잘 한 참살이는 상급기관의 방침과도 일치하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 하였다.



[그림 12] 참살이지기의 상담일지

- 학급의 주요 문제 파악과 지면을 통한 참살이들의 1:1 면담을 실시하였다.

마) 독서 릴레이

- 매주 1회씩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책을 선별하여 참살이들에게 추천

〈표 2〉 추천 도서 목록

순번	추천 도서 목록	시행월	비 고
1	새끼 고양이 몽치	3월	※ 선생님과 함께하는 추천도서 외에도 각자의 독서록을 활용하여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권장
2	찌푸마카토토의 그림	3월	
3	파랑새를 찾아서	4월	
4	안개와 별빛	5월	
5	탕수육을 먹으며	5월	
6	집으로 가는 먼 길	6월	
7	반쪽 단감나무를 찾아서	7월	
8	할아버지의 여자 친구	9월	
9	아버지의 겨울	9월	
10	행복한 별나라	10월	
11	여름새의 겨울 일기	10월	
12	아람이와 수평아리	11월	
13	바람이 들려준 동화	12월	

※ 이 외에도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70여권의 권장도서를 더 소개하였다.

- 참살이들에게 순번대로 하루씩 돌아가며 대여 및 감상문 작성하기
- 월 1회 “이번 달 최고의 책”선정 후 읽고 난 소감 발표 / 토의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거인들이 사는 나라, 조커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등
- 독서활동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2회 이상 권장도서의 플래쉬동화를 보도록 하여 아침 독서 시간과 독서 릴레이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관련된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yse24.com/chyes/default.aspx>)도 함께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동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 플래쉬 동화 감상

- 독후감상문 작성이 서툰 참살이들을 위하여 독서 주인공 얼굴 표정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 글쓰기에 자신이 없어하던 참살이들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다음은 활동 결과물 중 일부이다.
- 독서 게시판 활용으로 인증제 시행 및 독서 퀴즈 왕 선발하기 행사 병행



[그림 14] 독서 게시판



[그림 15] 독서 퀴즈 대회

- 월 1회는 자신이 그동안 읽은 책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주로 「이번 달 최고의 책」 선정과 관련된 토의 때 거론이 되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독서 감상문 작성지도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살이들을 위해 독서활동 후에

즐거리와 느낀 점을 만화 그리기로 표현해 보도록 하였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한별이(가명)는 자신 있게 만화를 그려서 제출하였는데 너무 잘 그려서 우리 반 만화가로 뽑히게 되었다.

바) 학급문집 작성하기

- ♡ 시간이 오래 흘러 살펴보아도 금방이라도 소중한 우리 반 이야기가, 행복한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학교문집.
- ♡ 너도, 나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며 친구들의 모습까지 남겨지는 참살이반 문집

- 한 해 동안 참살이들이 작성한 다양한 장르의 글 한데 모으기로 하였다. 글쓰기에 재능이 돋보이는 참살이의 작품은 수록하여 글쓰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다른 참살이들도 느끼도록 한다.
- 참살이들이 주체가 되어 각자 자신의 우수작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단, 학급 전체아동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글 솜씨가 뛰어난 몇 명 아동의 글로만 그치지 말고, 주제를 정하여 전체 아동의 생각을 모아 표현하는 “즐겁게” 읽혀지는 문집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학급 활동 중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 jpg 파일을 편집하여 지면을 구성해 페이지를 실감나게 꾸몄으며, 책자형식과 함께 CD로도 제작하여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예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가. 주제 글의 예 : 장래희망,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 나의 한 가지 소원, 세상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 내가 존경하는 분, 꼭 받고 싶은 선물,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해를 보내고 남기고 싶은 한마디, 잊지 못할 우리 반의 사건소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
 - 나. 아동작품 예 : 동시, 편지글, 일기글, 독후감, 주장하는 글, 체험학습 활동소감문, 소개하는 글, 단편 소설 등

다. 학부모의 글, 교사의 글 또는 추천 스크랩 등



[그림 16] 참살이지기 한마디

이름	아동사진	이름	아동사진	이름	아동사진
부:부그는 숲 속에 끌려왔다 그:그런데 와:와~! 엘리엇도 있었다 엘:엘리엇같은 나! 리:(리)이것은 엇:엇! 우리 둘이 봄어뵘?		오늘은 우리반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기절소원'으로 과자파티도 하고, 영화도 보고하면서 서로 같이 웃고 즐겁게 보냈기 때문이다. 다음 제2회 기절소원이 기대된다.		나의 장래희망은 변호사이다.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변호해주고 싶다.	
이름	아동사진	이름	아동사진	이름	아동사진
앞으로 12년 후에는 벤처기업사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돈을 가지고 무의탁 노인들을 열심히 돌보는 부지런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천적 심리학자 '클레민트스톤'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나도 좋은 마음으로 바른 습관을 키워야겠다.		봄 노란 개나리도, 하얀 목련꽃도, 포근한 햇살 먹고 살포시 미소짓는 봄.	

[그림 17] 참살이들의 작품 구성

- 학급의 주요한 이야기나 각종 행사, 우리 참살이들의 모습은 캠코더로 촬영하여 영원으로 남기기로 하였다. 각자 자신이 일년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위주로 작업하였으며, 학교나 학급의 주요 행사 때에도 촬영을 하여 DVD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림 18] 우리 모습을 담아준 고마운 카메라와 참살이들의 모습



[그림 19] 촬영 완료 후 편집 작업도 함께 해요

사) 동 학년 연수 및 교내 연수

- 교육경력이 많으신 선배 선생님들께 조언 구하기
- 주1회 지속적인 연수로 학급경영 아이디어 및 기타 자료 공유하기
- 연수를 통해 부족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충하였고 참살이들에게 인권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참살이들의 고른누리

1) 디딤돌 마련하기

따스함이 배어있는 스스로를 깨닫고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가치도 함께 알고 서로 나누고 베풀어 행복한 배려의 마음을 기르도록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3〉 따스함이 물씬 풍기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	나는 도대체 누구지?	족보를 통해 자신과 자기의 조상 찾기	족보 학습지	자신의 뿌리와 존재를 앎으로서 자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음
2	나에게 쓰는 편지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편지지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생각을 다듬어보는 기회 마련
3	오늘 내 생일이에요	생일을 맞은 참살이의 가슴에 스마일 배지 달고 하루 동안 생활하기	스마일 배지	자신의 태어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이의 탄생을 축하해줌으로서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함.
		생일에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편지지	축하받기보다 부모님께 낳아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함.
4	백스터 효과 ³⁾	화분 두개를 키우되 하나는 칭찬을, 하나는 무관심하게 관리 후 비교해보기	화분 2개 관찰학습지	사랑과 관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5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학급회의 시간에 금주에 칭찬하고자 하는 참살이를 추천하여 시상하기	학급 회의록	다른 친구를 존중하고, 장점을 발견하여 배울 수 있음
6	컴퓨터로	컴퓨터를 활용한 인권교육	PC	다른 이를 존중하는 마음과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배워요			함께 PC 활용능력을 기름
7	우리가 만들어요!	참살이 인사말, 구호 만들기 학급노래 만들어 부르기	.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8	함께하는 생활	장애인이 되어 보자	활동지, 눈가리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장애체험을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함
9	손으로 대화해요	수화 배우기	마스크, 장갑	언어장애인이 되어 각자 체험 해보고 수화를 통해 대화하기
10	일기는 우리 둘이 쓰는 거~	친구(참살이지기)와 교환 일기 쓰기	일기장	다른 친구와 고민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성숙할 수 있음
11	나는 그대의 수호천사	마니또 프로그램	수호천사 활동 기록장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음
12	권투선수과 발레리나	양성평등 상호이해 활동	교재, VTR	양성평등 실현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기름

2) 디딤돌 밟아가기

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 족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조상을 찾아보는 활동
 - 자신의 시조, 본, 파, 몇 대손 등에 대해 알아보기
 -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아보기
- 자신의 이름의 뜻, 장단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등에 대해서 적어보기

3) 백스터 효과 : 식물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966년부터 백스터란 사람이 식물에 전류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식물의 잎사귀를 태우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식물에 연결된 전류계의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각을 초월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식물은 오감이 없으므로 초감각으로 어떤 것을 인지한다는 것

나는 누구인가? 초등학교

학년 반 번호

우리 집 가족		
성명		학교
활동한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오할아버지

오아버지

오할머니

오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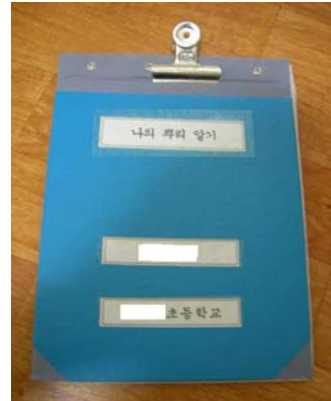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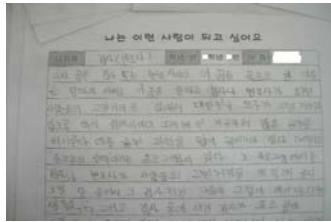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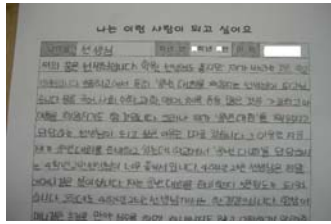
아버지

나

어머니

문상

우리 집은 이방 영에 살고예요.



[그림 19] 나는 누구인가.

[그림 20] 나의 장래희망

[그림 21] 나의 뿌리알기

- ※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 친지가 함께 모인자리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나의 뿌리 알기” 바인더 작성. 자신의 선대 조상에 대해 알아보기
 - 집안의 가보나 가훈을 알아보거나 만들어보기
 - 자신이 만들어 갈 미래의 자손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생각하기
 -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보는 나의 장단점을 기록하여 돌려가며 읽기
- ※ 5월 “어버이날” 전후로 실시함.

나) 나에게 쓰는 편지

- 자기 자신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
- 부모님, 친구관계, 성격, 그동안 잘못했던 일 등 주제를 정하여 실시
- ※ 6월에 계획된 1박2일 극기 훈련 기간 중 야간에 작성

다) 오늘 내 생일이예요

-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은 스마일 배지를 생일을 맞은 하루 동안 가슴에 달고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참살이들이 축하해 주도록 하였다.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서 우리들만의 자그마한 축하파티를 열었으며, 생일자자의 상점이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참살이지기 선생님이 피자를 사기로 하였다.

- 매월 초에 “이 달의 생일자” 게시판에 게시하기
- 자신의 탄생을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기
-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 축하받기보다 부모님께서 자신을 낳아주시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라) 백스터 효과

- 교실에 키우는 화분 중 하나는 사랑과 정성으로, 다른 하나는 무관심으로 기르기
- 학기초부터 동일한 크기의 화분을 길러 여름방학 전에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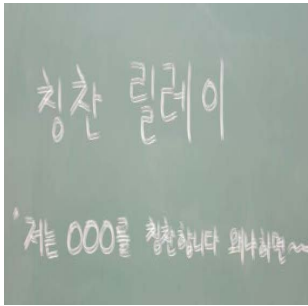


[그림 22] 백스터 효과를 체험하는 순간

※ 단, 물주기, 햇빛 받는 양, 식물의 종류 등은 모두 동일하게 함.

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매주 실시하는 학급어린이회 시간에 금주에 착한 일을 하여 칭찬하고 싶은 참살이 추천하기를 실시하였다. 또한, 칭찬 릴레이를 통해 서로간의 장점을 발견해 칭찬하기 운동을 하였다.



[그림 23] 칭찬 릴레이 이어가기



[그림 24] 다른 참살이 칭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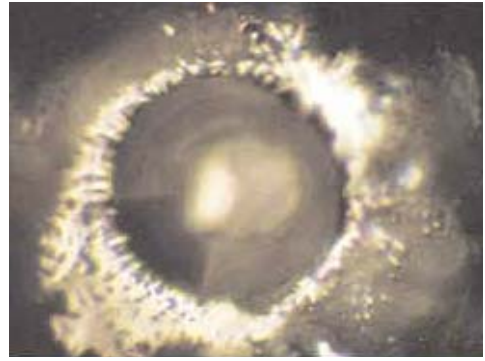
- 추천받은 참살이 중 투표를 통하여 금주의 “착한 시민상”을 수상하였고,
- 3회 이상 시민상 수상자는 참살이지기(담임교사)가 직접 착한 시민상 자격증 및 상품권을 수여하였다.
- 이 외에도 부모님께 칭찬해 드리기 운동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다음은 그 중 실시했던 반응 중 가장 황당했던 내용과 감동 깊었던 내용들의 일부이다.

날 짜	5월 6일 화요일 (2번째) 학년 반 번 이름 : 000
칭찬의 상황은?	그냥 걸어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칭찬한 말은?	“ 아버지가 계시는 그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 미친 놈”
오늘 칭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젠장 욕먹었다
날 짜	학년 반 번 이름 : 000
칭찬의 상황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어머니! 요새가 부쩍 장사가 안되나 보다. 그래도 항상 웃음 보이시려 애쓰다
칭찬한 말은?	“ 엄마 힘들 때 울어도 괜찮아. 엄마 지금 충분히 우리 위해 노력하고 계세요”
부모님의 반응은?	눈물 흘리시며 “ 그래 고맙다”
오늘 칭찬활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우리 집에 항상 좋은 일이 생겨 웃음이 넘쳐 났으면 좋겠다

- 또한, 전북CS리더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물은 답을 알고 있다”활동을 통해 칭찬의 위대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렇게 해 주세요!”의 경우
[그림 25]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지 못해!”하고 욕박지르는 경우

- 더불어 전북CS리더 교육에 활용되었던 “칭찬양파 기르기 30일” 실습을 우리 참살이들과도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이 활동은 앞서 「고른누리」의 「백스터 효과」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칭찬을 잘 하는 비법 세 가지를 우리 참살이 모두에게 전수하였다. 내용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여 잊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O - 보이는 것

나. Have - 가지고 있는 장점

다. Be - 의미가 깊은 칭찬, 그 존재를 인정함으로 가장 큰 칭찬이 된다.

- 흠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비록 교육학의 피그말리온이나 플라시보 효과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따뜻한 칭찬 한 마디가 우리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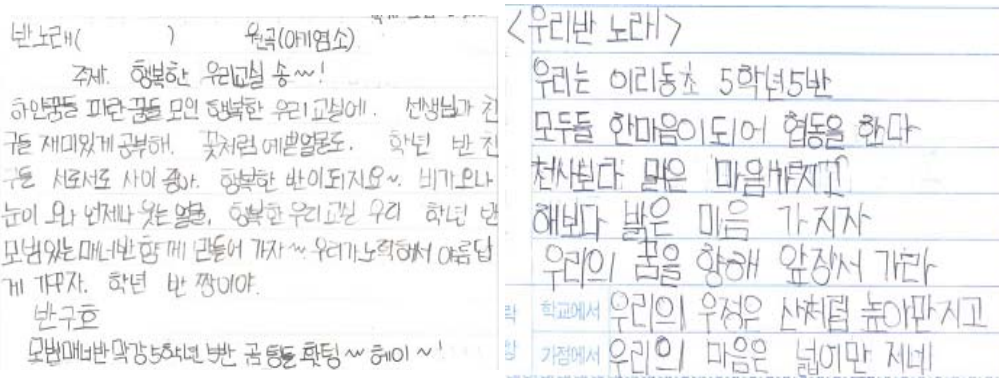
게 얼마나 소중한 지는 다들 잘 아시겠지요?

바) 컴퓨터로 배워요

- 매주 실시하는 재량활동에서도 컴퓨터와 한자를 교육하고 있는데 컴퓨터 활용시간에도 자연스럽게 인권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운 심성을 배양하도록 한다.

사) 우리가 만들어요!

- 학급에서 수업시간이나 주의집중이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반 구호, 참살이 인사말, 학급노래 등을 지어 부르도록 하였다.
- 모둠별로 하나씩, 한 소절씩 작성하도록 하여 전체의 구호와 반가를 완성하였으며, 모든 참살이들이 이 활동에 참여해 자신들 스스로가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 완성된 구호는 “모범매너 막강 참살이반 곰팅들 핫팅! 헤이~”로, 인사말은 “사랑합니다~”로 결정되었다. 학급 노래는 두 가지가 최종 선정되었는데, 원곡 「아기염소」에 가사를 바꾸어 붙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그림 26] 학급노래

- 수업 시작 전, 종례시, 모둠 활동시 등 마음을 모을 때 부르도록 지도
- 매월 서로간의 인사말을 공모하여 결정한 뒤, 한 달 동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참살이들의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른 인사말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예) (머리위로 하트 만들며) 사랑합니다!, 서로 배려합시다! etc

- 이 외에도 모둠별로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모둠별로 서로 알아보기, 주제가 정하기, 서로에게 한 마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아) 함께하는 생활

- 참살이들과 함께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KBS 3라디오에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아 (<http://www.kbs.co.kr/radio/3radio/main.html>) 활용, 시청하도록 하였다.
- 학급 아이들과 함께 장애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이 되어 스스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를 체험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과 품성을 계발하도록 하였다.
- 모든 참살이들이 눈을 가리고 한명이 술래가 되어 핸드벨(종)을 들고 도망 다니도록 하였다. 눈을 가린 모든 친구들이 소리만 듣고 술래를 잡는 활동이다.



<진행방법>

1. 참살이들은 정해진 범위안에서만 움직인다
2. 술래는 양손에 종을 달고 도망간다.
3. 나머지 참살이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술래를 잡는다.
4. 술래를 잡은 참살이가 술래가 되어 게임을 계속한다.



[그림 27] 아무것도 안보여

자) 손으로 대화해요

- 계발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수화를 배우도록 한다. 학습 자료는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재량활동 시간용으로 배부한 CD와 웹 자료 (사랑의 수화 교실 - <http://cein21.net/suhwoa>)를 활용하였다.



[그림 28] 손으로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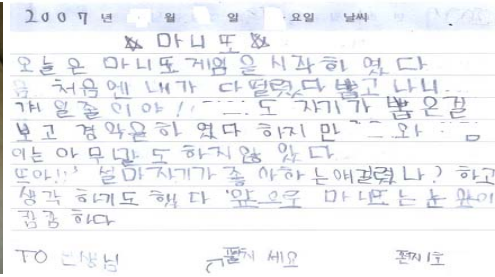
- 각자 언어장애인이 되어서 마스크를 쓴다.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 대신 수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기를 한다.

차) 나는 그대의 수호천사

- 참살이지기 주관 하에 월 1회 수호천사를 비공개 선정하도록 하였다. 선정하기 전 아래의 그림과 같은 마니포 노래(스페인)를 부르고 분위기를 조성한 후, 수호천사 선정을 하였다.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절대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호천사를 공개하거나 묻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하였다.
- 수호천사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선정하도록 하였고, 성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는 선생님을 포함시켜서 시행하였다. 수호천사를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간편하게 종이컵을 이용해 뽑기 도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아래의 참살이 일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참살이의 서운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호천사를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가깝게 지내고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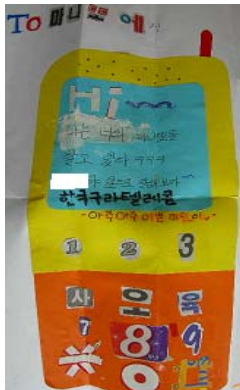


[그림 29] 수호천사 뽑기 도구



[그림 30] 수호천사를 뽑은 참살이의 일기

- 자신의 친구를 도와줄 때마다 수호천사 활동 기록장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수호천사가 공개되기 전까지 활동이 가장 많은 참살이를 선정하여 월 1회 상점을 주었다. 참살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다른 참살이의 청소구역 몰래 청소하기, 신문 스크랩 편지쓰기, 사탕 남몰래 주기 등 작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중한 아름다운 행동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음은 수호천사에게 자신의 글씨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신문을 오려서 쓴 참살이의 수호천사 편지와 선물의 일부이다. 종이 한 장에 쓰여진 꼬깃꼬깃한 편지와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만지작거린 빵 한조각일 뿐이지만, 참살이의 고운 마음의 흔적이 엿보여 더 사랑스럽기만 하다.



[그림 31] 신문 스크랩 편지



[그림 32] 참살이가 남몰래 전해준 마음



- 매월 말에 마니또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수호천사를 공개하고 실천기록장을 선물한다.

-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참살이를 선정해 참살이지기(담임교사)가 비밀의 수호천사 자격증 및 상품권 수여

카) 권투선수와 발레리나

- 성 역할 바꾸어 대화하기, 상대의 성을 보호해야 할 요소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 확보된 성교육 시간을 이용하여 상호이해의 시간 갖기를 하였다.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건 선생님께서 지도해주셨다. 상호간의 차이점과 이에 대한 존중,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이와 더불어 익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www.iksung.org)와 플래쉬로 보는 성교육자료 12편, DVD자료와 web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 ※ 고클학년이라는 여건을 고려하여 참살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33] www.iksung.org



[그림 34] 플래쉬 자료 중 일부

- 관련된 비디오와 시청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였다. 【빌리 엘리어트】 【슈팅 라이크 벅】 【프린스 앤 프린세스】 등의 자료가 이에 해당하겠다.
- 참살이 동산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실시하였고, 우수작은 추천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작으로는 『양성평등? 남녀공동!』 이란 주제로

쓴 한솔(가명)이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상급대회에 추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축진을 위해 제정된 여성주간(7. 1~7. 7)을 기념하여 실시되는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참여도 적극 권장하였다. 일상생활 또는 학교현장에서 경험한 남녀차별·양성평등에 대한 생각, 느낌, 대안 등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관한 참살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그리기나 글짓기 등의 각종 공모전에도 참가하였다.

다. 참살이의 도담다담4)

1) 디딤돌 마련하기

자신의 소중한 능력을 찾아 이상적인 환상보다 자기 능력을 알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과제들로 선정하였다.

〈표 4〉 우리 할 수 있어!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	3분 스피치	한 명이 일주일 동안 학급에 있었던 일을 조사한 뒤 3분 발표하기	우리 반의 역사노트	발표에 대한 자신감 집단에 대한 진단과 평가로 우리 반에 대한 소속감 강화
2	오늘은 내가 선생님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친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	학습활동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 실현하는 성취감과 자신감 배양
3	퍼즐조각 맞추기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퍼즐 조각 맞추기	퍼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하며 자신감 배양
4	미술가가 되어보자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물감, 붓	각자 미술가가 되어 짝지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기
5	Designed by Me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봐요	종이, 연필	자신이 상상하는 만화를 그려보고 미적 재능과 소질을 계발함

4) 도담다담 : 탈 없이 잘 커가는 모습을 나타낸 순 우리말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6	재크의 콩나무	파란 마음 하얀 마음	파일철	자신의 활동지 및 일년간의 포트폴리오를 모아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도록 함
		열린 마음 열린 생각	파일철	
7	우리 가족과 함께!	가족신문, 가족 회의록 만들기	활동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느낄 수 있음
8	효도상품권	효도상품권 활용하기	상품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설계

2) 디딤돌 밟아가기

가) 3분 스피치

- 일주일에 한 명이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우리 반의 역사노트”에 기록한 후 토요일 반성조회시 3분 동안 발표하게 하기



[그림 35] 우리 반의 역사노트를 활용한 3분 스피치

- 학급의 주요 사건의 선생님과 공유 및 토의여건 확립
- 발표에 대한 자신감 및 다양한 의견 표출

나) 오늘은 내가 선생님

- 한번은 장애가 있는 우리 반 참살이가 내게로 살며시 다가와 귓속말을 합니

다. “선생님, 오늘 7교시에 뭐할 꺼예요?” 초등학교에 웬 7교시냐구요? 우리 반은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지 않거나 시간이 남는 아이들이 남아서 자기들만의 7교시 수업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자신 있는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 주거나, 같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룹을 이루어 춤이나 안무를 짜서 우리들만의 작은 콘서트를 하기도 합니다. 한별이(가명)에게는 수업보다도 이 7교시가 더 마음에 드나 봅니다. “글쎄, 뭘 하면 좋을까?”라는 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별이가 소리칩니다. “퍼즐 맞추기요.” 한없이 밝은 모습의 우리 아이들과 그날은 500피스짜리 퍼즐 맞추기를 하느라 늦게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참살이들이 있는 학교가 저에게는 달콤한 꿈이고, 천국입니다.

- 참살이들 중 “1시간 선생님 되어보기”라는 주제로 자신 스스로가 가장 자신 있는 주제를 선정해 다른 친구들에게 지도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 반 준거집단 대원 한 학생과 다른 참살이가 함께 레크리에이션과 율동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 학생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값진 교훈을 느끼도록 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신뢰감 형성



[그림 36] 1시간 동안 선생님이 된 참살이들의 모습

-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하였다. 다른 체험활동이나 자신이 잘 하는 분야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우리 반 민수(가명)는 만들기에 취미가 있어 나무젓가락으로 만들기를 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주었고, 개그맨이 꿈이라는 선민(가명)이

는 친구들에게 한 시간 동안 재미있는 개그를 하는 방법을 선보여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37] 나무젓가락 만들기

[그림 38] 개그를 잘 하는 방법

- 또한, 칠판에 낙서하기를 좋아하고 분필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는 우리 반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장기를 살려 분필조각을 선보였다. 평소 미술에 자신이 없어하던 참살이들과 조각과 만들기를 싫어하던 참살이들 까지도 모두 한마음으로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9] 참살이들이 선 보인 분필 조각 작품

자신의 얼굴을 만들거나 수업시간에 등장했던 마을 앞에 서 있는 장승, 게임 속에 출연하는 괴물의 모습, 혹은 자신이 아끼는 리코더나 색연필의 모습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만들어 내었다.

-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진로교육까지 병행하였다. 일년이 지난 지금 우리 참살이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된 말이 “어, 정말이네. 우리도 잘할 수 있네요.”이다. 들을수록 가슴 한 칸이 뚫어지는 말이다.

다) 퍼즐조각 맞추기

- 학급에서 퍼즐 맞추기 대회를 하였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문별로 대회를 열었으며 퍼즐조각 맞추기도 여러 가지 종목 중의 하나였다.
- 아래의 그림은 우리 반 참살이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500피스짜리 퍼즐을 짜맞추기한 완성작의 모습이며, 각자의 맡은 부분마다 최선을 다해 학급내 모든 참살이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위의 활동은 모듈별로 함께하는 활동으로 [고른누리]와도 연계지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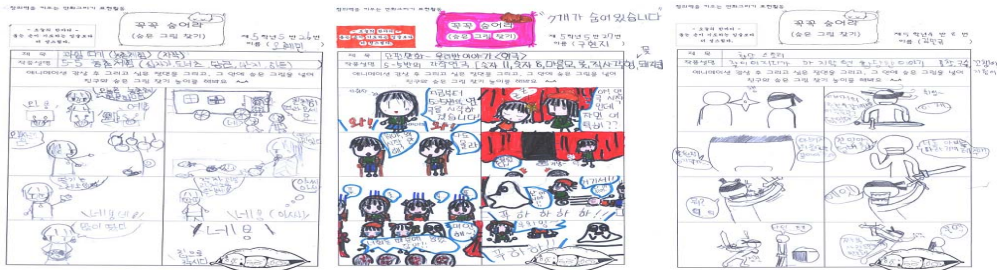
라) 미술가가 되어보자

- 자신이 미술가가 되어 짝지의 얼굴에 그림을 주려 보도록 하였다. 일명 페이스인팅이나 네일아트 등을 직접 그려 보도록 하였다.

마) Designed by Me

- 자신이 만화가가 되어 다루고 싶은 주제를 정해 그림을 그린다. 처음에는 4컷, 6컷 등으로 짧은 만화 위주로 지도를 하고 나중에는 노트 한권을 참살이 만화책으로 정하고 우리 반 전체가 돌아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이어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만화그리기에 싫증이 나지 않도록 자신이 그린 만화에 숨은그림찾기를 추가하여 다른 친구들이 찾아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우리 반 참살이들은 8컷 만화를 그려 자신이 5가지 숨은 그림을 제시하고 짝지와 만화를 맞바꾸어 서로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림 40] Designed by Me 활동 모습과 결과물

- 완성한 작품에는 물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색연필, 네임펜, 굴 껍질, 딸기, 나뭇잎 등을 이용해 다양한 색을 만들어 색칠을 하였으며,
- 위의 활동은 미술과목은 물론, 과학과의 용액의 성질 단원의 지시약 만들기 와도 연계하여 지도하였다.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교과활동과도 연계 지도하였다.
- 각자가 그린 만화들을 1년 동안 모아 자신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 각자 자신이 그린 만화들이 한권의 작은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만의 추억모음집으로 간직하도록 하였다. 아래는 완성된 작품의 모습이다.



[그림 41] Designed by Me 활동 - 완성작품

바) 재크의 콩나무

- 자신의 활동지와 각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한데 모아 스스로의 성장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파란 마음 하얀 마음』에는 학습활동과 창의성에 관련된 작품들을... 『열린 마음 열린 생각』에는 인권교육과 기본생활습관에 관련된 자료들을...



[그림 42] 참살이별로 『파란 마음』과 『열린 마음』을 정리한 모습

- ※ 재크의 콩나무와 더불어 참살이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해 유용한 웹 자료와 사이트를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 우리 가족과 함께!

- 가족신문 제작하기
- 최초 주어진 양식에 의해 각자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는 글짓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참살이 가족의 가훈, 가족 나들이, 이달의 우리 가족 행사, 우리 가족 이야기, 가족의 소원, 자랑거리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 양식을 활용하여 가족신문 만들기에 적응을 한 후, 자유롭게 자신만의 가족신문을 만들도록 하고, 각자의 작품을 학급에 게시하여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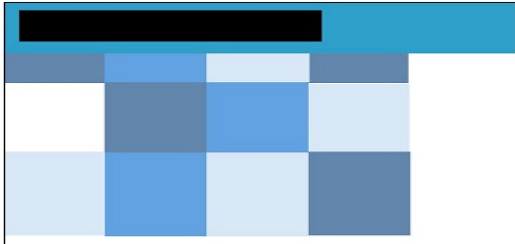


[그림 43] 우리가족과 함께! 게시 모습

- 가족 회의록 작성하여 주 1회 이상 가족 회의시 활용하기
- 다른 친구의 가족신문과 가족 회의록 살펴보기, 응원, 위로 등 서로 공감하기
- 긍정적인 가족관 확립하기

아) 효도 상품권

- 가정통신문을 통해 효도 상품권을 활용하는 뜻을 각 가정에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 자유이용권, 안마, 심부름, 청소, 설거지, 방청소하기, 구두 닦기 등 다양한 활용하여 효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 부모님이 효도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불평 없이 기쁘게 행하도록 한다.
- 사용한 후 사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하고 난 후 소감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다른 참살이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님 사인은 효도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받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참살이들까지도 효도통장을 채우는 기쁨에 열심히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한달에 한번 상을 시상하여 격려하도록 한다.
 - ※ 어버이날이 있는 5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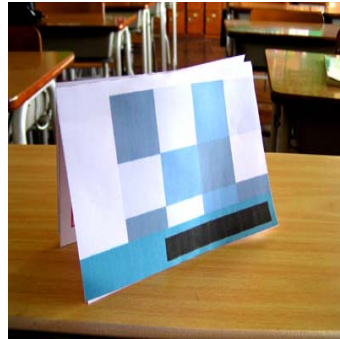
예금주	하정훈 (인)
계좌번호	2007-06-19-검암
가입일	2007. 06 . 19
월이율	효도를 위한 노력만큼
발급일	2007. 06 . 19



1. 위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됩니다.
2.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은혜를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만큼의 효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부모님이 저를 위하여 무것을 할마만큼 노력하셨는지를 생각하겠습니다.
4. 때가 머를이 되면 이 통장에 적인 금액만큼 부모님과 또 저의 2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날짜	부모님 은공의 내용	수입	지출	잔액
80. 2. 27	저를 태어나게 하심			



[그림 44] 참살이들의 부모님 사랑 통장 (효도통장)

라. 참살이의 너을가지

1) 디딤돌 마련하기

〈표 5〉 온 누리 속 참살이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불굴의 의지 공감하기 불우 환경을 극복한 선수 조사하기	응원복장 응원도구 영상물	월드컵을 매개로 자신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부심
2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국기, 국가, 국화, 국어, 국토 사랑 교육	활동지	대한민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소양 기르기
3	국토대장정	우리 땅 국토순례 하기	체험활동 보고서	우리 국토를 체험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
4	내가 만든 태극기	태극 핀 만들기	핀, 비즈	태극핀을 직접 만들어 태극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기름
5	우리 땅 우리 역사	독도는 우리 땅 중군위안부등 왜곡된 역사들	활동지	우리 땅과 우리의 역사를 바로알고 이를 지키려는 마음을 기름
6	위대한 유산 74434 <small pieces for Korea!>	해외로 유출된 우리의 문화재	MBC !(느낌표)	한민족의 뿌리이자 자존심, 우리의 위대한 유산들 바로알기
7	먼 나라 이웃 나라	세계의 문화와 풍습 이해	학습지 세계지도 지구본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통한글로벌 교육의 내실화
8	Hello! Amanda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운영	보조자료	외국인과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를 준비하는 자세 기르기

2) 디딤돌 밟아가기

가) 하나 되는 대~한 민족!

- 월드컵을 매개체로 서로의 꿈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 월드컵이 낳았던 스타 선수 중 불우 환경을 극복한 선수 조사하기

- 펠레(브라질), 마라도나(아르헨티나),

1954년 스위스월드컵에 참가한 대한민국 대표팀

1966년 북한 축구대표팀, 2002월드컵 세네갈 대표팀 등

- 우리학교 축구부 경기 관람하고 이에 대한 본받을 점 쓰기
- 함께하는 응원을 통해 참살이들의 하나 되는 기회 갖기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갖기

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 태극기 그리기 대회, 애국가 외워 쓰기 대회, 무궁화 그리기 대회 등 개최
- 우수아동 선정 시상, 작품 게시
- ※ [꼬까뻘]와 연계 : 현충일과 연계 지도 - 팔봉군경묘지 참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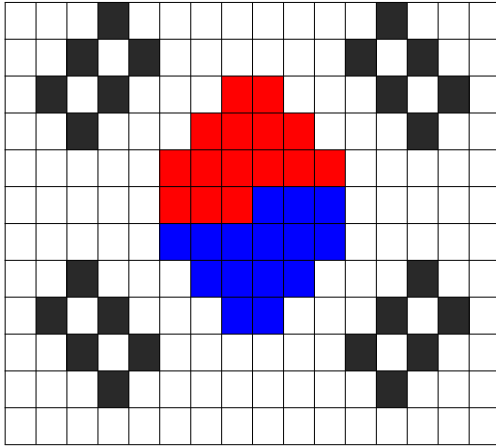
다) 국토대장정

- 주말이나 방학 기간 중에 적당한 날을 계획하여 우리나라의 국토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시골길이나 흙보다는 아스팔트와 시멘트에 더 익숙해진 우리 참살이 들에게 직접 흙을 체험하고 우리나라와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라) 내가 만든 태극기

- 개인별로 태극편을 만들도록 하였다. 원래 준거집단 활동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참살이들의 [너울가지]와도 취지가 잘 어울려 활동을 하였다. 흰색, 검은색, 빨강, 파란색의 비즈와 옷핀을 이용해 태극편을 만들도록 하였다.
- 재료는 큰 옷핀(4.4cm)1개, 작은 옷핀(2.7cm) 16개, 흰색 비즈 138개, 검정비즈 28개, 파란 비즈 15개, 펜치 1개가 필요하다.
- 구슬을 아래의 도해를 보고 순서대로 끼운 뒤, 작은 옷핀 16개를 큰 옷핀에 순서대로 끼우고 움직이지 않도록 양 끝을 펜치로 눌러준다

만드는 법 (도해)



[그림 45] 태극기 비즈 만들기

마) 우리 땅, 우리 역사

-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바로 알도록 유도
- [우산국을 찾아서] 등 독도 탐방 활동
- [종군위안부 할머니들] 등 우리의 지난 과거를 바로 알고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 확립

바) 위대한 유산 74434

- MBC방송의 ! (느낌표) 프로그램의 적극 활용
- 필요시 지난방송보기 VOD같은 자료를 통해 지도시 적극 활용
- 우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당위성과 이유를 깨우침
- 또한 특별히 <small pieces for Korea!> 활동을 함께 하였다. 이는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되찾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을 기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꼭 돌아와야 하는 문화유산을 작은



메모지 (5cm×5cm)에 그리도록 하였다.

- 이렇게 모아진 작은 그림조각들을 한데모아 커다란 작품을 만들어 교실 한쪽 벽에 게시해 두고 우리의 문화재 환수를 기원하도록 하였다.

사) 먼 나라 이웃 나라

- 국제교류 체험학습을 통해 세계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
- 외국의 학교 사이버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 ICT 활용 국제교류 협력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 ※ [도담다담]과 연계 : 미래 지식 정보사회의 꿈과 비전에 대한 마인드 형성

아) Hello! Amanda

- 교내에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 Amanda의 도움을 받아 시행함.
-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역할 놀이하기
- 외국인과의 다양한 접촉과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 마련

마. 참살이의 꼬까뻘⁵⁾

1) 디딤돌 마련하기

꼬까뻘에서는 참살이들로 하여금 직접 해봄으로써 배우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직접 체험하고 실시해보면서 즐거운 가운데 배워나가며, 각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자신감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나를 아끼고 존중하며 친구들과의 협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과제, 신체·노작활동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과제, 실천 가능한 과제, 교과와 관련이 있으며 아이들이 흥미 있어 할 내용을 선정한다.

5) 진달래철 꽃 나들이를 나타내는 순 우리말

〈표 6〉 우리 몸으로 체험해요

번호	과 제	활동내용	준비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1	테마학습	테마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	자신의 꿈과 기대를 실현하는 체험학습
2	여기는 우리의 아지트!	심성 수련 및 야영활동 전개	야영관련 물품 일체	야영 수련활동을 통해 자립심과 독립심 배양
3	금수강산 우리가 보존해요	환경 보존 활동하기	쓰레기봉투, 비닐장갑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우리 주변은 스스로 깨끗이 하려는 태도를 기름
4	우리 몸이 개운해요	매일 같이하는 새천년 건강체조, 우리 몸을 깨우는 영양체조	3D 애니메이션	즐거움을 동반하는 몸동작으로 아동의 흥미연계
5	흙사랑 농장	학급에서 여러 식물 재배하기	화분, 각종씨앗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기쁨의 성취감과 자연을 통해 밝은 심성을 기름
6	산이랑 단풍이랑	산에 올라가 단풍잎 관찰하기	등산화 운동화	직접 산에 올라가 자연을 체험하고 단풍잎 관찰하기
7	옛날 사람들은...	전통문화 체험하기	시청각 자료	관례·혼례·상례·제례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경험해 보기
8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일터 방문의 날	.	부모님의 일터를 방문해 보고 부모님의 노고와 고마움을 안다
9	부모님과 함께 체험해요	부모님과 체험활동하기	.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느끼기
10	오늘은 우리의 축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문화 조성	연습활동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는 학교 축제 문화 정착
11	문화센터 방문	문화센터 방문 및 체험하기	.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주변의 문화센터 활용, 체험하기
12	밝은 미소, 밝은 공간	기본생활습관 형성하기	.	자신과 자신이 지내는 곳을 가꾸어 항상 밝음이 유지될 수 있는 분위기 유지
13	우리 맘대로~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 체험	.	자신이 꼭 하고 싶은 활동을 다른 참살이와 나누며 흥미로운 학교생활 정착

1) 디딤돌 밟아가기

가) 테마학습

-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테마학습식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하였다. 동학년 선생님들의 적극지도와 학교의 교육방침과 의도에 맞도록 공주에 있는 산림박물관을 다녀오게 되었다.

나) 여기는 우리의 아지트!

- 야영 수련활동 참가, 다양한 수련 및 야영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모든 사전준비 및 활동을 참살이들끼리 모듬을 만들어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도록 배려하였다.
- 수련활동을 통한 자립심과 독립심 배양

다) 금수강산 우리가 보존해요

- 환경 보호활동 실시, 환경보호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주변을 정돈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 또한, 우리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생물들을 직접 볼 기회가 적은 우리 참살이들에게 살아있는 참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아래는 우리 참살이들과 함께 개울가에서 가재를 잡으러 체험한 활동사진이다.

사) 옛날 사람들은...

-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조상들의 슬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 전주 한옥마을과 민속박물관 등을 관람하기도 하였고, 토요일 휴무일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의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한번 보고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체험간 다른 참살이들이나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견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체험활동이 되도록 하였으며, 각자의 체험활동 보고서는 참살이의 관련

파일에 정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림 46] 여수를 다녀와서



[그림 47] 마이산에서



[그림 48] 미륵산 당간지주

- 체험활동 후에는 각자의 체험활동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찾아보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아) 우리 부모님은...

- 부모님 일터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하루 동안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부모님의 여건에 맞추어 가능한 날짜 중에 하루를 부모님과 함께 체험하도록 하고, 특히 주5일제가 있는 주말을 적극 활용하였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의 일터를 직접 방문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체험하면서 노고와 수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재(가명)는 해군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일터를 방문하였고, 이외에도 불임연구원으로 일하시는 아빠의 산부인과에 들러 현미경을 살피고 온 참살이도 있었고,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지구대에 다녀온 참살이도 있었다. 또한, 대형마트나 어머니의 옷가게 등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자) 부모님과 함께 체험해요

-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체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우리 반 여건에 맞추어 가끔 한번쯤은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실천과제였다. 학

부모님께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가정에서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간이 바쁘신 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뜻에 동참해 주셨고, 처음에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위주로 실행에 옮겼으며, 차차 다른 체험 활동기관이나 여러 행사의 참여, 견학과 방문활동까지 확장되게 되었다.

-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나누는 일명 “나눔 장터”를 계획하여 참여하기도 하였다. 부모님과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기회를 가졌는데, 어머님들보다도 우리 참살이들이 물건을 파느라 더 열심이었다.



[그림 49] 물건 사세요~.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 활동을 마친 후에는 경험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여 서로의 느낀 점이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시관이나 과학 특별전과 같은 체험활동 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너무 많은 체험활동이 이루어져 모든 내용을 다 안내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차) 오늘은 우리의 축제

- 일년 동안 배우고 익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마련
- 학습 뿐 아니라 동시, 리코더, 합창, 복고댄스, 난타, 음악줄넘기, 오카리나, 바이올린, 미술작품, 응급처치, 무용, 사물놀이, 발레, 사교댄스 등 여러 가지 종목 선정

카) 문화센터 방문

- 학교 주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여러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하여 체험 하도록 하였다. 홈 플러스 문화센터의 기상학과 일기예보, 환경꾸미기 중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교과 및 창의성과 관련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 밝은 미소, 밝은 공간

- 인상 깊었던 전북CS리더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참살이들에게도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구호아래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밝은 미소로 생활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 및 유지로 항상 밝은 미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단정한 옷차림, 바른 자세, 식사태도, 청소, 정리정돈 등
- “행복한 미소로 서로를 대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질문과 함께 미소연습을 실시하였다.
- 이 외에도 기본 생활 습관으로 줄서기, 급식실에서 질서 지키기, 식사 후 양치하기 등의 다양한 기본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시들해 질 때쯤 각종 면제 혜택이 있는 상품권 보물찾기를 하였다. 가끔씩 실수로 일기장을 안 가져 왔거나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p>[그림] 각종 혜택이 있는 상품권의 종류</p>	 <p>짜 선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원하는 친구와 하루 동안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2008년 2월 까지 	 <p>숙제면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제 면제권을 가진 사람은 1회여 한해서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효기간 : 2008년 2월 까지
 <p>금식우선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식을 먹을 때 친한 친구 한 명과 금식을 제일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2008년 2월 까지 	 <p>청소면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동안 청소를 면제해줍니다 - 유효기간 : 2008년 2월 까지 	 <p>일기면제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여 한해서 일면 일기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2008년 2월 까지

- 이러한 상품권을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교실에 미리 숨겨두고 교실로 돌아오면 찾도록 하였다. 참살이의 수를 고려하여 상품권을 준비하여 한사람에게 평균 한 장 이상씩 모두 갖도록 하였다. 참살이들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음은 열심히 상품권을 찾고 있는 참살이들의 모습이다.

파) 우리 맘대로~

- 일년 동안 자신이 꼭 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들을 참살이지기에게 건의하여 채택되면 다른 참살이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짜여진 시간표에 맞추어 스트레스와 짜증이 났을 우리 참살이들에게 자그마한 심터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참살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나 학교 행사나 기념일과 맞추어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주제는 주로 참살이들이 원하는 것 위주로 실시하였다. 과학의 달인 4월에는 물로켓 등과 같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날씨가 좋은 봄날에는 운동장에 나가 열심히 달리기도 하였으며, 개인전과 함께 서로간의 단합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팀별 이어달리기도 실시하였다.
- 가끔 피곤에 지쳐 학교수업이 지루해 질 때면 특별실을 활용하였다. 특히, 올해에 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이 생겨 영화관 못지않은 커다란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도 있었고, 전자칠판에 필기를 하면서 색다른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 여름철 날씨가 너무 더워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오후 수업시간에 종이접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한 장으로 접을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매우 복잡한 종이접기까지 해내는 걸 볼 수 있었다.
- 과학 단원과 연계하여 별자리와 우리가 사는 태양계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플라네타리움 (조명 별자리본) 만들기” 활동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곧잘 따라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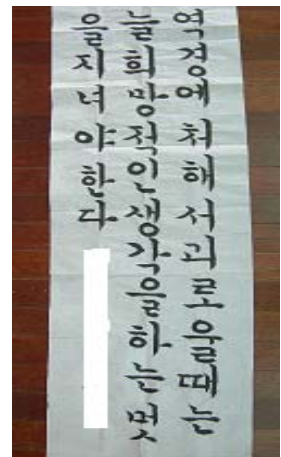
[그림 50] 플라네타리움 - 조명 별자리본 만들기 활동과 완성품

- 완성된 작품은 각자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해가 지고난 뒤 저녁에 불을 밝혀 별자리의 모습을 직접 관찰해 보도록 하였다.



[그림 51] 내가 만든 별자리 - 플라네타리움

- 1년여 간의 참살이 생활을 마무리하며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역경에 처해서 괴로울 때는 늘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멋을 지녀야 한다 - ○○○초 참살이들”이라는 36글자의 글을 참살이지기인 나를 포함한 모든 참살이와 함께 작성하였다. 다소 삐뚤빼뚤하고 보잘것없는 솜씨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닥치게 될 수많은 일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밝은 어린이가 되기를 믿어봅니다.



[그림 52] 우리의 다짐

IV.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참살이는

1. 완성되어 가는 참살이를 위해



늘상 오던 곳 너희들 놀이터
땀으로 목욕하고 때로는 시린 손등 터지고
해질녘 꼬르륵 소리
엄마 부르는 소리에도 이리 뛰고 저리 놀고.

늘 보던 책이건만 점점 어려워
시험 없는 세상 꿈꿔보며
어느새 얼굴엔 조그만 부스럼들 걸쭉해진 목소리에
쿵나보다 대들어 보고
철이 좀 들었나 생각에 잠겨도 보고.

이제 너희들의 푸르름 크게 발하고
꽃처럼 밝은 마음 크게 피어 온 세상에 향기를 내뿜어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이 되게
너희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딛어 보거라.
크게 내딛어 보거라

우리 참살이들 하나하나가 간직한 꿈과 희망을 위하여……

따뜻함이 배어나는 인권,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일 줄 알며, 세상을 밝게 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참된 자아를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교사는 그 길을 제시해주고 도움을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지요.

이 작은 일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초등교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고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초등학교 시절에 인권과 배려, 차별, 가치관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 쌓기의 주역은 바로 우리 교사들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은 미래의 주역이 될 참살이들에게 올바른 인권형성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실천 연구를 통하여 아이들이 [고른누리], [도담다담], [너울가지], [꼬까뻘]라는 경험을 토대로 참살이라는 멋진 사람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1. [길라잡이] 를 실천하고

처음 교단에 서던 2002년 3월을 기억합니다. 하루 전날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정장을 입고 얼마나 인사연습을 했었던지….참살이들을 이끌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많은 고민들이 우리 참살이 동산의 일년 뒤 모습을 만들어가겠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이들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나 자신도 참살이지기가 아닌 또 다른 참살이일 뿐입니다.

2. [고른누리] 를 실천하고

자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자신과 우리를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동시에 배려와 차별의 의미를 알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가족과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따뜻한
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3. [도담다담] 을 실천하고

인권에 대해 바로 알고 소극적인 아이들의 성격을 자신감 있고 능동적이게 변
화시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
며, 매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는 참살이가 되기를…….

4. [너울가지] 를 실천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우리의 인권, 역사와 현재를
바로 알고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참살이가 되기를 기대합니
다.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를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 건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
니다.

5. [꼬까뻘] 를 계획하며

다양한 신체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인권보장과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하루하루 한층 더 밝고 더 명랑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 참살이를 마무리하며…….

참살이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맑디맑은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노력합니다. 일년 동안
참살이지기였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참살이 동산의 모두가…….

오래 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 마음이 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서 먼데까지 향기를
날리는 한 송이의 꽃처럼……. 나도 만나는 이들에게 기쁨의 향기 전하는 고운 마음

으로 매일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오래 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 마음이 됩니다. 하늘 높이 떠서도 뽑내지 않고 소리 없이 빛을 뽑어내는 한 점 별처럼……. 나도 누구에게나 빛을 건네주는 별 마음 밝은 마음으로 매일 매일을 살고 싶습니다.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 열다섯 살의 우리 사회 다시 보기



I. 서론	407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07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08
3. 연구의 제한점	408
II. 이론적 배경	409
1. 인권의 개념	409
2. 인권교육의 개념	409
3.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410
III. 인권교육 실천사례	410
1. 자료의 선정	410
2. 수업의 과정설계	411
3. 학습지도안	412
4. 수업 과정 및 결과물	420
IV. 결론 및 제언	422
참고문헌	423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 열다섯 살의 우리 사회 다시 보기

박 희 조 (언남중학교 교사)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학교는 학생의 인성이 형성되는 제 2의 가정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지식은 물론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훌륭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개인의 책임감, 구성원 간의 신뢰감, 서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학습하는 배움터가 학교이다.

현대사회는 점점 사회구성원 간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공격이 난무하고, 그로인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은 점점 더 설 곳을 잃어 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작은 사회’인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돌림(왕따문제), 외모지상주의,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여성과 남성의 차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 배려의 원천인 인권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흔히 접하는 차별을 다룬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를 가지고 학생들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곧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될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존중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언남중학교 2학년 학생들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은 남녀 합반으로 구성된 4개의 학급의 학생들이다. 국어시간을 활용하여 4차시로 계획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특별히 과제를 내주지 않았다. 모든 수업은 45분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시	내 용	방 법
1차시	동물농장	모둠별 이야기하기
2차시	사람이 되어라	모둠별 이야기하기
3차시	육다골대녀	모둠별 이야기 결과 글쓰기
4차시	그 여자네집	모둠별 이야기 결과 글쓰기
5차시	1-4차시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칠판나누기(교실전시회)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시험이 끝난 직후 학생들이 교과 진도에 집중하기 힘든 시기에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된 수업은 아니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었더라면 더욱 깊은 수업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교과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국어과 수업방법중의 하나인 모둠별 토의하기, 모둠별 협력 글쓰기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하는 교과서 내의 단원 구성과 직접적 관련은 없었다. 따라서 평가에 반영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말하기, 쓰기)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더 큰 결과물을 끄집어 내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쳤다. 학생들이 직접 인권과 관련된 UCC 만들기나 소설쓰기, 만화그리기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더라면 더욱 의미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차후에 활용할 계획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헌법이나 세계 인권선언 또는 국제 인권규약 등에 의해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인권은 양도 할 수 없는 생래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누구나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권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의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모든 인간은 차별 받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결정할 자격이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권의 주체가 되므로 학교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면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2. 인권교육의 개념

인권교육(Teaching of Human rights)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향유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며,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것”이다.⁶⁾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교육⁷⁾”이라고 한다.

6) 류은숙, 중등 우리교육, 1998. 11월호, 58-61쪽.

7)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그러므로 학교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 기술과 태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소년 인권교육의 필요성

청소년 인권교육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활동이다. 학교는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학습하는 곳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은 교사의 인격과 학문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준다면 교사와 학생 상호간에 조화로운 학교분위기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교내에서는 물론 이 사회 내에서의 인권의식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다.

Ⅲ. 인권교육 실천사례

1. 자료의 선정



<별별이야기>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자료이다. 우선 학생들이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작업하였다. 질감이 느껴지고 귀여운 클레이 퍼펫 애니메이션이나, 조금은 생소하나 개성있는 디지털 컷아웃 애니메이션, 그리고 수채물감의 느낌이 묻어나는 드로잉 2D애니메이션 등은 학생들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적절한 자극과 흥미,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림이나 캐릭터들이 개성있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영상에 집중하게 된다.

<별별이야기>의 두 번째 특징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의 분량이다. 보통 동영상의 길이가 15분을 넘기게 되면, 학생들의 집중도는 떨어지게 되고, 교사들도 학생

들에게 어떤 처치나 안내를 하기가 힘들다. <별별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든 맞춤 ‘인권수업용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적당히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모습을 풍자하며 꼬집어 내다가 결말부에서는 어느 순간 막을 내리며 ‘생각은 너희가 해봐. 이 다음은 너희들의 몫이야!’라고 말한다. 이때 교사가 학생들에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별별이야기>를 수업 교재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할 지, 혹은 잠시 멈춰야 할 지를 고민하면서 몇 번이고 보고 또 보았다. 수업교재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는 수업 전에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고맙게도 <별별이야기>는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교사에게도 즐거운 안성맞춤 인권수업 교재였다.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평등, 내가 한 번쯤은 겪었던 차별’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고, 부담없이 모둠 토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2. 수업의 과정설계

교과명	중학교 국어	학년 / 학기	8학년 1학기
학습 목표	1)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고 비판하는 말하기(글쓰기)를 한다		
적용 모형	일제 학습 및 ICT활용 소집단 협동학습		
학습 환경	모둠학습실(국어교과실), 5-6인 1모둠,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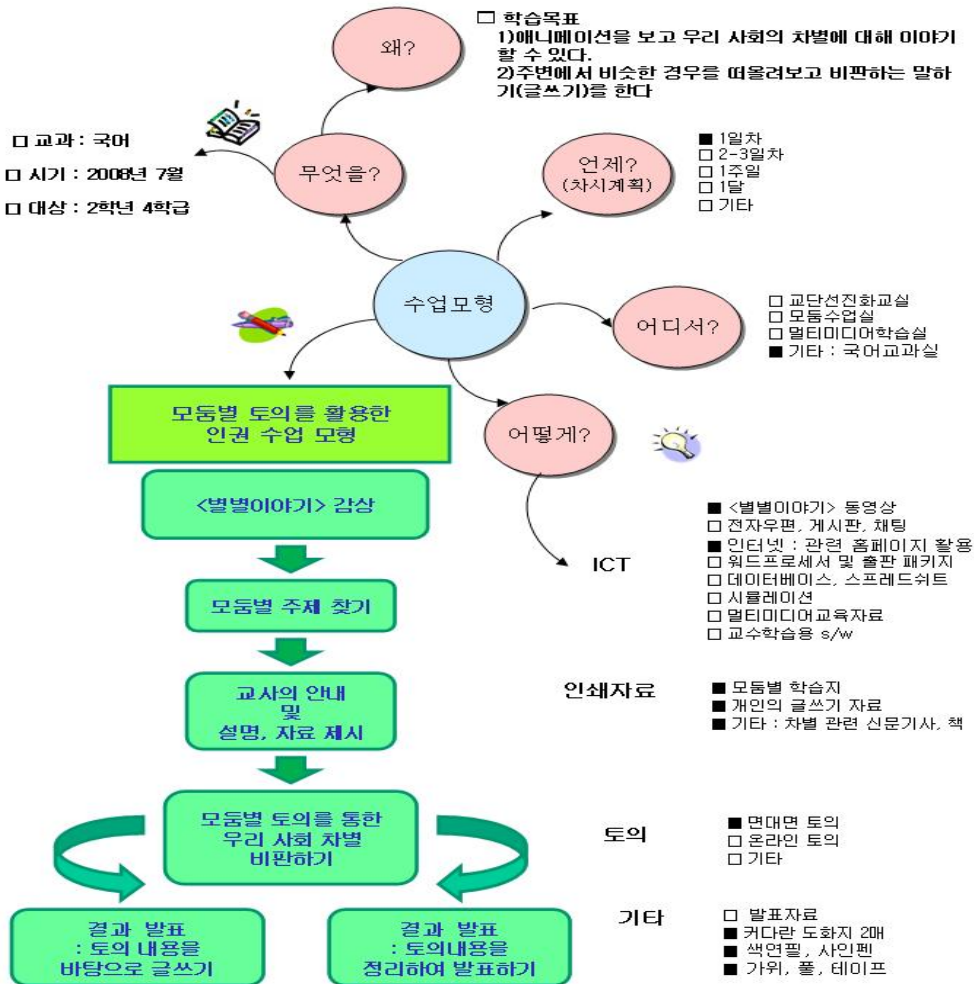
3. 학습지도안

학습 주제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 수업
- 열다섯 살의 우리 사회 다시 보기

수업 개요

‘별별이야기’ 수업 아이디어 구안서 - <모동별 토의를 활용한 인권 수업 모형>



<별별이야기> 수업계획

<별별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별의 모습을 하나하나의 이야기로 담았다. 수업시간에는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차시	<별별이야기>	주제	방법
1차시	동물농장	나랑 다르면 안 놀아?	모둠별 이야기하기
2차시	사람이 되어라	대학가야 사람인가?	모둠별 이야기하기
3차시	육다골대녀	예뻐야만 여자다?	모둠별 이야기 결과 글쓰기
4차시	그 여자네집	여자니까 내가 다해?	모둠별 이야기 결과 글쓰기
5차시	1-4차시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칠판나누기 (교실전시회)		

학습 준비

교 사	학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별이야기> 동영상 · 관련 사진 자료 · 개별 학습지, 모둠 학습지 · 칭찬 스티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기구

교수학습 활동 1

전체 수업 주제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열다섯 살의 세상보기				차시	1/5차시
차시 주제		<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					
학습목표		1)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고 비판하는 편지쓰기를 한다					
모둠 구성방법		이질적 모둠 구성 (5인 1모둠)	보상 방법	칭찬 스티커	준비 물	사진자료, 뽑기 막대기 학습지, 칭찬 스티커	
학습 단계	내용	구조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시간
도입	전시확인	일제학습	-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 학교에서의 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유도한다.				4분
전개1	동영상 보기	일제학습	- 교사는 <동물농장>을 보여준다. - 중간중간 교사가 이야기를 한다. “주인공은 누구지?” “염소는 왜 저러는데?” “염소와 양들은 어떤 관계일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개인학습지 1번 2번	11분
전개2	모둠토의	모둠학습	- 학생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둠별로 이야기 하고, 주제를 찾아 모둠학습지에 적는다.			모둠학습지 1번	2분
전개3	교사의 설명	일제학습	- 교사는 모둠별로 찾은 주제가 적절한 지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예를 몇 가지 들어준다. -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확인한다.			신문기사, 사진	3분
전개4	모둠토의	모둠학습	-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이 평소 느꼈거나 받았던 비슷한 경우의 차별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 동영상의 염소에게 혹은 양들에게 편지를 쓴다.			개인학습지 3번	15분
정리	모둠별 발표	일제학습	- 모둠별로 잘된 글을 한 편 뽑아 발표를 한다. - 역할극으로 꾸며도 좋다.				10분

교수학습 활동 2

전체 수업 주제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열다섯 살의 세상보기				차시	2/5차시	
차시 주제	<사람이 되어라> ; 대학가야 사람인가?						
학습목표	1)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고 비판하는 편지쓰기를 한다						
모둠 구성방법	이질적 모둠 구성 (5인 1모둠)	보상 방법	칭찬 스티커	준비물	사진자료, 뽑기 막대기 학습지, 칭찬 스티커		
학습단계	내용	구조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시간
도입	전시확인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해 본다. - <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 - 왕따 문제 외에도 우리 학교에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4분
전개1	동영상 보기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사람이 되어라>를 보여준다. - 중간중간 교사가 이야기를 한다. “주인공은 누구야?” “학생들을 동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 “선생님의 행동, 어디서 본 적 있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개인 학습지 1번 2번	11분
전개2	모둠토의	모둠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둠별로 이야기 하고, 주제를 찾아 모둠학습지에 적는다. 			모둠학습지1번	2분
전개3	교사의 설명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모둠별로 찾은 주제가 적절한 지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예를 몇 가지 들어준다. -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확인한다. 			신문기사, 사진	3분
전개4	모둠토의	모둠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모둠별로 자신이 평소 느꼈거나 받았던 비슷한 경우의 차별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동영상의 원철이에게 혹은 선생님이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개인학습지3번	15분
정리	모둠별 발표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잘된 글을 한 편 뽑아 발표를 한다. -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10분

교수학습 활동 3

전체 수업 주제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열다섯 살의 세상보기				차시	3/5차시
차시 주제		<육다골대녀> ; 예뻐야만 여자다?					
학습목표		1)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고 비판하는 편지쓰기를 한다					
모듬 구성방법		이질적 모듬 구성 (5인 1모듬)	보상 방법	칭찬 스티커	준비물	사진자료, 뽑기 막대기 학습지, 칭찬 스티커	
학습 단계	내용	구조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시간
도입	전시 확인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을 간단히 이야기 해본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 <사람이 되어라> : 대학가야 사람인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에 있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못생긴 개그우먼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당한 것일까 생각해보도록 한다. 				4분
전개 1	동영상 보기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육다골대녀>을 보여준다. - 중간중간 교사가 이야기를 한다. “조상이 어땠는데?” “그래서 못생기면 안 돼?” “너희가 저런 외모를 가졌다면 어떨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개인 학습지 1번 2번	11분
전개 2	모듬토의	모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듬별로 이야기 하고, 주제를 찾아 모듬학습지에 적는다. 			모듬 학습지1번	2분
전개 3	교사의 설명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모듬별로 찾은 주제가 적절한 지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예 몇 가지 들어준다. -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확인한다. 			신문 기사, 사진	3분
전개 4	모듬토의	모듬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모듬별로 자신이 평소 느꼈거나 받았던 비슷한 경우의 차별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동영상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쓴다. 			개인 학습지3번	15분
정리	모듬별 발표	일제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잘된 글을 한 편 뽑아 발표를 한다. - 역할극으로 꾸며도 좋다. 				10분

< 개인 학습지 >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_____

1. 등장인물을 적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적어보세요.

등장인물	성격이나 특징	나의 생각

2. 동영상을 보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3. 등장인물 중 한명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비판적인 생각이 전달되어, 이들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적어보세요.

_____께

_____ 드림

8) 학습지는 1-4차시 공통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공통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교수학습 활동 4

전체 수업 주제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열다섯 살의 세상보기				차시	4/5차시			
차시 주제		<그 여자네 집> ; 여자니까 내가 다해?								
학습목표		1)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2)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고 비판하는 편지쓰기를 한다								
모둠 구성방법		이질적 모둠 구성 (5인 1모둠)	보상 방법	칭찬 스티커	준비물	사진자료, 뽑기 막대기 학습지, 칭찬 스티커				
학습 단계	내용	구조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시간			
도입	전시화 인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을 간단히 이야기 해본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람이 되어라> : 대화가야 사람인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육다골대녀> : 예뻐야만 여자다?</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	<사람이 되어라> : 대화가야 사람인가?	<육다골대녀> : 예뻐야만 여자다?		4분
<동물농장> ; 나랑 다르면 안 놀아?										
<사람이 되어라> : 대화가야 사람인가?										
<육다골대녀> : 예뻐야만 여자다?										
전개 1	동영상 보기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그 여자네 집>을 보여준다. - 중간중간 교사가 이야기를 한다. “저 여자 뭐하고 있지?” “저 남자는 뭐하고 있는데?” “둘은 어떤 관계일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개인 학습지 1번 2번	11분			
전개 2	모듬토의	모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모듬별로 이야기 하고, 주제를 찾아 모듬학습지에 적는다. 			모듬 학습지 1번	2분			
전개 3	교사의 설명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모듬별로 찾은 주제가 적절한 지 확인하고, 주제와 관련된 예를 몇 가지 들어준다. - 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확인한다. 			신문기사, 사진	3분			
전개 4	모듬토의	모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모듬별로 자신이 평소 느꼈거나 받았던 비슷한 경우의 차별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 동영상의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편지를 쓴다. 			개인 학습지 3번	15분			
정리	모듬별 발표	일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잘된 글을 한 편 뽑아 발표를 한다. - 역할극으로 꾸며도 좋다. 				10분			

모듬 학습지

< 모듬 학습지 >

___학년 ___반 모듬이름:_____

1.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해서 모듬원들과 이야기 해보세요

누가 말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 그럼,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2. 모듬별로 이와 같은 경험, 혹은 이야기를 찾아 적어보세요

3. <개인학습지>3번을 나누어 읽고 누구의 편지가 잘 되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4. 수업 과정 및 결과물

1) 학습자료



1차시 : 동물농장



2차시 : 사람이 되어라



3차시 : 육다골대녀



4차시 : 그 여자네 집

2) 모둠활동



모듬별로 의견 나누기



모듬별 의견 나누기



모듬별로 결과 발표하기



모듬별 역할극 하기

3) 결과지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 학습지</p>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 학습지 > 초학년 9번 3번 이름: 김도연</p> <p>1. 등장인물을 읽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적어보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장인물</th> <th>성격이나 특징</th> <th>나의 생각</th> </tr> </thead> <tbody> <tr> <td>아빠(아나)</td> <td>편안, 친절함, 다정</td> <td>칭찬, 애정</td> </tr> <tr> <td>엄마(엄마)</td> <td>정신 건강</td> <td>말씀, 애정</td> </tr> <tr> <td>할아버지</td> <td>비단 4차선</td> <td></td> </tr> </tbody> </table> <p>2. 등장인물 보고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는 대로 적어보세요</p> <p>아빠! 엄마!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남편도 지켜줄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세요! 말씀 안 돼!</p> <p>3. 등장인물 중 한명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여러분의 비판적인 생각이 전달되어, 이들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적어보세요.</p> <p>남편님께 사랑해 공중보살님! 그동안, 아내가 참 고통스러웠어요! 아내께 있어 아내도 행복해요! 아내도 기쁘게 살아요, 너무 좋습니다 기뻐요! 평생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환생도요. 사랑! 김도연 드림</p>	등장인물	성격이나 특징	나의 생각	아빠(아나)	편안, 친절함, 다정	칭찬, 애정	엄마(엄마)	정신 건강	말씀, 애정	할아버지	비단 4차선		<p style="text-align: center;">모둠 학습지</p> <p style="text-align: center;">< 모둠 학습지 > 초학년 9번 모둠이름: 2박 3일</p> <p>1. 등장인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해서 모둠원들과 이야기해보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누가 말했나요?</th> <th>어떤 말을 했나요?</th> </tr> </thead> <tbody> <tr> <td>강술</td> <td>여자가 돈 많았을 다한다. 많지 않다.</td> </tr> <tr> <td>김대표</td> <td>사실 강대. 유권도 없어야 대변이 있을 것이다. 권력은 그 내신도 생각할 것이다.</td> </tr> <tr> <td>김도연</td> <td>내 친구도 있을 때. 정신을 강하게 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td> </tr> <tr> <td>김성일</td> <td>우리 사회는 안다. 어떤 고장인데 있다</td> </tr> <tr> <td>하지애</td> <td>부권야 한다. 유권도 애도 있어. 팀이랑도 하신다.</td> </tr> </tbody> </table> <p>>> 그럼, 이 등장인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남자책 : '결혼은 누가 해야하냐?' → 합리화!</p> <p>2. 모둠원들 이의 같은 경험, 혹은 이야기를 찾아 적어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도연: 엄마 아빠의 삶처럼 유신도: 배우자 TV 드라마에 나오는 남여의 모습 <p>3. <개인학습지>이름을 나누어 읽고 누구의 편지가 잘 되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p> <p>김도연 편지 비판적인 것이라면 내가 사는 삶이란 것 안아 준다. 요즘 젊은이들 많이 나와 여자 친구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다.</p>	누가 말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강술	여자가 돈 많았을 다한다. 많지 않다.	김대표	사실 강대. 유권도 없어야 대변이 있을 것이다. 권력은 그 내신도 생각할 것이다.	김도연	내 친구도 있을 때. 정신을 강하게 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김성일	우리 사회는 안다. 어떤 고장인데 있다	하지애	부권야 한다. 유권도 애도 있어. 팀이랑도 하신다.
등장인물	성격이나 특징	나의 생각																							
아빠(아나)	편안, 친절함, 다정	칭찬, 애정																							
엄마(엄마)	정신 건강	말씀, 애정																							
할아버지	비단 4차선																								
누가 말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강술	여자가 돈 많았을 다한다. 많지 않다.																								
김대표	사실 강대. 유권도 없어야 대변이 있을 것이다. 권력은 그 내신도 생각할 것이다.																								
김도연	내 친구도 있을 때. 정신을 강하게 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김성일	우리 사회는 안다. 어떤 고장인데 있다																								
하지애	부권야 한다. 유권도 애도 있어. 팀이랑도 하신다.																								
개인학습지	모둠학습지																								

IV. 결론 및 제언

<별별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인권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교재이다. 학교에 충분히 보급하여 그 활용을 유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수업은 <별별이야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차별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차시는 왕따(동물농장), 2차시는 대학입시만을 중요시하는 우리 교육(사람이 되어라), 3차시는 외모지상주의(육다골대녀), 4차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남녀차별(그 여자네 집)에 대하여 수업을 하였다. 각 1차시로 잡았으며 모든 수업은 <영상보기>-<화제 제시>-<모둠별 의견 나누기>-<의견을 모아 글쓰기>-<모둠별로 발표하기>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스쳐

지났던 차별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짧은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차별과 우리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더욱 성숙한 눈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김혜숙, 학생인권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배경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출판 오름, 1997.

○ 학위논문

이승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박사학위 논문, 2000.

황성기, 아동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94.

○ 일반논문

류은숙,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중등 우리교육, 1998. 11월호.

부 록

2008년도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프로그램



부록 - 2008년도 지역별 인권교육 실천대회 프로그램

주 최	호남지역	영남지역	수도권지역 (강원,충청 포함)
일 시	2008.11.24.(월)	2008.11.26.(수)	2008.12. 3.(수)
장 소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부산교대	국립중앙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발표 및 토론회	사례 발표(시연) 및 인권교육 기법 강연	사례 발표 및 토론회

호남지역 (11.24.)	14:00 ~ 17:00
---------------	---------------

-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지역사무소와 지역거점 대학이 공동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인권교육 실천사례대회 본래의 취지와 지역적 요구를 감안해 사례발표와 토론회 형식을 결합시켜 진행함.

일정	주요순서	발표자
전체사회	김철홍(국가인권위 학교교육팀장)	
14:00-14:10	개회 및 격려사	안순일(광주시교육감) 전원범(광주시교육위원회위원장)
제 1 부		
14:10-15:30 (80분)	사회 : 배이상현(송광중 교사)	
	사례1]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인권교육	하정훈(군산해성초교내초분교 교사)
	사례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인권 신장방안	이필우(마산합포고교 교사)
	사례3]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임동현(광주정보고교 교사)
	사례4] 인문학, 전문계 고등학생을 찾아가다	김현(전남대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제 2 부		
15:40-17:00 (80분)	사회 :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발제1]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길라잡이에 대하여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학교교육팀)
	발제2] 학생인권조례 추진배경과 학교인권교육 제도화에 대하여	김재황(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하남중 교사)
	지정토론 1, 2, 3	장휘국(광주시교육위원) 최명자(참교육학부모회) 유선경(청소년단체 회원)
	종합토론	
17:00	폐회	

영남지역 (11.26.)	14:00 ~ 18:00
---------------	---------------

-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범적 인권교육 사례 시연을 통해 인권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친화적 교수기법 강의를 통해 기존의 강의 기법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등록 및 인사말	
제1부 인권교육 나누기			
14:10-15:25	15'	우수실천사례 -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사례 발표)	임동현
	15'	아동·청소년 분야 - 청소년 인권캠프(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김검희
	15'	장애분야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초등교사 교육 (울산장애인식개선센터)	백승미
	15'	여성분야 - 성평등 교육 ‘생활속 성평등 실천하기’ (진주여성민우회)	정윤정
	15'	학교분야 - 교사인권연수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과 차별’ (울산 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제2부 인권교육 공감하기			
15:30-17:10	100'	인권강의 - 인권친화적 교수기법	이재익
17:10-17:50	40'	토의 - 인권교육 실천방안 - 일상적 교육과 인권교육 접목 방안 등	
17:50-18:00	10'	정리	

수도권지역 (11.26.)	14:00 ~ 18:00
----------------	---------------

Ⅰ 위원회 6대 중점과제 관련하여 장애인인권 및 북한인권, 다문화교육, 아동인권, 인권친화적 학급운영 등 4개 주제별로 사례발표와 토론 실시

시 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14:00~14:10	제1마당	등 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등록 및 실천대회 프로그램 자료 수령 Ⅰ 개회인사 및 참가자 인사하기
14:10~16:00		장애인 인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사랑나무미들의 아름다운 무한도전 Ⅰ 나와 다르지 않은 너,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인권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Ⅰ 새터민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한 북한인권 이해 Ⅰ 캠프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사례 Ⅰ 신문 활용 교육(NIE)을 통한 도서관 인권교육
		주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
16:10~17:50	제2마당	다문화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유아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Ⅰ 남양주지역 다문화 인권교육 네트워크 현장 보고서 Ⅰ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인권교육
		인권친화적학급운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인권의 소중함 배우기 Ⅰ <별별이야기>를 활용한 인권교육
		주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Ⅰ 다문화 교육의 이해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모색
17:50~18:00	【 폐회 】 * 60주년 기념 세계인권선언 읽기		

2008년도 인권교육 실천사례집

2009년 3월 인쇄

2009년 3월 발행

발행인 : 안경환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학교교육팀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10층
(을지로 1가 16번지)
전화/(02)2125-9675 팩스/(02)2125-9878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인쇄처 : 리드릭(주)

전화/(02)2269-1919(代)
